

권두칼럼

지역연구 특집 1

지역연구 특집 2

역사산책

CEO 포커스

지방, 무엇을 할 것인가

차기 부산시장의 역점 과제

人文의 미래, 부산의 미래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인터뷰

명사 에세이

조해훈 시인의 지리산 산거일기

심자균 원정 역사유적 답사기

부산 스토리텔링

예술의 풍경, 예술가의 초상

어떻게 지내십니까

김성종 소설가 인터뷰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 인터뷰

地域社會

지역사회

진단과 제언

차기 부산시장의 역점과제



地域社會

통 권 2호

발 행 인 장제국

편 집 인 장지태

발 행 일 2021년 1월 1일

등록번호 사상, 사00004

등록일자 2020년 6월 2일

주 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동서대학교
뉴밀레니엄관 315호

T e l 051) 320-1708

F a x 051) 320-1691

E-mail pusamo21@dongseo.ac.kr

인 쇄 처 CCA

인 쇄 인 정형권

본지는 한국도서잡지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

004 권두칼럼

새해에는 멈춤이 멈추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제국

COVER STORY



006 지역연구 특집 1: 차기 부산시장의 역점 과제

부·울·경 광역연합, 해양수도, 가덕신공항 건설 이끌 리더십 긴요	주봉호
24시간 운영 공항, 동남권 수출입 산업 활성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정현영
국내 1위 외화내빈... 트라이포트 구축해 글로벌 해양도시로	한철환
해양금융전문인력 양성과 해운거래소 설립에 적극 나서야	이기환
금융과 블록체인의 협주, '디지털금융허브' 부산의 미래	장영수
'도시국가 부산'과 'ICT-Driven Mega City' 향해 박차를	김기홍
4차산업혁명 시대 걸맞게 데이터 축적과 변화 시도를	권장욱
Mega-region 계획 통한 공간 창출로 동북아 중심도시 지향해야	백태경
늦춰진 사회서비스원 설립 만전 기하고 복지분권 실행 방안 강구를	남찬섭
지원하되 간섭않는 '팔 길이 원칙' 지키며 자율성 복돋워야	김원명

095 지역연구 특집 2: 人文의 미래, 부산의 미래

<지금, 이곳>의 인문학 체화 통해 부산발 세계인문학 전개를	남송우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골목, 도시의 영혼이 자라고 있는 '곳'	김수우
지역 역사·문화·기질 오롯이 담긴 부산음식, 수용성·개방성 돋보여	최원준
해불안과 바람(願)과 희망... 이제 '우리'와 '과장'을 중시할 때	조봉권

136 역사산책: 부산항 이야기

영국 미국 이양선 정박한 용당포, 해양관광으로 연결을	이용득
-------------------------------	-----



145 CEO 포커스

“4차산업혁명 거센 물결,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미래 준비를”

강병중

158 지방,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내기의 20여 년 지방 생활기

중앙 의존 벗어나 자립 의지로 서울보다 삶의 질 나은 발전전략 펴야

이석봉

168 명사 에세이: 독서와 나의 인생

지혜 가득 찬 책 벗삼아 살며 친절한 법률가로 늘길 소망

홍광식

178 조해훈 시인의 지리산 산거일기

느릿느릿 수작업으로 차밭 가꾸며 시를 뒤고 사노라니

조해훈

189 십자군 원정 역사유적 답사기: 로도스에서 아코까지

피비린내 나는 200년 종교전쟁... 아직도 이 땅의 평화는 요원한 듯

임영호

206 부산 스토리텔링

부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배길남

213 예술의 풍경, 예술가의 초상

“죽기 전에 열 살 때 겪은 한국전쟁 주제로 대하소설 쓰고파...”

김성중

223 어떻게 지내십니까

“코로나 시대 칩거...책 읽고 글 쓰며 세월 닦고 있습니다.”

강남주

새해에는 멈춤이 멈추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 제 국

동서대 총장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창궐로 모든 것이 멈춰 섰던 한 해였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하늘길이 막혔고, 추석날 고향 길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한산했습니다. 자주 들리던 동네 식당 부엌의 가스불은 꺼졌고, 학교 건물은 적막감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야외활동이 뜸해졌습니다. 일상의 멈춤은 우리 얼굴의 웃음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의 멈춤보다 더 심각한 멈춤이 있습니다. 국정입니다. 일 년 내내 반전과 반전을 거듭한 정치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첨예한 진영 간 대립은 나라를 마침내 두 조각으로 쪼개버렸습니다. 상대를 제거하려는 증오의 난장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 살벌해서 보통사람은 함부로 옆에 지나다닐 수도 없습니다. 서민 경제는 이미 바닥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고는 하고,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은 한글가사로 빌보드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사회는 왜 이토록 불안정할까요?

나를 세 가지 이유에서 그 원인을 찾아봅니다.

첫째, 정치의 과잉입니다. 어디 가나 정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큼니다. 정권이 바뀌면 우리 일상의 모든 방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고등교육정책만 보더라도 정치 논리가 정책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대학평가제도는 정권에 따라 그 궤를 달리합니다. 대학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정권이 제시한 이런 저런 장단에 맞추다 보니 교과과정이 누더기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경제 기조가 바뀝니다. 기업들은 정부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치 과잉은 우리 사회 전 분야의 불확실성을 초래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는 국가의 존립 근간이 되는 중요한 문제에서조차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째로 부인하는 듯한 정책이 버젓이 어른거립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의견이 확연히 갈리고 있습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코앞에 있는데도 위기감의 온도가 진영에 따라 다릅니다. 안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가는 미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조차 알가알부가 심각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의 중앙중속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무늬만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민이 뽑지만, 예산은 모두 중앙이 틀어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시장은 중앙부서의 결정권자를 만나러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 중앙논리로 지방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지방 살림살이는 늘 불안정합니다.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내년에도 또 그만큼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말이지요. 하루살이같이 중앙의 시혜만 기대하는 처지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정치과잉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념과잉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움이 더 하여 우리 기업이 마음껏 비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존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국가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국가 정체성이 확실하다 보니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방자치가 융성해지면 좋겠습니다. 마침 4월에 부산시장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장밋빛 공약도 좋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어떤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나를 듣고 싶습니다. 중앙부서와 국회에 문지방 닳도록 다녀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하는 시장보다는, 지금 당장은 빛이 나지 않더라도 먼 훗날 진정한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기반을 다진 시장이라고 평가받을 시장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새해에는 멈춤이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가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학교 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1

COVER STORY : 지역연구 특집 1

차기 부산시장의 역점 과제

총론	부·울·경 광역연합, 해양수도, 가덕신공항 건설 이끌 리더십 긴요	주봉호
신공항	24시간 운영 공항, 동남권 수출입 산업 활성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정현영
항만물류	국내 1위 외화내빈... 트라이포트 구축해 글로벌 해양도시로	한철환
해양금융	해양금융전문인력 양성과 해운거래소 설립에 적극 나서야	이기환
금융산업	금융과 블록체인이 협주, '디지털금융허브' 부산의 미래	장영수
제4차 산업혁명	'도시국가 부산'과 'ICT-Driven Mega City' 향해 박차를	김기홍
관광	4차산업혁명 시대 걸맞게 데이터 축적과 변화 시도를	권장욱
도시계획	Mega-region 계획 통한 공간 창출로 동북아 중심도시 지향해야	백태경
사회복지	늦춰진 사회서비스원 설립 만전 기하고 복지분권 실행 방안 강구를	남찬섭
문화예술	지원하되 간섭않는 '팔 길이 원칙' 지키며 자율성 복돋워야	김원명

부·울·경 광역연합, 해양수도, 가덕신공항 건설 이끌 리더십 필요

주 봉 호

동의대 명예교수
(정치학박사)



1. 시작하며

지난 시절과 시뭇 다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Covid 19는 세계와 삶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직금 문명의 거대한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옛날의 일상사로 돌아가기에는 모든 것이 많이 변하고 있다.

모든 사회적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결국 우리의 몸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가 있는 지역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소환한 크고 작은, 복잡다단한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살펴보고, 부산이 놓여진 현황을 고려하여 차기 부산시장의 과제를 점검해 본다. 부산에는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도 많다. 차기 부산시장은 이러한 숙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해야 할 것이다.

2. 수도권 집중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앙중심의 개발지상주의는 지역의 경제를 더없는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였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 문화와 교육 등 거의 모든 지역적 삶의 영역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남겨 놓았다.

이러한 집중 현상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가나 주 간의 연합으로 형성된 미국, 독일이나 오랫동안 여러 국가로 나뉘어있었던 이탈리아는 수도권 집중이 미약한 편이지만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국가를 이뤄온 영국,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수도권 인구 밀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매우 심하다. 도시순위규모분포이론에 따르면 2위 도시는 1위 도시 인구의 최소 약 1/2는 되어야 정규순위규모분포를 이루는데, 서울과 인구 2위의 부산의 인구(340만) 비율은 거의 3:1이다. 미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4:3이하) 혹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2:3 이하) 또는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3:2 이하)와도 비교된다. 영국의 경우는 2위인 맨체스터권의 인구가 1위인 런던권의 30%가 안되긴 하지만, 대신 영국 전체 인구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인구가 1/6 정도로 그리 비중이 높지 않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 중에서 수도권 집중이 꽤 심하다고 간주되는 나라들보다도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심각한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편중의 결과는 서울과 외국 도시를 비교하는데서도 드러난다. 인구 8400만인 독일에서 최대도시인 베를린의 인구가 360만인데 비해, 인구 5200만인 한국에서 서울은 인구가 1천만이다.

한국은 대기업 본사 95%와 공공기관 80%가, 주요대학 대부분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제 개발 시기에 비해 오히려 상대적인 격차는 심해졌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 고착되면서 도시의 기반 수준이 엄청나게 벌어져 직장 and 학업은 물론, 의료나 문화생활 같은 것들조차 지방이 서울의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게 되었다. 공연/예술 계열은 다른 분야보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명백히 압도적으로 차이가 난다. 제2의 도시이자 최대 광역시인 부산광역시조차도 이런 면에서는 비교하기 힘든데,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수도권의 인구와 지역총생산은 국가 총인구와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고, 지방은 인구가 유출되는 가운데 경제 침체와 삶의 질 하락에 직면하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균형발전을 어렵게 함으로써 지방의 발전 가능성을 위축시켜왔다.

실제로 서울로 향하는 주된 사유는 취업이다. 지방에 청년층을 붙잡을 유인이 별로 없는데, 수도권에 몰려 있는 주요 대학과 일자리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1차적인 원인이며 그로 인해 인프라 수준 차이가 계속 벌어지며 청년들을 더욱 지방에서 밀어내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 때문에 지역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급격히 유출되어 지역의 인구 유출과 지역 경제 몰락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돈과 사람이 계속 돈과 사람을 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와버린 것이다.

서울 시민들은 각종 문화적, 교육적, 정치적 인프라와 수혜를 받지만 그에 따른 그늘도 짙다. 대표적인 것이 땅값과 교통 대란 그리고 환경오염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부동산 거품 논란은 줄곧 있어 온 일이다. 세계 최고치의 인구밀도와 수도권 집중현상, 대한민국의 63%가 산지이다, 부동산 투기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서울로 들어갈 기회만 엿보고 있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들어간 젊은이들은 다시 높은 집값과 생활비로 좌절을 겪으면서 절망하고 있다. 그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애써 모른 척하며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면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이 또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부산의 입지

좁게 보면 부산은 바다와 산으로 연결된 넓지 않은 땅에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넓게 보면 부산은 대륙의 끝이자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출구이기도 하다. 부산은 새로운 문물의 수입과 수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하여 배출하는 재창조의 장소이기도 하다.

부산의 정체성은 흔히들 ‘주변성’으로 특징짓고 있다. 먼저 부산은 중심이 아닌 주변부의 특성을 가지는 도시이다. 부산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구조 속에서는 언제나 수도권에 대비되는 주변부로서의 특성에 길들여져 있다. 부산을 규정했던, 그리고 지금도 규정짓는 것으로 흔히 지칭되는 ‘제2 도시론’은 부산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영원히 제2의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히 중심이 될 수 없는 족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부산의 특징으로 ‘해양성’, ‘개방성’, ‘저항성’을 들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항만을 갖춘 부산은 대항해 시대의 선두로서 해양성을 지니고 있다. 이 해양성은 부산 사람들의 실제적 삶에서는 국제화, 해양·수산 산업, 항만·물류 산업 등의 모습으로 표출된다. 이를 바탕으로 많은 문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성격에 따라 개방성을 지니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그리고 산과 바다, 좁은 땅에 많은 골목길로 만들어진 부산의 지리적 특성은 부산의 저항성을 키우기에 적합한 편이다.

부산이라는 곳이 토착민보다는 다양한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곳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처럼 끊임없이 외부의 것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변화 속에 스스로를 진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변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도모하고 있다. 주체에 대한 자각은 외부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발전을 이끄는 주요 요소다. 부산의 특징은 해양성과 개방성에 근거한 다양한 문화의 수용에 있다. 여기에 '역동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을 발전시킨다면 더 큰 힘으로 발휘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 발전 전략에 있어 주목되는 점은 부산의 지정학적·역사적 이점과 특징을 기초로 부산만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해양성, 개방성, 저항성, 역동성은 부산의 주체성에 맞춰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흔히들 부산을 동북아의 관문이라고 부른다. 지리적으로 볼 때 매우 적절한 표현임에 틀림없다. 한반도가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요충적 역할을 한다면, 그 출입구에 부산이 위치하고 있다. 부산이 있기에 해양과 대륙이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부산만큼 자연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곳은 보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과연 이러한 지리적·자연적 조건을 백분 활용하여 그에 맞는 위상을 누리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사실 부산의 위기가 거론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삶의 질 하락, 차세대성장동력 상실, 저출산과 고령화, 지속적 인구유출, 청년실업, 원전 문제 등이 그러한 위기의 양상들이며, 향후 부산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여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

지금 대내외적인 변화의 시점에서 부산은 과거와 달리 수동적이고 피동적 자세가 아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산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미증유의 공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부산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산의 문화는 다른 문화를 종합하는 능력이 장점이다. 주변의 문화를 아우르는 능력을 확장하여 미래로 세계로 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차기 부산시장의 과제

1) 자치단체장의 역할

분권, 균형발전 및 민주적 지방화는 부산의 지방정치 및 지역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부산이 발전의 주체로서 지역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분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분권은 지방이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워 결국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연방제 수준의 국가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이나 지방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거론되는 당연한 의제이기도 한다.

지방정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는 행정적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지역의 발전전략을 계획하고 이를 집행하는 정부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수장인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과 복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고 책임을 진다. 그러한 의미에서 단체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엄격한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 그리고 변혁의 시대를 이끌 마인드를 견지해야 하고, 공적 가치에 알맞는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즉 공동체를 이루는 시민들과의 상호 신뢰 속에 상호 교감하는 소통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 지역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구현하고 현재의 행복 추구하고 함께 미래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부산시장의 과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에서 부산이 안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차기 부산 시장이 자질과 능력을 겸비해서 담당해야 할 역할과 부산시장에게 주어진 과제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차기시장은 동남권 연대 움직임에 맞춰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갖추고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공화국의 권력 집중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부울

경 광역연합이다. 부울경 광역교통망과 광역경제권을 형성시켜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광역연합은 부울경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교통, 광역경제, 광역문화 등을 특별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별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즉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광역행정통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특별지방정부를 더 선호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저마다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연합체라는 형태로 지구책을 모색 중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의 황폐화뿐만 아니라 인구절벽으로 인한 지역의 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지역 간 갈등을 최대한 양보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지역 간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세계는 부산과 같은 도시들이 서로 협력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부산의 위상을 말해주는 개념으로, 해양수도, 아시아 영상 중심도시, 지식창조도시, 동남권 산업 벨트 중추 도시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확고한 도시 비전은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이다. 부산의 강점이 해양과 항만인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의 수도 서울에 대비한 개념이 해양수도다. 동북아 해양 물류 중심도시, 해양 특별시, 해양 특구 같은 것도 이름만 다를 뿐 해양수도로 가기 위한 전략적 개념에 다름 아니다.

해양산업 중추도시로서 해양수도는 동북아지역에서 해양금융, 해운, 물류, 조선, 수산 등 해양산업 활성화로 각 산업중추 기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부산이 우리나라의 해양수도로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해양비즈니스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및 세계의 주요 해양도시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산이 동북아의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항만, 공항, 철도가 연계되어 입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부산이 명실 공히 한반도의 관문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육해공이 연결되는 소위 '물류 삼합'(Tri-Port)의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부산은 세계 6위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허브항만을 구비하고 있다. 이 항만과 연계하여 24시간 운영하는 공항운영체계를 준비하고, 바다와 하늘을 연계하여 물류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어서 항만, 공항, 철도를 연계하고 교류망을 확충하여 복합수송체계를 완비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후일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면, 시베리아횡단철도(TSR)로 연결되어 바이칼호수를 지나 베를린을 경유하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부산은 유라시아철도의 출발지점이 되는 것이다. 그런 날을 그리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신공항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세계적인 공항 입지 추세가 장애물과 소음이 없는 해안과 해상에 건설하는데, 그런 면에서 가덕도는 두가지 중요한 요건을 갖춘 천혜의 입지로 손색이 없다. 일본의 오사카 간사이공항, 나고야 부근 주부공항, 홍콩공항 등 세계 주요 공항이 좋은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관문공항은 항공·여객 수요의 폭증에 대처하고 가장 중요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며 소음 피해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민의 오랜 고통을 보듬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관문공항의 필요성이다.

신공항은 동남권 물류거점과 중국 상하이권, 일본 규슈권과의 연계라는 거시적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일본과의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동남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시너지효과를 효율화하고, 남해안 지역의 상호 연대를 위해 '남해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방안도 구상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중앙언론들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연일 비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어찌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을 선도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부분의 기사에서 수도권 중심주의와 서울중앙의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은, 현재 한국언론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부산은 동아시아의 해양관광과 문화의 거점으로 발돋움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융합형 레저선박, 해상어드벤처타워, 해양관광레저체험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리고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성공과 국제회의 개최도시 곧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시 전략에 연착륙하러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0년 11월에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따라서 한국의 남방 정책과 더불어, 동남아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로서의 부산의 역할이 기대된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북극해빙 면적(arctic sea ice extent)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북극항로 접근성이 증대되고 국가들간 자원탐사 및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은 새로 개척되고 있는 북극 항로의 허브항이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북극 항로는 획기적인 항로 단축으로 머잖아 해운 물류의 신천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산은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북극항로, 자연개발, 조선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은 산지가 많고 해안선을 끼고 있어 전국에서도 도로율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자동차가 급속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와 주차장을 늘리는 정책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풀어갈 해안이 요구된다.

부산이 해결해야 될 사안은 이렇게 산적되어 있다. 이런 많은 현안들을 시장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장기간의 시간이 요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의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차기 부산 시장은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여 당면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김덕삼, "거대 부산 전략 시론(試論)," 『港都釜山』 제32호, 2016.5.

김영일, "지역학으로서 부산학과 시민의식," 『OUGHTOPIA』 27(1), 2012.

나종만, "지방정치의 위기와 지역민주주의: 부산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56, 2015.

이홍중, "해양수도 부산의 정치경제학: 동아시아 해양거점도시," 『국제정치연구』 제22집 2호, 2019.

장제국, "동북아 정치·경제적 지각변동: 부산의 국제화와 연계하는 구상 필요," 『부산발전포럼』 145, 2014.

《국제신문》, 2020.11.25, 12.1.

《부산일보》, 2020.8.10, 9.23, 10.7.

"서울공화국," <https://namu.wiki/w/%EC%84%9C%EC%9A%B8%20%EA%B3%B5%ED%99%94%EA%B5%AD> (검색일: 2020.11.20.)

5. 마무리

시대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또한 동시에 중앙집중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주체가 되어 바꾸어 나가려는 명확한 인식과 분명한 문제해결 의식이 필요하다. 결국 부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주인으로서의 의식을 정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부산의 과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부산발전의 첩경으로 보인다.

주봉호 프로필

정치학박사로 동의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행정정책학 전공 교수를 거쳐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21세기정치학회 회장, 한국세계지역학회 부회장, 한국민족통일학회 부회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정치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24시간 운영 공항, 동남권 수출입 산업 활성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정 현 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1. 가덕신공항의 상황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종래 김해신공항 계획을 검증한 결과 법취지를 위반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부산, 울산, 경남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으나 20년 가까이 정치적 갈등 아래 표류 되어오다가 김해신공항 계획의 백지화로 이제 그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0년 11월 20일 부산을 중심으로 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이어 26일 여당 국회의원들도 특별법을 발의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2020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부울경 시도지사, 상의회장이 참석하는 동남권신공항 추진 영상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거듭 요청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하고, 부울경 국회의원 7명과 조웅천 국토위 간사가 참석했다.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제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울경의 가덕신공항 건설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여야의 가덕신공항특별법이 병합처리되게 노력하겠다”라며 가덕신공항에 대한 여당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줬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부산시민은 20여 년 넘게 신공항 문제로 희망고문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또다시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지만, 다행히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불가 판정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어 이제야 시민들을 뵈 면목이 생겼다”며 “무엇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통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변 대행은 또 최근 가덕신공항을 정치쟁점화하려는 분위기에 대해 “가덕신공항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덕신공항의 정치쟁점화를 막아달라”라며 호소했다.¹⁾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화물 항공기의 자유로운 이착륙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향후 국토 남부권과 부·울·경 지역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부·울·경 지역에 신산업의 창출과 기존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다.



2. 가덕신공항의 역할

국토부가 제안해온 종래의 김해신공항은 우리나라 제1의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에 긴급 사태가 발생해 운영이 불가할 경우, 여객과 물류 처리에 일정한 역할수행이 가능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수행이 불가함이 밝혀졌다. 새로이 건설되는 가덕신공항에서는 인천공항 재난발생 시 대체기능이 충분히 가능해야 하고, 미주와 유럽노선 등 장거리 항공기의 이착륙이 자유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여객용 항공기보다 이륙 중량이 더 높은 화물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화물항공기의 자유로운 이착륙이 가능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지역에서 수 시간에서 수십 시간 내에 세계 어디라도 화물 운송이 가능하기에 물류수송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약이 될 것이다.

가덕신공항의 24시간 운영은 동남권 지역의 수출입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국가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24시간 운영 공항은 24시간 이내에 유럽과 미주지역에 대량의 화물 운송이 가능하며 특히 긴급을 요하는 중요 제품의 수송과 가볍고 고가인 첨단 제품의 수출·화물 수송 역할이 가능해진다. 가덕신공항 인근 지역에는 화물 항공기를 활용하여 수출하는 제품들의 생산공장과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부·울·경 지역 산업들의 변화를 일으키게 할 것이다. 아울러 24시간 운영 공항에 의해 해외의 정보와 문화·예술·패션 등이 신속히 전달됨으로 사회, 문화 전반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1) 부산광역시 보도자료(2020-12-01),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가덕신공항은 생존 문제, 정치쟁점화 막아달라”.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3. 공항복합도시와 광역교통망

3-1. 가덕신공항과 공항복합도시

사람과 화물의 신속한 이동은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으로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의 확보는 국토 남부권지역 여객과 화물의 해외 이동을 한층 더 신속하게 할 것이고 공항 주변 지역을 변모시킬 것이다. 특히, 관문공항 인근 지역은 신속하게 해외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수출입상품을 보관·정리하는 물류와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더없이 좋은 산업부지가 될 것이다. 또한,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를 이용한 수출 상품에 있어서 경박단소(輕薄短小)하면서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상품의 생산지로서도 가치가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로 인근 지역은 토지이용이 변화되어 수출상품의 생산공장 등으로 토지 가치가 향상되고 변화된 토지가 새로운 수출입 항공화물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구조가 될 것이다. 토지이용의 새로운 수요가 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고 특히, 수출입 화물 증가에 따라 대량의 물류시설 정비와 운영으로 공항 인근 지역은 국제무역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신공항 인근 지역에는 대량의 물류시설이나 수출상품의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과 운영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관문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은 가볍고 고가인 집적회로나 반도체 및 고가의 전자장비 등의 수출입 첨단산업 제품과 재료의 생산을 위한 공장 용지 수요 증가로 새로운 산업단지가 형성될 잠재력이 있다. 생산된 제품 역시 항공기를 활용한 즉시 해외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신공항 건설로 인한 새로운 산업입지 확대는 대량의 노동력이 요구되어 근로자가 증가할 것이고 대량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이다. 대량의 고용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로 이어지고 근로자의 일정 수는 공항 주변에 거주해야 하기에 공항 주변에 주거 수요 역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상업업무 시설 수요 증가로 지역의 거주인구가 현재보다 증가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공항복합도시가 형성되어 나아갈 것이다.

3.2. 가덕신공항과 광역교통망 확충

가덕신공항 건설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남북방향의 교통축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국토 남부권의 동서방향 교통축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국토 남부의 영남과 호남지역의 교통축에는 교통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지역과 비교해 교통인프라가 열악하여 시간과 비용 손실이 막대하고 불편이 가중되어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 상대적인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국토 남부권 여객과 화물의 해외 이동 신속성 강화,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KTX 남해선의 확충은 동서지역 연결성 강화와 교류 확대를 위한 최적 대안이 될 것이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KTX 남해선의 확충, 남부 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과의 연결 등은 남부권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감소시킬 기회가 되리라 본다.

또한, 부·울·경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울·경 인접 지역 간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광역철도 노선과 도로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인접 지역 사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 SOC 정비는 부·울·경 지역 메가시티 수립의 기초 시설이 된다. 가덕신공항의 확보는 KTX 남해선 확충 등 동서지역 간 교통망 확충의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부·울·경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의 기회가 될 것이다. 부·울·경 지역의 국제교통망과 국내 교통망의 강화는 남부권 지역에 새로운 산업들이 유발될 것이고 기존 산업들이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어 국토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덕신공항은 빈부의 격차,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것이다. 공항에 접근하기 위한 육상교통의 인프라 확충은 열악한 남부권 지역의 교통시설 확보의 계기가 되며 관문공항 개항으로 유럽과 미주대륙의 새로운 접근성 창출과 향상은 양 대륙에 수출길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관문공항 유치는 남부권 지역에 항공기를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 산업 유치의 계기가 되어, 결국 교통시설의 공급이 새로운 산업 수요를 창출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첨단 산업의 유치는 전자, 정보, 통신, 컴퓨터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부·울·경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나 지방대학 및 연구 기관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동남권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는 젊은 청년층의 지역 거주를 증가시키고 수도권으로 인구유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의 집값 상승 완화요인이 되고 우리나라 주거문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울·경 지역의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의 공급은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가덕 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상, BDI>

4. 가덕 신공항 운영과 지역 산업의 혁신

4-1. 항공 관련 산업의 육성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조차 설계 때 항공정비 등과 관련된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항공기의 수리, 정비, 개조) 산업이 고려되지 않아 정비 격납고 증설, 업체 유치 등을 위한 주변 여건조성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운휴 중인 여객기조차 정비가 진행 중인 데다, 방역물품, 해외직구 등 항공화물 운송이 늘어나 항공기 수리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비의 품질 저하 등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항공 MRO 수요 규모는 작지 않은 편인데(2017년 기준, 2조 4,000억 원대) 대한항공을 제외한 국내 항공사들은 외주 수리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아시아나 65%, 기타 LCC 90%), 외주 수리는 거의 100% 해외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면 부산은 핵심 기계부품 산업과 주변 동남권과의 연계성 등 산업적·지역적 강점을 바탕으로 '선진국형 항공부품 산업 허브'로의 도약 잠재성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다. 특히, 가덕신공항과 연계해 MRO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공항 설계단계부터 대규모 MRO 산업단지의 원활한 구성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MRO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도모가 가능하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통해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항공부품·항공정비(MRO)산업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4.2. 새로운 산업과 신성장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고용인력의 창출

실제로 인천국제공항 운영과 활성화로 인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집중 유치되면서 지방과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포틀랜드시와 피닉스시 등이 새로운 국제공항의 유치로 공항 인근 1시간 이내 지역에 수많은 전자·통신·정보 회사가 유치되었고 고용과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현재 부산 경제는 전기자동차와 반도체와 같은 미래 신성장산업²⁾ 분야마저 수도권뿐만 아니라 동남권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크게 뒤떨어지

2) 신성장산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한 12대 신산업 중 수출 품목코드가 부여된 전기자동차,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첨단신소재, 차세대 반도체 등 9개 품목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덕도 관문공항과 연계하여 항공기를 활용한 화물 수출이 용이한 전자, 정보, 반도체, 통신, 에너지 로봇 관련 산업의 유치에 필수적이라 하겠다.

4.3. 급변하는 세계 물류 환경에 따른 트라이포트 체계 구축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항만·철도와 함께 ‘트라이포트(Tri-Port 항만·철도·공항)’가 구축돼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지로 떠오를 것이다. 국내 항만·물류의 80%를 차지하는 부산항 북항·신항이 있고, 유라시아 철도 가·종착지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에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까지 구축되면 물류 허브를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다.

부산시는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세계 물동량 처리 6위 항만, 유라시아 철도 등과 연계돼 동북아 물류중심지를 이끄는 트라이포트가 완성된다고 2020년 12월 1일 밝혔다. 부산시는 세계 2위 환적 항만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해상화물을 가공·조립한 후 항공으로 수출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자유물류도시에 3400개 기업을 입주시키고 7만 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³⁾

실제 물류 서비스 산업 간 영역의 파괴,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물류 기능이 복합화, 지능화, 다양화로 전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2020년 4월까지 국내 항공운송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채널의 변화(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구매 증가 등)가 가속화되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해외 거점별 국제물류센터(GDC: Global Distribution Center)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글로벌 물류센터(GDC)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항만과 연계한 도로, 철도 및 항공운송이 결합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 구축이 필수적이다. 가덕신공항 건설 때 수요 전환 및 환적 화물을 유치하기 위해 GDC를 건립하여 DHL, 페덱스 등 특송항공사 유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철도 및 도로를 이용한 항공 화물에 대해 항공기로 신속하게 환적이 가능하도록 환적 장치시스템의 확보가 필요하

3) 《국제신문》 2020-12-02 “가덕 건설 땀 ‘트라이포트(항만·철도·공항)’ 완성…동북아 물류허브 부상”

4)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출 물류 동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0.06.17.)

다. 특히 트라이 포트 시스템 구축의 완성을 위해서는 해상을 이용하여 공항에 접근해 오는 해상화물에 대해서 항공기로 원활한 환적을 하기 위한 접안 시설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4. 비즈니스 및 관광의 활성화

가덕신공항의 확보는 유럽과 미주노선의 장거리 여객기와 항공 화물기의 자유로운 이착륙을 가능하게 해 국제교류와 컨벤션 및 관광리조트 기능, 학술연구, 문화예술 기능이 부·울·경 지역에서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MICE산업은⁵⁾ 도시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의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고, 일반 관광과 비교해 수익성이 높아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큰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비즈니스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부산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 문헌

- [1] 『가덕신공항 건설이 가져올 동남권 경제의 미래』 부산상공회의소, 2020.10.
- [2] 특집, 부산대개조, 동남권 신공항, 정현영, 부산발전연구원, 2020.02.28.
- [3] 『항공MRO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19.10.
- [4]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출 물류 동향』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0.06.17.
- [5] 『부산 글로벌 전자상거래 해상물류 허브 구축』 부산연구원, 2020.09.14.
- [6]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의 전략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9.10.23.
- [7] 『항공화물 김해서 처리 못해 90% 타 공항 이용...관문공항 절실』, 《국제신문》, 2020.6.18.
- [8] [사설] 중국 물류·의료·관광 3대 협력 제언, 부산 도약의 계기로, 《부산일보》, 2020.09.13.
- [9] 『품목별 수출통계로 본 부산지역 신성장산업 위상과 과제』 부산상의, 2020.08.06.
- [10] WORLD AIR CARGO FORECAST 2018-2037, BOEING, 2018

5. 결어

24시간 운영하는 가덕도의 관문공항의 유치는 국토 남부권 지역과 동남권 지역에 철도와 도로교통망을 확충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항공기를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경박단소의 첨단 산업 유치와 기존 산업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의 혁신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관련 분야를 전공한 부·울·경 출신대학 졸업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국토 남부권과 동남권 지역의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의 공급은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감소시켜 우리나라 주거문제 완화에도 기여하고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차기 부산 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순위를 가덕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에 두고,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정현영 프로필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로 부산대 공과대학장,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장을 역임했다. 부산광역시청 도시계획위원회, 해양수산부 교통영향심의위원,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사)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 이사, 24시간 안전한 신공항 촉구 교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교통시스템』을 편저했다.

5)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네 분야를 통틀어 말하는 서비스 산업

국내 1위 외화내빈... 트라이포트 구축해 글로벌 해양도시로

한 철 환

동서대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장



도시의 미래가 인류의 미래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도시의 등장과 함께 본격화되었다. 도시의 패러다임은 18~19세기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도시, 20세기 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한 서비스도시 그리고 21세기 현재 모바일 플랫폼 혁명을 통한 플랫폼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도시는 인재를 끌어들이고 사람들과 일자리를 연결하며,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본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경제 엔진 역할을 해온 도시의 새로운 도전과 극복과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왜 사람과 기업들은 도시로 몰리는가?

오늘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도시가 세계 GDP의 80%를 생산해 내고 있다.¹⁾ 해마다 영국 전체 인구에 맞먹는 6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고 있다. UN 예측에 따르면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2/3인 70억 명이 도시에 거주할 전망이다. 기업들도 사업 확장이나 공장 설립 시 도시의 물적·인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왜 사람과 기업들은 도시로 몰리는가? 인구 유입과 기업 이전(또는 창업)은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다. 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응집, 그에 따른 지식 창출과 혁신 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 이전과 투자가 활성화된다. 도시에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들면 창의적 사고, 지식의 파급효과, 신기술의 개발 등이 발생함은 물론, 거대시장으로서 교역과 상업활동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샌프란시스코의 정보통신산업, 보스턴의 바이오산업, 런던의 금융산업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1) World Bank, 2017.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가 글로벌 항만도시 성장 요건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글로벌 기업의 유치는 도시발전과 직결된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기업과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도시매력도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항만도시도 예외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항만과 도시 간 연계 발전방안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해사클러스터(maritime cluster) 정책을 통해 해운항만 및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는 생태산업단지(industrial ecosystem)나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같은 항만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정책이다. 셋째는 노후 항만지역을 재개발하는 워터프론트(waterfront) 개발사업이 그것이다.

외화내빈의 항만도시 부산

그렇다면 동북아 해양수도를 목표로 하는 부산의 현실은 어떠한가? 부산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일번지로 사업체수는 전국 대비 30.4%이며, 이중 해운항만업은 56.4%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전국 대비 26.4%이며, 이 가운데 해운항만업이 31.2%로 압도적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 해양업체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매출액은 전국 대비 19.5%에 불과하다.²⁾ 여기에 고령화 현상까지 더해져 부산지역 전통 해양산업은 새로운 환경에 따른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세계 6위를 자랑하는 부산항의 컨테이너항만 순위도 조만간 중국 항만들의 추격으로 뒤쳐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야말로 지난 25년간 부산은 해양수도를 외쳐 왔지만 실상은 외화내빈인 상황이다.³⁾

해외에서 바라본 해양수도 부산의 현실

노르웨이 컨설팅회사인 메논(Menon)이 발표한 세계 해양수도 평가보고서를 보면 부산은 세계 10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⁴⁾ 해운, 해운금융과 법,

2) 부산지역 해양산업의 경우 종사자수 1~4인 미만의 기업이 77%, 5~7명 13%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김미영, 「동삼혁신지구 연계 해양산업 Boost Belt 조상방안」, 제7회 부산정책포럼, 2019)

3) '해양수도'라는 용어는 1995년 「부산도시기본계획(1996-2011)」에서 최초로 언급되었고, 이후 2002년 「해양수도 21 기본계획」과 2006년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서 부산의 비전을 '21세기 동북아 시대의 해양수도'로 설정한 바 있음. 2009년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로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2018년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4) Menon Economics, The Leading Maritime Capitals of the World, 2019.



세계 최고의 해양수도로 평가 받고 있는 싱가포르항

해사기술, 항만물류, 도시매력도 5개 부문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19년에는 싱가포르가 세계 최고의 해양수도로 인정받았고, 그 뒤를 이어 함부르크, 로테르담, 홍콩, 런던 등 전통적인 해양도시들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와 홍콩 외에 상하이(6위), 도쿄(8위)가 포함되었고 부산은 10위권에 턱걸이하였다. 부산의 경우 5개 부문 가운데 해운센터기능에서 13위, 해운금융과 법 13위, 항만물류 7위, 도시매력도/경쟁력 14위를 차지하였고 조선 및 선박기자재 분야의 경쟁력을 인정받아 해사기술부문에서 4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과 발틱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가 전 세계 43개 항만도시를 대상으로 항만시설, 해운서비스, 일반환경요인(정부 투명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3개 부문 18개 지표를 평가한 2020년 세계해운센터개발지수(ISCĐ)를 보더라도 부산은 10위권 밖에 머물고 있다.⁵⁾ 아시아 항만도시로는 싱가포르가 2014년 이래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홍콩, 상하이가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지리적 입지 우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해운생태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7년 연속 세계 최고의 해운중심지 지위를 누리고 있다.

해양도시 부산, 무엇이 문제인가?

이처럼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내지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물동량 중심의 정책에 기인한

5) Xinhua/Baltic Exchange, Xinhua-Baltic International Shipping Centre Development Index Report, 2020.

바 크다. 부산항은 세계 6위 컨테이너항만으로 로테르담항보다 약 700만 TEU(2018년 기준)의 화물을 많이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규모로는 로테르담항의 4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부산항이 부가가치가 높은 항만연관산업보다는 하역 및 단순 보관업무에 치중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제는 항만시설의 양적 성장에 비례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상하이 등 세계적인 해양도시들은 항만물동량뿐만 아니라 배후물류단지 활성화, 선박등록, 선박중개, 해사중재, 컨설팅 등 해운서비스 제공, 선박금융, 해양관광, 조선 및 해양플랜트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둘째, 해운항만분야의 혁신역량 부족을 들 수 있다. 이제 단순한 해상화물 운송이나 하역작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기술의 적극적 활용과 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셋째,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 해운 강국들은 정부 주도로 장기비전과 목표를 설정하여 착실히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제해운센터전략(IMC 2030), 영국의 Maritime 2050, 덴마크의 Maritime Denmark, 네덜란드의 Dutch Maritime Strategy의 공통점은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장기전략,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First Mover 전략, 클러스터 기반의 산업육성정책,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추진 프로세스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한진해운 파산 이후 2018년부터 정부가 해운재건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이란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그래도 부산의 미래는 바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 세계 주요 기간항로상에 위치하여 국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70%를 처리하고 있는 국내 제1의 항만물류산업, 전국 해수욕장 방문객의 90%를 차지하고 국내 크루즈관광객의 30%를 차지하는 국내 제1의 해양레저·관광도시, 동삼혁신지구에 입주해 있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과 전문인력 그리고 국내 최대 수산업 전진기지 등 부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의 인적 물적 자원은 단연 국내 최고이다. 여기에다가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인 북항재개발 사업과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건설까지 부산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재료는 준비되었으니 이제 는 훌륭한 요리사가 적절한 레시피에 따라 맛있게 요리하면 된다.



부산시의 트라이포트 구상도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시 북항재개발 조감도
(출처 : 부산광역시)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과제

갈수록 치열해지는 도시경쟁의 시대에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륙과 해양의 연결점이라는 천혜의 지정학적 입지를 기반으로 부산신항, 동남권신공항, 대륙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하여 동북아 복합물류허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2026년까지 부산항 신항 30개 선석을 완공하고, 제2신항인 진해신항(15개 선석)을 2022년 착공하여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⁶⁾ 또한 최근 김해공항 확장안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재검토로 결정이 나면서 정치권에서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

라 가덕신공항의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바야흐로 부산신항, 가덕신공항 그리고 대륙철도(TSR 시베리아횡단철도, TCR 중국횡단철도)까지 연결된다면 부산이 명실상부한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글로벌 복합물류허브로서의 물적 토대를 갖추게 될 것이다. 여기에 부산 강서지역, 경남 김해와 창원 등에 이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트라이포트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스마트산업단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단지를 연계한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세계적인 물류비즈니스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인 북항재개발 사업을 발판으로 글로벌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 현재 공정을 70% 수준인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동북아 해양관광거점으로 개발하고,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을 통해 금융, 비즈니스, R&D가 특화된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자성대부두, 부산역과 부산진역, 좌천동과 범일동 일원을 대상으로 항만, 철도, 원도심까지 포괄하는 사업이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시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6)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 2020. 11

문제는 북항재개발의 상업적 난개발에 대한 우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항재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를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서 국비투입 비중은 13.8%였는데, 2단계 사업의 국비 투입비중은 5%대로 더 줄어든 전망이다. 이럴 경우 민자유치에 따른 상업적 개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2030 부산 월드엑스포와 연계하여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수출입 관문도시로서의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와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이라는 상징성 등을 근거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해사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육성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산의 항만물류산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고부가가치화이다. 단순한 화물의 하역과 보관에 한정된 전통적 사업방식으로는 글로벌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어렵다. 해운항만 관련 국제기구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과 보험, 선박중개, 해사중재, 연구개발, 교육훈련, 컨설팅 등 부가가치가 높은 해사비즈니스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문현금융단지를 선박금융특구로 지정하여 국내외 금융기관들을 유치함으로써 해양금융특화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동삼혁신지구에 입주한 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국립해양조사원(KHOA) 등 세계적 수준의 해양 관련 연구기관들 간 협력을 통해 해양과학기술(MT), 해양바이오(MB) 등 해양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레저관광 도시로서의 발전이다.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개장에 따른 세계적 수준의 크루즈터미널 외에 북항재개발을 통해 확보한 부산항기념관, 근대문화역사공원, 테마전시관, 해양레포츠 콤플렉스, 오페라 하우스, 마리나항만 등 다양한 해양관광문화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다면 포스트코로나시대 동북아 해양관광거점으로서 부산의 미래도 밝을 것이다.

부산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가는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우수한 지리적 입지와 물류 인프라는 갖춰졌다. 이제는 어떤 콘텐츠로 이를 채워나갈 것인지가 우리 앞에 놓인 과제이다.

한철환 프로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0년 간 근무했으며, 동서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학장(국제물류학과 교수)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한국항만경제학회 회장과 한국경제학회 영남지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해운항만산업의 미래 신조류(공저)』가 있으며, 현재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금융전문인력 양성과 해운거래소 설립에 적극 나서야

이 기 환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및
해양금융대학원 교수



1. 머리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년에 발표된 해양경제에 대한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에 이르게 되면 세계해양경제규모가 미화 3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4천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밝히고 있는 등 해양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이들 산업에 소요되는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되고 운용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계 상업은행을 비롯해 각국의 상업은행이 해운기업에 자금을 신규로 제공하는 것을 기피하기 시작하면서 해양산업의 한 축인 해운업이 자금조달에 큰 애로에 직면하게 되었고, 조선산업도 침체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정기선사였던 한진해운이 재무구조 취약 등으로 결국 파산하게 되었고 여러 중소조선소들이 문을 닫는 형국에 이르렀다.

앞으로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해양금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에서 해양산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와 투자시점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된다. 즉 해양산업에 정통하면서도 금융을 잘 아는 인재들이 많이 육성되고 금융기관에 많이 진출하여 관련 기업의 여신 심사 등을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부산은 2009년 서울과 더불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후 해양금융의 특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해양금융을 다루는 금융기관이 상당히 집적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기관으로 2018년 여름에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양금융부서를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재배치하여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도 부산의 해양금융 발전의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정책에 의해 부산에 일부 공공금융기관이 이전하면서 해양금융공급이 확대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 실현으로 부산은 우리나라 해양금융중심지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반을 기초로 이제는 아시아의 해양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부산이 아시아 해양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기로 한다.

2. 부산금융중심지의 현재 위상

부산의 금융산업 위상은 글로벌 수준에서 볼 때 여전히 많이 부족하여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서울에 비하면 그 위상이 매우 뒤처지고 있다. 부산 금융산업의 비중은 전국 대비 5~6%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부산의 지역총생산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그럼에도 부산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을 육성하기에는 부지 확보 등 한계가 있어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때 금융업의 육성은 고급일자리를 창출하고 우수한 인재를 부산으로 몰려오게 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차원에서 부산은 2008년 정부의 금융중심지육성책에 부응하여 서울과는 달리 해양금융과 파생금융을 특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여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었다.

중앙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은 후 부산의 정책당국과 학계 그리고 관련 업계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부산금융발전 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온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당초 계획한 것이 모두 다 실현되지 못한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표 1>은 영국의 Z/Yen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금융중심지지수(GFCI) 보고서(2020)에서 발췌한 것인데, 여기서 보면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시아에서는 상하이가 종합순위 3위로 뉴욕과 런던 다음으로 높은 순위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도쿄도 상하이 다음인 4위로 보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두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은 각각 25위와 40위로 나타난다. 특히 상하이는 금융발전 부분에서 3위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홍콩사태가 발생하면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그 위상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Z/Yen이 2007년 처음 GFCI를 발표할 당시에는 부산은 이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후 많은 IR 활동과 금융 관련 국제세미나를 다수 개최하면서 부산의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널리 알린 결과 2015년에는 부산의 GFCI지수(17회)가 24위로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금융중심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표 1> 아시아의 주요 금융중심지 종합순위 및 각 영역별 순위

	종합순위	사업환경	인적자원	인프라	금융발전	명성
상하이	3	9	7	9	3	6
도쿄	4	13	9	3	11	5
홍콩	5	3	3	5	5	4
싱가포르	6	6	5	4	4	3
베이징	7	8	10	8	8	8

주: 서울은 25위, 부산은 40위로 보고되고 있음.

자료: Z/Yen(2020), The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28.

한편 <표 2>는 우리에게 금융하면 싱가포르와 홍콩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싱가포르 및 홍콩의 몇몇 영역을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실물경제면에서는 이 두 도시국가에 비해 뒤지지 않으나 해외기업의 유치나 금융중심지(GFCI 기준)로서의 위상은 많이 처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해외 유수 기업의 아시아 지역본부가 싱가포르나 홍콩에 주로 입지하고 우리나라에는 극히 일부만 유치되고 있어 금융의 국제화가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으로 서울과 부산이 글로벌 수준의 금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등을 대폭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도시의 금융관련 규제 등 각종 인프라가 글로벌 수준으로 정비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2>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싱가포르, 홍콩 및 한국의 위상 비교

구분	싱가포르	홍콩	한국
유치 해외기업 수 (아시아 지역본부)	4,200	1,389	93
무역규모(2018)	7,777억 달러 (세계15위)	1조 2,077억 달러 (세계 7위)	1조 1,443억달러 (세계 9위)
FDI	776억 달러 (세계5위)	1,157억 달러 (세계3위)	145억 달러 (세계21위)
해외투자(ODI)	371억 달러	852억 달러 (세계3위)	389억 달러 (세계11위)
글로벌금융중심지수 (2020년 9월)	세계 6위	세계 5위	세계 25위(서울) 세계 40(부산)
컨테이너 처리(2017)	세계 2위	세계 6위	세계 5위

자료: 이승신 외(2019), 『홍콩 시위 사태의 영향 및 시사점』 KIEP.

3. 부산의 해양금융 위상

2008년 가을 중앙정부에 부산이 해양금융을 특화하겠다고며 신청서를 준비할 때 부산에는 해양금융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해양금융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금융기관도 전무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해양금융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은 울산-부산-거제-통영을 잇는 동남벨트에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소와 조선기자재 기업이 집중되어 있고, 또한 세계 주요 정기선사의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주요 수산물 집적지이기도 하고 수산물 가공산업이 비교적 발달한 것에서 착안을 하여 부산의 해양금융 특화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추진하게 되었다.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무렵 즉 2007년과 2008년에는 세계적으로 해운이 호황을 시현하면서 신조투자 규모가 각각 미화 2,620억 달러와 1,77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의 80% 이상이 유럽 금융시장에서 조달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으며, 세계해양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해양금융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이 분야에 대한 노하우 부족으로 우리 금융기관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우리 금융의 국제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조선과 해운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양금융의 육성이 긴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후 부산은 해양금융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부산에는 해양금융기관이 집적화되고 해양관련 R&D기관이 다수 입지하게 되어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부산시는 오래 전부터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표 3>은 노르웨이의 Menon경제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해양도시에 대한 자료인데, 먼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위상을 보면 세계에서 4위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해사기술, 해운 및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각각 1위, 8위로 평가되고 있어 해양력이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해양도시의 범주로 한 단계 좁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한국 전체의 해양산업 순위에 비해 6단계가 낮은 10위의 도시로 보고되고 있다. 주요 도시별로 보면 싱가포르가 세계 1위, 함부르크가 2위, 로테르담이 3위, 홍콩이 4위 그리고 런던이 5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 해양수도의 순위를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영역은 해운, 해양금융 및 법률, 해사기술 등인데 부산은 해사기술과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해운과 해양금융 그리고 도시경쟁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앞으로 부산의

해양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운기업의 육성과 유치 그리고 해양 금융 및 법률의 육성과 발전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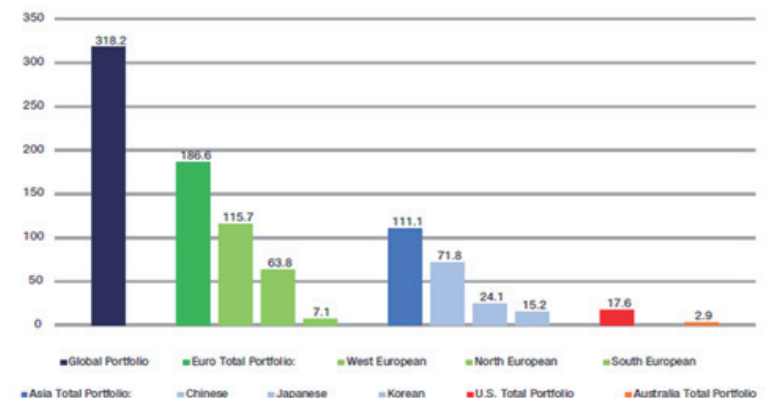
<표 3> 아시아 주요 해양도시의 해양산업 영역별 순위

도시	종합	해운	해양금융 및 법률	해사기술	항만물류	도시경쟁력
한국	4	8	10	1	8	-
부산	10	13	13	4	7	14
싱가포르	1	1	5	8	1	1
홍콩	4	4	4	13	3	7
상해	6	5	8	7	4	12
동경	8	6	6	5	8	11
두바이	9	11	12	14	6	10

주: 한국에 대한 순위는 해양산업에 대한 것으로 2018년에 발표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음.
 자료: Menon Economics and DNV·GL(2019), The Leading Maritime Capitals of The World.

[그림 1]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세계금융기관이 제공한 해운금융에 대한 자료로 주요 국가별 여신규모(잔액기준)가 보고되고 있다. 해운기업에 제공된 금액이 미화로 총 3,182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유럽권에서 제공한 금액이 1,866억 달러로 58.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권에서 제공한 규모가 1,111억 달러로 34.9%를 점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국이 718억 달러를 제공해서 세계해운금융시장의 22.5%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52억 달러를 제공해 4.9%를 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박건조시장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에 소요되는 자금제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업의 위상에 버금가는 금융의 제공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부산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양금융의 육성과 발전은 정책 당국에 의해 지속적이고도 대담하게 추진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다.

[그림 1] 세계 각국 금융기관의 해운금융 제공금액의 국가별 규모



자료: Marine Money(2018.8/9).

최근 그리스의 Petrofin(2020)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운금융 대출 세계상위 40대 은행의 총여신 잔액은 2019년 말 현재 총 2,944억 달러이다. 프랑스의 BNP Paribas은행이 약 180억 달러를 제공하여 가장 많은 해운 대출을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독일의 KfW은행이 167억 달러, 세 번째로는 중국의 중국은행(Bank of China)로 165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93억 달러와 55억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4>는 우리나라의 선박금융규모의 추정과 정책금융기관 및 상업은행의 선박금융 제공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우리나라의 연간 선박금융규모는 적게는 53억 달러에서 많게는 293억 달러까지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가장 많은 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조사되고 있는데, 최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2019년에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하여 그 기능이 본격적으로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구조조정자금으로 SL&B를 통해 해운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표 4> 우리나라의 선박금융규모 및 금융기관별 제공규모

(단위: 미화 억 달러)

	2015	2016	2017	2018
우리나라 선박금융규모 추정(연간)	262	53	195	293
한국수출입은행(잔액)	153	141	101	87
한국산업은행(잔액)	46	51	50	14
한국무역보험공사	34	21	6	14
한국자산관리공사*	0.97	1.03	2.27	1.93
한국해양진흥공사(억원)**	-	-	-	7,763
상업은행(억원)	3,996	2,121	1,100	1,400
부산은행(억원)	488	682	882	미확인
선박펀드(SIC)(억원)	1,141	2,585	745	미확인

주: * 한국자산관리공사사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9억 8983만 달러(1조 1,362억원)를 제공하였음(http://www.kamco.or.kr/home/renewal/bi/01_03_01.jsp).

**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018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4조 162억원을 지원함.

자료: 전형진 외(2019) 및 금융감독원 내부자료(2018).

Menon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부산이 해양금융센터로서의 역할과 실제 해양금융제공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해양도시로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굳히고 있으나 해양금융중심도시로서는 아직 확고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이후 정부와 부

산이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공해양금융기관의 집적은 어느 정도 형성되었고, 또한 해양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이 개설되는 등 상당히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해양금융중심도시로서의 입지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더욱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을 구사하여 부산의 해양금융 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아시아 해양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 전략

장정인 외(201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해양경제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약 339억 달러로 GDP의 2.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선의 경우 300억 달러 이상의 수출규모를 달성하고 있고 해운도 200억 달러 이상의 외화획득을 실현하고 있는 등 해양관련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5>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부문의 총산출, 부가가치 그리고 취업자 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총산출 규모가 약 150조원에 이르고 취업자 수도 약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해양산업의 육성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부문별 총산출·부가가치·취업자 수(2015)

(단위: 조 원, 만 명)

부문	총산출	비중	부가가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수산물 생산	7.4	5.0%	2.9	7.6%	5.1	8.6%
수산물 가공	9.7	6.5%	1.6	4.1%	4.4	7.4%
수산물 유통	5.7	3.8%	3.0	7.8%	8.0	13.4%
해운	32.9	22.2%	6.9	18.1%	5.6	9.4%
항만	4.4	3.0%	2.1	5.5%	2.9	4.9%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59.7	40.3%	7.7	20.0%	12.1	20.3%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5.9	4.0%	1.6	4.3%	1.7	2.8%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4.6	3.1%	2.0	5.2%	2.0	3.3%
해양수산 레저관광	1.1	0.8%	0.5	1.4%	1.0	1.6%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16.6	11.2%	10.0	26.0%	16.8	28.2%
계	147.9	100%	38.4	100.0%	59.6	100.0%

자료 : 장정인 외(2019), 「KMI 동향분석」 VOL.133.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부응하여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때 해양금융을 특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그와 관련한 다수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에 옮겨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해양금융

공금융기관이 부산으로 집적하는 성과를 거두고 해양금융전문인력 양성 대학원도 출범하여 부산이 앞으로 아시아의 해양금융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해양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양관련 산업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이 우리보다는 여러 여건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해양금융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부산이 아시아의 해양금융중심지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산의 해양금융발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전문가들에게 AHP를 통해 조사한 결과(이기환 외, 2016)를 중심으로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 것이 해양금융 관련기관의 집적이었는데,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질 때 해양금융종합센터와 연계된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풍부한 자본의 형성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해양금융 제공 공공금융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로는 조선해양산업의 클러스터가 제시되고 있어 영도에 입지해 있는 해양 R&D 기관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해운기업의 유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Menon의 보고서에서도 부산이 해운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앞으로 우수한 항만인프라를 갖고 있는 부산으로 해운기업이 이전해 올 수 있는 정책을 구사하는 것도 요구된다. 네 번째로는 ICT 등 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비용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과 더불어 부산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해운운임지수의 개발 등을 통해 해운업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해운거래소의 설립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부산의 관문공항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하며 24시간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는 공항 건설에 긍정적인 정책결정을 내놓고 있는데 이의 실천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많은 신조를 발주하는 선사들이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선사들인데 이러한 해외 선사들이 부산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는 것은 부산이 해양금융 제공처로 발전하는데 매우 긴요한 인프라로 생각된다. 더 자세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이기환 외(2016)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표 6> 부산의 해양금융 발전을 위한 정책 중요도

1계층 요소	중요도	2계층 요소	중요도		순위
			Local	Global	
해양금융 발전	0.371	해양금융 관련기관 집적	0.400	0.134	1
		해외금융기관 입지	0.162	0.055	10
		자본의 확보	0.311	0.104	2
		고용 및 경제적 산출	0.127	0.043	12
정부지원/ 기타	0.175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	0.423	0.063	7
		지방정부 지원 및 관계기관의 관심도	0.152	0.023	15
		정치적 안정과 법규	0.148	0.022	16
		제도 및 규제 환경	0.278	0.042	13
비즈니스 환경	0.248	조선·해양 산업 클러스터	0.315	0.090	3
		숙련된 인적자원 확보	0.217	0.062	8
		비용 및 조세의 경쟁우위	0.254	0.073	5
		산업의 경기(거시경제 상황)	0.214	0.061	9
인프라	0.206	주거 및 사무실 공간	0.150	0.034	14
		ICT & 교통	0.326	0.075	4
		공항의 입지	0.239	0.055	11
		의료 및 교육환경	0.285	0.065	6

주: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 조사 분석 결과임.

자료: 이기환 외(2016), p.169.

5. 맺는 말

2009년 초 해양금융 및 파생금융의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나서부터 부산은 여러 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해양금융의 육성과 발전에 있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2018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동시에 부산에 입지한 점 그리고 2014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해양금융 부서가 부산으로 이전해 해양금융 종합센터가 설치된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 해양금융을 취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산에 위치하면서 부산은 이제 해양금융의 제공에 있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부산에 입지해 있는 해양금융기관의 협력으로 해양금융의 수단이 보다 다양화되고 새로운 해양금융상품이 개발되어 우리 해양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해운, 조선 및 금융을 함께 이해하는 우수한 해양금융전문 인력의 양성일 것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운임 등 시장위험변동이 큰 해운

등 해양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금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해 해외 인재의 영입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그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함부르크와 같이 해운관련 기관과 기업이 부산으로 집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에 옮겼으면 한다. 특히 여러 해 전부터 해운시장 위협의 관리 차원에서 해상운임지수 개발 등을 위해 ‘해운거래소’의 설립이 논의되어 왔는데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의 글로벌화가 더 진전되어 해외금융기관이 다수 입지하고 그렇게 하여 협조용자 등도 활발하게 부산에서 형성되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결과적으로 해양금융특화를 통한 부산의 발전은 부산의 동북아 해양수도정책과도 부합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와 부산이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기환 프로필

영국 맨체스터경영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경영학박사, 기업재무전공),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1995년부터 한국해양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학내에서 해양금융대학원 설치를 주도했으며 교무처장과 국제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저서로는 『선박금융원론』이 있으며 벤처캐피탈과 해양금융의 분야에 80여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정책자문위원회 해운물류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위원,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 등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참고 문헌

- 이기환·김명화·양혁준(2016), 『해양금융 중심도를 위한 부산의 발전요인 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32(3), 155-175.
 이승신 외(2019), 『홍콩 시위 사태의 영향 및 시사점』, KIEP.
 장정인 외(2019),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KMI 동향분석』, VOL.133.
 전형진·윤희성·윤재웅(2019), 『국내외 해운금융 비교를 통한 국내 해운금융 역량강화 방안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Menon Economics and DNV-GL(2019), The Leading Maritime Capitals of The World.
 OECD(2016), The Ocean Economy in 2030.
 Z/Yen(2020), The 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 28.

금융과 블록체인의 협주, '디지털금융허브' 부산의 미래

장 영 수

한국예탁결제원 수석변호사



들어가며

지방의 위기다.

1996년 부활된 이래 35년의 연륜이 쌓인 현행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안고 있는 법제적 미비점을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다. 지방자치는 경제·문화·교육의 자립을 통해서만 완성된다 하겠는데, 이들 영역에서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비례하여 인구의 수도권 유입과 고령화 현상, 급격한 출산을 하락까지 더해져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이 지방위기의 대표적 징후를 부산에서 본다. 지난 수년간 부산은 광역지자체 중 인구감소를, 특히 지역성장의 동력이라 할 20대에서 30대에 이르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율에 있어 수위를 접하여 왔다.

더 큰 문제는 미래경제를 이끌 신성장산업 부문에서 부산의 위상은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와 비교해도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이다(연합뉴스, 2020.8.6일자). 시대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 이를 이끌 전략산업 생태계 구축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은 부산경제의 앞날마저 어둡게 한다. 우리나라의 제2대 도시요, 대륙과 대양의 관문인 부산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60년에서 80년대에 걸친 경제개발 시대에 신발과 섬유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부산경제의 재도약은 불가할까? 그렇지 않다. '글로벌금융중심지 부산'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산'이라는 두 매혹적 호재를 결합한 '디지털금융허브'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국제금융전문가로서 오랫동안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을 자문해 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에서는 부산시의 이들 사업의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디지털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금융, 금융산업, 그리고 '국제금융중심지' 부산

금융은 돈의 흐름, 자금의 유통이다. 그리고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하여 금융을 중개하는 비즈니스가 금융산업이다. 금융산업이 일국의 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지정이 부산에, 나아가 한국경제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차례로 살펴보자.

1) 국가전략 산업, 금융의 힘

1980년대 제조업을 바탕으로 경제최강국 미국을 맹추격하던 일본을 좌절시킨 것은 Goldman Sachs로 상징되는 미국의 막강한 금융산업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쇠락의 길을 걷던 영국의 경제를 되살린 것 역시 금융의 힘이다. 1986년, '빅뱅'(Big Bang)이라 불릴 정도로 과감한 금융개혁을 통해 영국은 런던을 국제금융중심지로 부상시켰고, 영국경제는 찬란하게 부활하였다. 이는 곧 금융은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임과 아울러, 국가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이 국가경쟁력이다.

금융산업은 또한 전·후방산업이 결합되어 시너지를 창출하는 지식집약적 클러스터 산업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는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업을 중심으로, 법률(로펌)·회계(회계법인) 등이 전방에, 청산기관·중앙예탁결제기관·교육기관 등이 후방에 위치하는 거대한 지식 집적체이다. 이 지식 클러스터에서 금융전문인력은 배출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창출된다.

2)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추진 현황

과거, 정부주도의 제조업 부양을 통해 고도성장을 도모해온 우리나라에서 금융산업이 자생(自生)할 토양은 척박하기만 하였다. 뒤늦게나마 금융의 힘을 자각한 정부는 2003년 12월, '동북아 금융중심지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정부주도로 한국을 동북아 3대 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비전의 선언이었다. 이어서 2008년, 금융중심지 구축 노력을 법제화하기 위해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중심지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9년, 서울과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였다.

금융중심지 지정이후 부산의 가시적인 성과는 문현금융단지라는 물적 기반의 조성이다. 그 제1단계는 2011년 한국은행과 부산은행 등이 새 건물에 입주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문현금융단지의 랜드마크 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완공되어 한국예탁결제원을 비롯한 5개의 공공기관이 입주했다. 30여개 기관, 약 4,000명이 일하는 타운이 조성된 것이다.

이어 2018년도에는 2단계 업무시설이 완공되어 약 30여개의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를 완료하였다. 금융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대·한국해양대 금융대학원이 문을 연 것 또한 이 즈음이다. 이와 같이 금융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물적 집적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문현동에 위치한 부산국제금융단지. 한국은행·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우리나라 핵심 금융인프라가 집결된 금융클러스터이다.

2. 블록체인, 그 현재와 미래, 그리고 ‘블록체인특구’ 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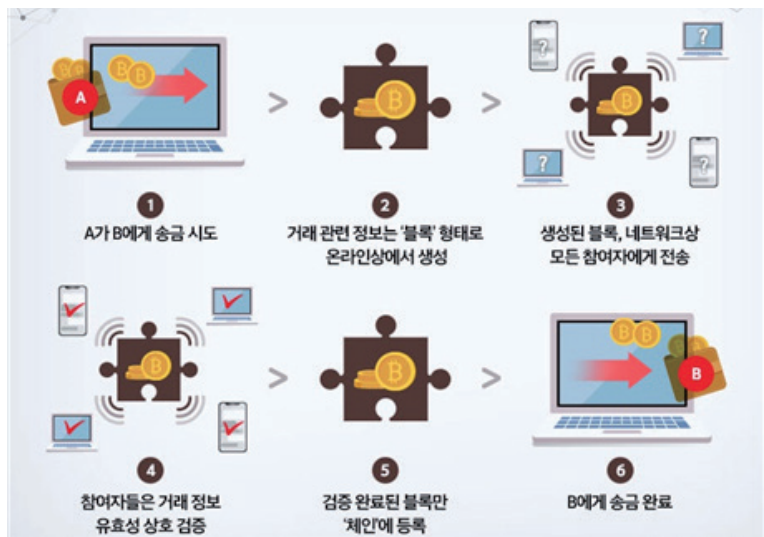
1) ‘차세대 인터넷’, 블록체인

“I’ve been working on a new electronic cash system that’s fully peer to peer, with no trusted third party.” 2008년 10월 31일, 암호학 전문가 수백명은 위의 이메일을 받았다. 발신인은 정체불명의 사토시 나카모토. 그의 주장, 즉 ‘신뢰가능한 제3 기관 없이 개인 간 거래(Peer to Peer, 'P2P')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화폐시스템’이 장차 세상을 바꿀 블록체인 기술의 시작이었음을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블록체인(blockchain)은 말 그대로 블록(block)과 블록의 연결(chain)이다. 그렇다면 블록이란? 개별 거래정보를 담은 데이터 단위이다. 그 특징점은? 중개자(금융거래인 경우 은행 등)의 개입 없이 시스템내에서 참여

자간 직접 거래(P2P)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른바 ‘탈 중앙화’), 그리고 모든 시스템 참여자(peer)가 블록과 블록으로 연결된 거래장부(원장)를 공유하는 ‘분산원장 시스템’(distributed ledger)¹⁾이란 점 등이다. 요컨대, ‘시스템 참여자(peer) 간 직접 발생한 거래를 데이터화 한 블록이 ‘해시함수’(hash function)라는 기법을 통해 암호화 되어 다음 블록에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다.

왜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산업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하는가? 왜 ‘차세대 인터넷’이란 말로 블록체인에 열광할까? 차례로 살펴보자.



블록체인의 형성(거래) 과정. 개인 간 거래(P2P)가 블록을 형성하고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참여자들의 검증을 거친 후 체인에 등록된다.(이미지 출처 : 삼성반도체이야기)

2) 블록체인의 파괴력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2011년 10월, 소프트웨어 공학자 Marc Andreessen이 Wall Street 기고문을 통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 선언의 유효기간은 10년을 넘기지 못하였다. 주어진 ‘Software’가 Blockchain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레토릭(rhetoric)처럼 블록체인은 세상을 삼키고 있을까? 그 개념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1) ‘분산’원장보다는 ‘공유’원장이 블록체인 본질에 좀 더 부합한다. 시스템 참여자(peer)는 자신의 거래단위(블록)뿐 아니라 참여자 모두의 블록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다만 ‘분산장부’의 사용이 일반화된 이상 본고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한다.

우선,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시스템'이다. 이는 거래를 매개하는 중개자가 없이 당사자간 직접거래(P2P)가 가능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중개자가 필요한 모든 산업에 블록체인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블록체인은 또한 장부기술이다. 중앙통제방식에서 그 장부는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되지만,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참여자에 의해 분산(정확히는 '공유')되는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장부기록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될까?

나아가 블록체인에서의 관리되는 장부는 절대적 보안성과 무결성을 지닌다. 이른바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을 통해 모든 거래내역이 개별 노드(node)에 의해 검증되고, 분산시스템의 원리에 의해 모든 참여자가 장부를 공유함으로써, 중앙통제방식에서 발생 가능한 조작이나 해킹 등의 위험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그 의미는? 전산시스템의 보안을 요하는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이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블록체인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기반기술로 작용할 것이다.

3) 부산의 천재일우(千載一遇), '블록체인특구'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부산시가 지정되었다(2019.7.14일, 중소벤처기업부). 무엇을 뜻하는가? 디지털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법, 가령 전자금융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화물운송법 등에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해양물류·여행과 영화·공공안전·금융 등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사업화가 부산에서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해양물류를 사례로 들어보자. 수산물의 생산자(어민)·유통자(판매자)·소비자 등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에 peer 또는 node²⁾로 참여한다. 그 플랫폼에서는 해산물의 원산지·신선도·유통과정(위치정보) 등 모든 이력이 담겨 참여자에게 실시간 제공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각 참여자간 거래에 수반되는 계약 또한 이 플랫폼 내에서 자동 체결된다. 시스템에 내장된 일정한 계약조건들(terms & conditions)이 충족되면 작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다.

2) 개별 참여자를 지칭할 때는 peer, 참여자의 개별 시스템(컴퓨터)을 의미할 때는 node가 정확한 용어이다.

국제 해양물류에서 블록체인의 위력은 더욱 배가된다. 수출국·수입국의 관세청·해운업자 등 당사자가 늘어나고, 그 만큼 절차는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을 적용하면 그 모든 절차는 이음새 없이(seamlessly), 빠르고 투명하게 처리된다. 그 뿐이 아니다. 수출입에 수반되는 법률 서류들, 가령 선하증권(B/L)·신용장(L/C)등도 디지털화 된다. 국제 상거래의 고질적 문제인 신용장의 위·변조와 사기출금 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시간과 비용 절감은 불문가지다.

이 막강한 블록체인의 규제자유특구라는 기회를 부산은 잡았다. 이는 곧 부산이라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에서 기술혁신 기업들이 경험해 온 규제라는 장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할 디지털 경제 생태계를 부산이 선제적으로 구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도래할 디지털 경제, 그 핵심적 기반기술로 작용할 블록체인 산업을 선점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부산이 거머쥔 것이다.

3. 금융과 블록체인의 조우(遭遇), ‘디지털금융중심지’ 부산

1) 왜 금융과 블록체인인가?

블록체인의 확장성은 무한하나, 이의 최우선 사업화 영역을 묻는다면 그 답은 금융산업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금융은 돈의 흐름이요 가치의 이전이다. 블록체인 또한 종전의 데이터 아키텍처에서는 불가능했던 가치이전이 가능한 기술이란 점에서 금융의 속성을 닮았다.

둘째, 금융업의 본질은 ‘중개’다.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에서는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이 돈과 증권을, 간접금융(indirect financing)에서는 상업은행(commercial bank)이 돈과 돈을 중개한다. 블록체인은 중개자를 제거하고 당사자간 직접거래(P2P)를 가능하게 한다. 요컨대, 금융이 블록체인화 될 때, 금융 중개자가 제거되어 그 위력은 극대화 된다.

셋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의 거래대상은 디지털화 된 무형의 자산이다. 금융의 대상은 무엇인가? 돈이다. 그리고 그 돈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계좌에 무형의 비트와 바이트 형태로 바뀐 지 오래다.

넷째, 블록체인시스템에서 거래장부는 모든 시스템 참여자에게 분산저장(공유)됨으로써 그 보안성이 극대화 된다. 금융산업의 해묵은 숙제는 ‘금융보안’이다. 금융기관(중개자)이 투자자의 금융자산을 서버에 집중·독점하여 관리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금융산업의 이 해묵은 숙제, 즉 금융보안의 문제를 분산방식을 통해 간단히 해결한다.

2) ‘금융중심지’와 ‘블록체인특구’의 시너지

세계는 지금, 금융의 블록체인 체제 편입으로 분주하다. 이른바 ‘DeFi 혁명’ 혹은 ‘중앙화 금융(CeFi)의 탈중앙화 금융(DeFi) 전환’ 이 이를 대변한다. “비트코인은 마약상이나 범죄자들이 사용할 엉터리”로 비난하던 글로벌 금융거인 JP Morgan은 지난 2019년 5월 가상자산을 보관적격 자산으로 승인함과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에게 계좌발급을 허용했다. 디지털 화폐에 회의적 시각으로 일관하던 한국은행은 올 들어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도입을 위해 개념증명(POC) 작업에 착수했다.

이 ‘블록체인 금융’의 시대에 부산이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되었다. 부산지역에서 블록체인금융의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패키지화 된다는 의미다. 블록체인과 금융이 결합된 디지털금융허브의 마중물이 부산에 마련된 것이다.

4. 금융중심지 10년과 블록체인특구 1년의 반성

기막힌 조합이다. 이 핀테크 혁명의 시대, 전통적 레거시 금융이 디지털 금융으로 이행(移行)되는 시대에 금융 중심지로, 그리고 그 금융의 디지털화를 위한 최적 기술인 블록체인특구로 부산이 지정된 것 말이다.

이 절호의 기회를 부산은 선용하고 있는가? 실상은 ‘참혹’하다. 부산국제금융단지(BIFC)는 조성되었으되, 정부의 ‘강제이주’에 떠밀린 금융공기업만 입주했을 뿐, 시장의 주된 플레이어로 기능해야 할 국내외 금융기업들의 부산이전사례는 드물다. 민간부문을 유인할 앵커기능을 BIFC는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정부는 무책임했고, 부산은 무기력했다.

1) 정부의 무책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산업은행·수출입은행, 이들의 공통점 무엇일까? 부산으로 이전했었거나, 이전한다면 목적지는 부산이어야 할 공공금융기관이다.

정부가 지정한 금융중심지는 서울과 부산뿐이다. 서울 소재 금융공기업이 이전한다면 그 목적지는 부산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2015년 정치논리로 전주로 이전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에 포함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두고는 모든 지자체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이 유치전에 ‘금융중심지 부산’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는 수수방관이다.

더욱 기가 찬 일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의해 제기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약이다. 부산은 물론 서울도 금융중심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3의 금융중심지 공약은 무책임을 넘어 공허하기까지 하다.

2) 부산의 무기력

중앙정부만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책은행의 유치를 두고 지자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현재는 물론,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도, ‘제3금융중심지’ 논의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의 일이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정부의 선언적 방침에 그치지 않는, 규범성을 띤 행정행위다. 힘겹게 부여받은 이 특권을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선용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의 유치 실패가 뼈아프다. 7백조원이 넘는 자금을 운용해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운용을 총괄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부산에 이전하였다면 연관산업인 유수의 국내의 자산운용사 유치도 한결 쉬웠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대상에 포함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의 유치전에 뛰어든 각 지자체에게 ‘금융중심지 부산’은 뒷전이다. 부산이 ‘권리위에 잠자는’ 사이 금융중심지 부산의 ‘규범성’은 희미해져만 가고 있다.

5. 부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부산금융중심지 10년, 부산은 금융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에 실패하였다. 금융 공공기관의 ‘비자발적’ 집적만이 ‘성과’ 일 뿐 민간금융시장이 함께 발전하는 낙수효과(waterfall effect)는 미미하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불씨도 여전하여 부산금융중심지의 확장성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지역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블록체인특구의 포괄적 규제샌드박스 는 아직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1) ‘디지털금융허브’ 지향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모바일 혁명은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결과하였다. 핀테크(FinTech)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이후 IT는 지급결제·금융데이터 분석 등의 영역에서 전통적 레거시 금융을 혁신하였다. 그에 그치지 않고 IT는 이제, 독자적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여 금융회사 업무를 자체 처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본질이 IT라 할 블록체인의 열풍이 핀테크의 영토를 더욱 확장할 것임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다. 장부기술이며 가치이전 기술인 블록체인의 최우선 적용영역이 금융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블록체인의 핵심 개념인 P2P 기능은 장차 금융회사의 본연적 기능인 중개기능을 잠식할 것이고, 중국에는 디지털금융이 레거시 금융을 대체할 것이다.

레거시 금융에서 부산이 또 다른 금융중심지인 서울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향후 핀테크를 추동할 블록체인, 그리고 그 블록체인과의 최적 융합 산업인 금융을 부산은 동시에 거머쥐었다. 향후 전통 금융을 대체할 디지털금융허브를 향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뜻이다.

2) ‘금융중심지 부산’의 내실화

2009년 정부가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한 것은 단순한 ‘선언’이나 ‘방침’에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규범성을 띤 행정행위이다.

그럼에도 현재 부산금융중심지의 규범성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과거 국민연금 이전 시에도, 미래 국책은행 이전 논의에도 ‘금융중심지 부산’은 뒷

전이다.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 금융 거래의 중심지'를 조성하여야 할 정부의 의무(금융중심지법 제2조)를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금융은 국내외 금융회사·회계법인과 법무법인·교육기관과 IT업체 등이 집적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클러스터 산업이다. 부산금융중심지 성공은 부산이라는 지역경제 발전을 넘어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적 어젠다이기도 하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국책은행의 목적지는 부산이 되어야 한다.

'금융중심지 부산'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일각에서는 좀 더 규범성이 강한 '부산금융특구' 지정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히 틀린 말은 아니나, 지금같이 무기력하고 안일한 태도로는 '부산금융특구'인들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까? '부산국제금융중심지'의 규범성을 자각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선도하는 부산시, 부산정치권의 리더십 회복이 우선이다.

3) '블록체인특구'의 실효화

2019년 7월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법(지역특구법)에 따라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하였다. 블록체인의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부산지역에서 패키지로 완화하여, 부산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혁신기업들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기능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부산에서는 현재 관광·해상물류·공공안전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 규제샌드박스에 힘입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상용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 역내에 한정된 지역화폐를 제외하고 전국단위의 암호화폐 공개(ICO) 또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을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증권형 토큰(securities token)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여 제도권 내로 편입한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이의 발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정부의 일관된 태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은 정부의 안일하고 불민한 태도가 블록체인특구 부산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에 소재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지역특구법상 포괄적 규제특례를 받아 증권형 토큰의 발행이 가능하고, 그 결과 수많은 혁신 스타트업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부산에 모여들 규범적 공간이 생긴 것이다. STO에 대한 위법도 적법

도 아닌 ‘무법’의 상태는 역설적이게도 부산이라는 지역단위의 규제자유 특구의 적용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그 특례가 지역특구법에 의하지 않고, 여타 규제샌드박스 근거법에 의하는 때 발생한다. 가령 작년 STO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카사코리아라는 회사가 좋은 사례다. 이 회사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부동산 유통화 수익증권을 증권형 토큰 형태로 발행하였는데, 이의 특례를 인정한 근거법은 지역특례법이 아닌 금융혁신 특례법이었고, 그 특례를 적용한 부처는 지역특례법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아닌 금융위원회였다. 부처 간의 권한 다툼에서 중기부가 패배한 것이다.

요컨대 지역특구법에 근거하여, 중기부가, 부산이라는 지역단위로 블록체인 규제를 완화할 때, 비로소 금융블록체인의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가 ‘블록체인 특구’ 부산에 구축될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고 화급하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한시적이다. 2024년에 종료된다.

4) 협력과 연대의 근원, 겸허(謙虛)

“부산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계, 그리고 금융유관기관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 합니다” 부산국제금융중심지 10주년 기념식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부산국제금융중심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정책결정권자인 중앙정부와, 시장의 백오 피스를 담당하는 BIFC입주 공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그의 주문과 달리, 유관기관의 협력을 얻기 위한 부산시의 태도는 미흡하기만 하다. 전임 오 시장은 기존 이전기관들을 ‘어중간한 기관들’로 폄하하며 금융감독원의 부산유치에만 몰두했다. 그는 두 가지 사실을 착각했다.

첫째, 금융감독원은 그의 생각과 달리 민간조직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금감원은 지방이전 대상이 아니란 의미다. 둘째, 부산의 디지털금융 생태계 구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기능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은 금감원이 아닌, 현재 BIFC에 입주한 유관기관이다. 그 유관기관은 민간 금융회사와 긴밀하게 일상적 업무를 공유한다. BIFC에 집적된 금융공기업이 구축해 온 금융인프라가 민간부문의 낙수효과(waterfall effect)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협조가 절대적이란 뜻이다.

부산시 공무원에 일부 잔존하고 있는 관료주의와 유관기관에 대한 고압적 태도도 걸림돌이다. 부산시 소재 금융공기업 임직원은 이 나라 최고의 금융전문가들이다. 그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부산 금융생태계 구축의 에너지로 흡수하려는 겸허한 노력 없이는 금융중심지 구축은 불가하다.



『2019 한·중 금융협력포럼』 (2019. 11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한국예탁결제원과 중국사회과학원은 양국간 금융 협력과 부산국제금융중심지 구축사업 지원을 위해 매년 금융협력포럼을 공동 개최 하고 있다.

마침, 논고 작성 중 기쁜 뉴스³⁾를 접한다. 부산시가 ‘금융중심지 10년’ 만에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업을 유치했다는 낭보다. 부산시 실무진들의 노력에, 한국예탁결제원 등 입주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견고한 금융인프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부협력 민간단체가 힘을 보탠 결과다.

특히 홍콩·중국·동남아 등에 막강한 금융네트워크를 보유한 Goldford VC 우제평(吳杰庄 Johnny Ng) 이사장과 (주) 메타팩토리 추선우 대표의 노력으로 유망한 홍콩 금융사·핀테크 기업을 유치한 것은 현 홍콩 상황에 비추어 의미하는 바가 적잖다. 수년 동안 중국 사회과학원과 연계하여 ‘한중 금융협력포럼’을 주관하고, 우 이사장·추 대표와 연계하여 홍콩기업⁴⁾의 부산유치에 미력(微力)을 보탠 필자에게도 이번 외국금융기업 유치는 작은 성취다. 이렇게, ‘부산국제금융중심지’는 부산시·BIFC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이 호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함께 만들어 가야하는 ‘종합예술작품’이 되어야 한다.

3) 《KBS부산》, 2020.12.9일 저녁 9시 뉴스

4) 이번에 유치한 홍콩기업 중 특히 BMI Group과 Winsome Group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국제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근래 세계 IPO시장 중 홍콩증시(HKEx)는 가장 뜨거운 시장이다. 이른바 ‘후강통’(상해-홍콩증권시장 연계)과 ‘선강통’(선전-홍콩 증권시장연계)의 개통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중국본토인이 홍콩증시에 직접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 세계 8백여개 기업의 홍콩증시(HKEx)등 국제시장과 투자관리를 자문해 온 BMI Group, 그리고 홍콩 재벌들에 특화하여 전문적인 금융자문을 하고 있는 Winsome Group의 부산 유치는, 한국기업의 외국증시(HKEx포함), 그리고 외국기업의 한국증시 시장의 Gateway로서 부산이 기능하게 하는 첫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

5) '국제디지털금융허브 구축 협의체' 구성

마지막으로, 레거시 금융이 디지털금융으로 이행되는 이때 부산 디지털 금융허브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부산시뿐 아니라 올해 설립된 부산국제금융진흥원·각 유관기관·학계 등에 속한 국제금융·핀테크·블록체인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분야 자문은 학계와 유관기관 전문가가, 중앙정부 대관(對官)업무·부산 정치권과의 연계 등은 부산시가, 총괄 실무는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담당하면 이상적 협의체 구성이 될 것이다.

나가며

10년을 넘긴 부산국제금융중심지 추진사업에 있어 2021년 새해는 전례 없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선, 제2차 공기업 지방이전을 앞두고 거물급 국책은행들의 지방이전이 새해에는 가시화 될 것이다. 지자체간 벌어지고 있는 이들 은행의 유치전에서 뒷전으로 밀려버린 '금융중심지 부산'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또한 부산이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된지 2년이 되는 해이다. 금융의 블록체인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이때, 부산이 금융 블록체인의 테스트 베드(testbed)로서의 기능을 내년에는 선점해야 한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현재 공석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새롭게 출범할 부산시 집행부가 최우선으로 인식하여야 점은, 2014년부터 시작된 핀테크 혁명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만나 디지털금융시대를 개화(開花) 할 것이라는 시대적 흐름이다. 다행스럽게도 부산은 디지털 금융의 핵심 구성요소라 할 금융중심지와 블록체인특구라는 특권을 부여 받았다. 이 특권들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 부산에 국제디지털금융 혁신 생태계가 구축되고, 수많은 혁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부산에 둥지를 틀게 하는 리더십의 복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다.

장영수 프로필

고려대와 미국 Wake Forest 대학·Georgetown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법학박사), 현재 한국예탁결제원(KSD) 수석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KSD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의 국제금융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려대·연세대·서강대·외국어대 겸임교수와 강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동아대 겸임교수이다. 그동안의 연구실적과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부산 국제금융진흥원 자문변호사와 국제표준화기구(ISO) 금융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도시국가 부산’과 ‘ICT-Driven Mega City’ 향해 박차를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I. 들어가는 말

부산과 미래. 또 다시 이 두 단어가 부산 시민의 마음과 머리를 장악하기 시작한다. 어디를 보아도 낙관할만한 여건이 보이지 않는다. 더 커져가는 수도권과 더 줄어드는 지방, 제2의 도시로 떠오르는 인천과 송도, 더 많이 부산을 떠나는 젊은 층과 더 늘어나는 노년 인구, 위축되고 몰락하는 부산의 주력산업. 그러니 부산의 경제적 미래를 낙관하기는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까울지 모른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파도가 몰아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그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경제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부산,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모습을 그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표 1> 경제적으로 본 네 번의 산업혁명

	구분	시기	주요 발명	주요 특성	시작한 나라
산업 사회	제1차 산업혁명	18세기 말	증기기관, 기차	기계화	영국
	제2차 산업혁명	19세기~20세기 초	전기, 자동차	대량생산, 자동화	미국, 독일, 일본
디지털 사회	제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인터넷, 스마트폰	디지털화, 디지털경제의 시작 정보혁명 모바일 혁명	미국
	제4차 산업혁명	2015~6년 이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융합의 시대	

자료: 필자의 임의작성

한국과 한국 경제의 주도적 위치에서 밀려난 부산으로서는 그 경제적 갭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직 제4차 산업혁명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부산으로서는 스스로를 바꾸는 환골탈태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 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피고,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부산의 경제적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II.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¹⁾

1.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 성격과 내용

(1)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 성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 그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초연결사회이다. 모든 사물, 인간, 공간이 연결되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사회이다.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5G와 같은 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단순한 연결사회를 넘어 초연결사회로 발전한다. 둘째, ICBM의 사회이다. 여기서 말하는 ICBM은 무기체계와 관련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IoT, Cloud, Big Data, Mobile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즉, 사물인터넷이 기본적 인프라가 되어, 인간 생활의 전 영역에 보급되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이 영향을 끼치는 영역은 인간 생활, 가정, 소매환경, 사무실, 공장, 작업장, 운송수단, 도시 등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게 된다. 다음,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가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고, 스마트폰과 스마트 폰을 잇는 IT기기가 이동성의 기본이 된다. 셋째, 인공지능이 사물인터넷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사회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본 인프라적인 성격을 가진다. 넷째, 가상공간과 현실이 결합되는 사회이다. 현실에 온라인이라는 가상공간이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다, 점차적으로 양자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기로 옮겨가게 된다. 다섯째, 그 결과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사회이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 내용

이런 성격을 거진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내용, 혹은 구체화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이 구체화되면 로봇과 자율주행차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부각될 것이고, 가상공간과 증강현실의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핀테크, 3D 프린팅,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여기서의 주요 내용은 출처 『제4차 산업혁명』, 2020년 3월, 법문사의 제1부 제3장을 인용, 요약 보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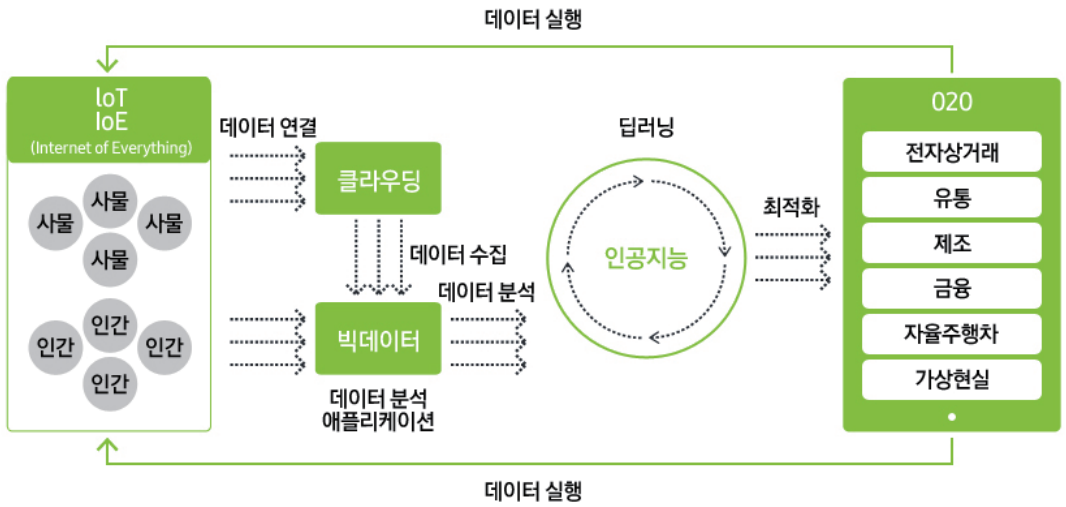
- 기본 인프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 기본 제품 (대표 제품): 자율주행차, 로봇
- 기본 경험: 가상공간, 증강현실

<표 2> 제4차 산업혁명이 구체화되는 영역

구분		설명
기본 인프라	인공지능	- 좁은 의미의 인공지능, 넓은 의미의 인공지능 -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생산함수의 변화: $Y=F(K,L), Y=F(K1, K2, L), Y=F(K1, K2)$
	사물인터넷	- 사람, 사물, 공간의 연결 - 5G의 보급으로 인한 초연결사회의 실현
기본 제품	로봇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인터페이스(시리), 빅데이터 -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 인간을 돌보는 로봇에서 인간과 차별없는 로봇으로 - BT와 IT의 결합으로 인공지능의 실현, -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문제가 대두
	자율주행차	- 사물인터넷, 커넥티드 카, 전기자동차와의 연결, 인포시스템, 빅데이터 -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의 경계가 모호 - 전기차 배터리, 수소자동차 -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인포시스템이 승자
기본 경험	가상공간, 증강현실	-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의한 현실 인식의 오류 - 호접몽의 세계
	스마트 팩토리	- 사물인터넷, 온라인 시스템 - 스마트팩토리와 3D프린팅에 의한 제조업의 혁명 - 3D 프린팅으로 인한 생산주도권의 이동(기업에서 개인) - 스마트 팩토리와 3D프린팅으로 인한 Reshoring: 제조업 공장의 본국으로의 귀환: 독일 아디다스, 애플 폭스콘과의 부분적 결별
기타	스마트 시티	- 낡은 도시의 재생 - 새로운 도시의 설계
	핀테크	- 각종 페이: 삼성페이, 애플페이, 알리페이 - cashless society - 온라인 전용은행 -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화폐 - 기술로서의 block chain
	3D 프린팅	- 3D프린팅과 바이오 나노 산업의 결합 - 새로운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 장기교체, 수명연장 - 제약산업, 의료산업과의 연결
기본 경쟁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경쟁력 요인

이런 제4차 산업혁명의 작동원리, 혹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데이터이다.

4차 산업혁명의 작동 원리



출처: 삼성증권

2. 부산의 미래와 연결된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 특성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특징은 '변화의 내용'과 '변화의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변화의 내용

1) 자율 (Autonomy)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시장, 산업은 과거와는 매우 다른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시장과 산업을 조기육성 혹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숙박업, 도로교통법, 자동차법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앨 필요가 있으며, 온라인은행과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금산분리,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관계까지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런 자율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형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런 정책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정부의 예산, 정책수립, 시행에 있어서의 높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규제없는 자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모든 부문의 혁신(Beyond-Innovation)

과거의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품 혹은 그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 대한 혁신이 있었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품의 혁신, 제품공정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등 기업과 산업의 공급망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진행된다. 이런 추세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혁신에 대한 좁은 개념을 탈피하고 산업과 경제, 나아가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은 필연적으로 정부의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진다. 또, 이런 모든 부문의 혁신은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앞에서 언급한 자율은 이런 모든 부문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3) 융합(Convergence)

제4차 산업혁명은 IT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IT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BT(Bio-Technology), ET(Energy Technology, Environment Technology), NT(Nano-Technology)와 융합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소재산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이 융합은 더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산업과 산업과의 경계는 더 희미해지고 있으며, 직업과 직업의 경계 또한 사라지고 있으며, 경쟁력의 원천에 대한 개념 역시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융합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으며, 융합관련 산업 중에서 특히 고성장의 가능성이 있거나 한국의 산업구조 상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둘 필요성이 있다. 전자와 관련된 것이 BT이며 후자와 관련된 것으로는 소재산업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융합의 시대에는 관련 산업을 담당하는 정부부서가 부서이기주의에 따라 분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 기업, 산업, 지역의 문제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하거나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

4) 깊이(Depth)

위에서 언급한 모든 부문의 혁신 (Beyond-Innovation)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폭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제 그 폭 뿐 아니라 변화의 깊이 또한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깊이가 의미하는 것은 각 부문에 끼치는 변화가 매우 근본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각 부문의 변화를 전부 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과거의 경우 중앙정부가 기술개발의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배분하고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제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이런 형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술개발의 축을 다원화하고, 지역정부에 대폭적인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경쟁의 촉진하는 형태로 변해야 한다.

이런 깊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중앙정부는 지역정부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야 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효율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혹은 지역정부 간의 자율적 경쟁이 매우 긴요하게 된다.

(2) 변화의 방향

1) 속도(Speed)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방향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도이다. 그 속도는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드러나지만, 시장의 성숙이 되는 과정, 기존 직업이 사라지는 과정, 경쟁력 원천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기술의 발전 속도이다.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용어가 일반에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에 불과하고, 초기에는 사물인터넷보다는 M2M (Machine-to-Machine)이라는 용어가 더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제 사물인터넷을 제외하고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의 발전에 대해서도 유사한 속도를 느낄 수 있다.

둘째, 시장의 성숙 속도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5년을 전후해서 시장이 성숙될 조짐을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나 빠르면 2020년~2022년 사이에 자율주행차(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또, 이세돌을 이긴 인공지능 알파고와 관련,

먼저 그 기술의 발전속도가 경이적이라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했으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시장이 너무 빨리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셋째, 기존 직업을 대체하는 속도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직업과 노동시장의 재편가능성은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알파고의 대두 이후 인공지능이 기존의 직업을 대체할 가능성과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초기에는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신하는 형태로 기존의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에는 전문직 예컨대, 의사, 변호사, 교사, 공인회계사 등의 영역에서도 생각보다 더 빨리 인공지능이 기존의 직업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넷째, 경쟁력 원천이 변화하는 속도이다. 과거 디자인, 콘텐츠를 강조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 스토리, 체험, 감성, 열정, 통찰력, 비전 등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기존의 경쟁력 원천을 넘어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이런 변화의 속도를 염두에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에 관한 한 현재의 1년은 과거의 10년과 거의 맞먹는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우선(Private): 공공에서 민간으로

앞서 제4차 산업혁명 변화의 내용으로 A, B, C, D를 언급하였다. 이런 변화는 어느 부문에서 구체화될까? 그 변화는 정부보다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반성과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가 수립하는 산업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과거와 같은 산업정책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에 적합한 기술이나 시장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에 치중해야 한다.

3) 지역우선(Local) : 중앙에서 지방으로

앞서 제4차 산업혁명 변화의 내용의 하나로 그 변화의 깊이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전 항에서 정부의 산업정책은 과거의 직접적 개입에서 간접적 유도로 바뀔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역시 산업혁명의 또 다른 변화인 자율과 혁신의 다양성을 배경으로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기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의 폭과 깊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지시와 수용의 형태보다는, 지방분권적 자율과 경쟁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직접에서 간접으로, 중앙집중에서 분산과 분권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권한과 예산의 자율적 수행이라는 명제 하에 지역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결과 제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의 자생적이고 균형적인 발전 역시 기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특징

구분	주요특징	주요 내용	중앙정부에 대한 시사점	지역정부에 대한 시사점
변화의 내용	Autonomy (자율)	· 규제는 기본적으로 불필요 ·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규제	· 규제완화 필요 · 지역정책에 대해서도 재원, 정책, 시행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	· 규제완화 필요 · 지역정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Beyond Innovation (모든 부문의 혁신)	·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혁신을 넘어 제조공정과 사업모델(business model)까지의 혁신이 긴요	· 좁은 의미의 혁신개념을 지양 · 산업과 정책 전반에 있어서의 혁신	·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
	Convergence (융합)	· IT를 중심으로 모든 기술이 융합 · 산업의 구분이 없어짐	· IT육성은 기본 · BT, ET, 소재산업에 대한 관심 필요	· 중앙정부와 기본적으로 같은 관점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융합전략 구상
	Depth (깊이)	·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다르게 변화의 깊이가 예상을 초월	· 중앙정부가 모든 변화를 관할하지 못함	· 지역정부가 스스로 변화의 폭과 깊이를 주도해야 함
변화의 방향	Speed (속도)	· 매우 빠른 기술개발속도 · 평균이상으로 빠른 시장의 성숙속도 · 직업의 빠른 변화속도	· 속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산업정책의 전환 · 교육제도에 대한 관심	· 중앙정부와 기본적으로 같음 · 교육부문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
	Private (민간우선)	·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 · 기업이 중심이 된 기술개발 · bottom-up방식의 전개	· 정부역할 재검토 · 미래설계와 비전 제시를 위한 정부의 역할 설정	·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 정부는 중앙정부보다는 더 깊게 개입할 필요
	Local (지역우선)	· 제4차 산업혁명의 폭, 깊이, 속도는 지역이 먼저 자발적으로 수용해야 함	· 중앙정부는 지역정부에 대해 반드시 자율권 부여	· 지역정부는 자율적으로 혁신에 의한 경쟁 수용해야

자료: 필자 작성

III.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제4차 산업혁명의 활용방안

1. 기본 정책 방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의 폭은 넓고 그 속도는 비교할 바 없이 빠르다. 그러나 이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자율, 분권, 민간, 지역이 우선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산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전략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 기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 인식이다. 과거와 같이 수도권과 중앙에 대한 해바라기 태도를 지양하고 스스로 이 산업혁명을 활용해 산업과 경제의 갱생을 주도할 수 있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필자가 여러 차례 주장한 바와 같이 '도시 국가 부산'이라는 목표 혹은 인식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행정적 통합 나아가 메가시티라는 인식도 이런 목표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중앙 정부와의 관계 재설정 혹은 역할 재분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정도까지 자율적 정책 집행이 가능할지는 매우 불확실하지만,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 예산의 자율적 집행권 만큼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건, 혹은 산업상태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ICT 제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ICT 서비스 산업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전 항에서 논의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빅 데이터의 수집, 활용, 새로운 가치 창출이다. 부산이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관문 도시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빅 데이터와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즉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의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격인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이 투자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미국과 중국과 경쟁하여 이 두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한정된 자원과 재원을 승산 없는 분야에 배분할 필요는 없다. 부산은 이미 개발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업 부문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완료하고, 서비스 부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부문이 중심이 되고 자율과 혁신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원천인 만큼 부산의 정책적 의사결정 구조를 벤처 기업과 유사한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조금 급진적인 제안인 만큼 여기에 따르는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나, 부산을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미래의 부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상의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는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벤처 기업과 유사한 의사결정 구조란 1) 실제로 벤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센터라는 물리적 기반의 확충, 2) 벤처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한 규제의 제거, 3) 벤처 기업의 활동을 위한 금융지원의 확충을 의미한다.

이런 벤처 기업적 속성을 요구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매우 빠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라도 벤처 기업을 능가하는 의사결정 속도, 그리고 집행 속도는 기본적인 것이다.

2.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가?

부산의 미래를 위한 산업은 다음과 같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매우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에코델타시티 내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난 2018년 1월 지정된 뒤 그 추진 속도가 매우 느린 만큼 좀 더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 스마트 시티 구축사업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사물 인터넷 센서 연계, 로봇주차, 증강현실 서비스, 개인맞춤형 서비스 등이 구체적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항만 물류는 그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 그 경쟁력 제고의 기본 방향은 스마트시티와 유사하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유기적 활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항만 서비스의 개선, 항공 운송과 육상운송을 연계한 운송 허브의 구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은 제조업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셋째, 지금 막 출범하고 있는 부산 국제금융 허브를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 정책지원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의 제공, 자금지원의 성격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차세대 금융서비스와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관광산업과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작업이 더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이 나오고 있는 만큼 구태여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을 더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기존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다섯째, 지금까지의 산업 육성 방향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육성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 전 항에서 이 새로운 산업의 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부산의 현재 경제적, 입지적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ICT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 중 빅데이터 산업의 육성과 벤처 기업의 육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상한다. 데이터 허브는 일견 화려하지 않아서 정책 입안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스마트시티, 물류, 관광, 금융, 제조업 등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원천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이며, 더 나아가 부산의 젊은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5G 이상의 통신 속도를 제공해주는 인프라를 설치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며, 이를 바탕으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국내 IT기업 뿐 아니라, 해외의 다국적 빅데이터 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산업의 육성과 쌍벽을 이루는 것이 벤처 기업의 육성이다. 현재 제2센텀 단지와 같은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좀 더 과감히 그리고 빠르게 벤처 단지를 지정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 기업이 부산을 기점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산의 대학과 각종 병원과 연계하여 로봇, 가정용 의료기기 등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업이 나온다면 부산의 경제적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이와 관련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향후 부산을 이끌 리더들은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조금 혁신적인 발상을 가졌으면 한다. 자원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중앙정부의 교부금, 중앙정부의 지원을 거론해 왔다. 심지어는 지금 논의가 시작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어떻게 중앙정부

의 자금지원을 얻을 수 있는가가 논의의 핵심이 되곤 했다. 조금 잊어버리자. ‘도시 국가 부산을 전제로 한다면,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둔다면, 재원은 ‘기장과 일광의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 바닷가를 장기 임차해주는 조건으로 해외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러므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산의 미래 모습은, 그 정책방향이 제대로 집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시국가 부산”

“ICT-Driven Mega City”

IV. 맺는 말

시련에 처한 문명(Civilization on trial). 역사학자 토인비는 문명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면서 문명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이 시련에 처한 문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문명이라면 너무 규모가 커 지지만, 한 도시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는 그 구성원과 리더가 다가오는 도전에 어떻게 응전할 수 있는지로 요약된다.

시장 선거가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될 때마다, 혹은 대한민국 경제가 큰 변화의 와중에 놓일 때마다 부산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졌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를 돌이켜 볼 때 부산은 한 번도 그런 미래에 대한 담론을 도시 발전의 기폭제로 삼지 못했다. 핑계와 변명만 무수히 난무하고, 때로는 자조적인 뉘그러만 허공에 메아리치기도 했다. 항만과 해안을 가지고 있는 세계의 도시를 둘러볼 때 부산 정도의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도시를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반 세기 내내 부산은 발전 잠재력에 만족하며 지내왔다. 누가 뭐라 해도, 그 책임은 부산의 시민, 그리고 부산의 시민이 가진 힘을 이끌어내고 조직화하지 못한 리더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다시 부산에 기회가 올 수 있을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증유의 변화 속에서 부산은 다시 동북아시아와 세계에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작게는 곧 선출될 부산의 리더, 크게는 그 리더와 함께 부산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부산 시민의 힘을 모으는 방법과 방식에 달려 있다. 진부한 말이지만, 필자가 10년 이상을 줄기차게 외쳐온 ‘도시국가 부산’ 그리고 ‘ICT-Driven Mega City’의 목표는 부산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리더를 선출할 것인지, 그리고 그 리더가 부산 시민의 힘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필자가 언급할 사항은 아닐지 모르나, 곧 선출될 부산의 리더는 정치적 외투를 벗어버렸으면 한다. 변화와 폭과 속도가 엄청난 제4차 산업혁명의 폭풍우 속에서 부산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부산 시민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부산의 위상을 걱정하지 말고, 동북아시아 그리고 세계에서 부산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부산 시민은 미래를 향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 위로부터의 혁신과 아래로부터의 헌신이 결합될 때, 반세기 내내 외쳐온 부산의 미래를 이번에는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모른다.

김기홍 프로필

산업연구원(KIET) 디지털경제실장,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등을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여러 매체에 칼럼을 집필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전략적 협상』, 『제4차 산업혁명』 등이 있으며, 세상을 움직이는 세력의 움직임과 그것에 대응하는 인간 마음의 흐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 걸맞게 데이터 축적과 변화 시도를

권 장 욱

동서대 관광학부 교수



들어가는 글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인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모든 화두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에 모아지고 있다. 이미 컴퓨터와 인터넷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에서도 무형의 지식이 빠르게 전달되고 공유되는 것이 가능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사물들의 지능성(intelligence)과 초연결성(super connected)이 구현되면서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융합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 시스템을 뛰어넘어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로 묶여지는 변화 속에서 과연 관광업계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여행 비즈니스의 변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의 등장은 여행객에게 맞춤형 정보와 상상하는 재미를 전달하여 여행을 더 스마트하게 변모시키고 있다. 반면, 기존의 관광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주는 측면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여행업이라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격의 시작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주인공은 바로 OTA(Online Travel Agency)였다. 토마스 쿡이 여행업이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량 구매에 따른 관광상품의 염가 제공이었다. 여행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매우 저렴했고, 추가로 안내 서비스와 수속 대행까지 지원하는 여행업 비즈니스는 무려 200년 가까이 명맥을 유지했고, 중요한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19년 여행업의 대명사 격이었던 토마스 쿡도 결국 힘없이 무너졌다. 여행사가 판매해 주는 물량보다도 더 많은 물량을 판매하는 OTA의 구매력으로 인해, 가장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모바일에서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하나 둘 여행사를 찾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행업과 관광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몰락하는 것일까? 그것은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도산한 것은 규모의 경제에 의한

업가 기능에만 의존했던 기존 여행사 비즈니스 모델일 뿐이며, 오히려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이 새로운 여행 비즈니스 모델을 양산하게 되면서, 더 많은 인재들이 ICT를 매개로 관광산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자. 과거에는 해외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해서 안내하는 인바운드 관광 업무를 하고 싶어도 그 바닥에 진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기존 여행사 간에 이미 장기간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관계가 맺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해외의 대형 여행사는 우리나라의 복수의 여행사와 계약을 맺고 있어서 국내 여행사 간의 내부 경쟁도 매우 치열했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 여행사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없었다. 유일한 방법은 대형 여행사에서 신뢰를 쌓은 간부급 인사가 새로운 여행사를 개업하여 개인적인 신뢰를 통해 거래를 트는 방법뿐이었다.

그러나 ICT의 발전으로 여행 플랫폼이 일상화되면서 누구라도 쉽게 관광 상품을 만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외국어 실력과 차량 1대, 관광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입담만 있으면, 플랫폼을 통해 누구라도 상품을 만들어 운영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제는 이전처럼 항공과 호텔, 교통 등을 묶어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품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카페, 음식점, 윈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나 관광 통역안내사도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관광상품을 만들어 관광시장에 뛰어들게 되었다.

2. 일본의 착지형 관광과 여행 플랫폼의 등장

사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10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를 감지한 일본에서는 2008년께부터 착지형 관광이라는 새로운 관광상품에 주목하고 있었다. 당시에 이미 OTA를 통해 싼 가격으로 항공이나 호텔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관광의 패턴 역시 개별자유여행(FIT)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다. 패키지 여행은 편하고 안심되고 가격도 저렴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동시에 있었다. 가이드나 운전기사가 모든 안내와 이동을 책임지다 보니, 관광객은 여행지에서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약해졌다. 또한 스스로 설계한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여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도전하는 개별자유여행을 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개별자유여행을 하는 와중에도 관

광객 혼자서는 불가능한 체험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사람들은 하루 중의 2시간, 4시간, 6시간 이렇게 독특한 체험을 원하였다. 이미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는 상품들이 많았고, 호텔 로비에는 이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 사무실이 항상 상주해 있었다.

하지만 유달리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이러한 상품이 없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패키지 상품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시장의 관도가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경시하고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 점을 간파하고 이를 착지형 관광이라 명명하면서 2008년부터 지방 관광협회를 중심으로 해당 상품들을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체험 상품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 노하우도 쌓아 나갔고, 관광객들은 더 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며, 관광산업의 수준도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뒤이어 ICT의 발전으로 유명 여행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품들은 더욱 확대되어 쏟아져 나왔고, 편리하게 관광객들에게 제공되었다.

3. 새롭게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에어비엔비나 우버 택시다. 특히 공유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더없이 좋은 사례이다. 사실 그 후에도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데, 각각의 모델들은 여행이 제공하는 가치에 충실하면서 ICT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기능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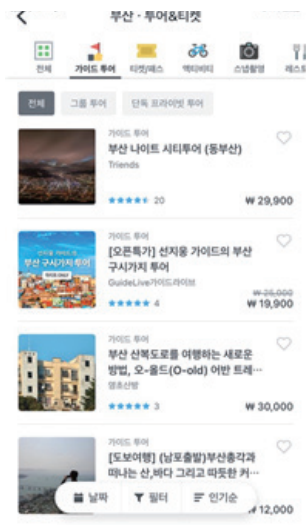


트립어드바이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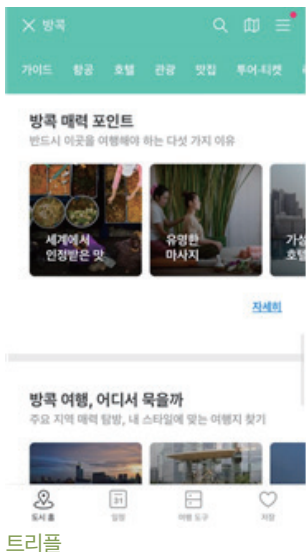
1) 신뢰 있는 정보 전달 : 트립어드바이저

인터넷상에서 수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보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진실 여부를 가리기도 매우 힘들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여야 할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고, 또 그러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관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관광 목적지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가장 좋은 추억을 제공한다고 선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블로그와 페이스북의 후기를 읽어보며 장시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트립어드바이저의 창립자인 스티븐 카우퍼 대표는 본래 하버드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다. 무심히 맥시코 휴가 계획을 세우다가 그곳을 직접 여행해 본 사람들의 진실된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그럴 수단이 없어 시간만 낭비했던 경험을 토대로 트립어 드рай저를 고안해 냈다. 이들은 무엇보다 고객들이 남긴 리뷰에 주목했다. 보다 사실적이고 진실이 담긴 리뷰를 어떻게 하면 유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고, 리뷰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진실이 담긴 신뢰 있는 리뷰들을 모아낼 수 있었다. 이제 2019년 3사분기 기준 월 방문자가 4억 6300만 명에 이르며, 전 세계 870만 개의 숙박, 항공, 맛집, 관광명소에 대한 8억 6천만 건의 여행자 리뷰를 확보하는 세계 최고의 여행 플랫폼이 되었다.



마이리얼트립



트리플

2) 같은 국민이 안내하는 착지형 여행의 결정판: 마이리얼트립

벨기에의 브뤼셀로 효도관광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브뤼셀과 근교의 도시들을 여행하고 싶은데, 날씨가 추워 부모님과 함께 오래 걷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럴 때 한 4시간 정도 근교로 차를 태워서 안내하고 맛집에 가서 식사 주문까지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혼자인 경우라면 부족한 영어에 손짓 발짓하면 안 될 것도 없지만 부모님을 동반한 상황이라면 다르다. 이럴 때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차분하게 안내를 해주면 든든할 것이다. 이런 수요에 대응하여 생각해 낸 비즈니스가 바로 마이리얼트립이다. 안내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 사는 가이드가 아니라 현지에 사는 사람이니 현지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통해 이동상의 거리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쾌히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사람들은 관광객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체험상품을 2시간, 4시간, 6시간짜리로 만들어 사이트에 올리고 관광객은 후기를 읽으면서 상품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관광 통역안내사가 아니어도 안내를 할 수 있고, 여행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 여행 중 개인 비서가 되는 어플: 트리플

관광은 호스피탈리티 산업이다. 상대방의 시중을 들면서도 위엄과 격식 있게 대하는 이 서비스의 원천은 유럽 귀족의 대저택에 살던 집사들이다. 이들이 현대 호텔의 총 지배인으로 전환하면서 우리는 호텔에서 호스피탈리티의 절정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호텔에 머물 때만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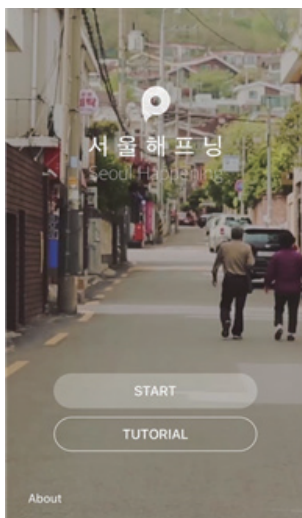
상시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머물면서 우리의 시중을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볼 때가 있는데 모든 것이 낯선 여행지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행 가기 전부터 여행 기간 내내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집사 같은 기능을 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바로 트리플이다. 여행 계획도 세워주고 공항에 가면 면세점 프로모션 정보부터 맛집 정도까지 실시간으로 추천해 준다. 현지에 가면 환율과 날씨, 호텔까지의 동선 등 알아서 착착 정보를 제공하니 하인이 따로 없다.



트리플

4) 여행에서 여가로 관광의 범위 무한 확장:트리플

현대인의 삶은 일과 여가로 구성되며, 일에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기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여가에서 찾게 된다. 여행은 인간에게 일탈을 통한 행복을 전하지만 멀리 떠나지 못하는 일상 속에서는 여가를 통해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상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공감하고 나누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어플이 바로 트리플이다. 장기간 레슨을 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공방에서 향수를 만들어 보는 체험까지, 등산과 베이킹, 요가, 독서, 요리 등 액티비티를 통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다. 현재 1만 명 이상의 호스트가 방을 개설해 놓고, 다양한 체험 상품을 운영하며 90만 명의 회원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해프닝

5) 일상에서의 신비한 여행 체험:서울해프닝

서울해프닝은 첫 화면부터 신기하다. 매우 특이한 골목길이나 거리, 카페 사진들이 나오는데 좋아하는 사진들을 담으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동네를 찾아준다. 관광하면 뭔가 멋지고 유명한 곳으로 갈 것 같은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변했다. 남들 다 가는 곳은 다녀와도 자랑하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SNS에 올릴 수 있는 신비한 나만의 장소를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에 딱 부합하는 모델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사는 곳인데 이상하게 갈 기회가 없었던 로컬 콘텐츠들만 모아서 올리니 멀리 가지 않아도 여행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 서울해프닝의 매력이다.

못 살던 시대의 건물을 부수고 삭막한 사각형 건물을 올려대면 발전했다고 믿었던 시대가 가고 이제는 우리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진정성을 찾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한 취향에 충실하다 보니 우리 동네 가게

도 하나의 훌륭한 관광 콘텐츠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만 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창업지는 사실 마땅히 취업할 곳이 없어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하니, 요즘처럼 취업이 쉽지 않은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1) 욕망인가, 플랫폼인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우리가 여행이나 관광에서 추구하는 일탈, 재미, 휴양, 사회적 지지 등에 대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ICT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여행에서 이러한 동기가 충족되도록 불편을 제거해 주고 재미를 북돋우는 도우미 역할에 가깝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여행의 기본 가치를 경시하고, 기술과 플랫폼이 우선이라고 고집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플랫폼은 기존의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수많은 거래가 일어나 정리가 안 될 때 이를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많은 지자체에서는 현재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거래도 없는데 굳이 수십억 원의 돈을 투자하여 플랫폼부터 만들자고 한다. 빅데이터 역시 마찬가지이다. 빅데이터는 관광객의 행동을 데이터로 저장하는 틀을 먼저 만들고 해당 로그 데이터가 넘쳐서 관리가 되지 않을 때 비로소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문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지속하여 생산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2) 맞춤형 서비스의 명과 암

비슷한 경우로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 단어로서 맞춤형이라는 말이 자주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맞춤형은 물론 좋은 것이다. 내가 나의 취향을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제공해 주는 것은 분명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느낌이 가치를 가려면 단골집 아주머니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 오셨어요, 그 항상 먹던 걸로 낼까요?” 하는 것은 비슷하게 흥내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오늘 새로운 것을 먹고 싶어 하는지, 오늘 힘든 일이 있었나 등등 내 표정을 살피면서 말을 건네던 아주머니와 달래 내 표정도 살피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자주 두루치기를 먹었다고 오늘도 두루치기를 먹으라고 제안하

는 것은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다. 즉, 오로지 과거의 데이터만으로 오늘 내가 먹을 메뉴를 규정짓는 것은 무미건조하고 나를 틀 속에 가두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오히려 그 반응이 기대 밖이다.

처음에는 매우 신기해하다가도 금방 질려버린다는 것이다. 나라는 인간은 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새로울 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뭔가 새로운 거 없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단골집 아주머니는 우리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뭐 안 좋은 일 있나 봐” 하면서 “그럴 땐 매운 거 먹으면 좀 풀려”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ICT의 개념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최근에는 맞춤형 추천 시스템에 랜덤 방식이 가미되고 있다. 바로 세렌디피티라는 방식인데, 갑자기 내 취향과는 전혀 다른 외외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이다.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클래식을 들려주고,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로맨틱 영화도 한번 던져보는 것이다.

얼마 전 산학공동 연구를 하면서 이를 직접 실험해 본 적이 있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통해 세렌디피티를 시연해 본 결과 정확도와 만족도는 비록 맞춤형 추천 아이템보다 낮았지만, 사이트 전체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은 오히려 맞춤형 추천 아이템보다 세렌디피티가 추천한 아이템이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감탄 심리를 잘 파악했기 때문이다.

5.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부산 관광에 대한 제언

1) 데이터가 없는 부산 관광에는 답이 없다

앞서 말한 것처럼 빅데이터는 플랫폼이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부산에 온 관광객이 실제로 어디를 가고 어떤 경로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관광사업자들에게 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래야 고객 특성을 이해하고, 미래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모두들 마음만 급하다. 화려한 무언가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안심한다.

얼마 전 부산관광공사에서 만든 비짓부산이 완성되어 시연되었다. 많은 부산 관광업계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판적인 기사가 연이어 나왔다. 욕심이 과하다. 비짓부산은 처음으로 만든 그릇에 불과하다. 그 그릇에 담길 콘텐츠들이 먼저인데, 껍데기부터 만든 것뿐이다. 사람들은 플랫폼이 부산의 관광을 당장 업그레이드시켜 줄 것이라고 지나치게 기대했다. 비짓부산은 잘못된 사업이 아니다. 이제부터 콘텐츠를 많이 양산하면 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인데, 반응이 안 좋다고 예산을 적게 책정한다.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양산되지 않으니 지루하고 사람들이 방문을 안 하게 된다면 플랫폼은 더더욱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국제관광도시 사업에서 스마트 관광분야에 빅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이 제안되었다. 워낙 콘텐츠가 없으니 아카이브를 만들어 이전에 신문, 방송에서 사용된 기사들을 콘텐츠로 가공하고 편집하고 번역하여 활용하고자 한 것인데, 반응이 좋지 않다. 뭔가 번쩍하고 신기한 기술들이 화려하게 보여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 화려한 것들은 한두 번 해보면 금방 질린다. 언론에 기사화되기 좋을지 모르지만 부산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초부터 다져나가면 안 되는 것인지 이 단 순한 논리가 잘 통하지 않음에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2)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있기 전까지 해외의 개별 자유여행객들의 비중은 나날이 증가하였고, 여행 플랫폼을 통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여행 플랫폼의 부산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즐길만한 체험 상품이 없다. 해외는 물론 서울과도 그 격차가 너무 크다. 평소부터 착지형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관광 기업 자체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관광 기업들을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평소에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 없는 영역까지 관광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차 타기에는 가깝지만 걸어서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골목골목, 구석구석까지 가는 재미를 안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공무원들은 너도나도 자신의 일이 아니고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차고

있다. 맞는 말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면 이런저런 접촉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여기저기 불러 다니며 고초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되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로 규정짓는다. 분명 현명한 생각이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부산 관광은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실하다. 모든 규정을 만족시키는 블루오션은 있을 수 없다. 누군가 법을 고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도약이 될 텐데, 도무지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3) 세금에 기대지 말고 시장원리에 따르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CT 경쟁력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장의 원리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ICT에 대한 투자는 비용에 반영되어야 하고 감가상각이 되는 구조 속에서 이익이 나야 지속 가능해진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축적되어 하나의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법인데, ICT에 대한 투자는 무조건 정부의 예산을 받아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나치게 강하다.

새롭게 시장에 출시하는 관광벤처 사업은 처음에는 어색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고객들의 반응을 테스트해 가면서 개선하고 수정하는 무한 반복 과정에서 인기 있는 서비스가 나오는 법인데, 정부나 지자체는 이러한 과정을 기다려 주지 않고, 예산을 대거 투입하여 껍데기부터 일단 만들어 놓고 본다. 문제는 이를 운영할 주인이 없다는 점이다. 잠깐 사이에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 바뀐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폐기물이 되어 버리고 만다. 그래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지금도 여기저기 관공서에서 만들어 내는 어플리케이션은 아무도 다운로드하지 않은 채 폐기물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는다.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모두 중요하고 많이 만들면 좋다. 그러나 그것이 없던 관광매력을 갑자기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관광 경쟁력은 관광자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스토리텔링, 여행 유통망을 통한 상품화, 시장원리에 의한 추진이 선행되면 경쟁력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4) 부산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타지인의 시각으로 접근하자

부산 사람들에게 부산은 항상 역동적이어야 하고, 세계를 향해 도약해야 하고, 자랑스러운 도시여야만 한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멋지고 자랑스러운 것을 찾아 부산에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서 경험한 적 없는, 부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가치를 찾아 이 먼 곳까지 온 것이다.

타지 사람들이 부산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바로 개방성일 것이다. 육지와 바다, 근대와 현대, 출발과 종점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듀얼 시티라는 매력도 있다. 신규 사업이 쉽게 론칭하고 망하기도 하는 곳. 그래서일까. 그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신종 문화들이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부산 사람들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산의 관광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관광객들만 많고, 부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멋진 바다는 보이는데 그곳에 부산 사람들의 독특한 해양문화와 삶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관광은 진정성의 시대로, 현지인의 일상을 즐기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부산은 너무 급하다. 더 높은 건물을 짓고 더 웅장하려고만 한다. 이미 10여 년 전에 다이نام릭(Dynamic)이라는 용어가 안전을 추구하는 선진국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국가 관광브랜드로서 폐지되었는데, 부산은 아직도 이 단어를 도시브랜드로 사용하면서 자랑스러워한다. 타지 사람들에게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부산에서 다이نام릭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불안한 느낌이 든다. 동남아시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단어가 생동감을 줄 수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관광지로서의 포지셔닝은 관광을 오는 관광객의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관광브랜드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타지 사람들의 시각에 기반해야 하는 것이다.

5) 여성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2019년 통계를 보면 부산을 찾은 외래 관광객의 남녀 성비는 5:5이다.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래 관광객의 남녀 성비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6:4 구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0년 당시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관광객의 남녀 성비는 남성이 6:4로 더 많았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 2001년 우

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만들어진다. 타겟팅 개념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다. 여성은 신제품이 만들어 내는 가치에 민감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높은 품질의 제품에 대해 과감히 비용을 지불한다. 이처럼 시대의 유행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은 바로 여성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도 여성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여성을 우대한다. 남성은 소비패턴이 대부분 정해져 있으며 잘 변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정의 소비 결정권은 여성이 갖기 때문에 남성들은 소비시장에서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성층을 공략한다.

2001년도 여성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은 한류 붐을 맞아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수도권에서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상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일본인 관광객의 남녀 성비가 5:5가 되었고, 2010년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남녀 성비가 역시 5:5가 되었다. 이후 여성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지금에 이른 것이다.

부산은 여전히 10년 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아직도 남녀 성비가 5:5이기 때문이다. 가만 보면 부산의 관광은 겉으로는 멋지지만, 여성만을 위한 섬세함이 떨어진다. 세부적인 운영이 투박하다. 관광객들은 누구보다도 대접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여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지금의 부산은 아저씨들을 위한 관광 천국이다. 출장 왔다가 1박 하며 바다를 바라보며 술 마시고 즐기다 가는 곳으로 제격이다. 그러나 과연 여성들에게도 과연 그런 곳일까? 해외 신흥여행을 못가는 상황인데, 부산에 신흥여행객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들이 외면한 관광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부산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권장욱 프로필

한국관광공사에서 국제관광PR팀, 도쿄지사, 일본팀, 인재개발팀, 브랜드마케팅팀 등의 근무를 거쳐 동서대학교 관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한국관광학회 이사, 부산관광공사 청렴시민 감사위원, 한국관광공사 시민참여단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Mega-region 계획 통한 공간 창출로 동북아 중심도시 지향해야

백 태 경

동의대 도시공학과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울·경 지회장



1. 머리말

과거부터 부산은 동래를 중심으로 한 행정거점과 부산포(지금의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한 해상방어 전략요충지로 각각 발전해 오다가 근대적인 시장경제 문물이 오가면서 부산포를 중심으로 왜관과 조계지가 형성되고, 국내에서 최초로 개항을 하면서 역사적으로 거점도시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부산은 비록 일제강점기, 광복, 6.25전쟁 등 역사적 질곡 속에서 도시공간의 급격한 팽창과 기형적 도시골격을 형성하게 되었으나, 국내 최대의 항만을 가진 항구도시이자 거주인구 순으로 세계 100위권 내의 거대도시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세계도시로서 도약을 위해 시대별 부산의 도시계획을 진단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를 살핍으로써 부산이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계획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시대별 부산의 도시계획

개항과 근대화: 침략과 수탈을 위한 물류 위주의 기반시설 설치

부산은 1876년의 개항으로 서구문화 유입의 창구가 되었다. 개항 이후 1905년에 부산항 북빈지구 제1기 공사가 준공되고,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부관연락선의 취항과 육상연계시설로서 경부선철도가 개통되었다. 이것이 근대적인 시설을 갖춘 국제항으로서의 새로운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다.

지형에 의한 제약으로 인해 도시가 확장되기 어려운 형태였기 때문에 일본에 의해 북항과 남항, 부산진 지역에 매립 및 토지구획사업이 시행되었고(1910년), 전등가설(1900년), 상수도시설(1902년), 전차(1915년) 등이 부설되었으며, 부산의 주요 명물인 영도대교(1934년)가 완공되었다.

부산의 첫 도시개발은 1910년 일본조계지내의 관유지, 사유지, 도로용지 등으로 구분한 가로계획과 1909년 영도 북단일원의 구획정리사업이 그 시초로 볼 수 있으며, 1921년에는 초량·좌천·영주동 일원에 대한 가로정비사업으로 부산의 주요 시가지 형태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용두산 일대에 왜관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중심이 동래에서 지금의 광복동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항만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시작되었다.

한국전쟁과 이후 20년: 인구의 폭증과 난개발

1945년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부산은 인구나 도시공간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이 시기에 부산은 광복 후 1945년 28만 명이던 인구가 귀환동포의 유입, 한국전쟁 피난민의 이주로 1951년 84만 명으로 급증하게 되었고, 1960년에는 116만 명으로 늘어나는 인구증가 현상을 겪었다. 이러한 인구 폭증은 도심 주변 좌천동~수정동~영주동~대청동에 이르는 주변 산지로의 무분별한 확장을 초래하였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도시문제는 인구의 폭증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도심 주변 판자촌으로 인한 난개발 해소였으며, 1967~71년까지 고지대 재개발 사업은 불량주택 철거와 이주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행해졌다.¹⁾

2000년 이전: 도시골격형성과 경제발전, 그리고 양적 확장

1960년~70년대 경공업 육성기의 부산은 사상과 구포 공단으로 통하는 서면지역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도시 공간구조적 변화와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용지난을 가중시키고 모든 도시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1970년대 10년 동안 부산인구가 18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165% 늘어나는 놀라운 양적팽창을 기록한 반면에 도시의 주거환경은 어둡고 어려운 시기였다.²⁾

이에 부산시는 1992년 도시설계제도를 도입하여 해운대 신시가지에 주택 40만호 건립 등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1993년 말 69.4%였던 주택보급을

1) 피난민이나 이재민을 위한 후생주택사업으로 1954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151세대를 UNKRA자금으로 국민주택 및 난민주택을 건립하였고, 1960년대에는 시영주택건립이 활발해져 1962~1988년말까지 총 26,617세대가 건립되었다.

2) 1988년 12월말 부산시 주택보급율은 58.3%로서 1963년의 77%에 비해 주택사정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와 주택난의 심화라고 할 것이다.

을 1997년말 79.3%(810,885호)까지 끌어올렸으며 번영로, 동서고가로, 관문대로, 광안대교, 지하철1호선 등 현재의 도시골격을 형성하는 도로와 지하철을 건설하여 물류와 일반교통을 분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까지: 글로벌 도시로의 준비기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삶에 대한 질적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도시계획의 반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로 BEXCO(2001년 준공), 부산시민공원(2014년 개장), 오시리아 관광단지(2014 선도사업시행), 화명수목원(2011 개원), 해운대수목원(2022 개원에 정) 등의 문화관광을 위한 공간 창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옛 수영비행장 부지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센텀시티로 조성하면서 동부산권 발전을 꾀하였으며, 부산항의 급증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고 만성적 체화현상의 방지 및 동북아 컨테이너 중심항 섬점을 위해 가덕신항만을 개발(1997년 착공, 2010년 1단계 공사 완료)하고 기존 부산항은 재개발을 통해 친수 복합도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부산권 개발사업을 위해 부산신항 배후지 강서구 미음, 범방, 생곡동 일원에 국제 산업물류도시(1단계) 조성사업과 에코델타시티사업(2-1단계)이 친수복합도시로 조성 중에 있다.

이 시기의 특성은 시민을 위한 공간창출 및 문화관광 복합형 도시개발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의 시기라는 점이다.

3. 세계 중추 도시 도약을 위한 모색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미래상 정립

2000년 이전 부산은 광복과 6.25전쟁, 경제성장과 이촌향도(離村向都)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문제, 기반시설 부족문제 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도시계획의 초점은 당면한 현안문제의 우선 해결과 경제성장이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지대 판자촌의 주택재개발과 집단이주정책 같은 주거환경부문의 사업과 경제성장에 따른 시내교통 및

물류교통의 분리를 위한 도시고속도로, 지하철1호선의 건설 등 기반시설 확보사업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적 요소들을 가미한 시가지내 대규모 공원조성, 보행환경개선 사업들이 시행되고, 낙동강·부산항(해양)을 활용한 친수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업들은 장래 예측이나 뚜렷한 도시발전의 목표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대사회는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의 변화, 기술 발전의 혁신으로 과거의 시간의 개념에서 탈피한 다양한 방법으로 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도시계획도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래에는 드론, 고속철도 등으로 인한 공간이동의 제약이 줄어들 만큼 도시 간 광역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시민의 도시계획에 대한 참여도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범시민적 관점에서 도시계획과 광역화에 따른 발전전략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기존 도시권역의 한계를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간구조 구축으로 전환하고, 부산의 고유한 매력성을 토대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도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의 기본 골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도시 중심지체계를 지역별로 특성을 부여하여 재편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미래도시는 현재 도시를 둘러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징후들이 심화되면서 전면적인 사회구조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미래상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40년, 또는 2050년을 목표로 한 '장기발전 비전계획'을 수립하거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래 어젠다(agenda)를 발굴하고, 도시의 미래 비전 구축을 위해 중장기 데이터의 축적 및 분석을 위한 초석을 쌓아두어야 할 것이다.

시민활동 중심의 도시계획

세계도시로의 부산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풍요로움과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도시로 변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시민 의견이 반영되고, 가급적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성과 환경친화적 공간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의 도시 이미지와 지역문화 정체성에 기반한 자연자원을 활용하고 집중투자를 통해 강화시켜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부산문화의 정체성은 낙동강과 바다에서 출발하여 역사적 경험과 결합하여 특유의 포용력과 문화적 관용, 개방성으로 발전했다. 지리적으로 해운대에서 광안리, 송정까지 이어지는 해안라인과 오륙도 및 60여개의 포구와 항구가 이를 상징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산의 도시계획은 친수공간계획과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사업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도시전체 건축물의 높이 제어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경관자원을 형성하고 해양~산~강으로 연결되는 어우러진 공간창출을 통해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시민활동을 유도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즐기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주민이 즐기지 않는 활동에서 관광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에코델타시티, 북항 재개발사업은 친수 복합도시로서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ega-region과 광역협의체 구성

Mega-region이란 많은 인구가 밀집 집적되어 있는 광의의 도시로서, 큰 시장(market), 상당한 경제력, 실질적인 혁신활동, 높은 수준의 숙련된 능력(talent)를 가진 지역을 말한다. Mega-City 개념과 혼용될 수 있으나, Mega-City가 단순히 인구측면에서 거대도시를 의미한다면, Mega-region은 인구, 경제력, 경쟁력 등이 포함된 광역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과거 2000년 초기부터 부산은 부산권이라는 이름으로 광역적 개념에서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배제한 부산 중심의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어 도시기본계획과의 차별성이 없었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공간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하며, 도시 이미

지의 형상화와 동남권 지역과의 상생 혹은 동남권 지역 중심도시로서 형성 목표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Mega-region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Mega-region 계획은 부산의 위상, 국내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아닌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어떻게 세계도시로 뻗어나가야 할지가 주요 관점이며 이에 맞추어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중심도시 이미지의 형성은 도시공간의 재조정 혹은 재창조뿐 아니라 구성원 혹은 개별 자치단체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의 도시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봐야 한다.

계획의 현실화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실무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역협의체를 조직하고 확고한 발전 트렌드와 지향점으로부터 장기적 관점에서의 상생방안과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 배분을 협의체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Mega-region 스마트 플랫폼을 만든다거나 부산~울산~경남 지역 간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부산권의 개발과 광역교통망을 형성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광역행정청 설립·운영 및 광역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하는 등의 선행작업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맺는말

본고에서는 세계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강, 바다와 같은 수변으로부터의 정체성 확립과 미래상의 정립, 시민활동 중심의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비전구축을 위한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며, Mega-region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의 재편, 광역도시계획 협의체의 구성, 서부산권의 개발과 광역교통망 형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도시전체 건축물의 높이 제어를 통해 보호되어야 할 경관자원을 형성하고 해양~산~강으로 연결되는 어우러진 공간창출을 통해 도시이미지를 형성하여 시민활동을 전제로 하는 친수 복합도시 조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부산이 세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산이 가진 이러한 역동적 역사와 부산시민의 긍지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부산이라는 거대도시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부산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가지게 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도시공간계획, 건축계획, 스카이라인 계획에 반영하여 보다 부산다움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역량을 제고하고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융통성 있는 현실적인 계획 수반이 필요할 것이다.

백태경 프로필

Kyushu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박사학위(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토지이용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를 취득하였고 Kyushusangyo대학 도시디자인공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동의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와 대학원 공간정보시스템학과 주임교수를 역임하면서 연구를 수행중이다. 현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장이다.

참고 문헌

1. 부산시 홈페이지(시대별 부산역사, <http://www.busan.go.kr/prehistoric>)
2. 『메가프로젝트와 오늘의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7
3. 『2006 부산학연구』,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6
4. 『미래도시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2006
5. 『대한민국이 본 부산의 미래』, 부산연구원, 2017
6. 『낙동강 환경·역사·문화 공존의 리버 프론트 창출해야』,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2016
7. 『4차 산업혁명과 공유경제 시대의 시민중심 도시계획 방법 연구』, 2019

늦춰진 사회서비스원 설립 만전 기하고 복지분권 실행 방안 강구를

남 찬 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부산시의 사회복지 문제

부산시의 인구문제는 다른 사안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회복지에도 대단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산시의 인구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높은 노인인구비중 그리고 빠른 인구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부산시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83으로 특·광역시 중 서울(0.72)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인구비율은 2020년 19.1%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341만 4천명으로 2015년 351만 4천명에 비해 3% 가량 감소하여 신도시 조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서울과 대전을 제외하면 특·광역시 중 인구감소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부산복지개발원, 내부자료). 이와 같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노인인구 증가는 1인 가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또 이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독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5.1%로 특·광역시 중 광주(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빈곤의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문제와 연관된 문제 외에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로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격차 문제이다. 2018년에 부산복지개발원이 실시한 복지실태조사에 의하면 부산시의 평균가구소득은 3,881.9만 원이었는데 이를 지역별로 보면 동부산은 4,228.2만 원, 중부산 3,720.1만 원, 서부산 3,926.4만 원으로 나타나 지역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박경하 외, 2018). 이러한 격차는 사회서비스에도 반영되었는데 영유아가 있는 경우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동부산 지역은 15.1%인데 비해 중부산 17.2%, 서부산 30.6%로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부산의 복지사업으로 중요한 것 중 노인돌봄 확대가 80% 이상의 높은 응답을 얻었는데 지역별로는 동부산 지역이 노인돌봄 확대 찬성에 69.9%가 응답한 데 비해 중부산은 80.6%, 서부산은 86.8%의 응답률을 보였다(박경하 외, 2018).

이와 같은 인구문제와 지역격차를 고려한 사회복지정책은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구성될 수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 부산시가 추진할 수 있는 주된 정책은 주로 사회서비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으로 사회서비스원과 복지분권에 초점을 맞추어 부산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 정부에 와서 추진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9).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 특수법인(공익법인)으로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2019년에 4개 지역(서울, 경기, 대구, 경남) 그리고 2020년 5개 지역(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등 9개 지역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2년까지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초 부산시는 2019년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2020년 중반에 갑작스럽게 사회서비스원 설립 신청을 보류한 바 있다. 아마 부산시로서는 좀 더 계획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였겠지만 연구용역과 실무추진단을 거친 부산시의 계획이 선발주자로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하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왕에 사회서비스원에서 후발주자가 된 부산시는 선행주자들의 시행착오를 반성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누리게 되었다. 현재 부산시는 2022년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보건복지부, 2020) 준비과정에서 만전을 기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운영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사회서비스원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시·도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종합재가센터이다. 당초 정부는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이용자를 개소당 100명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용자 100명 확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합재가센터가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공급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민간공급자가 이용자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를 매개로 이용자를 확보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는 민간공급자와 차별화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어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민간공급자와 차별화될 수 있는 서비스의 일차적인 형태로는 민간공급자가 제공하기를 꺼리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기존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돌봄종합서비스를 통합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가 참여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종합재가센터의 서비스를 경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종합재가센터는 민간기피이용자 대상의 서비스나 맞춤형 돌봄이용자 대상의 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를 토대로 일반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종합재가센터의 서비스가 명실상부한 종합서비스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종합재가센터는 노인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고 그 서비스 내용은 민간과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종합재가센터가 진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노인돌봄과 장애인돌봄을 같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수발 외에 가사지원과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도 바뀔 필요가 있지만 부산시만이라도 이러한 서비스의 종합적 제공방안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재가서비스의 유연성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근로조건 개선의 우선순위를 우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방안이 여기까지 진행되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근로조건 개선을 명분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

되는 것도 사실이다. 즉 노인요양서비스나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와 같은 돌봄서비스는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야간이나 주말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근로시간이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로조건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다 보니 이런 점이 충분히 감안되지 못한 점이 있다. 이 점도 종합재가센터가 이용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로시간의 경직성으로 인한 종합재가센터 운영의 어려움은 그나마 형편이 낫다고 하는 서울의 사회서비스원에 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는 서울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세워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행주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후발주자로서 이 점을 염두에 둔 운영모델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이 센터의 운영기반은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수요가 많은 지역부터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광역단위의 사회서비스원은 기초단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종합재가센터의 지도감독 기능 및 민간기관에 대한 교육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와 구군의 협조가 필요하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의 예로는 경기도를 들 수 있는데 경기도는 2021년도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위해 이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를 공모하였고 그에 응한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종합재가센터의 운영에 협력할 것을 약속받았다. 물론 부산시는 경기도와 지역특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종합재가센터 운영에 기초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한 점은 동일하므로 경기도의 사례는 참조할만하다고 본다.

여기서 언급한 사항 외에도 많은 고려사항이 있는데 기왕에 부산시가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후발주자가 되었으므로 선발주자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내용 면에서는 선발주자에 못지않은 선도적 모델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복지분권 : 기초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

부산시의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으로는 복지분권 문제를 들 수 있다. 복지분권은 지난 2005년에 단행된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추진된 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은 그 자체로도 불완전한 점이 없지 않았고 또 그 이후의 정책에 의해 적절히 뒷받침되지 못하여 오히려 국고보조사업이 그 이후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지방이양의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지방분권을 다시 추진하면서 복지분권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처럼 복지분권이 다시 추진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복지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이 주로 문제가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산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는 부산시 소재 기초자치단체 간 복지지출 격차 완화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간 복지지출 격차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의 하나는 예전대 부산시 복구의 경우 2019년도 복지지출이 구 전체 예산의 71.4%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복지지출이 구의 재정을 극도로 경직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복구의 복지지출이 이처럼 극도로 높은 것은 이 지역에 설립된 임대아파트의 슬럼화에서 기인한 것인데 임대아파트 설립 정책은 1990년대 초 당시 부산시의 정책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현재 복구가 직면하고 있는 과다한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할 책임이 부산시에 있다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간 복지지출 격차 완화 차원에서 부산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기초연금에 대한 부산시의 비용부담분 산정방식의 개선이나 조정교부금의 교부방식의 개선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인데 기초연금의 시 비용부담분 산정방식 개선에 있어서는 복구 등 재정자주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재정자주도 구간을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교부금 개선에 있어서는 재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끔 산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산세 공동과세 방안을 부산시에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가 소속 기초자치단체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역할분담도 보다 용이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분권도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남찬섭 프로필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연구에 관심이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부산복지개발원 이사 및 정책기획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공역으로 『사회복지정책론 :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이 있으며, 『공공부조와 기초연금 등 각종 현금급여 간의 관계설정의 원칙』, 『지방자치와 복지국가 간의 관계와 복지분권에의 함의』 등 다수의 논문이 있다.

참고 문헌

- 박경하·진재문·황보람·임세희·권세혁. 2018. 『부산시민 생활 및 복지실태조사 연구: 부산광역시 복지실태조사 기초분석』, 부산광역시·(재)부산복지개발원.
- 보건복지부. 2019. 『2019년 사회복지서비스원 시범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20. “부산시, 2022년 사회복지서비스원 설립 목표로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원하되 간섭않는 ‘팔 길이 원칙’ 지키며 자율성 북돋워야

김 원 명

경성대 음악학부 교수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 역대 부산시장의 영욕의 역사를 이 지면에서 모두 주절거릴 필요는 없겠지만, 차기 부산시장의 역점 과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직전 시장과 관련된 일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터이다. 지난 2018년 6월, 지역 정권이 실로 오랜만에 교체되어 시민들 마음이 이래저래 꽤나 설레었을 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2020년 4월에 입을 다물기 힘들 정도의 수치스런 사건이 시민들의 눈앞에 딱하니 벌어지고 그 설레는 마음은 이내 충격과 분노, 자괴감에 그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다가올 일을 논하기 전에 타산지석 삼아 잠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기억을 되살려 보자. 오거돈 전 시장이 55.23%의 지지율로 당선된 이후 인수위 원화가 꾸러졌다. 6개 분야로 나누어진 인수위 조직 안에는 당연히 문화예술 분야가 제대로 한 구석이라도 차지하러니 은근히 기대했다. 오랜 세월 부산에서 문화예술이 찬밥 신세로 느껴졌기 때문이리라. 그런데 웬걸? 인수위 조직 안에 문화예술이라는 단어가 눈에 쉽게 띄지 않았다(물론 구석 어딘가 ‘건강한 행복도시 분과’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지명도 있는 문화예술계 인사 이름들도 별로 보이질 않았다. 이거 뭐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살짝 불안한 생각까지 스쳐 지나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문화예술 영역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심하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우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로 나타났다.

당시 인수위에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의 노력과 공헌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옹호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더더욱 없다. 문화예술이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며, 문화예술 분야가 정권 교체와 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현실이란 교과서처럼 움직이지 않고, 입장과 시각에 따라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문화행정의 원론적 주장을 하려 한다.

어떤 경우에도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문화예술인들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마땅하고 정권의 칼끝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문화예술의 본질적 속성은 자율성과 창의성, 다양성에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팔 길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안타깝지만 적어도 필자의 시선에서는 이 정권 교체로 인해 지역의 문화예술의 가치가 더 무겁게 다루어지지는 못했다. 오히려 문화예술을 발판으로 칼자루를 쥐고 싶어 하는 문화권력 바라기들이 읍지양지에서 활개 치는 불편한 장면조차 여기저기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한두 가지 들어보자. 먼저 현재 건립 중인 부산오페라하우스 이야기다. 2008년 롯데그룹의 1,000억 기부 약정으로 건립에 시동이 걸린 오페라하우스는 만만치 않은 사업비로 인해 건립면적과 시설 축소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부산의 랜드마크 문화시설로 건립하기로 오래 전에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했다. 건립에 대한 원점 재검토는 물론, 심지어 오페라하우스를 야구장 건립으로 대체하자는 주장까지 나돌았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해도 이런 막무가내가 어디 있는가(오해를 줄이기 위해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시 필자는 오거돈 시장을 지지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조감도(출처 : 부산광역시)

이참에 부산의 공연장 상황을 잠시 돌아보자. 부산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겠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부산의 공연장 시설들은 지금도 여러 가지 중요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전문 공연장’은 단 한 곳도 없다. 일반 시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부산 문화회관(1988년 개관)이나 부산시민회관(1973년 개관) 같은 공간은 아직 까지도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장들이지만 정확히 말해 복합문화공간이다. 즉 여러 성격의 공연과 전시, 심지어 컨퍼런스까지 모두 소화해 낼 목적으로 지어진 다목적 홀인 것이다. 그런데 이 복합문화공간들이 의도 만큼 여러 목적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역설적으로 말해, 다목적 홀은 단 한 가지 목적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왜 이런 공간을 지었을까? 단적으로 말해 이런 공간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던 시절 지어진 시설들이다. 시민회관은 건립한 지 50년이다 되어 가고, 문화회관도 30년이 넘었다. 세월이 흘러 컨퍼런스 기능은 벅스코가 이미 대체했고, 전시 기능은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이 잘 수행하고 있다. 이제 어중간한 공연 시설들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마침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을 대표하는 모 오페라단의 단장(참고로 이 분은 현재 대한민국오페라단연합회 이사장과 대한민국오페라발레추진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예술의 전당이 수여하는 예술대상 오페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으로부터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도 내년 오페라 공연을 준비한다. 결국 오페라들 가운데 하나지만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19세기 러시아 작곡가 A. 보로딘의 <이골 공>이다. 반가운 마음에 공연 일정과 장소를 물어보니 서울과 대구의 오페라하우스에서만 내년 11월 공연하기로 되어 있다. 부산에서는 풀 프로덕션 공연이 아니라 콘서트 형식으로 간단히 할 계획만 있다고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부산의 오페라단 공연이 정작 부산에서는 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부산 시민들이 야구를 좋아하니 오페라하우스 지을 자리에 야구장이나 하나 더 짓자는 주장을 했던 정치인과 주변 인물들이 당시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이 문제를 심사숙고했는지 묻고 싶다. 모르면 겸허하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볼 일이다. 선거 이후 4개월에 걸쳐 부산 문화관에 휘몰아친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재검토 사건은, 칼자루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일부 문화 정치인들의 오만이 불러온 해프닝으로 끝났다(논란의 핵심에는 건립

비용의 문제도 있었음을 들어 알고 있고, 오거돈 전 시장은 2018년 11월 25일 건립 재개를 선언하였다).

말 나온 김에, 서울과 대구에는 있는데 아직 부산에는 없는 두 가지가 있다.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이다. 다른 도시에 있다고 반드시 우리 도시에 꼭 있어야 하느냐, 혹은 부산에는 영화의 전당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에게는 할 말이 없다. 그 분들 주장대로라면 부산 시민들은 영화와 야구만 보고 살면 될 일이다. 오페라하우스와 더불어 부산 최초의 전문 콘서트홀로 탄생하게 될 ‘국제아트센터’도 부산시민공원 내에 건립되고 있다. 수년 후 이 두 메머드 전문 공연장이 새로운 차원의 공연 문화를 잘 펼칠 수 있도록 차기 부산시장은 산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역시 지역의 정권교체와 맞물린 사례이며 공연장과 관련된 사례다. 부산에는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이외에 2000년대 들어서 건립된 여러 개의 공공 공연장들이 있다. 이들은 기초자치단체들이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들이다. 사하구의 을숙도문화회관은 금정문화회관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2002년 개관했다. 개관 후 접근성의 한계로 이렇다 할 공연도 관객도 없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다.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문화회관
(출처 : 부산문화재단)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백건우, 장영주, 정경화, 임동혁 같은 세계적 연주가들이 하나둘씩 방문하는가 싶더니 개관 이후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오페라 공연을, 그것도 부산 초연의 대규모 오페라나 창작오페라까지 자체 제작으로 무대에 올려 지역 언론들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들의 오케스트라 축제도, 지역 오페라 단들의 오페라 축제도 을숙도문화회

관에서 개최되어 문화의 변방에 위치한 을숙도문화회관이 마치 지역 공연 예술의 새 중심지가 된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급기야 2018년에는 한국의 어느 공연장도, 공연단체도 쉽게 도전하지 못했던(지금까지 부천시향과 서울시향 두 단체만 수행하였다) ‘말리 교향곡 전국 연주 대장정’까지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드라마는 딱 여기까지였다. 2018년 지방정권 교체로 칼자루를 쥔 모 지역 정치인들이 공연에 대한 간섭을 시작했고, 그 간섭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자 권력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10년의 세월 동안 을숙도문화회관의 극적 변화를 일구어낸 그 전문가는 더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관계자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리를 떠났다. 그동안 그를 도와 일했던 다른 전문가들도 하나둘씩 떠났고, 그가 10년 세월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드라마는 이로써 역사의 뒤안길로 묻히고 말았다(‘말려 교향곡 전곡 연주 대장정’은 현재 중단된 상태).

지난 지방선거 때의 정권교체와 맞물린 사례들을 들추다 보니 마치 이번에도 다시 정권 교체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비추어질 지도 모르겠는데, 단언컨대 필자에게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다. 차기 시장의 역점 과제로서 현안과 제언을 중심으로 글을 써 달라는 요청에 따라 누가 되든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것일 뿐이다. 내년에 어떤 정권이 권력을 잡든, 누가 시장이 되든 문화예술 분야는 큰 흔들림이 없이 자율적으로 흘러가야 한다. 차기 부산시장에게, 그리고 주변의 문화 정치인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시라. 팔 길이 원칙을 지켜 주시라.

부산문화재단이 2019년 하반기에 내부 기구로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했다. 재단이 지난 2009년 출범한 이래 10년 동안 숙원 사업으로 여기던 것이다. 부산시의 문화예술 지원 사업만 수행하는 하청 기관 정도의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여겨진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을 향한 중요한 진일보이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긴 하지만 문화예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2020년 9월에는 ‘부산문화재단 비전2030’도 발표한 바 있다. 아직은 갈 길이 먼 부산문화재단과 산하 정책연구센터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문화예술 행정 분야에 있어서 차기 시장의 중요 과제라 여겨진다.

어차피 선거는 정치권력을 탄생시키고 이 권력은 권력의 정의가 그렇듯이 스스로의 뜻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일견 한국의 정치판이 크게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으로 나누어져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필자 소견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진정한 보수도 진정한 진보도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이념 자체가 더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조금 과장한다면 서울의 식민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지방(지역이라 표현해야 더 적절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보수, 진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다리 지역분권, 국토균형개발 같은 의제가 부산 시민들에겐 훨씬 유효하다.

문화예술 영역으로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더 극명해진다. 대한민국의 예술인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한국예총(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과 민예총(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 있다. 부산에도 두 단체의 지회가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정권 교체 이후 부산의 문화판에는 실제로 민예총 소속 예술인들이 예술 현장에 크게 약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자. 정치적 이념 측면에서 한국예총은 보수 예술인, 민예총은 진보 예술인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현실을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왜곡하는 것이다. 한국예총은 1947년, 민예총은 1988년 각각 탄생했다. 한국예총 회원들 중에 진보적 성향의 예술인들도 얼마든지 있고, 민예총 회원들 중에도 기실 보수적 성향의 예술인들도 많다. 정치적 이념에 따른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더 중요한 의제는 중앙 정치권력, 문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정치나 행정을 하는 분들이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긴 어렵고 될 필요도 없다. 누가 차기 부산시장이 되든 문화예술 영역만큼은 그 본질과 속성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놓아두길 바란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김원명 프로필

문화일보 신춘문예 음악평론 당선으로 음악평론가로 활동 중이며,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재)부산문화회관 창립 이사, 금정문화회관 음악감독, 을숙도문화회관 예술감독, 한국음악학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부산음악평론가 클럽 대표, 한국음악응용학회 회장, (재)부산문화재단 정책위원회 예술지원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다. 부일여성대학(부산일보), MBC여성시대 등 초청특강을 200여회 가졌다. 부산음악상을 받았다(2007/부산음악협회).

02

지역연구 특집 2

人文의 미래, 부산의 미래

<지금, 이곳>의 인문학 체화 통해 부산발 세계인문학 전개를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골목, 도시의 영혼이 자라고 있는 '곳'
지역 역사·문화·기질 오롯이 담긴 부산음식, 수용성·개방성 돋보여
해불안과 바람(願)과 희망... 이제 '우리'와 '과정'을 중시할 때

남송우
김수우
최원준
조봉권

<지금, 이곳>의 인문학 체화 통해 부산발 세계인문학 전개를

부산 인문학 운동의 갈래와 방향성

남 송 우

부경대 명예교수



말문을 열면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지났다.¹⁾ 법까지 제정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가 점점 쇠퇴하여 법으로라도 진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그런데 부산지역의 인문학 상황은 어떠한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인문학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인문학 단체들은 힘들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이 운영하는 기존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는 관에 박은 듯한 천편일률적인 인문학 강좌들이 백화점 상품처럼 현란한 수사적 명패를 달고 시민들을 손짓하고 있다. 또한 사설 기관에서도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펼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주관하는 스타 강사들이 출현하는 인문학 강좌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형국이기도 하다. 이런 현상을 보면 인문학이 부흥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그러면 정말 인문학은 부흥하고 있는가?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화내빈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제대로 확인하고 부산지역 인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이 이 글의 의도이다.

특히 부산시는 아직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부산시의 정책 방향은 행복도시를 내걸고 있지만, 시민들의 근원적 행복을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은 부재한 상태이다. 오직 자본의 논리에 기대어 사람들의 물욕만을 채워주고 살림만 풍족하게 해주면 행복이 따라올 것이라는 시정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욕의 충족이 인간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시대적 가치로서의 인문학의 필요성과 진흥에 대한 구체적 제도들이 지금, 이곳에 맞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성을 총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1) 법률 제13940호로 2016년 2월 3일 제정하였으며, 2016년 8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1. 대학 인문학 연구의 현실과 한계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심심찮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문학, 사학, 철학으로 대표되는 인문학 관련 학문에 대한 관심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인문학의 뿌리 같은 철학과가 대학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문 관련 학과들이 통폐합되는 과정을 겪었다. 현실적인 응용력과 경쟁력이 없는 영역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영역들이 우선시되는 사회현실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즉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어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의 팽배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문학의 존재를 돌아볼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의 심화는 결국 인간의 삶에서 사람을 물화시킴으로써 비인간적 삶의 상황을 빈발하는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인간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가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 것이다. 인간의 근원적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새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학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고, 정부차원에서도 인문학의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계속 마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대학의 인문학 교육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수준이다.

인문학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들이 제주도에 모여 '인문학 제주 선언'을 발표한 것이 1996년 11월이었다. 이후 인문학 교수단체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이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인문학 증진을 위해 교육부는 2007년 인문한국사업(HK사업)을 시작했다. 인문학 발전을 위해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전국에 산재한 대학에 각각의 인문학 연구소(43개에서 현재는 57개소)를 설립해서 전임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 그 시간이 벌써 10년이 지났다. 10년 동안의 연구 성과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나름의 연구 성과가 대학의 인문학 연구에 분명히 보탬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축적된 연구물들은 연구를 위한 연구로 남아 있다. 대학 내에서 학생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의 차원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으로 환원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그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매개로 활용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의 인문학 연구의 내부를 엄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HK사업으로 인해 대학의 인문학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대학 내에서 인문학의 비중과 역할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HK 사업 이후에 교육부가 인문교육의 강화를 위해 소위 CORE사업을²⁾ 또 시작한 것을 보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을 기해 발효되었다. 대학에서 인문학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인문정신이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이렇게 법으로까지 강제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학 밖에서의 인문학 열풍은 여전히 그 열기를 더해 가고 있는 형국을 감안한다면, 그 동안 대학의 인문학 연구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그 동안 각 대학들이 HK사업을 위해 설립한 인문 연구소들이 수행한 인문학 연구 결과물들이 모든 대학 내에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인문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는가 하는 점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학생들의 인문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인문학 연구가 연구를 위한 연구에 치중되어온 점을 부정할 수 없다. HK 사업을 진행하는 대학들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데 급급했지, 자신들의 연구결과를, 대학에 뿌리내리게 하는 작업과 타 대학으로 환류시키는 데는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 요구하는 연구 실적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과 방향이 대학의 인문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힘든 연구 결과물들도 양산되었다. 모든 인문학 연구가 현실적 실용성에만 목을 맬 수는 없다. 이런 인문학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인문학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전통적 인문학을 현재적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문학으로 전환시켜나가지 못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의 인문학 연구는 전통적 인문학의 본질과 가치를 어떻게 현재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난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했다. 대학에서의 인문학 연구가 이런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대학 밖에서의 인문학은 또 다른 양상으로 번져나게 된 것이다. 대학에서의 인문학 연구가 제대로 실현되어 대학

2) 이 사업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 initiative for COLlege of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은 기초학문으로서 인문학 역량·위상 강화 및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문학 육성사업으로 학과/교육과정 개편의 Two-Track으로 지원했다. 발전 모델 유형은 글로벌 지역학, 인문기반 융합, 기초학문 심화, 기초교양 대학 등으로 나누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차로 344억원의 국비가 지원되었다.

사회에 인문학의 뿌리를 더욱 든든히 하고, 이를 대학 밖, 사회 속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수 있는 풍도를 만들지 못한 결과이다. 오히려 대학들이 인문학을 자본의 논리에 속박시켜 상업화함으로써 자본의 논리를 넘어서야 할 인문학이 자기성찰의 비판정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대학은 인문학 연구의 방향과 내용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시기이다. 대학은 인문학 연구를 통해, 허물어진 인문학의 영역을 고쳐세우고, 인간됨의 의미와 삶의 내용을 동시대인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대학 내에서의 인문학 연구가 지닌 한계요, 문제점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된 10년 이후의 HK 플러스 프로그램에서는³⁾ 지역 인문학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대학 인문학 연구소와 지역 인문학 단체들의 선순환 고리 필요

그동안 부산지역에서도 몇 대학에서 이른바 HK 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이 대학 자체만의 프로그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역인문학 센터를 통해 지역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을 생성해내야 한다. 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인문학 단체들과 서로 소통하며 교류하면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든지, 상호보완할 수 있는 영역을 새롭게 구축해내어야 한다. 서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더 다양하고 풍성한 인문학의 바다에서 유명할 수 있는 인문공간들과 프로그램을 창출해내어야 한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부산지역의 경우, 현재 인문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대학, 부경대학, 동아대, 해양대학, 경성대학, 부산외대 등과 부산 인문학 단체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⁴⁾ 부산지역 인문학의 실질적인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담론창출을 위해 모임을 정기화하여 현안을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3) HK+ 사업에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부산지역대학은 부산대학 점필재 연구소, 부경대학 인문학국플러스(HK)사업단, 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경성대 한자문화연구소, 부산외대 지중해연구원, 라틴아메리카인문학센터, 아프리카 연구센터, 중남미지역원 등이다.

4) 현재 부산지역 인문연대의 결성에 참여한 대학과 지역 인문학 단체는 다음과 같다.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 동아대 석당학술원, 모듬이극장, 문화공간불, 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백년어서원, 부경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HK)사업단,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동남아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라틴아메리카인문학센터, 부산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센터,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시네바움, 신생인문학연구소, 연구공간수이제, 인본사회연구소, 필로아트랩



부산인문연대 활동 중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역사탐방(동래)

한다.⁵⁾ 인문학은 대학의 연구영역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되고, 동시대인들의 삶 속에서 구체화해야 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대학 인문학 연구소는 연구, 학술대회 및 교류, 지역시민들과의 인문학적 소통 등의 사업을 펼쳐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구소 자체 연구에 가장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는 사업단으로 연구소가 설립되어 소기의 연구성과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성과를 견인할 학술대회나 외국과 학술교류에 신경을 썼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시민들과 함께 인문학을 통해 만나는 시간을 갖기가 힘들었다. 인문학 연구를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나타나는 피해갈 수 없는 결과였다. 인문학의 실질은 연구나 공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인문학의 가치는 생명성을 지닌다. 인간의 사유와 생각, 나아가 삶을 바꾸어 나가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인문학은 여전히 창고에 먼지를 이고 쌓여 있는 책더미에 불과하다.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인문학 연구는 시민들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그 길은 시민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

5) 2020년 처음으로 <부산인문연대>가 결성되어 부산지역 대학 연구소와 인문단체들이 함께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대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인문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여러 소주제들을 기획했다. 우선 인문 토크, 인문 포럼 등이 주요 논의와 좌담의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을 세대별로 분류하였다. 어린이 인문학, 청소년 인문학, 청년 인문학, 장년 인문학, 어르신 인문학 등의 이름으로 마련하였다. 그리고 시네 인문학, 해양 인문학 등으로 영역별 주제도 기획했다. 그리고 위기의 지역과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고민하였다. 이에 '아프리카'라는 주제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 아프리카 대륙의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이로써 부산의 인문학이 좀 더 넓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될 기회로 삼았다. 특히 제국주의 침략의 문제를 아프리카 대륙의 땅따먹기라는 주제로 보드게임이나 다른 장르와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그런데 대면과 비대면의 세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처럼 새로운 경계로 우리의 삶에 작동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대면과 비대면의 세계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어, 이에 부산 인문연대는 다양한 방식의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실험하고자 했다.

문학 단체들과 대학의 인문학 연구소가 서로 긴밀하게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3. 인문학 강좌의 다양성과 그 대상의 다양화

그러면 인문학 강좌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까? 우선은 인문학을 배우는 대상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사실 현재 지역 인문학 프로그램은 청소년과 성인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한 지역사회의 정신가치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인간이 출생한 이후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 인문학 공부는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평생교육(평생학습)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학습은 수용성이 높다. 이런 관점에서 인문학 프로그램도 어린이 인문학에서 시작해서, 청소년 인문학, 중장년 인문학, 노인 인문학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연령대에 따른 인문학 프로그램의 고안 및 개설 프로그램의 설계는 필수적이다.

특히 어린이 인문학의 개설은 어린 시절부터 생각의 터를 마련하고, 사고의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같이 학교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어린이 인문학 교육이 일정 부분 이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철학적 사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의 오해이다. 외국인 경우, 어린이 철학 교실은 수없이 시도되었고, 현재 국내에는 <어린이 철학교육 연구소>를 중심으로 이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 인문학의 한 모델은 <인디고 서원>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청소년 인문학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부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문제의 세대가 되어 있는 중학생 세대들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천은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에서 주로 펼쳐지고 있는 인문학 강좌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인 인문학에 대한 강좌는 노인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강좌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노인 인문학은 펼쳐지지 않고 있다. 급증하는 노인들의 삶을 건강하게 지탱해줄

노인 인문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창안하고, 이를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해야 할 상황이다. 노인층 안에서도 다양한 생애의 편차가 있기에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곤란하다. 다양한 노인층의 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 인문학 연구회를 준비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에 따른 인문학의 분화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집단체를 중심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펼칠 필요도 있다. 특정 집단이라 볼 수 있는 교도소, 병원, 요양원, 외국인 근로자, 공장 근로자, 군부대, 특정 소외마을 등 다양한 지역별로 성격을 달리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이미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기관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기관을 그 대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산의 경우는 자갈치 시장이란 특수 공간을 중심으로 자갈치 인문학을 설계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집단들은 연령층으로 묶이는 점도 있지만, 그 공간에 소속된 자들이 지니는 특성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인문학 강의 내용을 특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다원화된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획일적인 혹은 유일한 하나의 가치를 교육하거나 유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문학 공부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지점은 철저히 이 개인성을 존중하고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의 다양한 대상만큼 인문학의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나가야 한다.

4. 토론 중심의 교육방식과 글쓰기

인문학 내용의 다양화와 대상의 다양성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인문학 공부의 방법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현재 인문학 강좌는 대부분 일방적인 강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강의도 필요하지만, 강의만으로 인문학 공부의 궁극적 목적을 제대로 실현시키기는 힘들다. 강연 중심의 인문학 강좌를 넘어서야 한다. 강연 중심의 인문학 강좌 형태는 수강자들에게 주체적인 인문학적 사유와 실천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일방향적인 강의는 근본적으로 계몽적 성향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다. 계몽적인 성격의 강의를 인간의 삶의 변화에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체적인 깨달음만큼 그 생명력은 길지 않다. 수강생들이 주체

적으로 인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어 나가려면 수동적인 강의 수강만으로는 역부족이다. 강의의 형태를 수강자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자신을 정립하며,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진정성과 맞서는 힘을 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세계인식과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세계인식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인문학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고전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하고, 그 삶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추동하는 힘을 키우는 데 있기 때문이다. 실천력 없는 공부가 주는 폐해가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워왔기에 현재의 인문학 공부는 이 폐해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공부는 머리만 키워 팔다리를 힘들게 할 뿐이다. 인문학 공부는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인문학 공부를 위해서는 일방적 강의보다는 토론형식의 대화적 모임이 바람직하며, 전문가의 멘토 역할도 필요하지만, 참여자 스스로 고전 텍스트를 읽고 서로 나누는 형식의 소모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강좌를 수강하는 형식의 대단위 인문강연이 전혀 무익한 것은 아니지만, 수동성이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다. 스타 인문 강사를 통한 인문강좌가 힐링의 차원에서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힐링용 대중강좌는 인간의 마음에 자리한 근원적인 마음의 병을 치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스스로 치유를 수행해 갈 수 있는 형태의 인문학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시민 중심의 자발적인 인문학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른바 인문학자들이 대중을 상대해서 강의하는 강연 중심의 인문학에서 벗어나 시민 인문학 동아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방향이 인문학의 대중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방향이며, 인문정신을 확산시켜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인문학 공부의 궁극적 지향점이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점에서, 인문학 공부는 체화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그러므로 인문학 공부는 개인의 자발성을 최대한 살려나가야 한다. 인문학 교육이 아니라, 인문학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 강좌는 기본적으로 일방적 강의식의 방법을 가능한 한 배제해야 한다. 텍스트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책읽기 과정이 선결되어야 하며, 참여자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텍스트 해석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타자와 함께 토론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동일한 텍스트를 각자가 서 있는 입장에서 다양하게 해석함으로써 한 텍스트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의미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서로의 입장이 맞서는 부분들은 토론을 통해 소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텍스트가 주는 의미를 체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그 체화의 정도는 온전하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토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 단계가 글쓰기이다. 인문학 공부의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인문학 관련 텍스트를 읽는 데 있지 않다. 그 텍스트가 고전이든 현대이든 관계없이 텍스트가 던지는 의미를 지금, 이곳에서 현재화하고 자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학 공부 과정에는 텍스트를 같이 읽고 토론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인문학 공부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 공부는 결국 깨달음을 실천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실천력을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체득의 과정으로 인문학 텍스트가 던지는 의미를 자기화해야 한다. 자기화 즉 체득이 이루어져야 실천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화 과정으로서 글쓰기 만한 것은 없다. 쓰기를 위해서는 일단 사유가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즉 쓴다는 행위는 자신의 사유를 객관화할 수 있는 매개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되새김질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텍스트의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는 수준에서의 글쓰기가 아니라, 늘 텍스트와 거리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판적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텍스트의 의미를 현재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5. 융합적 인문학의 장 열기

현재 인문학 강좌는 다양한 과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그 과목들이 전통적인 문, 사, 철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영화나 음악, 미술이 곁들여져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인문학이 지금, 이곳의 인문학으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가려면, 빠른 시간 안에 인문학 강좌 내용을 융합적 영역으로 창출해내어야 한다. 인문과학 영역에 고착되지 말고, 사회과학 나아가 자연과학 영역과 만나야 한다. 예를 들면, <노인과 바다> 작품을 읽으면서, 해양학의 시각에서 그리고 노인학의 관점에서조차 작품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인문학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 지점이, 이 세계에서 중심체인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가에 놓여있기에, 세계를 가능한 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총체적이면서 통합적 시각을 지닐 때, 인간이 자리할 위치가 제대로 보이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가 어느 정도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인문학은 일상화된 현대인의 삶과 밀착된 자연과학기술 영역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기계와 함께 공존해야 할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는 전통적 인문영역의 가치나 의미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융합해내지 못하면, 그 의미는 퇴락하고 만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융합인문학 논의는 활발하지만, 아직 제대로 된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지역 인문학도 동시대인들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인문학을 위해서는 융합인문학의 영역 창출을 위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이는 두 영역 이상을 한 데 아우르는 작업을 해야 하기에 처음부터 한 강사가 융합적 인문학 강의가 힘들면, 두 영역의 전문가가 팀티칭 형태로 함께 논의의 장을 열어 융합적 시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융합적 인문학의 개척을 위해 인문, 사회, 자연과학 영역의 전공자들이 특정한 주제를 놓고 함께 논의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6. 인문학의 현재성을 위하여

인문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나감에 있다. 그러므로 인문학을 통해 단순히 고전의 지식을 이해하고 깨달아, 그 깨달음의 기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깨달음은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나가는 동인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문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인간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점점 인간적인 사회로 바뀌어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문학 운동이 번져나가면 나갈수록 인간다운 삶의 양상이 우리 사회의 주류로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인문학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삶의 모습을 냉정하게 따져 보면, 과연 인문학의 열풍만큼 인문학적 삶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시원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이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가? 여러 가지 차원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문학적 지식을 제대로 체화하지 못하고 지식의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고 머리로는 이를 이해하고 깨닫고, 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지만, 이 지식과 깨달음을 자기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자기화한다는 의미는 머리로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삶으로 이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실천이 없는 인문학 공부는 지식에 대한 헛된 욕망은 채워줄 수는 있지만, 삶을 바꾸어내지는 못한다.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인문학의 열풍은 말 그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는 열풍일 뿐이다. 그러면 이 지나가는 열풍을 생명력 있는 인문학으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문학 공부를 <지금, 이곳>의 인문학으로 체화해야 한다.

<지금, 이곳>의 인문학으로 체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인문학 공부의 텍스트가 되는 고전들은 사실 지금의 텍스트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란 의미 속에는 고전의 현재화라는 과제가 일차적으로 개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고전의 내용을 현재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난 고전의 의미를 현재적 상황 속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전을 고전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의 의미를 현재의 문맥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한다.

인문학을 공부하는 자들이 대부분 고전 텍스트를 해석해주는 강의자의 해석에만 만족하고 그 해석의 의미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더 이상의 현재적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다. 참된 인문학 공부란 강의를 해주는 강사의 해석에만 기대지 않고, 그 텍스트를 자기 스스로, 자기대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키웠을 때에 비로소 인문학 공부의 트임길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런 해석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고전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읽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의미를 이차적으로 자기와 연관지어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와 연관지어 해석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삶과 관계지어 고전의 일차적 해석을 의의화 한다는 말이다. 고전의 의미가 의의의 단계로 해석되었을 때, 고전읽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인문학을 <지금>의 의미로 재해석하는 일과 함께 <이곳>화 하는 작업 역시 더없이 중요하다. 인문학의 궁극적 목적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 데 있기에, 삶이 구체화되는 장소성인 <이곳>에 대한 철저한 고민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 인문학이 보편성을 지향하기는 하지만, 그 지역이 지닌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 밀바탕한 인간 이해의 터를 두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짓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부산 인문학이란 지역성을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문학의 내용을 탐색해가면서도,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한 인문학의 고구가 필요하다. 그 구체적 방향성의 하나가 부산지역에서 논의가 가능한 해양인문학이다. 부산지역이 지닌 해양성에 근거한 인문학적 사유이다. 최근 부산이 지향하는 인문학으로 해양인문학의 논의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고려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지역 인문학의 생태계를 제대로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라는 <지금>의 씨줄과 공간적으로는 <이곳>이란 날줄로 엮어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7. 부산발 세계인문학의 터전 마련

부산지역에서 이미 세 번의 <세계인문학 포럼>이 열렸다.⁶⁾ 중앙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기는 했지만, 부산시 예산도 상당히 지원되었다. 그런데 실제 행사내용을 분석해보면, 부산은 공간과 예산을 제공해 주고 부산지

6) 교육부, 유네스코 한국지부, 그리고 각 지자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세계인문학 포럼은 제1회를 2011년 11월 24일-26일까지 <다문화 세계에서의 보편주의>란 주제로 부산에서 개최했으며, 제2회도 2012년 11월 1일-3일까지 부산에서 <치유의 인문학>이란 주제로 개최했다. 제3회는 <질주하는 과학기술시대의 인문학>이란 주제로 2014년 10월 30일 - 11월 1일까지 대전에서, 제4회는 <희망의 인문학>이란 주제로 2016년 10월 27일 - 29일까지 수원시에서, 제5회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인간상>이란 주제로 10월 31일 - 11월 2일까지 부산에서, 제6회는 <어울림의 인문학 : 공존과 상생을 위한 노력>이란 주제로 2020년 11월 19일 - 21일까지 경주에서 열렸다.

역 인문학 활성화에는 별로 영향을 준 바가 없다. 부산에서 세 번의 세계 인문학 포럼이 개최되었다는 단순한 기록 외는 별로 남은 것이 없다. 인문학 관련 학자들의 잔치였지, 일반 부산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메뉴는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인문학과들에게 인문학의 발전이나 부흥을 건인할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아니다. 세 번의 세계인문학 포럼이 철저하게 서울 사람들 중심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이다. 세 번의 세계인문학 포럼이라면, 부산지역 인문학 생태계에 조금의 변화라도 주어져야 했다. 그러나 부산지역의 자발성과 주체성이 빠진 세계인문학 포럼은 지역 인문학에 그 어떤 질적 변화를 추동하지 못했다.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행복도시를 구가하는 부산이라면, 부산지역에 기초를 둔 세계인문학을 지향할 수 있어야 한다. 지정학적인 조건을 두고 본다면, 부산은 세계를 향해 부산발 세계인문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2011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인문학 포럼 포스트

이제 그 내용은 앞으로 부산지역 인문학 진흥을 주도할 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심의체를 통해 주체적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명실공히 부산발 세계인문학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부산지역 인문학과 관련된 대학과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주도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산시민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들을 상시적으로 일상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산 인문학의 실천만이 부산시민이 세계 시민 정신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경제가 힘들고 삶이 고단하게 느껴질수록 이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은 사람의 정신적 태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문학과 인문정신 문화의 진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가정이나 사회, 국가가 무너져 내리는 이유를 깊이 따져보면, 결국 정신이 무너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문학진흥의 필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다.

말을 맺으며

지금까지 논의된 부산지역 인문학의 방향을 제대로 실현해 부산시민들의 삶에 행복을 더하고 삶의 가치를 정진시키기 위해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이 정한 대로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이에 대한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시행해야 한다. 법이 제시하고 있듯이 인

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경상북도, 광주시, 전라남도 등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의 시정이 행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현실적인 시정은 시민의 근본적 삶에 대한 성찰이나 정신적 풍요에 대한 관심보다는 아직도 도시건설이나 눈에 보이는 실적 위주의 행정에 매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야겠지만, 부산의 지역성과 부산시민들의 현실적 요구가 잘 수용된 조례제정을 통해 부산지역 인문학의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시민들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현재의 인식을 정확하게 객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산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문교육에 필요한 역량 있는 인재들을 훈련하거나 교육하는 시스템과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문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을 대상에 맞게 설계하는 등의 작업도 미리미리 구상해 나가야 한다. 이는 조례제정을 통해 그 구체안을 마련해야 하기에 우선적으로 <부산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 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이 그만큼 시급한 것이다.

남송우 프로필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로 프로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회장, 한국문화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인본사회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1981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윤동주 시에 나타난 자기의 문제』가 당선되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평론집 『전환기의 삶과 비평』(1981), 『다원적 세상보기』(1994), 『생명과 정신의 시학』(1996), 『대화적 비평론의 모색』(2000), 『비평의 자리 만들기』(2007), 『이것저것 그리고 군더더기』(2008)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역사가 커켜이 쌓인 골목, 도시의 영혼이 자라고 있는 ‘곳’

인문을 품은 부산의 장소들

김 수 우

시인·백년어사원 대표



기억의 벽돌, 그 인문의 모퉁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가장 단순한 질문이 가장 심오한 인문학이다. 왜 인간이 태어났는지 왜 늙고 병 들고 죽는지 고민하던 싯타르타가 부처가 된 것처럼 말이다. ‘어디서’, ‘어디로’라는 질문들은 근원적인 장소를 묻고 있다. 대답을 수없이 바꾸어가며 우리는 지금을 산다. 장소는 언제나 본질과 실존을 묻는 양식으로 마치 저장해둔 무에서 자란 무순처럼 새파랗게 도전한다.

우리는 장소를 얼마나 읽고 들을 수 있는가. 장소는 존재를 잘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문법이다. 낡은 지붕과 쪽문들이 명사와 형용사처럼 다가오고, 금간 창문과 담벼락은 동사와 부사처럼 말을 건다. 장소는 언제나 보이지 않은 음성으로 우리를 흔든다. 기억은 장소를 전제로 살아있다. 시간이라는 보편적 상상력이 평범한 일상을 우주적인 장소로 열어주는 것이다. 그 장소는 숨은 질서를 나름대로 설정하면서 생명과 가치가 담긴 문화적인 여율을 구성해낸다. 대체로 인간은 자신을 어딘가에 세움으로 존재의 의미를 확보한다. 서 있는 그곳에서 ‘평범한 삶의 위엄’을 발견할 때, 그때 ‘나다움’을 감지하는 것이다.

장소를 안다는 것은 지역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말이다. 장소(Place)는 공간(Space)과 대별된다. 공간이 위치나 방향 등 지구 표면의 물리적 개념을 이르는 반면, 장소는 인간의 체온과 가치를 갖는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기반이다. 기억이 손끝에 묻어나는 그 ‘곳’들에서 ‘우리’라는 의미가 선명해진다. 장소 경험을 공유한 기억의 벽돌로 그 도시의 정신과 문화는 구축된다.

부산은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두 역사적 사건을 통해 도시로 형성되었다. 해방 후 부산항으로 밀려든 귀환 동포들, 다시 한국전쟁으로 7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몰아치면서 부산은 급성장했다. 터전을 잃고 고향을 등진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 산비탈로 산비탈로 올라가야 했다. 부산 원도심과 산마루의 골목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산업사회를 관통하면서 다양해진 삶의 애환을 따라 원도심 골목골목, 부산의 장소성은 춤추해졌다.



장소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부산의 인문학은 출발한다. 한국 근대사를 따라 기억과 상상의 바퀴를 굴려보자. 생존과 생활로서의 공간을 가로질러,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장소성을 확보할 때 부산이라는 도시의 영혼은 반짝이기 시작한다. 몇 군데만 둘러봐도 숨은 이야기들이 햇살 먼지처럼 뽀얗게 일어난다. 느낌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장소성이 넘치는 도시는 시민 스스로가 만든다. 장소 감각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미면서 인문(人紋)의 파장은 결을 이룬다.

장소는 충전소이다. 속도를 위한 에너지가 아니라, 인간다움 즉 삶을 따뜻하게 데우는 생명에너지를 채우는 곳이다. 장소성은 장소의 의미 이상이다. 문화, 역사, 기후 등 장소에 함유된 복합 요인들이 몸과 마음의 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장소에 대한 무감각이 끊임없이 장소를 훼손시키고 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자연의 매력을 잃어버릴 만큼 개발되고 또 개발되었다. 스펙터클한 공간이 탄생하면서 장소들은 사라졌다. 개발 또는 식민지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파괴시키지 않았다면, 부산의 원도심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거대한 박물관이 되었을 것이다.

‘곳’의 상실은 의미 상실이고 기억 상실이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도시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부산은 품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개인의 경험과 역사와 정신이 어우러질 때 장소는 내면화된다. 이 보이지 않는 두께가 정체성과 함께 인간의 언어와 어떤 정신적 이미지에 근거를 부여해준다. 그때 장소는 독자성을 지닌 문화적 주체로 탄생하고, 정신이 성장하는 자궁이 되는 것이다.

그 도시를 여행한다는 것은 그 도시의 장소성을 엿보는 일이다. 기억력과 상상력으로 장소는 무한 증폭된다. 감각과 인식을 통해 부여된 개인의 장소는 특성이 부여된 역사를 관통하면서 공동체적 필연성에 닿는다. 장소마다 가진 울림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감수성으로, 감수성은 다시 공감의 능력으로 작동한다. 그렇게 창조된 인문적 가치는 문화와 예술 속에서 역사성과 사회성을 그대로 담보해낸다.

골목, 골목정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

유난히 산이 많은 부산은 도시 전체가 가파른 느낌을 준다. 산동네는 가장 부산다운 풍경을 보여준다. 특히 산복도로는 확실히 부산만의 독특한 삶을 이루고 있다. 굽이치는 그 굴곡진 지형은 급변한 우리 근대사의 가파름

을 그대로 닮아있다. 골목마다 생생하게 드러나는 도시 형성 과정은 그 자체로 시간의 회로이다. 산동네 집들은 움막에서 판잣집으로 벽돌집으로 콘크리트 건물로 바뀌며 오늘날의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다.

부산의 골목은 근대 100년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부산의 표정은 두 개로 대별된다. 화려한 마천루로 이어진 해운대 그리고 실핏줄 같은 산동네의 늙은 골목들이다. 뚜렷하게 다른 두 개의 대척점. 부산의 속살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마천루와 랜드마크들이 말해주지 않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인간을 골목은 고스란히 품고 있다.



지형적 특성이 역사적 현실과 맞물려 구성된 골목들, 그 시간은 매우 원형적이고 카이로스적이다. 끊임없이 역류하면서 현실을 꾸러내는 저 장소성을 우리는 진즉 삶이라고 불리왔던 것이다. 그 겹겹의 지층에서 캐어낸 기억은 새로운 상상력으로 전환되면서 무수한 틈을 생성한다. 그래서 카이로스적 시간은 실존의 아득한 지층을 들여다보는 눈동자이다. 이는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끌어안는 상생의 시간이다. 하루 24시간을 직선으로 흘러가는 ‘크로노스’와 달리 ‘카이로스’는 구체적인 의미를 담고 역사 저편에서 역류하여 현실을 꿰뚫고 흐른다.

골목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른다. ‘때’가 과거가 아니라, ‘살아있는 정신’으로 끊임없이 세계를 전복시키고 우리를 소환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사회를 관통하면서 복잡해진 부산의 골목은 어떠한 곳보다 문화유산의 인자가 다양하다. 이 골목정신, 도시의 틈에 생성된 구체적인 기억들은 미래를 효모처럼 발효시키는 힘이다. 그 모퉁이에서 소통은 도구와 기능이 아니라 존재로 다가온다. 부산의 내면은 골목정신으로 더 융숭해진다는 말이다.

골목에 부여된 의미와 경험은 그 골목문화를 구축한다. 개발논리를 벗어난 이 골목정신이 이 극단적인 물질 시대에 문명과 자연을 새롭게 융합시키는 인문의 모퉁이가 되는 것이다. 의미 있게 접근함으로써 의식적으로 획득되기도,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얻기도 하는 골목의 상상력. 이 상상력은 생명감을 얼마나 심층적으로 확보하느냐의 도전이 아닐까.

편리를 넘어서는, 곧 무용지용(無用之用)이 속도 중심의 이 문명에 한 대안이라면, 골목 또는 골목정신은 질서화되고 구획되지 않는, 곧 자연이고 자유이며 인문이다. 골목이 품은 사유는 무수한 질문과 함께 부산의 무수

한 틈을 만들고 있다. 다양한 실존이 만든 아름다운 굴곡을 생각해보라. 생각을 주는 길과 생각을 빼앗는 길이 있다. 8차선 10차선 대로들은 그저 속도에 급급해 우리 사유를 기계적으로 만드는 반면, 골목은 우리를 느리게 하고, 멈추게 하면서 생각을 선물한다. 수없이 뻗어나간 작은 줄기를 건다보면 조심하고 배려할 것투성이다.



삶을 기능적으로 재배치하는 표준화된 편제는 오래된 골목의 고유 맥락들을 해체해 왔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공간을 균질화시키고 동일성으로 우리를 가두면서 다양한 영역들을 분해하고 있다. 하지만 골목은 여전히 차이를 만들며 다양한 꿈을 꾸다. 골목 속으로 숨어드는 골목은 극단의 자본사회에서 이질화되면서도, 인간이 도시를 살아가는 한, 인간의 숨은 사유가 받는 장소 곧 ‘곳’이다. 때문에 골목은 삶의 핏줄과 체온을 그대로 닮아간다. 좁은 길에서는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그림의 틈 속으로 생명이들이 빛을 낸다.

골목은 기억의 세계이다. 퇴락한 풍경 속에서 존재의 한 층을 발견하는 재미는 의미를 회복해낸다. 아프기만 하던 옛 골목 속에서 실존을 감지하는 순간, 모든 것은 따뜻하고 소중해진다. 모든 장소와 기억은 그렇게 누군가의 가슴 안에서 비로소 하나씩 완성된다. 인문이란 그렇게 삶 속에서 반복, 회귀되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꿈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골목의 다양한 문화적 상징성을 끄집어내는 것 또한 인문의 역할이다. 의미 상실, 기억 상실은 그대로 미래의 상실이기에.

골목은 분명 치열한 생존의 장소이며 총체적인 문화 현장을 담은 부산의 유산이다. 송도 윗길에서부터 남부민동이나 보수동, 수정동, 범천동, 가야, 주례까지 수십 킬로가 되는 산복도로 골목 속에는 읽어내어야 할 무수한 기억과 상상의 코드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골목에 맺혀 있는 너무나 인간적인 현장에선 모든 생명이 저절로 기록해질 수밖에 없다. 퇴락한 데서 일어나는 따뜻한 꿈들이 분주하게 살아있는 ‘곳’. 장소가 품고 있는 삶은 이내 어디서든 다시 장소를 여는 힘이 된다. 문화와 예술은 이러한 관계와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도시의 문은 열린다.

역사를 기르는 마음의 힘, 장소를 찾아

부산역에 닿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첫 풍경으로, 산마루를 타고 흐르는 동네를 마주한다. 산등성 아래 다닥다닥 어깨를 맞댄 동네들이 부산의 등고선을 이룬다. 거기서 무수한 샛갈래들이 거미줄처럼 퍼져간다. 막다른 골목 같아도, 그 끝에 또 하나의 샛골목이 이어지며 구비진다. 부산역 앞에서 곧장 오를 수 있는 동구 초량 이바구길. 이 길은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 종합병원인 백제병원, 한국 최초 창고인 남선창고, 담장갤러리, 가파른 168계단, 짧은 생애를 살다간 천재시인 김민부를 기리는 전망대, 이바구(이야기) 충전소와 이바구 공작소, 장기려 박사 기념관, 유치환 우체통으로 이어진다. 모두 ‘꽃’의 회복과 함께 되살아나는 부산의 기억, 그리고 부산의 영혼들이다.



특히 피란수도는 부산을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총체적 기억이다. 임시정부기념관, 영도다리, 사십계단, 영도 흰여울길, 보수동 책방골목, 감천문화마을, 국제시장 등 부산의 심층을 이루는 장소들은 오늘도 반짝이는 ‘꽃’들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다시 묻고 묻는다.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최근 명소로 각광받는 감천동 감천문화마을은 피란민의 터전으로 민족근대사의 신산함과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와 모든 길이 통하는 미로는 감천만의 독특함을 서정적으로 보여준다. 또 천마산 아래 아미동에는 묘지 위에 세워진 피란마을 아미비석문화마을이 있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피란민들은 일본인들이 남겨 놓은 공동묘지 위에 보따리를 풀었다. 일본 귀신이 나타난다고 했지만 생존과 허기가 더 무서웠다. 건축재도 구하기 어려운 시절, 무덤의 비석과 상석, 난간석 등은 집의 주춧돌이 되어 주었다. 골판지와 상자를 덧대고, 시멘트를 발라 보강하며 단칸방을 만들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또 범일동 매축지 마을 골목도 의미가 깊다. 일제강점기 당시 대륙 침략을 위한 발판으로 바다를 매워 마구간을 만들었고,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몰려오자 마구간을 칸칸이 잘라 사용하면서 좁디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형태가 특이한 집단주거지가 생겨났다. 영화 <아저씨>, <친구>, <하류인생> 등을 이곳에서 촬영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상징인 중구 남포동 BIFF광장에서 좁은 골목으로 이어지는 국제시장, 해방 후 자국으로 돌아가던 일본인들이 보따리를 내다 팔았다 하여 ‘뚝뚝기시장’이라고도 불렸다. 영화<국제시장>이 유명하다. 한국전쟁 때 생겨난 보수동 헌책방골목은 현재는 60여 가게가 남아 책방을 열고 있다. 책방골목은 이제는 어엿하게 부산의 손꼽는 문화골목으로 자리잡았다. 영화<도둑들>을 촬영한 부산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인 부산 데파트, <공조>를 촬영한 동광동 골목 등도 아직 원도심이 간직하고 있는 옛 골목의 정취를 확인시켜준다.

영도다리는 많은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서 고즈넉하게 반짝이는 대표적인 ‘곳’이다. 새롭게 복원했지만 영도다리는 다른 랜드마크에 비해 소박한 시멘트 구조물이다. 하지만 영도다리는 부산 성장기의 무수한 기억들을 환기시키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다가온다. 다리 하나가 영원한 무지개 같은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것은 그 다리 속에 한 사람이 아닌 수백 수천만의 추억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중량감이나 가치를 쉽게 숫자로 환산시킬 수 없는 절대적 기억은 그 자체로 도시의 영혼이 아닐까. 영도다리 건너 대평동 골목은 갯강이에예술마을로 바뀌고 있다. 갯강이길이란 선박의 녹을 벗겨 내기 위해 망치를 두들기던 소리, 삶의 애환을 그대로 품은 단어이다. 문화예술형 도시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면서, 낡은 창고들에는 알록달록한 새 옷이 입혀졌고, 예술가와 문화단체들이 입주했다. 영선동의 가파른 해안의 벼랑을 타고 오른 흰여울길 골목 역시 피란민들이 만든 풍경이다. 바닷가 절벽에 좁은 길을 따라 웅기종기 들어선 집들이 거친 바다를 옆에 끼고 굽이굽이 이어지는 3km 이 골목에서 영화<변호인>이 촬영되었다.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미술·연극·음악·사진 등 예술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형상화되고 있는 피란수도 흔적들은 부산의 미래를 받쳐주는 큰 디딤돌이다. 사소하고 누추한 풍경 속에 웅이가 된 상처들이 무수하다. 금간 지붕과 벽이 건디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시간의 풍화작용일까. 꿈의 침식작용일까. 그 속에 슬픔이 단단해진 사람들과 그들이 짊어낸 비탈과 그들의 펄럭이는 옷자락들이 나부긴다. 낙타의 무릎과 침묵을 본다. 수많은 발돋움과 그 발돋움을 닮은 질경이를, 질경이가 붙든 햇살을 본다. 그렇게 피란민들의 산둥네들은 이제 부산을 짊는 문화예술의 계단이 되었다.

원도심 창작촌 '또따또가'의 장소들

장소의 회복을 꿈꾼다면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또따또가는 장소와 예술, 문화가 동시에 회복되는 중구의 대표적인 골목이다. 2010년, 문화와 예술을 활용, 중앙동과 동광동, 곧 역사적인 공간인 40계단을 중심으로 도시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로 창작촌이 형성되었다. '또따또가'라는 이름은 관용과 배려, 문화적 다양성을 뜻하는 'тол레랑스(Tolerance)'에서 '또'를, 예술가와 시민들이 각자 '따'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같이 모여 문화를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따또'를 가져왔다. 여기에 거리 뜻하는 한자 '가(街)'를 붙였다.

특정 장르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장르의 협업을 유도하는 도심형 창작촌인 '또따또가'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다. 사업내용도 다양하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에 필요한 자생력 확보, 민간 메세나와의 연대를 통한 장기적인 활동 토대 마련, 문화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 조성, 원도심 문화자원을 발굴 및 보존과 창의적인 활용, 국내외 교류 활동을 통한 예술가들의 역량 강화와 활동영역 확대 등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입주 공간별 고유 창작 활동 및 전시·공연 등의 발표 활동, 커뮤니티 및 협업 작업,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 예술문화축전, 거리공연, 거리마켓 등을 통한 일상문화 기획 등 국내외 예술 교류 등으로 풍성하다.

‘또따또가’ 일대인 중앙동 동광동은 한때 정말 모호한 장소였다. 예전엔 부산시청과 모든 언론사들이 모여 있던 원도심으로 융성한 시절이 있었지만, 신도시를 개발, 하나씩 떠나면서 버려지고 잊혀져 도심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일어났다. 영세한 인쇄소 밀집 골목, 재건축을 기다리는 빈 건물들이 많은 소외된 동네, 그 황량함이 이젠 오히려 지역문화를 재발견하는 힘이 되었다. 허름한 인쇄소 골목, 가파른 계단 사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가들, 주택들, 비탈길 등에 예술인들이 차례차례 둥지를 틀었고, 미술, 문학, 공예, 음악, 연극, 영화, 인문학 그리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업실과 공작소, 커뮤니티 예술 등 입주, 창작촌이 구성하게 된 것이다. 현재 또따또가에는 24개의 건물에 담긴 77개의 작업실에 180여 명(2020년 11월 현재)의 작가들이 입주해 있다.

또따또가 예술인들은 40계단 입구에서 부산 원도심에 산재한 근대 역사자원을 기반으로 자주 예술문화축전을 펼친다. 또 매주 벼룩시장도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모든 골목길은 무대가 되고, 주변 가게들이 갤러리 등으로 참여하면서 풍요로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글쓰기 공동체를 지향하는 <백년어서원>, 시민영화공간 <모퉁이극장>, 갤러리 <스페이스 닷> 등처럼 상시로 열린 공간들도 많고, 시민들과 문화체험을 공유하는 다양한 공작소들이 있다. 입주작가들이 그때그때 자신의 공간을 열어 직접 작업을 소개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40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를 본따 ‘또각또각’이란 이름을 붙인 탐방프로그램도 있다.

또따또가는 연대와 교류를 통해 문화와 역사를 회복하면서 가장 부산다운 장소로 발을 돋우고 있다. 입주작가들을 선정, 3년 단위로 구성된 원도심 창작촌은 이제 4차 사업에 접어들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3년을 마친 작가들은 이후에도 활동하던 원도심을 떠나지 못하고, 모퉁이마다 작업실을 얻어, 원도심예술인협동조합 <창>을 만들어 장소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어쨌든 장소에 대한 상상력은 우리 삶을 얼마나 내면적으로 확보하느냐의 도전이다. 시대는 개별화·이질화되었지만 역사가 진행되는 한, 도시는 꿈을 꾸는 공간이다. 인간의 꿈, 곧 인간의 행위와 사유가 도시를 계속 자라게 한다. 그것이 우리가 공간이 아니라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이유이다. 그때 장소는 기우뚱기우뚱 영혼을 내어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기억이

묻어 있는 사적(私的)인 장소를 켜켜이 사적(史的)인 장소로 환치시키면서 드러나는 동질성, 그 자리에서 소통은 힘을 얻는다. 그렇게 도시의 정체성은 장소를 통해서 선명해지는 것이다.

하나의 장소는 미래와 세계를 읽는 하나의 돋보기 렌즈이다. 장소들이 품은 기억은 그 자체로 우리의 실존의 지층을 이루고 있다. 그 길은 내면의 시공을 향해, 삶의 경이를 향해 굽이져 흐른다. 찢줄 같은 길모퉁이마다 나를 휘감아 도는, 장소의 뒷면에 있는 신비한 존재감. 그 산그림자처럼 살가운 존재감이 세상의 변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원심력으로, 또한 내 자신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구심력으로 팽팽하게 작용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지구적 위기에 당면한 우리에게 장소는 무엇을 환기시키는 것일까. 공간이 아니라 삶을 장소화시키는 것, 잃어버린 장소를 기억해내고, 잊어버린 장소를 회복한다면, 문명의 구원이 가능할까. 새삼 인문적으로 읽어내는 장소가 절실하다. 잊혀진 장소들 속에, 내가 일부러 기억해내야 골목 속에 도시의 영혼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수우 프로필

1995년 『시와시학』으로 등단했고 한국작가회의, 한국시인협회, 부산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몰락경전』 『붉은 사하라』 등 다수의 시집과 『호세 마르티 평전』 『호세 마르티 시선집』 등 십 여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부산작가상, 최계락문학상을 수상했고, 2009년부터 부산 원도심에 인문학 북카페인 글쓰기 공동체 <백년어서원>을 운영하며 문학을 실천 중이다.

지역 역사·문화·기질 오롯이 담긴 부산음식, 수용성·개방성 돋보여

부산의 음식과 인문정신

최 원 준

시인·음식문화칼럼니스트



음식은 시대를 담는 그릇이자, 특정지역을 읽어내는 텍스트이다. 당대의 음식과 음식문화로 그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를 통찰할 수가 있고, 한 지역의 역사와 사회상, 미래의 현상을 예단할 수도 있거나와 지역사람들의 기질까지 이해할 수 있기에 그렇다.

부산은 말 그대로 질곡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견디며 팽창한 도시이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 한국전쟁과 임시수도 시절을 지나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부산에 정착했던 이주민의 도시이기도 하다. 때문에 팔도의 관습과 문화와 음식들이 한데 모여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타지에서 신산한 시절을 함께 했기에 서로 이해하고 끌어안는 끈끈한 문화가 생겨났는데, 이것이 오늘날 부산사람들 기저에 흐르는 ‘부산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부산사람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수용성’과 ‘개방성’이 바로 그것으로, 모든 문화를 받아들이며 부산의 문화로 만들고, 부산의 문화를 개방하여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부산사람이 가지는 ‘부산의 정체성’이다.

이러한 부산의 역사가 현재 부산사람들의 정체성과 아울러 ‘부산의 향토 음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부산으로 들어오면서, 부산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이 한데 섞이고 어우러져, 독특한 부산만의 음식문화와 정서를 탄생시킨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부산의 음식이 부산의 다방면에서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으로도 해석이 되기에, 부산의 음식을 살펴보면 부산의 전반이 보이고, 부산을 규정할 수가 있으며, 부산의 정신과 미래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음식 속에 배어 있는 부산의 정체성

앞서 기술했지만 부산이 가지는 수용성과 개방성, 공동체 의식이 현재 우리 부산 음식의 근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부산의 음식은 다양한 지역의 식문화를 개방, 수용,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화 과정을 거친다. 같은 값이면 여럿이서 함께 나누는 '공유의 음식문화나, 조악하지만 넉넉하게 권하는 '배려의 음식문화'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부산의 음식이다. 그래서 부산의 다종다양한 음식 저변에는 '공유'와 '배려'라는 공동체적 특징이 잘 발현되어 있다. 이는 한정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하는 부산의 생활문화 속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갑작스런 인구 팽창으로 인해 식재료가 조악했던 점 때문에, 씹 좋은 맛을 가지지 못한 것 또한 부산 음식의 특징이기도 하다. 적은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어야 했고, 같은 값이면 양을 늘려 먹어야 했기에 그랬을 터이다.

함께 먹고, 나누어 먹다보니 부산의 음식문화 속에는 부산만의 공동체문화, 의리문화, 다종다양한 이주의 문화들이 스며들어 있고 함께 작용하고 있다. 흔히들 타향살이를 비유하는 '맵고, 쓰고, 짜다'란 말이 있다. 이 주민들이 정착하여 새로이 생성된 도시인 부산, 부산의 음식 또한 '맵고, 쓰고, 짭' 수밖에 없다. 부산의 음식이 전반적으로 화끈한 일면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다.

'부산싸나이'들의 '아싸리~' 기질 또한 부산음식에 반영된다. 별건 양념과 매운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많다. 찜찜 끓는 '탕' 음식이 많은 점도 간과할 수 없겠다. 또한 시장국밥처럼 하드코어 음식도 즐비하다. '기면 기고 아이면 아이다'라는 화끈한 성정을 반영한 음식들이다. 그러하기에 부산음식을 알기 위해서는 부산과 부산사람들의 기질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부산음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산사람을 잘 읽어라'는 말이 적용되는 부분인 것이다.

부산(釜山)은 글자에서 보듯이 '가마솥의 도시'다. 모든 지역의 음식들이 부산이라는 가마솥에 들어가기만 하면, 한데 찜찜 끓다가 개성 있는 부산음식으로 재탄생한다. 팔도의 음식이 가지는 각각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특성을 부산음식으로 새롭게 해석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지역의 음식문화를 수용하다 -부산돼지국밥



부산돼지국밥

그렇게 보면 부산이란 지역을 알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 중 하나가 돼지국밥이 아닐까 한다. 돼지국밥은 돼지육수에 밥을 토렴해서 말고, 돼지고기 고명을 넉넉히 넣어 먹는 음식이다. 기호에 따라 정구지, 마늘, 청양고추, 양파, 김치 등을 한데 섞어, 뜨끈하면서도 푸짐하게 한 그릇 피먹는 국밥음식.

부산돼지국밥을 먹다 보면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국밥이라면서 밥을 따로 차려내는 따로국밥이나 국수나 우동을 넣어주는 돼지국수, 순대를 가득 넣어주는 순대국밥이 모두 '부산돼지국밥'으로 통칭되어 불리고 있다. 왜 그럴까?

부산의 돼지국밥은 여러 지역의 음식문화가 반영되면서 완성됐다. 한국 전쟁 이후 피난민을 비롯한 팔도의 이주민들이 정착하면서, 부산의 돼지국밥은 다양한 지역의 음식문화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돼지국밥을 살펴보면, 국물이 뽀얀 육수와 조금 연한 육수, 맑은 육수가 부산돼지국밥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 뽀얀 육수는 돼지사골로 육수를 뽑는데 국물이 진하고 구수한 맛을 낸다. 제주의 몸국과 일본 규슈의 사골라면인 돈코츠와 닮았다. 조금 연한 육수는 내장과 돼지대가리 등을 통째 넣고 육수를 낸다. 이는 부산돼지국밥의 원형으로 이북 피난민들에 의해 개발된다. 깊은 맛과 감칠맛이 뛰어나다. 맑은 육수는 살코기만을 삶아서 육수를 낸다. 서부경남의 돼짓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맛이 깔끔하고 정갈하다.

돼지국밥을 차려내는 방법도 다양하다. 이주민들이 그들 고향의 밥상문화를 돼지국밥 안에 담아냈기에 그렇다. 대구의 반상문화가 흡수되면서 국과 밥을 따로 내는 따로국밥이 자리 잡고, 서울, 경기지역의 순대국밥이

흡수되면서 순대돼지국밥이, 제주고기국수의 영향으로 다양한 면을 활용한 돼지국수가 활성화 되었다.

때문에 부산돼지국밥은 그 메뉴 또한 다양하다. '돼지국밥', '순대국밥', '내장국밥', '섞어국밥', '모듬국밥', '따로국밥', '수육백반', '돼지국수' 등이 있다. 이는 '모든 지역의 돼지음식'이 부산에서 '부산돼지국밥'으로 정착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돼지국밥'은 이렇듯 다양한 지역의 특색을 가진 섭생을 수용하면서도 부산음식의 특색 속으로 잘 발현된 음식이다. 하여 다양한 조리법의 돼지국밥이 '부산돼지국밥'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자리 잡은 것이 바로 부산의 '돼지국밥'이다. 따라서 '돼지국밥'이야말로 우리 부산의 정체성과 제대로 부합되는 소울푸드인 것이다.



물 밀면



비빔밀면

차선·대용의 음식, 부산음식의 정형이 되다 -밀면

밀면은 한국전쟁 당시 이북지역 피난민들이 고향에서 먹던 냉면을 생각하며, 당시 구하기 힘들었던 메밀 대신 원조물자로 들어온 밀가루를 활용해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다. 이북 냉면이 현재 부산사람의 입맛에 맞는 밀가루 냉면, 즉 '밀면'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때 '밀냉면'이라 불리며 피난민들에게 제공되었다. 가격은 냉면의 반값 수준.

그러니 밀면은 오래지 않은 시절에도 '대용의 음식'이라는 인식이 짙었다. 냉면 사먹을 돈이 없을 때 밀면을 먹거나, 두 사람이 함께 먹어야 할 때 냉면 한 그릇 가격으로 대신 먹던 음식이 밀면이었다.

그래서 부산밀면 탄생의 의미는 '공유'와 '배려'에 있다. 비록 '최선의 음식'이 아닌 '차선의 음식', '정통의 음식'이 아닌 '대체의 음식'이지만 한 그릇 가격으로 두 그릇을 나누어 먹을 수 있으니 '공유의 음식'이요, 냉면 값의 반으로 음식을 제공하니 '배려의 음식'이다. 밀가루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다 함께 먹고 살자고 시작된 음식이자,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싼값에 제공하던 음식이 밀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부산음식의 특징인 맵고 짜면서도, 시원하고 진한 풍미를 자극하는 조리법이 도입되면서 밀면은 부산음식이 된다. 이는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맵고 짠 것도 훌훌 들이켜며 "어허, 시~원하다!" 하는 부산사람들의 성정이 반영되었기에 그렇다.

그러다 보니 이북에서의 겨울음식인 냉면에 비해, 시원하면서 간이 센 육수의 밀면은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 별미의 여름음식으로 자리 잡는다. 양념이나 육수가 깊고 차분한 냉면과는 본연적으로 차별화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밀면은 여름철이면 부산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좋아하고 자주 먹는 부산 고유의 음식이다. 그만큼 부산에서 파생되어 오래도록 부산 사람의 정서에 맞도록 변화된 음식이기도 하다. 그리고 부산에 가야만 유일하게 제대로 된 밀면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다.

열악한 시대 상황 속에 탄생했기에 맛의 깊이가 질박하고 다소 열악한 음식이었지만, 다 함께 먹고 살자고 시작된 음식이면서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찬값으로 제공됐던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의 음식, 마음만은 배부른 착한 음식이 밀면이었다. 부산음식의 성정을 제대로 정형화한 부산다운 음식이기도 하다.

부산의 근현대사 시절의 단편을 보여주다 -부산어묵



부산어묵

요즘 전국에는 ‘부산어묵의 전성시대’다. 밥반찬이나 간식으로 활용되던 어묵, 노점에 서서 먹던 길거리 음식이, 이제는 다양한 ‘베이커리 어묵’으로 개발돼 카페 형 공간에서 커피나 맥주 등과 함께 먹는 어엿한 외식음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음식의 창조적 혁신’, ‘어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부산어묵’의 시작은 문헌상으로 부산 부평시장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일본의 가마보코(蒲鉾, かまぼこ)라는 음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선살을 으

깨고 반죽해서 튀기거나 찌거나 구운 생선묵 형태의 음식을 말한다. 1915년 부산부청 발간 '부평시장월보'에 따르면, 주요 거래 점포 중에 '가마보코' 전문 점포 3곳을 최초로 기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부평시장서 시작된 어묵(가마보코)은 부평동 부근에 들어선 대좌부(貸座敷)란 요정을 중심으로 소비되던 고급 식재료였다. 대좌부는 일본식 유곽으로 술과 요리, 몸을 피는 일본인 창기(娼妓) 등을 윈스톱으로 제공하던 곳. 이곳의 대표 요리가 가마보코를 재료로 한 오뎅이었던 것. 이 가마보코는 해방 전후로 해서 '음식문화의 대중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지금의 '부산어묵' 형태는 그 시절 일본식 기술과는 다른 환경과 다른 제조방법으로 생산되었다. 시대적 배경은 한국전쟁기. 부산이 피난수도로 피난민들의 의식주를 책임지던 시절, 다양한 피난음식이 부산에서 탄생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돼지국밥과 밀면, 쫄면, 부산어묵 등이었다.

그중 부산어묵은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널리 보급됐다. 당시 시장에서 위판되고 남은 생선이나 상품가치가 없는 생선을 '대수리'라는 돌절구에 함께 넣고 통째로 갈아, 정어리기름이나 고래기름 등에 튀겨내 어묵을 만들었다.

때문에 '부산어묵'의 원형은 한국전쟁 시절 '막갈이'와 '덴뿌라'로 크게 구별된다. '막갈이'는 생선을 통째로 '갈아내는 것'을 말하고, '덴뿌라'는 깡치(조기 새끼)나 풀치(갈치 새끼) 등 잡어를 갈아 미군 드럼통으로 만든 기름 가마에 넣고 '튀겨내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피난민이 몰려들면서, 부산에는 튀김 중심의 값싸고 영양가 높은 어묵이 탄생되고 그 호황을 누리게 된다.

비록 일본의 음식문화를 수용한 음식이지만 어려운 시대적 역경을 이겨내고 미래형 고부가가치의 먹거리로 발돋움한 부산어묵. 부산 사람들의 창조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성공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부산의 다양성을 파노라마로 펼치다 -추어탕식 음식

미꾸라지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물고기 중의 하나다. 논바닥이 째깍 갈라지는 진흙 속에서도 몇 달을 견디며 거뜬히 살아남는다. 그러하기에 예부터 미꾸라지의 강인한 생명력을 고스란히 얻기 위해, '추어탕'을 널리 보양식으로 애용해 왔다.

그러나 부산은 추어탕의 재료인 미꾸라지가 꽤나 비싼 식재료이다. 대신 부산사람들은 미꾸라지와 맛과 효능이 비슷하지만, 상대적으로 값이 저



고등어추어탕 밥상

럼한 바다의 어류를 추어탕식 조리법으로 끓여먹곤 했다. 주로 영양가가 높은 고등어, 전갱이 새끼(메가리), 봉장어 등이 대상이었다. 이들은 때로 몰려다니는 회유성 어종으로, 물때만 잘 맞으면 쉬 풍어를 맞는 풍성한 어족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낙동강 하구 유역의 웅어와 기장의 방게 등도 추어탕식 음식의 주요 재료이다.

식재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거의가 부산 해역에서 그 개체 수가 많거나 제철이 다른 계절 수산물로, 지역적으로 동해, 남해, 낙동강 등 각기 다양한 권역에서 어획된다. 식재료의 종류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른 것도 특징이다. 고등어로 만들면 ‘고등어추어탕’, 메가리로 만들면 ‘메가리추어탕’이요, ‘봉장어추어탕’, ‘웅어추어탕’, ‘방게추어탕’도 있다.

추어탕은 지역에 따라 그 요리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부산식 추어탕’은 미꾸라지를 삶아 걸러낸 육수에 얼갈이배추, 토란줄기, 숙주나물 등 각종 야채를 듬뿍 넣어 맑게 끓여낸다. 이를 먹는 이의 입맛에 따라 다진 청양고추와 마늘, 방아 잎, 제피가루 등을 넣어 먹는다. 때문에 바다 식재료로 한 ‘부산의 추어탕식 음식’ 또한 이 조리법에 근거하여 만들어낸다. 시원하게 맑으면서도 칼칼하고 짭은 향을 선호하는 부산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조리법이기도 하다.

값싸면서도 영양소 풍부한 제철 바다생선으로 끓여 만든 ‘바다 식재료의 추어탕.’ 다양한 종류의 ‘바다 추어탕’은 기장, 영도, 낙동강권 각각의 권역별 향토음식이기도 하다. 권역별로 각각의 독특한 추어탕식 음식이 따로 발달한 양상이다. 마치 부산의 다양성을 품고 파노라마를 펼치는 듯하다.

부산의 공동체 문화를 반영하다 -기장 잔치음식

예부터 우리나라는 공동체 문화가 발달해, 이웃 대소사에 마을 사람들이 가족처럼 참여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 특히, 기쁜 날은 잔치를 열어 마을 사람 모두가 축하하며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부산은 앞서 기술한 바대로 격동의 근현대사를 거치며 넓은 지역의 공동체마음이 해체되어 버린다. 그래서 지역 전통의 공동체음식이 보기 힘들다. 그러나 기장 지역은 양산에서 부산으로 편입된 전형적인 농어촌 기반의 지역으로 아직까지도 몇 가지 잔치 관련 전통의 명맥이 남아있다. 매집찜과 기장 우묵, 기장 설치 등이 그들이다. 기장사람들 말로는 '기장에는 매집과 기장 우묵 없으면 잔치 못한다'고 못 박는다. 전라도 잔치의 흥어회 같은 음식인 것이다.



부산 기장의 전통요리 매집찜

그중 매집찜은 기장의 전통 향토요리로 집안 대소사나 잔치 등에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르는 대표 음식 중 하나다. 얼핏 보기에는 다양한 나물에 전분과 들깨가루를 넣고 걸쭉하게 썰낸 '나물찜'과 흡사한데, 바다를 끼고 있는 기장의 지리적 특성상 해산물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이 매집찜의 특징이다.

삿갓조개, 밀고동, 소라, 대수리 등 기장의 싱싱한 해산물과 콩나물, 고사리, 고구마줄기, 정구

지, 방아 등 나물들이 총동원되어 들어가고, 바다향이 물씬 나는 애지(떡청각), 미역, 톳, 물(모지반), 서실 등 해초들까지 어우러진다. 여기에 밀가루와 들깨가루를 넣고 걸쭉하게 조리해, 한 대접 푸짐하게 나누어 먹는 음식이 바로 '매집찜'이다.

기장 해안의 토속음식인 설치는 기장의 해조류와 콩나물을 곁들여 국물과 함께 자작하게 무쳐내는 음식이다. 일반적으로 나물무침이라기엔 국물이 넉넉하고, 해초냉국이라기엔 국물이 자작한, 무침과 냉국의 중간 개념의 음식이라 보면 되겠다.

주로 기장의 특산물인 미역과 물, 개내이(물의 일종) 등으로 '설치'를 만들어 먹는다. 미역으로 '설치'를 만들면 '미역설치'이고, 물을 사용하면 '물설치'가 된다. '설치'는 해초무침처럼 해초의 식감을 즐기면서도 냉국처럼 국물도 먹을 수 있어, 기장 사람들에게 널리 사랑 받아온 음식이다. 평소 밥

반찬으로 먹기도 하지만 큰 잔치 때는 고기음식 먹을 때 입 다심용으로, 삼삼한 술안주로도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다.

잔치에서 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 '기장우묵'이다. 우묵가사리로 만든 '우묵'의 종류인데, 된장이나 다시마, 멸치 등으로 우린 육수에 우묵가사리를 넣고 고우다가, 방아, 고추, 마늘, 파 등을 섞어 굳힌 기장식 우묵이다.

'기장우묵'은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밥 대신 먹던 기장의 보릿고개 음식이었다. 음식의 부재료였던 '우묵'을, 집에 있는 갖은 식재료를 털어 넣고 간을 맞춰 끼니로 먹었던 음식이었던 것. 기장사람들은 이 기장우묵을 그냥 먹거나, 소금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다. 우리 부산의 토속음식으로 해안 지역의 음식문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독특한 조리법의 음식이기도 하다.

음식은 인문정신을 투영하는 미래의 먹거리

지금까지 부산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통해 부산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보았다. 결론은 부산음식 속에는 부산의 시대적, 지역적 환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부산사람들의 독특한 기질 또한 잘 함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고, 이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역할 또한 하고 있다.

이런 지역음식들이 사라지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도 온전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 음식은 시대와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에 그렇다. 그러하기에 부산사람과 부산을 규정하는 인문정신을 투영하고 있는 부산음식을 잘 보존·계승하고 분석 연구하면, 우리 부산의 '미래의 먹거리' 개발과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최원준 프로필

시인이자 음식문화칼럼니스트이다. 소울푸드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인문학적으로 연구,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음식으로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음식문화해설사'의 필요성을 역설, 국내 최초로 부산 동의대에 '부산음식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을 개설했다. 시집으로 『복망』, 『금빛미르나무숲』, 『오늘도 헛도는 카세트테이프』 등, 음식문화칼럼집으로 『음식으로 읽는 부산현대사』, 『부산탐식프로젝트』, 『작품 따라 맛 따라』 등이 있다. 현재 문화공간 '수이재' 대표이며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기획편집위원이자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불안과 바람(願)과 희망... 이제 ‘우리’와 ‘과정’을 중시할 때

부산 인문 현장 10년 취재기

조 봉 권

국제신문 선임기자



이 글은 취재기이다. 역사나 약사(略史)가 아니다. 그러므로 필자가 현장에서 본 것 또는 어떤 식으로든 겪은 일을 중심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이는 역사나 약사가 지녀야 하는 엄정한 검증이나 빠짐없는 세심한 기록에는 미치지 못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름대로는 일정한 기간 열의를 갖고 부산 인문학 현장을 취재하고자 노력해왔음을 말씀드리며 이 글이 허무하게 훑날리지 않도록 애쓰고자 한다.

필자는 1995년 11월 기자 생활을 시작해 2020년 11월로 25년을 채웠는데 그 가운데 14년은 문화부 기자, 문화부 데스크, 문화전문기자로 활동했다. 인문학 현장에 관한 관심을 유지하면서 그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썼다. 책과 출판 담당 기자를 10년 가까이 하면서 부산의 인문학 현장 흐름에도 신경 쓰고자 했다. 그러나 일간지의 특성상 그것은 체계와 깊이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문화라는 태양이 낮게 떠 있으면

칼 크라우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 종종 떠오르곤 한다. “문화라는 태양이 낮게 떠 있으면 난쟁이들의 그림자 역시 길게 비친다.”(막스 오테 지음 ‘정보왜곡경제’에서 재인용)

어느 날 이 말을 뒤집어봤다. 이렇게 새겨졌다. “문화라는 태양이 높게 떠 있으면 난쟁이의 그림자는 실체를 드러낸다. 짧다.”

여기서 ‘난쟁이’라는 비유가 표현하는 것은 ‘높은 문화 수준’과 반대되는 거의 모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응용해본다. 한 도시 또는 공동체의 문화 수준은 시민 또는 구성원 전반의 역량·소양·수준이 높아질 때 비로소 안정되게 올라간다. 그럴 때 ‘난쟁이’가 설 곳은 줄어들는다.

이 경우 ‘난쟁이’는 ‘깊이 모르면서 잘 아는 척하고, 잘하지 못하면서 능숙한 척하며 문화의 이름으로 사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개념이 더 구체화되고 좁아진다.

차를 마셔본다. 동방미인, 철관음, 재스민차, 다양한 우롱차, 여러 종류 대만 고산차, 보이차. 하동 녹차, 함양 여주차. 통도사 연잎차, 영국 홍차. 금정산 보리순차와 꽃차, 티백의 세계도 다채롭다. 양파껍질차, 캐모마일, 둥굴레차, 우엉차... 물론 커피도 마신다.

그렇게 돌고 돌아 보니 비로소 커피가 왜 세계 판도에서, 판매량과 대중성 면에서 최강자로 떠올랐는지 느낀다. 커피가 가장 좋다는 뜻은 아니다.

질 좋은 커피에서 나는 향은 내린 사람이 마시기도 전에 사무실을 가득 채워버린다. 다른 차는 질 좋은 커피와 비교하면 향이 그렇게 강렬하게 그윽하지는 않다. 차는 대체로 머금었을 때야 그 놀라운 그윽함을 비로소 느낀다. 이어 향 좋고 질 높은 커피를 마시면 풍미가 있고 속도 편하다. 이 선택하고도 강력한 개성이 커피를 세계 판도의 최강자로 떠오르게 한 것으로 나는 이해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커피의 강점을 느끼려 한다면, 커피만 오로지 마시는 것이 최선의 또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커피와 함께 다른 차를 두루 마시는 비교와 확장의 방법으로 커피의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강점과 차이 그리고 약점이 입체로 느껴질 것이란 주장이다.

인문학 공부에도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손자병법’이 좋다고 ‘손자병법’만 내내 읽는 분이 주위에 있다. 그것은 좋은 인문학 공부다. 그런 방법으로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손자병법’만 읽어서는 ‘손자병법’의 강점과 매력,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깊이 알기는 어렵다. 다른 제자백가 저술, 역사, 전쟁사, 다른 인문학 책을 종횡으로 함께 읽을 때야 ‘손자병법’의 힘과 매력은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것이 인문학 공부의 즐거움이고 어려움이다. 게다가 동양 고전, 특히 중국 고전을 중심으로 한 동양고전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 저자의 삶과 메시지를 ‘실존적으로’ 느끼는 데까지 가야 피가 되고 살이 되며, 내가 변화하는 멋진 체험을 하게 된다. 여기에 인문학 공부의 매력과 어려움 그리고 깊이의 문제가 있다.

대중적 인문학 운동의 즐거움과 어려움도 여기 있다. 여기서 나온 말이 ‘공부는 재미있을 수는 있어도 쉬울 수는 없다’이다. 자기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고 자기 껍질을 깨고 거기 다시 새 살이 돋게 하는 것이 인문학 공부의 높은 단계이고 본령인데, 마냥 쉽기만 할 수 있겠는가?

많은 분이 '대중'으로 묶일 때는 선명하고 뚜렷한 걸 원한다. 흥미를 붙이는 좋은 단계이다. 대중적 인문학 운동에서는 이런 변화만 해도 값지다. 그러나 이는 대체로 시작 단계다.

강좌가 어느 정도 인기가 생기고 사람이 모이고 질문이 오가고 판이 커지는 것은 매우 좋은 신호이며 중요한 국면이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기존 틀을 깨는 '개인의 탄생' 단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화라는 태양이 높이 뜨는 것'을 시민 인문학 부문에 적용하면, 여기가 분기점이다.

한때 부산의 인문학 운동, 인문학 바람이 왕성했다. 그 흐름은 갈래를 치고 분화해 부산의 인문 토양을 더 넓게 적시고 가졌을 것이다. 하지만 대체로 보아 부산의 인문학 운동과 바람은 이 '분기점' 근처에서 맴돌고 있거나 조금 뒤로 물러선 것으로 나는 본다.

되짚어보는 인문학 활동의 흐름

부산 인문학 운동, 인문학 바람을 되짚어본다. 다만 연도가 정밀하지 않을 수 있고, 대상의 누락이 있을 수 있다.

먼저, '1세대' 또는 '초기 형태'를 꼽아본다.

고(故) 이신성 부산교대 교수가 주도했던 '연봉서당'(1995년 시작)과 '석음서당'(1998년 시작)이 한문학 중심의 인문 강좌를 대중과 함께하며 씨앗을 뿌렸다. 석음서당은 2015년 폐강했다.

미학자이자 춤평론가 채희완 전 부산대(무용학과) 교수가 1993년 세운 '민족미학연구소' 또한 씨앗을 뿌렸다. 당시로는 흔치 않게, 민족미학연구소는 대학 바깥으로 뚝뚝 나왔다. 비록 연구자 중심이었으나 대학 바깥에서 미학·예술 강좌와 연구, 공연 활동을 펼쳤다.

음악평론가이자 문화유목민 정두환 씨가 2000년 시작해 70회를 훌쩍 넘겨 지금도 이어가는 '화요음악강좌' 좋은 음악, 좋은 만남은 음악을 중심에 놓은 무료 인문 강좌로, 인문학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꾸준함'의 전범을 보인다.

문학 부문에서는, 영광도서가 1985년 시작해 긴 세월 매달 이어갔던 영광 독서토론회가 아주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문을 닫은 동보서적도 월요시(詩)포럼을 비롯한 정기 문학 행사를 톡톡히 뒷받침했다. 향토사학자이자 화가인 주경업 부산민학회 대표가 오랜 세월 부산학을 대중 강좌와 시민답사형태로 이어가고 있다.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어른’은 부산항 연구가 김영호 선생이다. 그는 평생 부산항을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고 강의하며 부산학 연구의 기틀을 놓았다. 2019년 이 분이 돌아가신 뒤 변변한 추모사업 하나 없는 점을 생각하면 뼈가 아프다. 학계에 계신 분이 ‘그분은 학문·학술적 차원의 인물이 아니어서 재조명 대상에 들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말을 들려줬을 때, 나는 차를 떨었다.

어쨌든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시작한 이런 흐름은 씨를 뿌리고 바탕을 다졌다. 그때까지는 ‘인문학’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지 않은 관계로 이를 1단계 또는 초기 형태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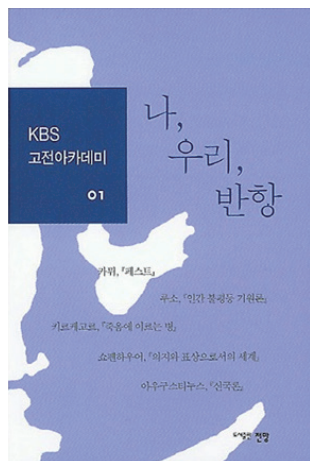
다양한 시도가 풍성하게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부산에서 ‘인문학 운동’ 또는 ‘대중적 인문학 공부’를 전면에 제기한 곳은 아무래도 2004년 허아람 대표가 문을 연 ‘인디고서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인문학 공간으로 등장한 인디고서원은 강좌, 토론, 모임, 잡지 창간, 인문학 행사(일종의 인문학 페스티벌) 개최 등을 잇달아 기획하고 지속하면서 어떤 게 가능한지 제시했다.



2014년 8월 인디고서원이 부산 벡스코에서 주최한 인디고 유스 북페어 중 청소년 토론 프로그램인 ‘정세청세’ 모습

2009년 김수우 시인이 ‘백년어서원’을 여는 것으로 이어졌다. 원도심 중구 동광동에 자리 잡은 데다 그즈음 이 일대에서 예술인 지원사업인 또따또가의 활동이 활성화하면서 백년어서원의 활동은 퍼졌다. 그런 점에서 뜻 깊다. 우리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예컨대 최원준 시인의 수이재,



《부산 KBS》고전 아카데미 성과물을 엮은 책

정천구 박사의 바카데미아, 인문공간 빈빈 등의 활동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대해가며 이뤄졌다.

부산 인문학 운동의 중요한 흐름이자 하나의 산맥을 이뤘다고 해도 좋을 대규모 강좌가 《부산 KBS》의 ‘고전 아카데미 시민강좌’였다. 2005년 시작해 강좌마다 300여 명 수강생이 운집한 가운데 13년을 이어갔고 출판 등으로 이어졌다.

부산가톨릭대 인문학연구소가 2004년 시작해 2006년 체계적인 장기 강좌로 본격화한 ‘인문고전대학’ 또한 오랜 세월 시민 인문학 운동의 버팀목이 되었다. 여기에 (주)상지E&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상지건축)가 2015년부터 이어가고 있는 ‘상지인문학아카데미’ 또한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부산 인문학자들의 보금자리이자 시민 인문학 운동의 새로운 근거지로 자리 잡았다.

이는 배정선 씨의 ‘시네바움 인문강좌’, ‘인문공간 달리’의 활동 등으로 이어진다. 정재성 대표가 부산대 앞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 ‘봄’의 꾸준한 예술·인문학 활동도 중요한 자산이다. 이밖에도 건축가들이 진행한 건축과 관련한 인문 강좌도 꾸준히 진행됐다. 아쉽게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 빠진 곳에는 미안함을 전한다.

여기서 부산의 독특한 흐름이 또 하나 생긴다. 인문학 운동의 흐름이 예술과 만난다고 해야 할까? 김홍희 사진가의 사진 모임 일우, 문진우 사진가의 강좌, 앞서 언급한 정두환 음악평론가의 화요음악강좌, 서양 고(古)음악의 향연을 몇 년 간 펼치다 활동을 접은 박창호 고음악평론가와 예술기획자 신은정 부부의 민락동 카페 ‘나다’의 활동 등을 꼽을 수 있다.



2016년 3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 카페 ‘나다’에서 인문음악회가 열리고 있다.

영화로도 번졌다. 2018년 내가 부산의 소규모 영화제와 지속성이 있는 영화 상영 관련 행사를 꼽아봤을 때 작은영화영화제, 이지훈의 시네필로, 모 등이 극장의 상영회와 영화제를 비롯해 30개가 넘었다. 이 또한 인문학 운동의 흐름과 일정하게 궤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인문학 운동의 확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동네책방은 평지돌출인가

또 한 가지 흐름은 대학의 활동이다. 부산은 대학이 4년제와 전문대를 합쳐 20개가 넘는다. 이들은 여전히 부산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인프라이다. 부산외대의 동남아지역원·지중해지역원·중남미지역원은 연구와 함께 대중 인문학 강좌도 펼쳤다. 부경대의 동북아해역과 인문 네트워크 역동성 연구의 경우 시민 강좌, 참여형 행사, 언론과 연계한 연재와 출판 등 다각도 활동을 보여줬다. 부산대, 한국해양대, 영산대 등도 독특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에 힘썼다. 학계의 경우, 잠재력과 자원을 갖춘 만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인문 활동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면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계와 민간이 힘을 합친 조선통신사 연구와 부산 왜관 연구(부산왜관연구회 등), 이용득 세관박물관장 활동, 부산문화재단의 먼구름 한형석 선생 재조명, 독립운동가이자 의열단원 박재열 재조명, 부산박물관·부산문화회관·부산·영화의전당 등 공공 문화기관의 프로그램 등 뜻깊은 시도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와 인문의 만남 활동도 눈여겨볼 만하다. 북구 만덕동 주민 등의 시민기자 양성과 시민 출판 활동 등이 그러하다. 사상구와 금정구를 비롯해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강좌를 기획하기도 했다.

부산 최초 어린이책 전문서점 '책과 아이들'의 공헌 또한 매우 크다. 책 읽기 문화 확산 측면뿐 아니라 지역 밀착형 인문 활동 면에서도 책과 아이들은 성실한 선구자여서 부산시문화상 후보에 올라가야 마땅하다.

2018년께부터 부산에서는 동네책방이 흐름을 이어받는다. 도서관가제 덕분에 2019년 기준 부산의 동네책방은 40곳에 이르렀다. 큰 폭의 증가세다. 여기서 각종 문화·인문 모임 등이 이뤄져 문화 사랑방을 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한창 때와 비교하면, 부산의 인문학 바람은 정체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 영향도 있겠다. 내가 보는 큰 이유는 인문학 운동이 쌍방향 운동임을 제공자와 시민 모두 미처 깊이 생각지 못한 데도 원인이 있다.

인문학 운동은 흥미, 재미, 발견의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는 아니다. 당신은 내게 인문학으로 재미를 달라. 나는 그것을 소비해주겠다'는 관점이 퍼지면 좀 곤란해진다. 유행은 언젠가 한 풀 꺾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재미와 발견의 기쁨은 중요하지만, 인문학 운동은 어떤 단계에 가면 강사와 수강생이 모두 변화하고 자라는 일련의 과정이다. 강사 또한 깊이와 전망과 새로움을 제시하지 못하면, 재미있고 울림 깊은 강의를 하기 어려워진다.

‘우리’를 들여다보는 새 방향은 어떤가

방향을 점점하고 트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시민 인문학 강좌에 ‘논어’ ‘노자’ ‘장자’가 많았지 싶다. ‘맹자’ ‘한비자’도 적은 편이었고 ‘순자’는 말할 것도 없다. 사마천 ‘사기’도 통으로 길게 강의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그다음으로 서양철학, 서양예술, 동서양 미술 등이 인기 있었다. 여기에는 시민의 호응과 인기가 반영됐을 것이다.

이제 ‘우리’를 보는 쪽으로 눈길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삼국유사, 원효, 최치원, 이규보, 서경덕, 최한기, 박지원, 상고사, 독립운동사, 박경리, 이병주, 동북아 비교 인문학, 해양인문학, 부산학 등 들여다볼 ‘우리’는 많지 않은가.

일본에 관한 착시를 돌아보고, 냉정하게 새로운 시선으로 일본을 볼 필요도 점점 커진다. 그러다 보면 중국을 또 새롭게 만나야 할 것이다.

깊이 박힌 기억이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붉은악마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때 많은 일간지에 학자와 지식인이 기고했다. 많은 학자가 ‘이런 집단주의는 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과시즘으로 간다’는 요지로 비판했던 기억이 있다.

한국 민중은 파시즘으로 가기는커녕 신명을 보여주며 꼬이고 쌓이고 맺힌 걸 풀어버렸다. 그리고 자율과 자발, 올바른 배려 등의 가치를 켜 채 촛불혁명으로 나아갔다. 나는 그때 지식인들의 진단이 틀렸다고 본다. 이론에 현실을 끼워 맞추려 했고, 한국 사회의 역사나 원리에 무지했다고 본다. 지금 우리를 다시 들여다볼 때가 다시 한번 왔다고 본다.

과정의 소중함을 거듭 생각한다

이제 인문학 페스티벌을 생각해본다. 문화에서 좋은 과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언젠가 이 주제로 책을 쓰고 싶다. 인문학 페스티벌은 과정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주제를 만들어 부산 인문학 상황을 폭넓게 살피고 서로 격려하고 연대의 틀을 짜는 일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 운동 특유의 자율과 자발, 다양성 틀 안에서 이는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재미와 기쁨을 느낀 사람이 나오고 늘면, 그 기운을 모아 페스티벌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결과 중심의 인문학 페스티벌은 실패할 것이다.

부산을 인문 소양이 풍부하고 다양성을 끌어안는 현대의 도시로 가꾸려는 발걸음은 그런 과정을 통해 한 발 한 발 뚝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알맞은 규모도 갖췄다고 판단한다. 그런 흐름에 올라탄 뒤에야 성과물이자 과제로서 부산시민대학이나 부산인문학센터 같은 결실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필패다.

조봉권 프로필

1995년 《국제신문》 입사해 문화부 기자, 문화부장, 문화전문기자, 편집부국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선임기자로 재직 중이다. 부산대 예술문화와영상매체협동과정 대학원 미학 석사를 수료했고, 제1회 효원언론인상, 한글학회 부산지회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다시 찾는 근교산』, 『신근교산』이 있다.

영국 미국 이양선 정박한 용당포, 해양관광으로 연결을

이 용 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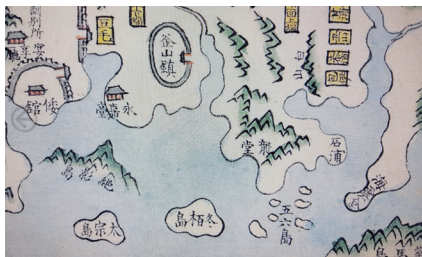
부산세관박물관장



외·내항 경계선상의 포구

우리나라에 용당(龍唐)이란 지명을 가진 포구가 여럿 있다. 서해안에는 황해도 해주와 금강 하구, 동해안에는 경주 대왕암 해안, 남해안에는 제주도 한경면과 낙동강변에 있는 화명·양산 나루터 그리고 부산항 신선대 근처 등이다. 포항, 목포 등에도 ‘용당’이란 행정명이 있는데 대부분 바다나 강에 접한 곳이어서 물과 관련이 깊다. 용당은 용 관련 전설을 가진 연못 주변, 사당이나 당집에서 해신(海神, 용왕)에게 무사 안녕을 비는 제사를 지내던 공간이다. 신과 인간,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가 만나는 경계 선상의 신성한 곳이다.

부산 용당포¹⁾ 역시 부산항 내항과 외항의 경계지점이다. 남쪽으로 뻗어 나온 신선대가 바람과 파도를 막고 안쪽으로 고즈넉한 포구가 있다. 이 포구를 벗어나면 오륙도가 나타나고, 곧 넓은 대양이 펼쳐진다. 바다에 대한 경외심도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반대로, 포구로 귀항하는 뱃사람은 그동안 파도에 지친 심신을 아늑한 포구에 안겨 위로받는다. 이러한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 용당포였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해



18세기 중엽의 《여지도》
동래부의 용당포 부근(규장각)

어촌이 형성되었다. 특히, 신라 시대에는 형변부곡(兄邊部曲)이라 하여 이곳에서 남해신(南海神)에 제사를 지냈고, 고려 시대에도 당집 문화를 계승, 풍수 사상과 연관해 이 지역의 지명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한적한 어촌에 불시에 귀착한 2척의 이양선은 이 지역민과 관리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많은 궁금증을 던져주었다.

우연히 찾아든 영국 해군 탐사선

1797년 10월 13일 정오 무렵, 돛을 높이 단 이양선 한 척이 불시에 용당포 부근에 닿을 내렸다. 이 이양선은 윌리엄 로버트 브로턴(William Robert Broughton) 함장이 지휘하는 영국 해군 탐사선 프로비던스(Providence)호

1) 본래 부산의 용당은 당집과 관련이 깊어 ‘龍堂’이었으나, 1912년 일제가 행정명을 바꾸면서 못과 관련지어 ‘龍塘’으로 표기한 것이다.

의 부속선 프린스 윌리엄 헨리(Prince William Henry)호였다. 북태평양해역 탐사 항해 중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다가 용당포에 입항한 것이다.

브로턴 함장 일행은 부산포를 탐사하는 등 8일간의 체류 일정을 마치고 마카오로 향했다. 1798년 스리랑카 해역까지 장기 탐사 임무를 마친 이들은 다음 해인 1799년 영국에 무사히 귀환했다. 그리고 1804년 5월 런던에서 『북태평양 항해기(Voyage of Discovery to the North Pacific Ocean)』를 I·II부로 나누어 출판했다. 당시 조선 방문기는 제II부에 수록되었는데, 이 책을 통해 부산항이 처음으로 유럽에 알려졌다. 『하멜 표류기』가 조선을 서구에 처음 알린 이야기라면, 브로턴 함장의 『북태평양 항해기』는 부산항을 최초로 소개한 기록물이다. 그리고 이 항해기는 훗날 서구 자본주의가 조선을 침략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항해기 뒤에 삽입된 부산항 ‘항박도’는 서구 열강의 군함과 탐사선, 상선들이 부산포라는 조선의 변방에 자주 출몰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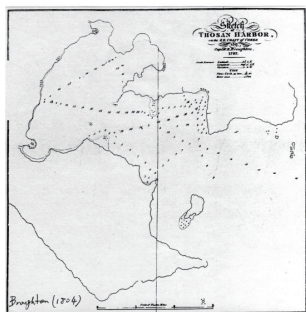
1952년경 용당포(부경군대사료연구소)

브로턴 함장 일행이 용당포에 입항한 것은 우연이었다. 부산포라는 사실도 모른 채 식수, 땀감, 부식 등을 구하기 위해 포구로 찾아들었다. 그러나 느닷없이 찾아든 한 이양선으로 인해 부산포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산에는 봉화가 계속 타고르고, 용당포 주민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에 교차되어 이들을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다. 다음날, 날이 밝기 무섭게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주민 모두가 전마선을 타고 범선 주위를 빙 둘러쌌다. 그러나 “이들 중에 젊은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항해기는 기록했다. 할머니나 어린이는 있지만 성인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으니. 아침이라 부엌일을 하느라 올 수 없었을까? 아니면 여자는 배를 타는 것을 금기시한 당시의 정서에 해적선과 같은 이양선이 나타나았다면 더욱 바닷가는 위험한 환경이라 더더욱 나올 수 없었으리라.

항해기는 “그날 오후 크고 혈렁한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 갓을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른 높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의사소통이 안 되었다”고 했다. 그 다음 날도 “사람을 가득 실은 배 두 척이 왔고, 군인이 수행하는 매우 섬세하고 얇은 하늘색 옷을 입은 지위 높은 사람이 탔는데, 소금에 절인 생선, 쌀, 해초 등을 선물로 주며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눈치였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브로턴 함장은 “나무, 물, 신선한 식료품이 필요해서 그냥 돌아갈 수가 없다고 그들에게 설명했으나 못 알아들은 것 같았다.”고 아쉬움도 기록했다.

하멜이 조선에 표류했을 때는 이미 26년 전부터 표류자로 조선에 살았던 벨테브레이(Jan Janse Weltevree, 한국명 박연)라는 네덜란드인이 있어 통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가 왔을 때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 이 상황을 기록한 『정조실록』에도 대화가 힘이 들었다고 했다. 경상도관찰사 이형원(李亨元)의 치계(馳啓)에 “역학을 시켜 그들에게 국호와 표도하여 오게 된 연유를 물었는데 한어(漢語), 청국어(淸國語), 왜어(倭語), 몽고어(蒙古語)를 모두 알지 못했습니다. 붓을 주어서 쓰게 하였더니 모양새가 마치 구름과 산을 그린 그림과 같아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²⁾ 라고 했다. 처음 본 로마자 알파벳이 낯선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기록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었다. 삼도통제사 윤득규(尹得逵)의 치계에도 있었다.



1804년 브로턴 함장의 『북태평양 항해기 II』에 실린 부산항 항박도 (한수당 자연환경연구원)

“동래부사 정상우(鄭尙愚)의 정문(呈文)에 의하면, 용당포에 달려가 표류한 사람을 보니 코가 크고 눈이 파란 것이 서양 사람과 같았습니다. 또한 싣고 있는 화물을 보니 유리병, 천리경, 구멍이 없는 은전이 모두 서양산이었습니다. 언어와 말소리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오직 낭가사기(浪加沙其)라는 네 글자만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말로 나가사키를 말하므로 아마도 이 상선이 나가사키에서 표류하여 여기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를 대하여 손으로 대마도 근처를 가리키면서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것으로 보아 이는 순풍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바람을 기다렸다 보내도록 명하였습니다.”

2) 令譯學。問其國號及漂到緣由。則漢淸倭夢之語。俱不瞭解。授筆使書。則形如雲山圖畫。不可曉得。『正祖實錄』47권, 正祖 21年 9月 6日 壬申)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는 해양탐사를 위해 온 영국 해군 군함이었지만, 동래부시는 일본 나가사키에서 온 무역선으로 잘못 판단했다. 그러나 브로턴 함장 일행은 이곳이 ‘조선’임을 알았고, 항해기 속의 부산포 항박도(港泊圖)의 이름도 ‘조선항(CHOSAN HARBOUR)’이었다. ‘조선항’이란 이름은 1859년 존 워드(John Ward) 영국 함장 일행이 부산항을 탐사하고 새로운 항박도가 출판될 때까지 약 50년간 그대로 불리졌다.



한영교류 200주년을 맞아 신선대 정상에 세운 교류기념비. 당시 영국 해군 중령으로 있던 앤드류 왕자가 제막식(2001.4.20)에 직접 참석했다.

주민의 경계 속, 낯선 조선을 보다

이들은 부산포에서 머무르는 동안 해양 탐사뿐만 아니라 26종의 식물명과 우리말 38개 단어를 채록하기도 했다. 그중 특기할 만한 것은 달(Moon)을 Tareme(달님), 별(Stars)을 Curome(구름)으로 표기한 것이다. 아마 별을 가리켰는데, 현지민은 그 옆의 구름을 가리킨 것으로 알고 잘못 대답한 것 같다. 남자(A Man)는 Sanna(사내), 여자(A Woman)는 Kageep(계집), 다리(Leg)를 Tantangee(장단지), 나무(A Tree)를 Sonamo(소나무)로 기록한 것도 흥미롭다. 이들은 당시 해금정책(海禁政策)이 엄격했던 부산포에서 몰래 항 내 탐사를 하다 조선 수군에게 들켜 분위기가 험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물을 끄는 다거나 나무를 채취할 때는 협조적이었다. 이것은 조선 조정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되, 항 내 활동을 통제하면서 그들이 빨리 떠날 것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마지막 날까지 감시병 몰래 내항으로 들어가 상륙하는 등 해도 완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조선항’³⁾이라는 항박도였다. 브로턴 함장도 “이 항박도가 항구를 상세히 설명하며, 최대한 정확하게 과장 없이 그렸으므로 어떤 목적에도 항해사들에게 그 해답을 줄 것”이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 항박도에는 큰 오류가 있었다. 영도를 섬이 아닌 육지로 그린 것이다. 탐사대가 내항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용당포 인근에서 측량하는 바람에 용두산과 영도 사이가 물길에 통하는 목인 것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형, 수심에 큰 오차가 없는 해도로서 당시 부산항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3) 해양 학자이자 항만연구가였던 고 김재승은 브로턴 함장 일행이 현지 주민들과 대담에서 “이곳이 어디냐고 지명을 물었으나, 의사소통이 안 되어 나라 이름을 묻는 것으로 알고 조선이라고 대답”한 데서 ‘조선항’이 되었다고 했다. 『近代韓英海洋交流史』 P159

조선 용당포 현지인과 영국 해군 장병의 첫 만남은 우리 근세사에 의미 있는 일이었다. 서양 문화와 첫 접촉이라는 문화사적인 의미에 더해, 항해기를 통해 서구 사회에 조선이라는 신비한 왕국의 실체를 알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로턴 함장은 조선인들이 접촉을 피하여 생활 풍습과 태도를 관찰할 기회가 적었다고 고백하였다. 조선인들은 낮은 사람과 교류를 바라지 않았고 무관심했으며, 브로턴 함장 일행이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엇을 추구하는지도 몰랐다고 기록했다. 아마 해적일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어서 떠날 것만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총과 화약 등 무기에 대해 잘 알았고, 영국에서 제작된 여러 가지 물건에 호기심이 많았는데, 특히 모직 천에 관심이 많아 군인들이 입은 옷에 특별한 눈길을 보냈다고 기록했다, 10월 21일 아침,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가 출항 준비를 하자 부산 침사영 소속의 감시병들도 기뻐했다. 브로턴 함장은 조선 수군들이 갖고 싶어 했던 망원경과 총을 선물로 주었다. 용당포 주민들도 근처 산에 올라가 돛을 올리는 영국 해군 탐사선이 출항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신들에게 나무와 물을 공급해준 이들에게 감사해하며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는 조용히 조선항을 떠났다.



미국 고래잡이선 사우스 아메리카호
(국립중앙도서관, 안현주 컬렉션 RG006-1)

‘머리계’에서 온 이양선

용당포에 영국 해군 탐사선 프린스 윌리엄 헨리호가 나타나고 57년이 지난 1853년 초, 미국 포경선 한 척이 바로 그 자리에 닻을 내렸다. 하지만 조선이 이양선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우리 기록에 고래잡이 중 폭풍을 만나 용당포 앞바다에 표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두 달 보름에 걸쳐 하와이에서 부산포까지 항해해 온 목적은 다른데 있었다.

『일성록』에 의하면, 용당포에 포경선이 입항한 것은 1853년 1월 29일 정오 쯤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도 조정에서는 영국 함선이 왔을 때처럼 통역관 중심으로 훈도, 별차, 소통사를 현장에 보내 문정(問情), 즉 배에 올라 심문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일본어 전문 통역관이어서 그런지 도무지 미국 선원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다. 미국 선원들도 대답했는지 문정관에게 자신과 선박을 가리키며 “머리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통이 어려워지자 필담을 시도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어려운 붓을 외국 선원이 들고, 영문을 적는다는 게 어디 쉬웠을까. 또, 조선 문정관이 화선지에 쓰인

생면부지의 알파벳을 보고 혼란스러워했을 것은 당연하다. “구름 같기도 하고 그림 같기도 하며, 전서체도 아니고 언문도 아니어서 전혀 알아볼 수 없었다”⁴⁾고 기록할 정도였다. 결국, 조선 문정관들은 직접 배 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배는 아주 사치스럽고 선원들은 모두 과장하게 생겼다. 코가 높고 수염은 없으며 눈은 노랗거나 파란색인데 고슴도치처럼 산발한 머리에 검은 가죽 모자를 썼고, 어떤 사람은 문신까지 있었다”고 기록했다. 포경선 승선자는 총 43명으로 서양 여성 한 명과 어린이 한 명, 조선인과 너무나 닮은 두 명의 나이 많은 남자도 끼어 있었다.

우리와 닮은 이들은 일본인으로, 약 8개월 전 한마에에 사는 네 사람이 영구환(永久丸)을 타고 간장과 쌀, 땀감 등을 싣고 장삿길을 나섰다가 조난했다는 사실이 일본 기록에 나타난다.⁵⁾ 이들 조난자는 다행히 지나는 미국 포경선 아이작 하우랜드(Issac Howland)호에 구조되었다. 이들 중 젊은 2사람은 본래 포경선에 그대로 승선한 채 미국으로 가기로 했으나, 처자가 있는 2사람은 지금의 포경선으로 옮겨 타 송환길에 올랐다. 용당포에서 하선한 2명은 우암포의 표류민수용소로 옮겨 수용되었다가 초량왜관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갔다. 당시 일본은 쇄국정책으로 외국과 통교가 어려웠고, 특히 기독교국 사람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조선을 통해 표류민의 송환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10여 일 동안 용당포에 머물며 조선인에게 한동안 ‘머리게(弥⁶⁾里界)’라는 깊은 인상을 심어준 이 포경선은 훗날 616톤급 사우스 아메리카(South America)호로 판명되었다. 그리고 선원들이 말한 ‘머리게’는 ‘아메리카(America)’였다. 조선 관리에게는 ‘A’가 약하게 발음되어 잘 들리지 않았고, 연이어 나오는 ‘merica’의 ‘me’에 강세가 있어 ‘머리게’로 들렸다. 중국은 ‘미리건(美利堅, 彌利堅)’, 일본은 ‘메리켄(米利堅)’으로 표기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최근에 이 배의 선장 워커(Washington T. Walker)의 『항해 일지』⁷⁾등이 알려져 보다 정확한 당시의 상황을 전해준다. 여기서도 일본인 두 명은 포경

4) “使渠操筆請書 則如雲如畫 非篆非謔 全無知得 但指船指身曰 弥里界 弥里界 云云”(『日省錄』 哲宗 4年 1月 18日)

5) 『악령이 출몰하던 조선의 바다』 박천홍, 현실문화연구, 2008, P501~502. 須藤利一 편, 『船』 法政大學 出判部, 1983, P260~263

6) ‘弥’는 한자음으로 ‘미’지만 이두용법에서는 ‘머’로 읽음

7) 방선주 『韓美 접촉 시작과 현대적 의미-워커 선장 가족 부산 방문 140주년』 《한국일보》 미주판(1993년 1월 26일자)

선 기항지인 하와이에서 사우스 아메리카호에 옮겨 탔고, 젊은 두 사람은 아직 포경선에 남았다고 했다. 그리고 정박한 후, 두 번에 걸쳐 보트로 가까운 마을에 접근하려 했지만 조선 관리의 완강한 반대로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배에는 선장의 아내(당시 25세)와 아들(3세)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조선 관리들이 미국 여인을 보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조선 표정』이란 시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변두리가 넓은 모자에 주머니 바지를 입었고
배 모양과 선원 모습에 놀라고 감탄하나,
마음속 간절한 소망은 미국 여인 구경뿐

이처럼 부산 용당포는 조선인이 영국인은 물론 미국인과의 만났던 유서 깊은 포구였다. 긴장감 속에 이루어진 서양인과의 첫 만남의 이야기는 우리 역사 속 감춰진 속살을 들춰보듯 흥미롭다. 그러나 봉건적 사고 속에 감춰진 그 세계는 침묵 그 자체였다.

변화의 질풍, 용당포를 묻다

용당포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은 근대 개항이었다. 이후로 일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서서히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여 드디어 러일 전쟁 직후인 1906년에는 이주 어민이 이곳에서 어업에 종사할 정도였다. 당시 용당은 동래부 석남면에 속해 있었고, 82가호가 주로 자망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특히 일본 야마구치(山口) 현 수산조합이 경영하는 이주 어민 15가호 60여 명이 이미 하나의 어촌을 형성하고 있었다.



1975년, 용당포구를 가득 메운 동명목재상사의 원목
(동명문화연구원)



용당포 상공에서 바라본 동명목재와 부산항 전경(1972)

그렇지만 용당포는 한적한 어촌이었다. 인근 앞 해상이 부산항을 드나드는 선박항로 선상에 있어 정치망과 같은 연안어업을 크게 확장시킬 수 없

었다. 개항기 부산항의 등대, 수로, 어장 등의 허가 권한을 가졌던 부산해관장에게 항로 주변의 불법 어장을 막아 달라는 지역 해운업자들의 빈번한 민원제기가 있어 온 것을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용당포는 어항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방풍림이 무성한 갯마을로 자리했다.

오늘날 용당포는 매축으로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1950년 6·25 전쟁 때만 해도 예전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그 후 7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이곳은 산업지형이 급변한 공간이 되었다. 용당포에 큰 변화가 온 것은 1960년대 중반이다. 우리나라 합판 산업을 이끈 동명목재가 1964년에 설립되면서 이곳은 원목, 부산 내항은 합판을 싣고 나갈 화물선으로 가득했다.



1991년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부두 준공식
(부산세관박물관)



신선대부두 전경(부산항만공사 2010년대 말)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목재 산업이 있었다. 노동 집약적 경공업의 만형격인 합판 공업은 1964년에 수출 특화 산업으로 지정되면서 눈부시게 성장하였고, 연평균 30%가 넘는 비약적인 증가세로 수출을 주도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합판 공업은 생산과 수출의 정점에 달했다. 이후 원가 상승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합판 생산으로 국내 합판 시장은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바뀌었고, 점차 경쟁력을 잃은 동명목재는 1980년 5월 결국 문을 닫는다.

이러한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였을까? 부산항 3단계 개발공사로 용당포에 매축이 이루어지고, 원목 대신 철제 사각 컨테이너가 쌓이게 된다. 1985년 12월 시공한 부두 건설 공사가 1991년 6월에 준공, 동부산컨테이너 터미널로 부두 운영을 개시하였다. 1996년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 2009년 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널, 2012년 CJ대한통운 부산컨테이너터미

널, 2016년 부산항터미널주식회사(BPT, 신선대터미널과 감만터미널 합병)로 사주와 사명이 이렇게 빈번하게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물류 산업의 생존 경쟁이 뜨겁고 어렵다는 증거다.

부산 해양관광, 이양선 이야기로 꽃피워야

18세기 말, 서세동점(西勢東漸)의 바람은 이미 용당포에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거의 60년이 지난 19세기 중반, 영어권의 포경선 한 척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외부세계의 변화에 대처하는 움직임이 없었다. 이 배가 출항한 이후, '머리게라'는 낯선 용어를 기록으로 남길 줄만 알았지, 이게 무슨 말이며 어떤 나라에서 온 선박인지도 몰랐다. 아니 당시만 해도 부산 주변에는 영어를 아는 역관이 한 명도 없었다. 그만큼 문제의식 없이 오랫동안 허송세월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1876년 강제 근대 개항 때도 당시 우리 조정은 국제법인 만국공법(萬國公法)보다 사대교린의 과거 질서 속에 얽매어 안주하듯 했다, 오늘날에 와서 용당포는 상전벽해의 산업 현장으로 보이긴 하지만, 뒤돌아보면 가슴 아픈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세상은 많이 바꿨고, 변화의 바람은 끝없이 불고 있다. 이제는 그 전날 이곳에 묻어둔 이양선의 이야기가 빛을 발할 때가 되었다. 영원한 '침묵은 금'이 될 수 없듯, 부산을 찾는 서구 관광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이양선에 대한 역사문화 공간을 만들어 이야기할 때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컨테이너 하나보다 여행객 1명이 더 부가가치가 높은 시대를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특히, 한창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부산항 북항에선 그렇다. 신선대부두 어딘가에 이양선 박물관을 만들어 유럽과 미주 등 서구권 관광객의 발길이 머물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해양관광 입국을 꽃피우는 일은 이러한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득 프로필

동서대학교 부산-후쿠오카 초국경경영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한동안 부산 원도심문화 네트워크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의 역사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했고, 부산항경쟁력강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부산세관박물관장과 한국해양문화가협회 회원으로 있으면서 《KBS1 부산라디오》와 《TBN 부산교통방송》에서 부산과 부산항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서로 『부산항 이야기』, 『해골잼 세관이야기』가 있다.

‘동남권 전국구 기업인’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

“4차산업혁명 거센 물결,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미래 준비를”



강병중 회장에게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기업인이자 동남권 상공계 원로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닌다. 그는 기업경영의 성공 신화를 계속 써 내려가면서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인 넥센그룹을 일궈냈다. 또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3연임한 뒤, 현재까지도 현역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을 비롯한 상공계의 많은 사업에 열정적인 지원을 하고 앞장을 선다. 그러다 보니 ‘부산 유일의 전국구 상공계 인사’라거나 ‘영원한 상공회의소 회장’이란 말도 듣는다.

그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오로지 타이어와 자동차 관련 사업에만 전념하며 외길을 걸어왔다. (주)넥센은 자동차용 튜브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오랜 기간 지키며 140여 개 나라에 수출하고 있고, 법정관리에 있던 우성타이어를 인수해서 이름을 바꾼 넥센타이어는 세계 타이어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며 초스피드로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

그는 또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고향인 진주 이반성면의 중학교 재단이사를 맡아 육영 및 장학사업을 시작하고부터 약 45년간 월석선도장학회와 KNN문화재단, 넥센월석문화재단을 통해 장학사업 및 소외계층 돕기, 문화예술 및 학술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며 매년 13억~14억 원씩 통 큰 기부를 하고 있고, 지원 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동남권의 전국구 원로 기업인 강병중 회장을 만나 지역 발전에 대한 고견을 들었다.

— 오랜 기간 기업 활동을 해오시며 체득하고 실천한 경영철학은 무엇인지요?

강병중 회장(이하 강 회장) : 도전과 개척,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요즘에는 흔하게 쓰이고 있어 진부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기업을 해보면 그게 말처럼 쉽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우선 위험을 안고 시작해야 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나,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분야에 뛰어들어 반듯한 회사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일제 중고트럭 수입이었는데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시작했고, 3륜 용달차 운수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새로 개척했습니다. 넥센타이어의 전신인 우성타이어를 인수할 때도 다들 위험하다며 말리는 데도 결행을 했습니다.

기업도 생물처럼 늘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현장을 지키면서 솔선수범을 해야 합니다. 책임도 먼저 지고, 근검절약도 먼저 하겠다는 생각으로 일해 왔습니다.

— 회장님께서 평생에 걸쳐 일구신 넥센그룹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 회장 : 넥센(NEXEN)은 '다음 세기'를 뜻하는 'NEXT CENTURY'의 준말입니다. 다음 백 년을 책임질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세계를 선도할 기술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꿈과 의지를 담았습니다. 넥센그룹은 그룹의 사업형 지주회사인 (주)넥센과 넥센타이어(주), KNN(주), (주)넥센D&S, (재)넥센월석문화재단을 비롯해 모두 27개의 법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인트나인(Saintnine) 골프볼
ES GOLD

(주)넥센은 각종 고무제품으로 40년 넘게 넥센그룹의 중심을 지켜 왔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자동차용 튜브 외에도 산업용 솔리드 타이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세계 유명 지게차 회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인기를 끄는 골프볼 브랜드 세인트나인(Saintnine)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같은 고무사업 외에도 해상, 항공, 프로젝트 화물, 육상운송, 창고보관, 물류 컨설팅 등 전 물류영역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류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넥센타이어(주)는 ‘스피드 경영’이란 명성에 걸맞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성과만 살펴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를 제치고 생산량 국내 2위 업체가 됐고, 체코 공장을 준공해 본격적으로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세계 각지의 연구개발(R&D)센터를 컨트롤하는 중앙연구소를 준공했습니다. 또 매출 2조 원 돌파와 수출 10억불탑 수상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1년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체코 우스티주 자테츠시에 있는 유럽공장은 중국에 이어 세워진 해외공장으로 부지 20만 평에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친환경 설비를 갖추었습니다. 이 공장은 종전부터 공급해왔던 포르쉐, 폭스바겐, 르노, 피아트, 스코다 등 유수의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에 보다 안정적으로 신차용 타이어(OE)를 확대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에 위치한 넥센타이어 중앙연구소
‘더 넥센 유니버시티(THE NEXEN univerCITY)’

서울 강서구 마곡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5만7146㎡ 규모로 세운 중앙연구소는 미국·중국·유럽 연구개발(R&D)센터의 연구개발까지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저비용·고효율의 친환경 타이어와 전기차용 타이어 등 첨단 타이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장을 세계 여러 곳에 세우고, 유명 자동차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 제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자동차의 엄청난 변혁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또 공중을 나는 드론택시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동차 혁신에는 현대차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회사들은 물론이고, 타이어, 배터리, 인공지능, 반도체, 센서 등 여러 분야 기업의 기술도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융복합되고 있습니다. 넥센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새로 연구·개발해 현대·기아차와 외국차에 공급하고 있고, 미래차에 적합한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현대·기아차 및 대학의 연구·기술 인력과 협력을 하고, 빅데이터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상의 회장 3연임하며 삼성차, 선물거래소 부산 유치 앞장

— 1994년 4월부터 부산상공회의소 제 15, 16, 17대 회장을 역임하셨는데, 상의회장 재직 때 삼성자동차와 선물거래소 부산 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 시절을 회고하십니까?

강 회장 : 1994년에 제15대 상공회의소 회장에 취임했을 당시 부산 제조업은 이미 합판 섬유 의복 신발 등 주종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도산하거나 해외이전을 해 공동화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1960, 70년대 전국 경제의 20%를 차지했던 부산경제의 비중은 80년대 10%로 뚝 떨어지더니 90년대 들어서는 5%대로 추락했고, 그마저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부산이 생기고 경제가 가장 어렵다던 시기에 상의회장이 되고 나니 기업체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부산경제를 살려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빈사 상태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나 대단위 프로젝트와 같은 고단위 처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자동차 유치 및 선물거래소 설립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부산에 승용차 공장이 들어서기로 결정된 것이 1994년이고, 선물거래소 최종 확정이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아래에 있던 1998년이었으

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유치 활동을 벌일 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신의 일은 내던지다시피 하면서 오로지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주셨고, 특히 시민들의 열정과 집념은 지금 생각해 봐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할 정도로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부산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유치에 서명한 사람이 100만 명을 넘었으니, 당시로서는 대사건이 아닐 수 없었지요. 그 뒤에도 삼성차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고, 선물거래소도 수도권에 갖은 저지와 방해로 위기가 여러 번 있었으나 부산의 결집된 힘이 이를 극복해냈습니다.

— 선물거래소 유치 후에도 금융특구를 주장하시는 등 끊임없이 부산이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셨지요.

강 회장 : 부산상의 회장으로 있을 때 부산시민과 함께 힘을 합쳐 매우 어렵게 부산에 선물거래소를 유치했습니다. 선물거래소는 그 뒤에 코스닥·코스피와 합쳐져 한국거래소(KRX)가 됐고, 2007년에는 한국거래소 본사까지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은 또 2009년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부산은 수도권과 정말 어려운 싸움을 해왔습니다.

KRX 본사가 지금 문현동에 우뚝 서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물에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부산의 이런 노력이 계속 쌓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KRX 본사만 있고, 이름만 금융중심지일 뿐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주요 기능과 업무의 대부분이 부산 본사가 아닌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이뤄지고, 인원도 여의도에 편중된 기형적 구도로 돼 있습니다. 매년 채용되는 신입사원의 출신 지역 비율도 부산이 수도권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넥센타이어 창녕 공장



넥센타이어 유럽 공장

또 싱가포르처럼 국제금융도시가 되려면 외국계 금융기관·기업이 이전을 해와야 하는데, 부산에 이전한 외국 금융기관은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보안법 통과로 인해 외국으로 탈출하는 금융기관들이 많지만 부산은 이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현행 금융중심지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금융인재들과 그 가족들이 체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거주 교육 의료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금융특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이 금융특구가 되면 안정된 기반 위에서 금융인프라를 확충해 동북아 국제금융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장님은 기업인으로서 드물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 주창하시고 실제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촉구하는 등 큰 역할을 하셨는데, 어떤 연유나 계기로 그 방면에 관심과 열정을 쏟게 되셨는지요?

강 회장 : 수도권 집중은 1990년대부터 아주 심각한 양상을 띠기 시작합니다. 서울과의 연계성이 시너지 작용을 하면서 경기와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에 엄청 빠르게 비대해졌습니다. 1970년, 1980년대에 수도권에 한 해 평균 30만 명 이상씩 비수도권 인구가 유입됐고, 그러다 보니 수도권 인구는 90년에 이미 전체 인구의 42.7%에 달했습니다. 신설되는 제조업체 및 신규 고용자도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습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사람 돈 물류 정보 첨단기술이 수도권에만 집중됐고, 비수도권이 요구하는 지역특성을 살린 야심찬 경제정책은 외면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적 체제 아래서 시행되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부산과 동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가 중추관리기능을 분산시키자는 주장을 계속 해왔고, 또 실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1997년 10월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부산상의를 방문했을 때 김 후보에게 지방경제가 모두 침체일로에 있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된 직후 '수도권 정비법'을 곧바로 재개정해 시행했고, 또 대기업의 지방 분산을 위해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도 만들었습니다.

부·울·경 힘 합쳐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해야 국토 균형발전 가능

— 최근 부·울·경 3개 시·도가 동남권 메가시티(megacity)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도 오래 전부터 동남권 광역연합과 ‘부울경 특별시’를 주창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신을 갖게 되셨는지요?

강 회장 : 동남권 메가시티는 제가 90년대부터 주장해왔던 부울경 특별시나 동남권 광역연합과 같은 방식이고, 또 지방분권이나 국토균형발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말하자면 부울경이 광역행정 연대를 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독자적 발전이 가능할 정도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광역연합 구상은 부산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고 있던 중에 사업상 자주 찾던 일본에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關西) 지방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關東) 지방과 양대 축을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간사이는 오사카·고베·교토시를 중심으로 해서 광역경제권을 이루며 공동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9개 큰 은행 가운데 5개가 도쿄권에 있고, 4개가 오사카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도 힘을 합쳐서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 경남 울산은 원래 뿌리가 하나이면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사회 경제 문화가 연결돼 있습니다. 800만 인구와 한국 제2의 경제력을 가진 동남권이 하나가 되면, 수도권과 경쟁하는 또 하나의 중심축이 돼 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메가시티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가지는 시·도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강 회장 :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광역경제권이 되지 않으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국토 면적의 11.8%밖에 안되는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집중돼 있습니다. 상장기업의 72%, 전국 대학의 37%가 수도권에 있고, 상위권 대학은 전부 수도권에 있습니다. 일자리와 학교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자꾸 몰려가고, 수도권은 인구가 계속 늘면서 주거시설 부족과 아파트값 폭등, 교통 체증 등 각종 폐해가 극심해졌습니다. 반면에 동남권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인구가 줄면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동남권의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나란히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울산이 11.1%로 1위, 부산이 10.6%로 2위, 경남이 10.4%로 3위를 했습니다. 1, 2, 3위를 나란히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가시티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교육·취업·정보·문화·의료 등의 생활환경을 갖추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 수도권에 맞서 광역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시·도에
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 회장 : 그만큼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겠지요. 충청권과 대구·경북, 광주·전남도 나서고 있고, 심지어 서울·인천·경기도 역시 광역 행정을 펴기 위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광역연합과 지방분권 실현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일본 제2 도시 오사카 중심의 간사이광역연합과 프랑스 제2 도시가 중심이 된 메트로폴 리옹이 수도권과 경쟁을 하고 있듯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광역연합 추진은 동남권이 선두주자이고, 또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어디서 하겠는가 하는 책무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 지난해 9월의 동남권발전협의회 출범을 주도하셨고, 공동대표를 맡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 회장 : 그동안 부울경 광역연합에 관한 협의는 주로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의 경제계가 중심이 돼왔고, 대표도 계속 상공인이 맡아왔습니다. 광역연합 논의의 출발이 지역경제가 침체 돼 수도권과의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고, 부울경이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자체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를 광역경제권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중간자 및 중재자적 입장이 돼 비교적 쉽게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경제계에서 맡아오던 상임위원장 역할을 이번에는 학계 쪽인 전호환 전 부산대 총장에게 부탁을 해서 맡게 했습니다. 부산대 총장 재임 때부터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드는 주원인이 교육과 일자리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균형발전은 지역거점 명문대학 부활을 비롯해 교육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분입니다.

— 부울경은 지난해 10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현안 사업 6건의 정부 지원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강 회장 :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민 생활과 직결되고, 쉽게 업무를 합칠 수 있고, 기능과 효율도 높일 수 있는 관광 문화 의료 환경 방재 같은 분야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또 광역지자체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으면서 동남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철도나 도로 같은 광역교통망은 대형프로젝트이지만 동남권 주민들이 모두 환영하는 것들이어서 매우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 광역지자체가 힘을 합쳐 메가시티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만들어야 합니다.

— 오랫동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역설해 오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강 회장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단순히 현재의 김해공항이 장소를 옮겨 확장되고,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고 안전한 국제공항이 된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의 산업이 첨단산업과 부품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첨단산업은 거의 전부가 항공물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은 밤에는 운항을 할 수 없어 24시간 물류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천공항이 우리나라 전체 국제항공물류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이 발전하려면 24시간 물류 기능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첨단산업과 부품산업이 발달할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끌어들여 고급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

습니다. 특히 동남권은 이미 부산 울산 등 세계적 수준의 항만 물류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신공항이 생기면 항만과 항공이 합쳐진 복합 물류 기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은 미래성장산업이고, 침체돼 있는 동남권의 재도약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세계 각국과 빈번하게 교류하고 소통하게 만들어 부산을 동북아 관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동남권의 관련 산업이 함께 발전되고 외국기업 유치가 늘어나는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만 해도 국가사업으로 확정돼 동남권이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해외 방문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없으면 유치에 성공하기 힘듭니다. 신공항이 생기면 관광과 컨벤션 산업도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입니다.

동남권 발전하려면 24시간 물류 기능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이 꼭 필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부산상의 회장으로 있던 1995년 무렵에 정부가 여러 차례 신공항 후보지를 물색했고, 부산과 함께 창원, 김해 등지를 적극 검토했습니다. 벌써 25년의 세월이 흘렀고, 현재 김해공항은 포화상태입니다. 김해공항 확장 방안은 안전성과 항공 수요, 이용자 편의 및 비용, 소음, 환경 등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공항 건설이 진척되지 않았던 것은 수도권 중심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시점에서 풀어야 하고,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부울경 전체가 나서 꼭 성사시켜야 합니다.

— 회장님은 20대에 중고트럭 수입 판매부터 사업을 시작해 타이어 튜브 생산에 이어 타이어 완제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인 넥센타이어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타이어와 함께 해오셨는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강 회장 : 1960년대 후반 26살의 젊은 나이로 일제 중고트럭을 수입하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50년이 넘는 세월을 타이어와 자동차 관련 제품에 집중해 왔고, 모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좌고우면(左顧右睞)하지 않고 한 우물만

파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밤에 잘 때도 머리맡에 필기구를 놓아두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밤중에도 메모를 했습니다. 트럭의 영어 표기 'Truck'의 어원은 모두 바퀴를 뜻하는 라틴어 트로쿠스(trochus), 그리스어 트로코스(trochos)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첫 사업을 할 때부터 한평생 경영자로서 굴러 나갈 타이어(바퀴)와 운명처럼 만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KNN》

— 부산·경남을 아우르는 민영방송 《KNN》의 대표이사 회장도 맡고 계신데, 언뜻 타이어와 무관해 보이는 《KNN》을 어떻게 인수할 결심을 하셨고, 또 《KNN》 방송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요?

강 회장 : 부산상의 회장을 세 번 하고 마무리하던 시점에 부산경제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마침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의 전신인 PSB(부산방송주식회사)가 모기업 워크아웃으로 공개입찰에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인수를 해 2002년부터 경영을 맡아왔습니다. 1994년 문민정부가 지역민방 사업자를 공개 선정을 할

때도 3개 컨소시엄 가운데 하나에 참여했으나 탈락한 적이 있었는데, 8년 만에 민방 진출의 꿈을 이뤘던 셈입니다. 특히 삼성차와 선물거래소 유치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KNN》 인수에 나섰습니다. 《KNN》은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는 물론이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특히 역점을 두면서 지역발전에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KNN》은 해마다 기관장들과 기업인,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지역대표포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기조연설을 하셨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께서 시사토크쇼 '동남권 메가시티의 상생과제'에 패널로 참석하시어 전호환 동남권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 사회로 활발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천 길 낭떠러지 바위틈에 핀 꽃 한 송이처럼’ 희망을 노래하자

— 회장님과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 출판이 됐고, 특히 몇 달 전에 출간하신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란 책은 인기도서가 됐습니다.

강 회장 :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절망하거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과 청년들, 즉 1020 세대를 격려하기 위해 펴낸 연설문집입니다. 이 책에는 많은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면서 당부했던 격려사와 넥센그룹 회장과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연단에 서서 발표한 축하·기념사 등 주요 연설이 들어있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천 길 낭떠러지 바위틈에 핀 꽃 한 송이처럼 결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하자고 권하고 또 권한다’고 밝혔듯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도전을 하고, 미래를 개척하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에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출판되자마자 교육계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호응을 얻어 초판 2천 부가 곧 팔려나갔고, 두 번째 인쇄한 3천 부도 소진됐습니다. 출판사측에서는 희망을 갖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싶어 하는 세대가 반영됐다고 말하더군요.

— 장학회와 문화재단 등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강 회장 : 학창시절을 참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공하면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1975년부터 진주시 이반성면에 있는 옥광학원(이반성중학교) 재단이사장을 맡아 20년 이상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고 대학 신입생들에게는 1인당 1백만 원씩, 요즘 돈 가치로 하면 1천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후 월석선도장학회, KNN문화재단, 넥센월석문화재단을 통해 장학사업과 소외계층 돕기를 계속해왔고, 문화예술 및 학술 등 여러 분야에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 고향 사랑이 유별나시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강 회장 : 고향이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업에 매달려 정신없이 일을 했습니다만, 나이가 들고 사업도 안정이 되고 나서는 가능한 한 고향에 자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남이 하나였을 때 진주는 부산 마산과 함께 3대 도시였고, 그때는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경남 전체가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동쪽으로 발전이 치우쳐져서 서부경남이 낙후됐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인 이반성면은 인구가 급감했고, 문 닫은 학교도 여럿 있고, 그 많던 학생들도 이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향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으려, 각급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한 발전기금과 장학금 지원, 소외계층과 농촌주민 돕기, 문화예술 및 학술행사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부울경 지역의 원로 기업인으로서 후배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강 회장 : 지금 우리 앞에는 제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혁기일수록 No Risk No Gain(모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란 기업가 정신을 살려 열정을 갖고 도전하고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술과 기술이 결합되는 융복합시대에 기업끼리 서로 협력해서 함께 발전하고, 지역과 기업이 연계가 되는 만큼 지역발전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글 : 장지태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강병중 회장 프로필

부산상공회의소 15대, 16대, 17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넥센타이어 주식회사 및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 회장, 재단법인 KNN 및 넥센월석 문화재단 이사장이다. 2009년 무역의 날 금탑산업훈장, 2012년 기업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다산경영상, 2014년 경영인클럽의 21세기 경영인 대상을 수상했고, 2015년 국제라이온스 협회로부터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 『다시 희망을 노래하자』 등 저서도 다수 있다.

중앙 의존 벗어나 자립 의지로 서울보다 삶의 질 나은 발전전략 펴야

이 석 봉

(주)대덕넷 대표이사



대전에 산 지 20여 년이 넘었다. 40대와 50대란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지역에서 지냈다. 서울내기로 그곳에서 나고 자랐고 사회생활을 하며 30여 년 넘게 살아 서울은 좀 아는 편이 아닐까 한다. 거기서 인생의 전반기 이상을 지냈고, 지역에서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 이상을 살았다. 인생의 반 남짓은 서울에서, 나머지는 지역에서 보냈다. 지역에서 살며 주 근거지인 대전만 본 것이 아니라 관심사가 있어 다른 지역을 일부러 많이 다녔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을 조금은 골고루 안다고 하겠다.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지역에서 살면서 갖게 된 생각의 하나는 지역 사람들의 자립의식이 더 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중앙에 대한 의존 혹은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중앙에 손을 내밀고 중앙의 결정에 사활을 건다. 이를 위해 지역의 온갖 중앙 라인을 찾아 로비를 하고, 되면 엄청 자랑하고, 안되면 선출직의 경우 다음 당선에 위협을 받는다. 자체적으로 자립 방안을 찾는 노력은 그다지 보이지 않고, 중앙의 영향력과 재원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 필사의 노력을 해서 프로젝트나 재원을 따온 다음에는 관심이 급속히 냉각되며 다음 로비거리를 찾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지역 사람들의 중앙 의존은 일종의 병(?)이다. 습관적이고 만성적이어서 중병에 이르렀다고도 할 수 있다. 각종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들이 그렇고 무슨 무슨 공모사업들이 그렇다.

만성적인 중앙 의존병에 지역 내치 역량 키우기 소홀

지방자치가 1995년 실시됐으니 곧 한 세대인 30년을 맞이한다. 이제는 질적 전환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서울 출신 지방 사람으로 느끼는 점 가운데 하나는 지역이 진정한 자립을 위해 고민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아쉬운 점이다. 지역의 정계나 관계, 학계, 언론계, 재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은 지역의 내치 역량을 키우는 모습보다는 중앙과의 관계를 통해 현안 혹은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고 한다. 지역의 10년, 20년, 30년 전략을 세우고 이의 실현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여의도의 정치 세력이

나, 이제는 세중에 자리한 중앙 부처들의 정책 방향에 안테나를 세우고 예산을 다른 곳보다 더 가져오려고 젓 먹던 힘까지 짜낸다. 자연히 지역민들이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서울보다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도록 하는 시민 교육 등의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지역을 가꾸고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을 후손들에 물려준다는 발상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다.

지역민이 지역의 주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는 서울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지역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은 대부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삶의 수준이나 경쟁력이 큰 차이가 없다. 각자의 특성을 갖고 공존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다.

한반도에서 중앙집권의 역사는 1천 년 이상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고려 성종 때 군현제가 실시되는데 서기 995년의 일이다. 지역 토호들의 기득권을 부수고 중앙정부에서 관료를 파견해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하는 것이 1천 년 전에 시작된 것이다. 이후 조선시대와 일제 식민지, 개발연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날이 갈수록 중앙집중도는 심해졌다. 그래서 나온 속담이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라는 것이다. 이 생각은 아직도 유효해 해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서울로 하며 고향을 등지고 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1960년대 경제개발을 시작하면서는 이촌향도(離村向都)란 말이 의미하듯 수도권 집중의 극성기였다. 당시 국가가 택한 경제개발 방식은 '경사형 생산방식'이다. 1인당 GNP 1백 달러 수준의 자원 부족 상황에서 전국을 골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우니 우선 가능한 곳에 자원을 집중해 그곳부터 잘살도록 만들자는 전략이다. 그 결과 공간적으로는 서울에, 기업으로는 대기업에 인재와 자금 등 자원을 편향적으로 집중시켰다.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장남에게 모든 자원을 올인해 공부를 시킨 것과 비슷하다. 그 결과 장남이 잘되면 동생들을 키우고, 어른신도 챙기는 것을 기대한 것이다.

이 전략은 결과적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1백 달러 국가가 두 세대가 채 안 돼 3만 달러 국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잘사는 터전이 마련된 장남이 여전히 배고프다며 동생들을 챙기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자원을 독식하는데 있다. 동생들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없이 블랙홀처럼 자원을 끌어당기고 있다. 동시에 동생들도 만이가 동생들 보살필 생각이 별로 없

다는 것을 알면 자립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돈 나올 곳은 형편이 없다며 여전히 기대는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20여 년 간 지방에서 살고 국가의 정책을 보면서 느낀 점의 하나가 겉으로 보이는 지역감정의 속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열어졌지만 우리나라를 가르고, 감정적으로 극한 상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의 하나가 지역감정이다. 특히 영호남의 대결의식은 거셌다. 선거 때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도 반복됐다. 그 원인을 보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원인이고 해결책이었다.

대개 지역감정이 극에 이르는 시기는 불황기이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영남의 경우 왜 호남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일자리와 자원을 빼앗느냐는 것이고, 호남은 대부분의 공업시설이 영남에 있어 우리는 일자리가 없다는 생각에서 지역감정이 격해진다. 서로가 이익보다는 손해를 본다는 측면이 부각되며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두 지역 간의 교류는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불황기가 아닐 경우 영남의 경우는 이익 측면이 강하다. 일손이 부족한데 외지에서와 거들어주어 더 많은 부를 창출해 내니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경기사 이클이 반복되며 불황기에는 외지인들을 거꾸로 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호황기에 번 돈을 갖고 있다가 불황기에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덜하지 않을까? 왜 호황기 번 돈을 쌓지 못하고 불황기에는 바로 직격탄을 맞게 될까? 그 근본 원인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이었다(지금은 좀 나아져 7.5대 2.5 정도). 호황기에 번 돈을 중앙에서 8을 가져가고 지방에 2만 남으니 지방은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럼 지방에서 번 돈을 가져가 중앙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국토 전체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복지 기금 등으로 썼는데 인구의 50% 이상이 몰려 있고, 국부의 80% 가량이 집중된 서울 등 수도권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면 사실 영호남 사람들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연대를 해야 했다. 그래서 지방으로 돌아오는 뭇을 선진국 수준인 6대 4 혹은 5대 5로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중앙의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그렇게 할 경우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만큼 부정적 입장이다. 이를 깨기 위해서는 지방 사람들이 의식을 갖고 자각을 해야 하나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역 젊은이들 탈출 방지...지역 세일즈 하며 '남는 사람'들 중시하는 인재정책 펴야

지역에 살면서 느끼는 점 가운데 또 하나는 젊은이들의 지역 탈출이다. 젊은이들은 인생에 있어 크게 세 번의 지역탈출 기회(?)가 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이때가 지역 입장에서는 양적, 질적 두 측면에서 가장 큰 두뇌 유출의 시기이다. 두 번째는 지역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 세 번째는 경력자가 전직할 때, 이리다 보니 지역에 남는 인재는 손에 꼽는다. 심하면 남는 사람이 손해 보는 느낌 혹은 부족하다는 자괴감도 갖게 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다.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간 사람은 행복한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더군다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의 삶은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지역에서의 인생보다 더 넓은 무대에서 활약하며 성장한 경우도 많다. 그런데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요즘 그렇게 성공할 사람이 얼마나 많고, 본인들은 행복했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또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했는지 모르나 지역에 대해서는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고, 자신의 고향이 발전하는데 얼마나 기여했을까?

‘메트로폴리스 서울의 탄생’이란 책이 있다. 서울이란 거대 도시를 지리학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인 임동근 교수는 강연에서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서울을 분석해보면 다양한 자원이 있어서 성장해 왔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보면 서울은 20대의 피를 먹고 자라왔다. 지방에서 올라온 20대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을 오로지 잘 살 수 있다는 꿈 하나로 감당하는 바람에 서울의 성장이 지속가능해 왔다. 20대들은 젊은 혈기로 서울의 하부구조를 떠받치다가 나이가 들어 30대가 되면 서울 바깥 변두리로 물러가고, 그 자리는 새로운 20대가 채운다. 그 20대의 공급원은 지방이다. 그런데 이런 생태계가 얼마나 지속되겠는가? 서울은 지속가능해도 지방이 지속가능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서울도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 지방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임 교수는 반문한다. 울산이 4만 달러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산다. 그곳의 학생과 부모는 아이가 똑똑하다면 울산에 있기를 바라겠는가, 서울로 가기를 바라겠는가? 인재가 지역을 떠날 생각만 하는 상황이라면 현재가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도시이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사람들이 남고 싶은 생각을 갖겠는가?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지역

자체의 산업이 있어야 한다. 울산은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세계적 경쟁력이 있지만 서울 본사의 하청에 불과하다. 그곳에 지역산업과 연관이 있는 조선 부품이나 자동차 디자인, 석유 플랜트 설계 회사 등이 존재하고 생태계가 마련될 때 인재들은 그곳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지역은 지속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지역에서의 인재 정책은 똑똑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었다. 똑똑하다는 기준은 시험성적이 높다는 것이다. 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로 갔을 때 기숙사도 지역 사람들의 세금으로 제공해 주었다. 그 결과 지역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인재 정책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떠나는 사람을 위한 정책에서 '남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으로.

대전에서의 경험으로 보면 고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지역에 대한 소개나 경험 등의 프로그램이 없다. 지역이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기업 등 일자리는 무엇이 있고, 머무를 경우의 혜택은 이러한 것이라는, 지역인재들에게 지역을 세일즈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젊은이가 지역의 미래라고 하면서도 창업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역에도 적용하는 것 외에 지역에 취업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배려가 안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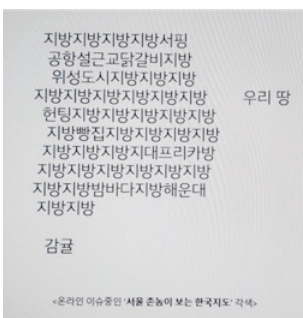
학생들은 아직 사회를 모른다. 지역을 일부러 알려고 하는 학생도 많지 않다. 그들로서는 또래집단이나 SNS,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그런 그들에게 지역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젊은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웹툰이나 드라마, 연예 프로그램의 주무대는 서울이다. 무의식적으로 서울은 선행의 대상이 된다.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나 시민들은 이 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NHK》뉴스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지역 중고생 등 학생들의 지역 활동이다. 우동이 유명한 지역의 학생들은 우동 신문을 만들어 지역을 알리고, 우동 가게 주인을 인터뷰해 그 집의 특징이 무엇인지, 에피소드는 무엇인지 등등을 소개한다. 재해가 난 지역의 경우는 복구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그들의 졸업식 등을 보도한다. 호주 시드니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이다. 호주의 교회는 교인이 100여 명으로 크지 않다. 목사가 교인들을 다 알 뿐만 아니라 교인 상호 간에도 유대가 좋다. 그 교회에 1년에 한 차례 세계적 피아니스트가 와서 공연을 한다. 교구 출신으로 어릴 때 추억이 남아 교회에 와서 공연을 하고 수익금은 교회에 기부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경제개발 이래로 전개돼 온 서울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들어 급등한 서울 집값이나, 고질병이 되다 보니 병으로도 인식하지 않게 된 교통 체증 및 공해 등 삶의 여건 악화는 수도권 중심 정책의 과열음에 다름 아니다.

왜 그럴까? 서울 사람들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 본인들이 우월하다고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않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그러하니 더욱 심각하다고도 하겠다. 연전에 추석 즈음 사람들에게 유포된 한 장의 그래픽이 있다. 제목은 ‘서울 촌놈이 보는 한국 지도’. 이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서울만이 중심이고 대부분은 지방이다. 그럼 지방 사람들의 국토 감각은 서울과는 다를까? 지역민들도 자신의 지역과 서울 일부는 좀 알지만 다른 지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이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중국 등 다른 나라 지방은 가보았어도 우리나라 지방은 여행에서 후순위였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쩔 수 없었으나 코로나로 해외 방문이 제한적인 지금이 우리나라를 아는 하늘이 준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그동안 여행 마니아들이 지방을 꺼려 한 많은 이유는 볼거리 부족과 숙박 불편이었다. 최근 10년간 지역은 많이 발전했다. 인프라 투자도 훌륭하고 스토리도 많이 개발됐고, 숙박 시설도 많이 단장됐다.



서울 사람들이 바라본 한국에 대한
인상을 지도로 그래픽 처리한 것.
위트가 엿보이면서도 서울 외에는
지방 혹은 시골로 아는 공간 감각에
쓰쓰함을 갖게 한다.

국토 70% 미활용…디지털 시대 맞게 국토 골고루 활용해야 선진국 도약

우리 국토를 다시 보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란 말이 있다. 지식과 공간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말이다. 발품을 팔아 알게 되면 공간이 들어온다. 우리나라 공간이 우리 의식 속에 들어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그려질 것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가 넘는 가운데 이곳이 차지하는 국토상의 면적은 약 12%이다. 이 말은 거꾸로 국토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 세종 등의 대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은 국토의 약 20%이다. 그렇다면 국토의 70%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토가 좁은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인구가 몰려 있어 좁게 사니까 좁아 보이는 것이 아닐까?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다. 국가도 디지털이다. 19세기 아날로그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넓은 영토와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 등 양적인 요소가 국력과 비례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되며 영토와 인구, 자원 등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영토는 넓으면 국방에 문제가 있다. 많은 인구는 소통도 어렵게 한다. 자원의 중요성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며 낮아지고 있다. 21세기의 국가는 관리 가능한 영토에 적절한 인구가 오히려 장점이 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남한의 영토만 제대로 활용해도 살기 좋은 국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한국 사람들이 국토 전역에 골고루 퍼져 살며, 뛰어난 인프라와 정보 통신 기술을 갖고 자율주행차와 드론, 로봇, AI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면 충분히 경쟁력 있고 높은 삶의 수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중앙정부에 더이상 손을 내밀지 않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며, 서울보다 높은 삶의 질을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역의 의존성을 버리고 자립 의지를 갖고 나름의 세계화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지역도 글로벌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근 그림 움직임의 단초를 부산에서 발견했다. 부산의 중견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만들고 있는 창업 생태계를 통해서였다. 벅스코(BEXCO) 인근 센텀중앙로에 위치한 선보엔젤파트너스가 대표적 사례이다. 이 회사는 부산의 중견기업들이 의기투합해 새로운 먹거리도 만들고, 우수한 스타트업들을 발굴,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이다. 부산에서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배

터리, 5G, AI, 신재생 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미래 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있다. UNIST, GIST 등 연구 중심대학에 이어 최근 KAIST에도 사무실을 내고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싱가포르와 베를린 등에 글로벌 거점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의 창업 생태계는 서울에 예측돼 있었고, 자체적인 세계시장 진출은 남의 이야기였다.

부산 벤체캐피탈, 서울-지역 구도 깨고 부산-광주, 부산-대전 유대 만들어 주목

그런데 선보엔젤파트너스가 앞장서 고정 관념을 깨고 앞서 나아가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 협력 모델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동안은 대개 서울과 지역이란 일방적 관계가 일반적이었다. 서울과 대전, 서울과 대구, 서울과 광주 등의 관계가 주였지 대전과 대구, 부산과 광주 등의 연결고리는 약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서울과도 관계를 갖고 있지만 부산과 광주, 부산과 대전 등의 횡적 유대도 만들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협력관계이다. 이런 시도가 많아지고, 성공 사례가 나오면 기업에 이익이 있는 것과 함께 지역활성화로 연계되며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도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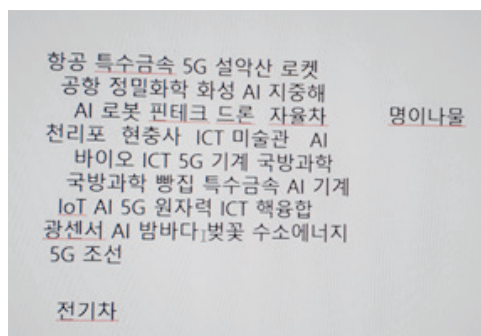
선보엔젤파트너스가 2020년 11월 개최한 라운드테이블 모습. 2020년 연말로 50회째를 맞는 라운드 테이블에는 매월 지역의 투자자들이 모여 미래 아이템들에 대해 소개를 받고 투자를 논의한다.

저출산이 당대의 문제로 많이 이야기 된다. 합계출산율 0.9명대가 2021년에는 깨지는 등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썼으나 개선 기미는 별로 없다. 출산하면 돈 준다는 일차원적 대책이 주를 이룬다. 출산율을 지역별로 보면 차이

가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은 0.9명 전후이다. 이에 비해 지방은 1.2명 전후이다. (서울은 0.7명, 부산은 0.8명). 전체적으로 보아 수도권, 대도시보다는 지방에서 애를 더 낳는다는 이야기이다. 수도권과 대도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모수(母數)도 많다. 그러기에 평균은 낮을 수 있다. 지방은 그 반대로 모수가 적어 평균이 상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별 출산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한다.

그럼 왜 수도권 대도시는 출산율이 낮고 지방은 높을까? 이는 동전의 양면이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가 많고, 전망하는 곳이다. 지방은 일자리도 부족하고 생활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그렇지만 서울과 대도시의 사람들이 많아 비좁고 비용도 많이 들어 연애 결혼 육아 등이 힘든 데 비해 지방은 그 점이 상대적으로 나아 결혼도 하고 애도 낳는 것으로 분석된다. 요점은 출산 대책이 '애 낳으면 수당 준다'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도 메시지를 던진다. 지역을 서울에 예측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를 위해 지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방자치를 넘어서 지역 독립을 들고 나와야 하고, 지역 나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민들이 내 일은 내가 해결한다는 의식을 갖고 시민 의식도 높여야 할 것이다. 최근 건립된 부산 도서관을 둘러보았다. 사서 등 직원분들이 시민들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하는 사명감이 전해졌다. 부산 자료관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배려, 지역문화 강조 등이 기억에 남는다. 고급 책상과 의자, 조명 등도 시민들의 품격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란 인상을 받았다.



전국이 골고루 산업을 일으키며 수도권, 비수도권
구별 없이 잘사는 미래에 대한 상상 지도.
20년 뒤에는 이런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지금 사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20여 년간 지방에 살고 있고,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의 밑바탕이라는 신념으로 살면서 접하게 된 최근 부산의 움직임은 고무적이다. 지역에 사는 우리가 지역이 우리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우리 지역을 알고 다른 지역도 이해하며, 서로가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전략을 세운다면 20년 뒤에는 분명 우리 삶의 질이 높아져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시대정신으로서의 지역 협력은 개인들의 삶의 보람도 키워주리라고 본다.

대한민국의 20년 뒤는 밝다. 이를 위해 지역에 사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서울(in Seoul)을 지상 목표로 여기고, 중앙의 영향력 있는 사람에 잘 보이려 하기보다는 지역의 자라나는 세대가 지역을 잘 인식하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의 장기 전략을 세우기 위해 힘을 모으고, 지역이 새로운 지식의 발신지가 되도록 하면 살아가는 의미도 더욱 커지지 않을까? 20년 뒤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해소되고, 과밀에 따른 체중 등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모두가 풍성한 자연환경을 누리며 높은 삶의 질을 구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지식인들이 지역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지하고 발상의 전환으로 힘 모아 세상의 중심을 서울에서 지역으로 옮기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이석봉 프로필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나 《중앙일보》 기사를 했고 1998년부터 대전에서 터를 잡았다. 출생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우리나라를 보기 위해, 과학이란 잣대로 우리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주했다. 2000년 ‘쥬대덕넷’을 설립, 과학을 알리는 인터넷 신문 《HelloDD》를 창간해 지금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역과 과학이란 화두를 품고 우리나라가 품격 있고, 인류에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힘쓰고 있다. 과학기술유공자 대통령 포장, 대한민국 과학문화상 언론매체분야 수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지혜 가득 찬 책 벗삼아 살며 친절한 법률가로 늙길 소망

홍 광 식

변호사



1. 다시 올 수 없는 날은 삶 속의 죽음

가을 들뜬에 익어 가는 나락을 보면 읊조리곤 하는 영국 계관시인 알프레드 테니슨의 ‘눈물이 덧없는 눈물이(Tears, Idle Tears)’이라는 시가 있다.

눈물, 덧없는 눈물, 나는 그 의미를 모르겠네,
거룩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솟는 눈물
가슴에서 솟아나 눈에 고이네
복된 가을 들뜬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다시 올 수 없는 날들은 생각하니

그리고 시인은 ‘다시 올 수 없는 날은 삶 속의 죽음’(O Death in Life, the days that are no more)이라고 노래하였다. 가을날 수확을 거둔 들뜬을 바라보면 그때까지 보낸 세월을 생각하게 되고 거룩한 절망 그 밑바닥에서 눈물이 솟아난다는 것이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엄숙한 한계를 절묘하게 노래하였다.

필자는 1949년 마산에서 태어나 1981년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 통영 등지에서 근무하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다. 평생 법원 주변에서 법의 그늘에서 살아왔다. 1967년 필자가 대학에 들어가고 네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교사이던 어머니가 서점을 하시게 되면서 책과 남다른 인연이 맺어졌다. 법률가로서 살아가려면 법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인생과 인간에 관한 지식도 쌓아야 한다. 독서가 그 지름길이다. 일흔 고개를 넘어 되돌아보면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동안 책을 읽고 익힌 독서 이야기들을 남겨두어야 할 의무감 비슷한 걸 느끼고 있다.

2. 손에 책을 놓지 말라(手不釋卷)

1) 책을 읽어야 정보가 지혜가 된다.

요즘 유튜브,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언제든지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만큼 책과는 더욱 멀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지만 정보와 생각은 다르다. 정보만 원하는 사람은 유튜브, 인터넷 검색으로 충분하지만, 책은 정보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책은 능동적인 지적 활동을 해야 읽을 수 있다. 생각의 깊이는 빠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제와 질문에 대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에 좌우된다”고 한다.

책을 읽는 인간과 화면을 보는 인간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처럼 독서는 ‘고독 속의 대화가 만들어내는 유익한 기적’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리언 울프의 저서 ‘책 읽는 뇌’에 따르면 독서가 뇌에 가장 훌륭한 음식인 이유는 풍성한 자극원이기 때문이다. 글자를 이해하고 상징을 해석하는 측두엽, 상황을 파악하고 활자를 시각으로 상상하는 전두엽, 감정을 느끼고 표상하는 변연계 등 독서의 흔적이 남지 않는 뇌영역은 거의 없을 정도다.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자크 엘루는 정보 및 지식사회를 비판하면서 자료-정보-지식-지혜로 이어지는 지식의 서열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가 정보로, 정보가 지식으로, 지식이 지혜로 끊임없이 탈바꿈돼야 하는데 오늘날 지식정보 사회에선 대부분 지식이 지혜로 도달하기 전에 멈춰버리고, 심지어 자료와 정보에서조차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수많은 자료와 정보가 인터넷에서 교환되지만 그 대부분은 지혜 차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식의 미숙아 내지 지진아다.

2) 책을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녀라.

소설가 박종화 선생의 장편 소설 『세종대왕』이 있다. 그 소설에서 세종대왕이 이룬 엄청난 업적에는 탄탄한 독서가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세종대왕은 어릴 때부터 항상 손에 책을 놓지 아니하고(手不釋卷), 밤늦도록 글을 읽는 독서를 하였고, 이를 통하여 세종의 인품이 한 사람의 의젓한 격을 이루었고, 여기서 그의 슬기로운 예지(叡智)가 백금빛을 뿜었다. 예지는 경륜을 낳고, 경륜은 실천으로 행하여졌다. 세종대왕은 중국의 옛 서적 가운데 『경서(經書)』, 『사서(史書)』, 『제자(諸子)』, 『시문집(詩文集)』의 네 가지를 일컫는 『경사자집(經史子集)』을 반드시 백번씩 읽었다. 더욱이 『춘추좌

전(春秋佐傳)』,『초사(楚辭)』같은 책은 백번에 또다시 백번을 더 읽었고, 구양수와 소동파의 문집은 천 번가량이나 읽었다.

시인 이형기는 수필집 '바람이 만든 조약돌'에서 책을 언제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권하면서 아래와 같이 적고 있다.

“우리는 인생을 단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단 한 번의 인생, 너무나 아쉽다. 아쉽다 못해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찾아보면 우리 앞에는 단 한 번의 인생을 백 번도 살고 천 번도 살 수 있는 희한한 길이 있다. 독서가 그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책 속에는 무수한 사람들의 무수한 인생이 펼쳐져 있다. 때로는 저자가 상상의 힘을 빌어 만들어낸 가공의 인생이 담긴 책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남의 인생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된다. 남의 인생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 주는 독서, 그것은 곧 일회적(一回的) 인생을 다회적(多回的)으로 살게 하는 길이 아닐 수 없다.”

3) 책을 읽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즐거움이다.

전 일본 수상 호소가와 모리히로의 저서『권불십년(權不十年)』에서 “책을 읽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고의 즐거움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책을 읽는 것은 우리를 일상적 세계로부터 비일상적 세계로 인도하여 과거에서 미래에 걸쳐서 사색의 여정으로 유도해 준다고 했다.

3. 끝이 없어야 할 독서 - 노년의 독서

1) 에디슨이 ‘나이들어 시간이 지루해지는 사람은 젊었을 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경고하였다. 40대에 접어든 1990년대 초 범정스님의 수상집들을 읽고 요약해 해두었는데, 그중『산방한담(山房閑談)』에 나오는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이야기는 늘 마음에 새겨두고 있다.

“젊어 있을 동안에 삶을 알기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황폐한 내면을 지닌 채 늙어갈 것이다. 밖으로는 돈을 가지고 미끈한 차를 타면서 뽐낼 지 모르지만 안으로는 텅빈 사람이 될 것이다.”

텅빈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하였지만 2011년 62세가 되어 법원에서 퇴임하고는 책을 읽어도 별로 쓸모도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져 책을 읽어도 기억이 얼마 가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머리에 자극을 주어야 한다. 늙을수록 기억이 감퇴되는 것도 두렵지만 오히려 지적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이 더 문제임을 숙지하고 독서를 더 왕성하게 하고 있다.

2)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인에 대해 사라져야 할 쓸모없는 존재라고 좋지 않게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느 젊은이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 전해져 온다.

“가장 빨리 늙는 것은 무엇입니까?”-“감사하는 마음이지.”

“희망이란 무엇입니까?”-“깨어 있는 사람이 꾸는 꿈이지.”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다릅니까?”-“산 사람과 죽은 사람만큼이나 다르지.”

“학문이 도대체 무엇에 소용됩니까?”-“순경(順境)에 처했을 때에는 치장물로 쓰이고, 역경(逆境)에 처했을 때에는 피난처로 쓰이지.”

“학문으로부터 어떤 이득을 취하십니까?”-“다른 사람들은 법이 두려워 마지못해 하는 것을, 구애됨 없이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학문의 궁극적 가치가 무엇입니까?”-“늙음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에게는 가장 유용한 식량이지.”

3) 일본 선승 마스바라 다이도(松原泰道)가 펴낸 『백세에서 당신들에게 百歳から あなたへ』라는 책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움을 멈추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에도후기의 유학자 사토 잇사시(佐藤一齋)의 이야기를 알려준다.

젊어서 배우면 바로 장년에 할 일이 있고

장년에 배우면 늙어도 쇠하지 않고

늙어서 배우면 바로 죽어도 썩지 않는다.

사토는 ‘귀가 들리지 않더라도 눈이 보이는 한, 공부를 계속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가르침을 남겼다. 나는 지금 그의 질책을 생각하면서 책을 읽고 계속 배우고 있다.

4) 독서의 생활화를 빨리 시작하여야 한다. 젊어서부터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색으로 심화된 독서력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평생 지적생활의 기초가 된다. 마음에 와 닿는 책을 만나면 지은 이를 확인하고 그 지은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살아온 인생을 전체적으로 알아본다. 책과 함께, 책의 저자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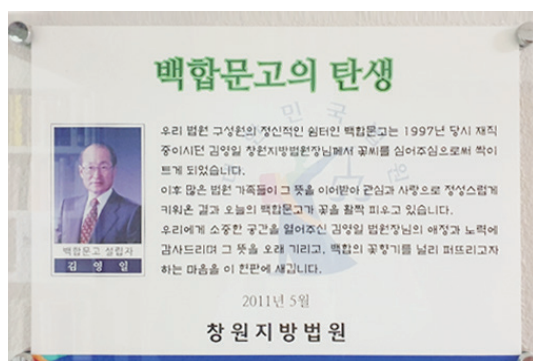
젊은 날 우연한 기회에 읽은 한 권의 책, 한 줄의 글, 한 편의 시가 한 사람의 정신에 불멸의 흔적을 남기는 수도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힘을 공급할 수도 있다.

4. 독서 생활의 일반화 - 독서 모임

물의 수준이 높아져야 배의 수위도 올라간다고 한다(水高船高). 좋은 책을 통한 지식은 친구나 동료 등 주위 분들에게 알려 공유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위 분들이 모두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지 모르겠다.

1997년 창원지방법원에 근무할 때 김영일 법원장께서 주도하여 2천 권 가량의 책을 선정, '백합문고'를 만들었다. 법원 판사들과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정서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 법률도서가 아닌 일반 교양도서를 모아 법원도서관 내부에 만들었다.

김 법원장께서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으로 전근 오셔서 '동백문고'를 만들었다. 백합문고, 동백문고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듣고 있다. 필자도 부장판사라는 위치에서 개인적으로 책 읽기를 권하고 했지만 최고 책임자인 법원장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어 문고를 만들 때 훨씬 실천력이 있음을 체감하였다. 그 뒤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관내 지원 단위에도 문고들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다.



문고를 만들 때 책을 선정한 경험이 있던 차에 부산에서 2000년 '하무리'라는 독서 모임이 만들어졌고, 도서관정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교수, 언론인, 공무원, 변호사 등 1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고, 매달 미리 선정한 책을 배부하여 읽고 와서 토론하는 방식이었다. 2010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하무리』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읽었던 책의 소개, 여행기 등을 수록하였다.

2003년 무렵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께서 하무리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모임의 내용이 다양해졌다. 동서대에 강의하러 온 일본인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전 아시히신문 편집인, 이와쿠니 데쓰도(岩國哲人) 전 이



하무리

즈모(出雲) 시장 등과 만날 수 있었다. 장 총장께서 주선한 덕분에 2007년 3월 1일 우리 하무리 회원들이 와카미야 씨를 초청, 독도문제, 북한문제 등에 대해 유익한 대담을 가졌다. 그는 2002년 월드컵을 한일 공동으로 주최하자고 발의한 사람이기도 했다. 한일 모두 축구 관중이 많지 않은 나라인데 단독 주최를 하게 되면 월드컵 대회를 마치고 나면 경기장이 남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던 것이다. 이와쿠니 씨는 우리 하무리 회원들이 우리 하무리 회원들이 미국의 세계적인 금융회사 J.P.모르간 수석부사장을 하다가 고향인 인구 10만의 이즈모 시장을 맡아 화제가 되었다. 『지방의 도전』 『지방의 논리』 『남자가 결단을 내릴 때』 등의 저자이다.

2004년에는 부산에서 '4월회' 독서 모임이 결성되었다. 법원 판사와 변호사들로 구성되었는데, 매달 네 번째 월요일에 모임을 가졌다. 4월회 모임은 매달 회원 한 명이 책을 읽고 요약해 해 왔다.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수십 권의 책 요약본은 개인적으로 유력한 지식의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다.

2006년에 한국독서포럼이 결성되었고, 통영지원에 근무하던 2008년 11월 '홍지회(鴻志會)'라는 독서모임이 만들어졌다. 홍지회 회원들과 중국 낙양을 다녀온 기억이 새롭다.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이 활동하던 시절은 영원히 사라지고 낙양은 쓸쓸한 도시로 변해 있었다.

독서모임을 비교적 젊은 나이가 시작하게 되면 공동의 관심사와 화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독서뿐만 아니라 여행도 같이하면서 추억을 공유하는 좋은 벗이 될 수 있는 등 여러모로 유익한 것 같다.

5. 책을 통한 세대 간의 가교

존 맥스웰이 지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다시 물어야 할 것들』이라는 책의 마무리에 윌 앨런 드롬굴(Will Allen Dromgool)의 '다리 놓는 노인(Bridge Builder)'이라는 아래와 같은 시가 있다.

한 노인이 가나긴 길을 내려가는데,
저녁 어스름이 내렸네.
젓빛 저녁은 추웠고,
앞에는 물줄기가 느릿느릿 흐르는
깊고 넓은 시내가 있었네.

황혼을 지나온 노인에게
 물이 흐르는 시내는 두렵지 않았지.
 그런데 그는 강 저편에 무사히 다다르자
 다리를 놓기 시작했네.
 옆에 있던 순례자가 말했지.
 "노인장, 공연히 다리 놓느라
 힘을 빼고 계시는군요.
 여정이 끝날 테니
 노인장은 다시는 이 길을 지나지 않을 거와다.
 깊고 넓은 시내를 건너왔는데
 어째서 저녁 무렵, 이렇게 다리를 놓으시는 거요?"
 다리를 놓던 노인이 백발이 성성한 머리를 들고 말했네.
 "선한 친구여, 내가 오늘 지나온 길을
 뒤따르는 이들이 있소.
 어느 젊은이의 발이 이 길에 닿게 될 거요.
 이 거센 물결이 내게는 별것 아니었으나,
 아직 머리 검은 이에게는 함정이 될 수도 있소.
 그 또한 땅거미 속에서 이 길을 건너야 할 터이니."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젊은 세대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다. 결국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일정 부분 우리 기성세대가 저질러 놓은 것이다. 미래는 우리 젊은이와 노인들 모두의 손 안에 있다. 공동의 삶이 좀 더 많은 연민과 창의성과 정의로움으로 가득 차게 하려면, 여러 세대가 함께 힘써야 한다.

양자강의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뒷물이 밀어서 간다(長江後浪推前浪). 70대 초반이지만 그 사이 좋은 책들이 생명을 잃고 많이 사라지고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좋은 유익한 책들이 다음 세대와 이어지도록 다리를 놓아줄 필요가 있다.

오래 남아 있었으면 하는 책들¹⁾

① 통치술

1974년 무렵 출판된 박동운 교수의 명저 '통치술'은 오래 살아있어 널리 읽히기 바란다.²⁾ 불행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는 '동포들의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자치능력을 부활시키는 가운데 역사창조의 자율성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출판한 책이다. 조직체로 하여금 본연의 기능을 발휘시킬 일반적인 지도책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 능력에 대하여 동서고금에 걸친 여러 사례를 통찰하고, 여러 방면에 걸쳐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통치술을 넘어 통치의 도를 제시하고 있어 이 나라, 이 사회의 지도자, 관리자들이 반드시 공유하여야 할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

② 계로록(戒老錄)

가까운 분들에게 많이 권한 책 가운데 『아름답게 늙는 지혜(정우사출판)』라는 책이 있다. 일본의 여류작가 소노야야코(曾野綾子)씨가 지은 戒老錄을 번역한 것이다.

저자가 30대 후반에 실명할 위기에 처하고 나서 늙음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체감하고 나이를 멋있게 먹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은 후에 생각해서 이미 늦다고 생각하고 1931년생인 필자가 41세인 1972년에 지은 책이다. 그 이래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일본에서 많이 읽히고 있다.

③ 작은 나라가 사는 길

저자 이한빈 씨가 1960대 초대 스위스대사를 한 경험을 기초로 1965년 펴낸 책이다. 인구 600만 명 가량의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강소국(強小國)이 된 국가적인 저력을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 스위스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것 이외에는 자원이 별로 없었

1) 니체는 19세기에 나온 책 가운데 20세기에도 읽혀야 할 책 한 권을 고르라고 하면 애커만(Ackerman)이 지은 『괴테(Goethe)와의 대화』를 들었다. 순전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선택해 보았다.

2) 박동운 교수는 『민성론』, 『민족사상론』, 『정치방법』 등 우리나라 정치에 관한 책을 여러 권 남겼다.

던 나라였다. 국민들이 용병으로 돈을 벌어와 그것을 기본으로 과학을 발달시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 성공한 과정이 140여 페이지에 요령 있게 서술되어 있다.

④ 바다의 선물

앤 린드버그(Anne M. Lindbergh)가 1950년에 펴낸 책이다. 범우사 범우문고 49로 1976년 11월 10일자 출판되었다가 2020년 5월 25일 다시 6판 3쇄가 출간되었다. 앤 린드버그는 미국에서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한 찰스 린드버그의 부인으로 시인이자 소설가이고 비행사이기도 하다. 중년이 넘어 바닷가에서 인생을 총체적으로 관조하면서 사색한 내용을 잔잔한 필치로 적었다.

6. 끝으로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전 식민지였던 국가 가운데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이룩하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나라이다. 앞으로 그 발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저력은 국민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경제 관료였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식을 자탄한 말을 오래 기억하고 있다. 어느 기자간담회에서 "G20 회의들에 참가하면서 지식의 빈곤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이 됐지만, 경제 강국, 금융 강국들이 주도하는 회의 내용을 쫓아가기가 버거웠다는 말이었다. 그는 고향 마산의 선배이고, 대학의 선배이기도 하여 신상을 조금 알고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 시절 대학 전체 학생회장을 했고,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런 경력의 윤 장관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지식의 빈곤을 절감한다고 하였다. 풍성한 독서가 지식의 빈곤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일제 식민지 시절 사이토 총독이 부임할 때 60세가 넘어선 나이에 폭탄을 던져 처형당한 강우규 의사가 읊은 한시에 '몸만 있고 나라가 없다(有身無國)'는 구절이 있다. 그러한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능력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지도자는 역사의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남한산성』, 『칼의 노래』 등 소설의 작가 김훈은 필자보다 한두 살 위이다. 그분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여운이 있다. "나는 죽으면 굉장히 친절할 사람이었다고 남들이 기억해줬으면 한다. 글 잘 쓰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 사람 참 상냥하고 친절할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해주면 좋겠다." 필자는 부산에서 다른 사람들의 거친 싸움 판에서 평생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법률가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엄격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주위의 다른 분들에게 미소지을 줄 아는 친절할 늙은 법률가로 남고 싶다. 그러려면 먼저 지혜로운 노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워지지는 않는다는 진실은 알고 있지만 노력은 해보려고 한다.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많이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앞선 분들로부터 받은 것, 그동안 경험을 통해 익힌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남겨두려고 하였다. 생각과는 달리 너절한 잡문이 되었다. 하지만 책이라는 대학의 숲속을 하염없이 거닐거나 노는 기분으로 독서를 계속할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도 심장이 고동치는 한 독서를 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홍광식 프로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장,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장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현재 부산에 있는 법무법인 국제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 창원에서 독서운동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책 읽는 모임, 법원 문고만들기에도 공을 들였다.

느릿느릿 수작업으로 차밭 가꾸며 시를 더고 사노라니

조 해 훈

시인·목압서사 원장



지리산 화개동(花開洞) 목압마을에 들어오다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그렇게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나? 남들은 예초기로 하루에 다 깎을 일을 1년 내내 그러고 있으니 이해를 못 하겠다”라고 탄식을 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녹차나무 밑에 돌아난 작은 잡초는 말할 것도 없고, 차나무 사이에 올라와 누렇게 된 고사리까지 왼손으로 잡고 낫으로 하나하나 거의 뿌리까지 천천히 잘라낸다.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 손으로 라도 후다닥 해버릴 일을 느릿느릿 하다 보니 하루 내내 해봐야 흔히 하는 말로 티가 나지 않는다. 한 지인이 차산에 함께 올라왔다 필자의 일하는 모습을 보곤 “베란다의 화초도 그 정도로 애써 가꾸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

허리와 오른손 팔목이 아파 낫을 엉덩이에 깔고 맞은쪽 마을인 용강리 뒤의 황장산(黃獐山·942.1m)을 바라보며 앉는다. 아무도 없는 이 깊은 지리산 속에 앉아 이렇게 쉬고 있으면 내면이 고요해진다. 하동군 화개면 목압(木鴨)마을에 들어와 차를 네 번 더었다. 올해 봄이면 다섯 번째 제다(製茶)를 한다. 필자의 집인 목압서사(木鴨書舍)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 “부산에서만 살다가 어떻게 이 골짜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농담 삼아 “有覺者能入方丈(깨달은 사람은 방장산에 들어올 수 있고), 無覺者不入智異(깨닫지 못한 사람은 지리산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예로부터 지리산은 방장산, 금강산은 봉래산, 한라산은 영주산으로 불려 삼신산(三神山)이라 칭해지고 있다.

필자가 목압마을에 들어온 시점은 2017년 봄이다. 목압마을에 들어온 지 며칠 후 필자의 집 아래쪽 화개동천 계곡가에서 ‘용운민박’을 운영하시는 김태곤(82) 씨가 필자에게 “아니, 우리 마을은 인연이 없으면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왔느냐? 더구나 목압사(木鴨寺) 절터에 왔으니 보통 인연이 아닌데?”라고 물으셨다. 필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인연이 좀 있습니다. 아마 그 덕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그런 것 같았다. 필자의 고향은 현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 갈실마을이다. 필자는 그곳에서 태어나 네 살 때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따라 부산으로 이주해 성장했다. 갈실마을에 살고 계시던 조차백(趙且伯) 조부님께서 해마다 봄이면 쌍계사에 오시어 1년 동안

식구들이 마실 녹차를 덫어가셨다. 필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차를 마셨을 뿐 아니라 선친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술하게 들었다. 이에 대한 언급은 선친인 조길남(趙吉男) 시인의 시집『永遠의 記錄(영원의 기록)』에도 나온다. 여기에 실린 <함조차(咸趙茶)> 제목의 시에 “.../아버님께서 해마다 하동 쌍계사 쪽에 일꾼 데리고 가셨다가/ 만들어 오시어 한 해 동안 마셨던 녹차, 함조차(咸趙茶)/ 찻잎을 술에 덫어 녹차를 만들어 이삼일 말렸다가/ 다시 한번 더 덫어 만들었다던/ 그래야만 녹차의 깊은 맛이 우러나고 약차가 된다고/ 어릴 때부터 아버님 앞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며/ 소학 논어 중용 주역에 있는 글을 물어보시던, 그 가르침/...”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비슬산 아래 갈실마을에 대대로 은거하시던 시골 선비인 조부님께서 녹차를 드셨다. 선친의 말씀에 따르면 조부님으로부터 필자의 증조부와 고조부, 그 윗대 선조 때부터 녹차를 마셨다고 들으셨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부님께서 그 녹차를 필자의 목압마을 집 바로 옆의 쌍계사에서 해마다 만들어 가 드셨으니, 이곳과의 인연이 상당히 깊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화개동천이 감싸고 흐르는 화동군 화개면 목압마을. 앞쪽으로 화개동천이 흘러간다.

필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친을 따라 쌍계사를 통해 불일폭포에 갔다가 내려올 때는 국사암을 거쳐 목압마을로 왔다. 국사암에서 내려오다 보면 목압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때 부친은 “내가 목압마을에 들어와 서당을 하나 운영하면서 매일 불일폭포에 다니며 마실 정도의 차 농사를 짓고 생활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필자가 맏이고 아래로 동생이 셋이나 있으니 선친으로서는 자식들 공부와 먹고사는 일 때문에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시는 것이었다.

역시 선친의 위 시집에 <가어웅(假漁翁)>이란 제목의 시에 방금 언급한 내용이 나온다. 잠시 보자면 “…… / 불일폭포 올라가는 운수리 목압 마을로 소리소문 없이 들어가/ 낮에는 차 농사를 짓고 밤에는 문풍지 떠는 소리를 들으며/ 산골 노인의 흉내를 내며 떨리는 손으로 시를 쓰고 싶다/ 뜨거운 한낮이면 계곡에 뉘싯대 드리우고/ 진눈깨비 휘날리는 날에는 따스한 구들장 아랫목에 앉아/ 망기(忘機), 세상의 욕심을 버린 지 오래/ 먹 갈아 화개구곡이나 노래하고 싶다”라고 하셨다. 시 제목인 ‘가어웅(假漁翁)’은 속세를 떠나 은거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즉, 어부가 아니면서 어부처럼 지내는 사람으로 세상의 일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뉘싯대나 드리우고 시(詩)나 읊으면서 강호에서 묻혀 지내는 선비를 지칭하는 은유적 문학용어이다.

이 단어에는 집안사람들의 성정은 물론 필자의 산거(山居)와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조부님께서는 갈실마을에 은거하시면서 가까운 도동서원에 출입하시거나 가끔 인근에서 개최되는 시회(詩會)에 참석하시며 시를 읊는 생활을 하셨다. 한학을 하신 선친 역시 은거지향의 성격이셨다. 조부님과 선친께서는 외향적이지 못하신 데다 세상에 드러나기를 꺼리시는 성정이셨다. 그 피를 이어받은 필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문사에 다닐 적으로 필자의 나이 38세 때인 1997년 2월에 은거할 목적으로 당시 살던 부산 수영구 망미동 아파트에서 장안사와 가까운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의 무너져가는 농가로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다.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직장을 그만두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있는 듯 없는 듯 살겠노라고 작정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사는 게 어디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 여러 사정으로 기장에서 5년 살고 다시 부산으로 나오고 말았다.

필자도 집안의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경쟁심도 없을 뿐더러 남과 다룰 줄을 모르는 성격 탓인지 은거에 대한 고민을 줄곧 하다 보니 우연한 기회에 목압마을의 집을 구하게 되었다. 대학시절과 신문사 근무 시절, 이후 대학에 재직할 때도 지속적으로 불일폭포를 찾았다. 코스는 선친과 함께 했던 쌍계사-불일폭포-국사암-목압마을이었다. 그러면서 목압마을로 내려올 때는 선친과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다. 마침내 필자를 관장하시는 신계서 ‘어찌 될지 모르지만 대를 이어 그렇게 소원을 하니 한 번 들어줘볼까?’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마침내 목압마을과 인연이 되었다.

학습공간 목암서사를 열어 주민들에게 봉사하다

목암마을로 들어오기 1년여 전에 필자는 심근경색으로 가슴에 스탠트를 박는 시술을 하였다. 그전에 급성 당뇨가 생겨 약을 먹고 있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거기에다 세상으로부터 여러 상처를 많이 받아 2017년 4월에 모든 걸 내려놓고 목암마을로 온전히 들어왔다. 마을로 들어오자마자 녹차 잎을 따 차를 만들었다. 4월 20일이 곡우였다. 찻잎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채취한다. 필자의 차밭은 마을 뒷산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집을 구하고 얼마 있다 다행히도 혼자 지을 수 있을 만한 면적의 차밭이 잡자기 나왔다. 차밭까지 오가는 힘들어도 필자가 원하는 위치였다. 필자는 어릴 적부터 차에 대한 관심이 크다보니 신문사 근무 시절 차와 관련한 기사를 많이 썼고, 취재도 많이 다녔다. 그러면서 차밭의 조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데, 마침 필자의 차밭은 좋은 차 재배를 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계동천 계곡을 끼고 있고, 경사가 심한 산비탈이어서 일조량과 물 빠짐이 좋다. 또한 사계절이 뚜렷한 데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차 맛이 좋다. 게다가 필자의 차밭은 고지대에 위치해 운무가 자주 끼어 차의 맛이 깊고 맑다. 차나무 재배도 예초기 등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낫으로만 농사를 짓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녹차를 만드는 과정 역시 살청기(殺靑機) 등 기계를 쓰지 않고 솥에 직접 손으로 덫는 전통방식이다.



목암서사에서 열린 '제1회 작은 한시백일장' 모습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그런 방식으로 차를 만들었다. 그러는 중에 필자의 앞집에 사는 김 모(62) 씨와 집 위쪽에 사는 이 모(62) 씨 등을 알게 되어 한자공부를 시작하였다. 이 골짜기와 마을 사람들이 필자를 받아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무얼 봉사할 수 있을 지 입산하기 전부터 고민하였다. 그 결과 필자가 본 책들과 자료 등을 활용해 주민들과 함께 역사와 한문, 한시 등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았다. 그리하여 목암마을을 중심으로 7, 8명의 사람들과 한시 공부를 시작하였다. 사실 필자도 허술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여하튼 한시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5언시와 7언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와 관련한 한시를 함께 읽었다. 그런 다음 5언시 짓는 법을 가르쳤다. 쌍계사 안쪽 불일폭포 아래 내원골에 가 함께 한시를 읊기도 했다. 그러한 결과가 이곳으로 들어온 이듬해인 2018년 3월 15일 오후 6시면 소재지와 가까운 카페 ‘호모루텐스’(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서 가진 ‘제1회 목암서사 한시 읊기 대회’였다. 목암서사에서 한시공부를 해온 주민 6명이 자작 한시를 지어 발표했다.



다음으로 시작한 것이 봄·가을에 목암서사에서 갖는 ‘작은 한시 백일장’이었다. 예산이 없어 필자의 사비로 개최하다 보니 참가자를 5명으로 제한했다. 4회까지 개최했는데, 코로나 탓에 지난 가을에는 행사를 열지 못했다.

또한 주민들을 위해 목암서사 내에 목암고서박물관과 목암문학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3개월 단위로 주제를 바꿔 전시를 하다, 역시 코로나 탓으로 중단한 상태이다. 고서박물관과 문학박물관은 그동안 3개월 단위로 각각 6차례의 기획전을 가졌다.

또 목암서사는 그동안 10여 차례의 인문학 특강을 열었으며, 경남 함양·산청과 전남 해남·진도·강진·담양, 전북 남원 등지를 답사했다. 지난해 3월 28일 ‘서포 김만중과 남해 유배시기’를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가진 후 역시 코로나19로 중단한 상태이다.

한편 2018년 12월 1일 오후 5시에는 목암서사 산하에 ‘화개학연구원’을 개원해 화개지역 관련 연구 및 발표를 하고 있다. 필자는 연구논문 ‘한시에 나타난 하동 화개茶的 제 양상’(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석당논총』) 등을 발표했다.

이러한 것과 별도로 매주 목요일 초등학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사 및 한자 익히기, 한문강독, 한시작법 등의 공부를 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엔 500여 명이 목암서사를 방문했으며, 지난해 1~6월 상반기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250여 명이 찾았다.



목암서사를 방문한 프랑스 여성들

그 외 특기할만한 내용으로 외국인들이 목암서사를 많이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들 외국인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이 지역에 왔다가 정보를 듣고 목암서사에서 개최하는 고서박물관의 고서들을 볼 목적으로 찾아온다. 그동안 미국·영국·중국·일본·프랑스·이스라엘·슬로바키아·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방문했다. 필자는 이들에게 전시된 목관을 통해 고서를 만드는 과정 및 우리나라 출판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젊은 외국 여행가들에게는 무료로 숙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목암서사에서 부산의 순수 민간 비영리 인문학기관인 '인문학당 달리'(대표 이행봉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지역 단위를 넘은 MOU(업무협약)를 맺기도 했다. 인문학 연구 및 다양한 인문학 대중화 작업을 하고 있는 양 기관 간 상호 인적·물적 교류를 위한 합의에 동의했다. 합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강사진 및 수강생 교류 △프로그램 교류 및 각종 행사 공동 개최 △자료 대여 및 공동 연구 등이다.

또한 마을에 도서관이 없어 필자가 소장한 소설책과 시집 등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찾아와 책을 빌려 가 읽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과 차를 마시며 책의 저자 및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준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사태로 모두 게 중단된 상태이다.

차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다

차 농사를 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고려시대 대문호였던 백운 이규보(1168~1241)가 당시 차소(茶所)로 나라에 필요한 차 생산을 담당하던 이 골짜기에 와 “차라리 차밭을 불살라버리면 그 고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 <손한장이 다시 화답하기에 차운하여 부치다(孫翰長復和次韻寄之)>에서 주장했을까? 이규보는 당시 진주목에 근무하던 벗인 손득지(孫得之)를 찾아왔다 화개지역 차 농민들의 어려움을 보고 시를 지은 것이다.

하여튼 기계로 작업을 하고 제다를 해도 힘든 상황인데 필자는 무식하게 옛 전통방식을 고집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다보니 오른쪽 손목이 늘 아리고 아파 가끔 한의원에 가 침을 맞고 병원에 가 물리치료도 받는다.

오늘도 차산에 올라가 낮으로 가시와 역새 등 종일 베고 내려왔다. 필자가 지난해 봄에 펴냈던 시집 『내가 낸 산길』(역락)에 실린 시 중에 왼손으로 가시나무를 쭉 훑는 바람에 실장갑을 낀 손에 가시가 박혀 고생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 시를 읽은 동의대 여호근 교수님이 두꺼운 장갑을 사 보내주신 덕분에 지금은 가시 때문에 손에 상처를 입지 않는다.

봄에 “차밭에 올라오는 고사리를 모조리 다 꺾어야지”라고 해마다 마음을 먹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혼자서 고사리를 채취하다 보니 급한 일이 있거나 병원에 가는 날에는 일을 하지 못한다. 고사리를 사흘만 꺾지 못해도 풀쩍 커 쇠어버린다. 그걸 낮으로 자르기를 반복하다 보면 혼자서 감당할 수 없어 고사리 채취를 포기해버리고 만다. 그러면 그것들이 웃자라 가을 철이 되면 어떻게 차나무 사이로 올라와 드러눕는다. 그러면 보기도 싫은 데다 이듬해 봄에 찾아오는 데도 불편해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낮으로 하나 하나 제거한다. 필자는 동작이 느려터져 하루종일 그 작업을 해도 그다지 표가 나지 않는다. 다른 차밭의 경우 대부분 예초기로 쳐낸다. 그러면 녹차나무도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지만 제대로 잘리지 않은 고사리가 차나무 위에 그대로 남아 보기에 좋지 않다. 차 농민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는데, 필자는 느리지만 낮으로 깔끔하게 걷어내야만 성에 찬다.

필자는 녹차나무를 아주 신성하게 여긴다. 봄에 첫 찾아오는 따러 차산에 올라가면 차나무 앞에 먼저 절을 한다. “신성한 차나무들아! 잘 자라줘 참으로 고맙다. 올해도 너희들이 정성스럽게 피워 올린 차 싹 따 맛있는 차 만들 테다. 고맙다. 차나무들아!”라며, 필자 나름의 의식을 갖는다. 실재는

녹차나무는 신령스럽기까지 하다. 필자가 굳이 녹차나무라고 쓰는 이유는 요즘은 다양한 식물로 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들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예를 든다면 감나무에서 잎을 따 감잎차를 만들고, 목련나무의 꽃잎을 따 목련차를 만들기 때문이다.

굳이 힘들게 낮으로 차밭 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차나무를 아끼기 때문이다. 예초기 등 기계를 사용하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차나무를 손상시킨다. “나무인데 좀 손상이 되어도 무슨 상관이야!”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럴 경우 필자는 입을 다문다. 차나무도 생명체이고 사람처럼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성질로 볼 때 그냥 나무와는 다르다. 필자가 신령스럽다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녹차나무는 외뿌리로 땅속으로 5, 6m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작은 돌은 뚫고 들어가고 큰 바위가 있을 경우 그걸 둘러 뿌리가 내린다고 한다. 그리하여 옛 선비들은 딸을 시집보낼 때 녹차씨를 던져주면서 “녹차나무처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고 당부했다.

녹차나무는 성질이 아주 강하다. 온갖 것을 다 먹는다는 염소도 녹차나무의 잎만은 따 먹거나 줄기를 갉아먹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필자는 어찌 하다 몇 달 전 염소 두 마리를 차산의 아랫부분에 있는 움막에 잠시 키운 적이 있다. 정말로 차나무는 갉아먹지 않고 다른 나무는 잔뿌리까지 캐 먹고 나무 자체를 엮어놓기까지 했다.

차밭을 정리하면서 너무 웃자란 차나무 줄기와 잎을 잘라낸다. 그럴 때 녹차나무에서 나는 약초 냄새 같은 푸르스름한 향이 난다. 그럴 때 “아, 이게 그 신령스러운 냄새구나”라고 느낀다. 예초기로 마구 베어내면 그 냄새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녹차나무가 그만큼 신비스런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을 제공할 목적으로 태어난 나무인 것이다. 어떤 이는 ‘신이 내린 나무’라는 말을 한다.

녹차를 오랫동안 우려 마시면 혈관이 깨끗해지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10월쯤이면 녹차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린다. 그러면 이 열매를 따낸다. 딴 열매를 말려 겉껍질을 제거한 후 좀 더 말렸다가 기름을 짜 마신다. 뇌혈관과 심장혈관에 효험이 있다고 이 골짜기 사람들은 알고 있어 해마다 기름을 짜는데, 기름 양이 아주 적게 나온다. 친구 두서너명이 미리 “녹차 씨 기름을 짜면 좀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올해는 녹차 씨 수확이 적어 그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어 걱정이다.



차산에서 찻잎을 채취하는 필자 조해훈 시인

봄에 찻잎을 수확할 때쯤이면 차밭 작업이 끝나 갈끔해진다. 녹차 잎을 따는 일도 힘겨운 일이다. 혼자서 따다 보니 전문적으로 찻잎을 따는 할머니들에 비하면 1/3도 따지 못한다. 대개 찻잎을 따 농협 등에 내다 파는 사람들이나 하루 노임을 받고 남의 차밭에 가 찻잎을 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푹! 푹!” 떤다. 하지만 필자는 손이 느린 데다 한 잎 한 잎 천천히 떤다. 찻잎 따는 걸 거들어주던 지인 한 사람은 “찻잎을 너무 예쁘게 떤다”라고 말했다. 그 귀한 찻잎을 어찌 막 딸 수가 있을까. 아침부터 종일 따다 보면 몸이 파김치가 된다. 그냥 따면 될 것을 너무 신경을 써가며 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한다.

필자는 만든 차를 공개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식구 및 지인들과 나눠 먹는다. 거기다가 목압서사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차를 대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생각보다 차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찻잎을 채취하지만 가끔 몸을 다친다. 차밭의 경사가 심하다 보니 그다지 높지 않은 낭떠러지가 여러 군데 있다. 찻잎 따는데 정신이 팔리다 보면 가끔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지난해에는 큰 바위가 있는 곳에 떨어져 머리가 부딪힌 적이 있다. 다행히 밀짚모자를 쓰고 일을 하여 모자의 채이 완충역할을 해줘 머리가 심하게 닿지는 않았는데 다음날 되니 허리와 어깨가 심하게 아파 2, 3일 일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해질녘까지 찻잎을 딴 후 집에 와 저녁을 먹곤 그때부터 차를 덥는다. 찻잎을 딴 당일 작업 하지 않으면 잎이 시들해진다. 차술을 먼저 말끔하게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낸 후 불을 올린다. 차술의 불이 대략 250~300도가량이 되면 찻잎을 솥에 넣는다. 필자는 찻잎을 그다지 많이 넣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솥에 한꺼번에 10, 20kg도 넣어 덥는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찻잎이 골고루 덥어지지 않는다. 필자는 두세 번을 덥더라도 가능하면 찻잎이 1kg 넘지 않도록 한다. 그렇게 찻잎을 한 번 덥고 나면 바로 꺼내 솥 옆의 명석에 얹어 식히면서 손으로 비빈다. 비빈다는 것은 찻잎이 가능하면 동그랗게 말리도록 하면서 잎에 상처를 내는 일이다. 그래야만 차를 우렸을 때 잎 속의 성분이 잘 우러나 맛이 좋다. 명석에 하는 이유는 한 부분이 올라오면 다른 한 부분은 꺼지도록 되어 있어 찻잎에 상처가 잘 나기 때문이다. 비빌 때 손에 묻어나는 차향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진다.

다 비벼졌으면 다시 솥에 넣어 덥는다. 덥어졌으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비빈다. 찻수를 거둬할수록 찻잎의 수분이 마르므로 솥에서 타지 않도록 불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작업을 한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9중 9포를 한 차라야 제대로 맛이 난다”라는 말을 한다. 그 말도 틀린 것은 아니나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덥는 찻수에는 변수가 아주 많다. 이를테면 비가 내린 다음날 찻잎을 따거나 비구름이 낀 날 딴 찻잎은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 아홉 번까지 덥는 게 가능할 때가 있다. 또 솥에 찻잎의 양이 많을 경우 골고루 잘 덥어지지 않아 덥는 찻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고 맑은 날 찻잎을 따거나 솥에 넣은 찻잎의 양이 적을 경우는 대개 대여섯 차례 혹은 일곱 차례 덥을 수 있다. 그 상태에서 더 덥으면 찻잎이 부수어진다. 살청기로 차를 덥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두 차례로 끝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이 상태에서 차를 마실 수 있다. 그렇지만 차의 맛이 강하다. 차를 건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골짜기에서는 방에 차를 펴놓고 불을 올려 건조시키거나 건조기를 사용한다. 또는 그늘에서 자연건조를 시키기도 한다. 그런 다음 일본 말로 ‘시아기’라고 하는 맛내기를 한다. 맛내기를 한 차와 그렇지 않은 차의 맛이 다르다. 이곳 사람들은 “맛내기를 해야 차의 맛이 구수해진다”라고 한다. 맛내기 과정은 솥에 건조시킨 차를 넣은 후 약한 불에 2, 3시간 천천히 차를 고루 저어주면 된다. 이러한 과정이 마무리되면 차를 포장한다. 그러면 차 만드는 과정이 끝나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쉽지 않지만 차를 만드는 과정이 가장 힘들다. 허리를 굽혀 빠르게 솥에 담긴 찻잎을 덥다 보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 빨리 덥지 않으면 찻잎이 타기 때문이다. 차를 덥고 비비는 작업은 저녁 먹고 8시쯤 시작 하면 밤 12시 또는 새벽 1시쯤 끝이 난다.

마을 주민들은 예전에는 집집마다 차를 만들어 팔았으나 요즘은 다들 연로하신 데다 예전처럼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적어 직접 제다를 하는 집은 필자를 포함해 서너 곳밖에 되지 않는다. 할머니 혼자 시시거나 부부가 모두 연로하신 집에서는 딱 찻잎을 판다. 마을의 특정 집에 그날 딱 찻잎을 모아 놓으면 차공장이나 다량으로 차를 만드는 다원(茶園)에서 사간다. 할머니들은 필자에게도 “힘들게 차 만들지 말고 잎을 팔아라. 그게 더 돈이 된다”라고 조언을 하신다. 그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필자는 차를 만드는 목적이 주민들과 좀 다르다.

올해 봄에 지난해보다 좋은 찻잎을 따 더 맛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 오른 손목이 아프고 시려도 차밭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차를 만들지 않더라도 차밭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목압마을에 들어와 시집 『노랭이 새끼들을 위한 변명』(2018)과 『내가 낸 산길』(2020) 두 권을 펴냈다. 물론 시집에 차와 관련된 내용만 있는 게 아니지만 차 농사를 짓고, 차를 만드는 것을 소재로 한 시가 상당하다. 차 농사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아무래도 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덕분일 게다.

조해훈 프로필

《국제신문》에서 18년 여 기자로 일하며 문화 분야를 주로 취재했고, 동아대에서 홍보실장을 역임했다. 1987년 『오늘의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했고, 『생선상자수리공』(1988), 『내가 낸 산길』(2020) 등 시집 10여 권을 냈다. 교육학박사(한문학 전공)로 『필사본 <화랑세기>로 보는 풍월주의 세계』 『조해훈의 유적 순례-부·울·경지역』 등 저서가 있고, 현재 동아대 인문도시지원사업단 공동연구원, 목압서사 원장, 화개학연구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피비린내 나는 200년 종교전쟁... 아직도 이 땅의 평화는 요원한 듯

임영호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는 꽤 오랫동안 서양의 중세에 매료되었다. 구도심을 감싼 높은 성벽, 방패 모양의 화려한 문장(coat of arms)과 깃발, 하늘로 치솟은 고딕 성당, 얼굴을 가린 투구와 사슬갑옷 갑옷으로 무장한 기사 등 동화이나 등장한다고 여기던 그 모든 요소는 좀 더 현실감 있는 역사 이야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신비로움으로 나를 설레게 했다. 그 중에서도 십자군 이야기는 백미였다.

하지만 실제로 십자군의 '유적'을 눈으로 마주보는 데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첫 만남은 그리스의 로도스 섬이었다. 바다 바로 건너 터키 땅의 보드룸 성채, 시칠리아 섬 부근의 몰타, 폴란드 북부 그단스크 인근의 말보르크, 요르단 강 주변의 십자군 성채, 다시 이스라엘 땅까지 답사는 이어졌다. 일정은 순탄치 않았다. 원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계획이라고는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8년이나 지난 후 십자군 원정의 목적지이던 예루살렘에까지 도달했다. 여행을 계속하면서 서양의 중세와 십자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십자군의 흔적을 더듬으면서 거의 천 년 전의 유럽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분했을까 하고 잠시 생각해본다. '성지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원정에 참가한 보통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기독교가 곧 세상의 경계이고 그 바깥의 모든 것은 이교도와 낯선 악의 세계였을 것이다. 이들에게 오늘

날 우리가 ‘유럽’이라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있었을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유럽인의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는 세계관이고, 그러므로 성지는 반드시 회복해야만 했다. 이들은 아랍인이든 투르크인이든 베르베르족, 베두인이든 모든 무슬림을 ‘사라센’이라 부르면서 기독교와 유럽의 적으로 보았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땅에 해당하는 ‘레반트’ 지역의 아랍인들은 서방에서 온 기독교인을 모두 ‘프랑크인’이라고 불렀다. 종교와 무지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세상도 훨씬 단순하게 보였던 것 같다. 하지만 2백년 간 전쟁이든 휴전이든 서로 부대끼는 긴 기간을 보낸 후 민족과 나라의 경계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경계도 둘로 나누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 때로는 참혹하고 때로는 잠정적인 평화 속에서 2백년 간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궁금하다.

어쨌든 십자군 원정의 흔적들은 이런저런 사유로 역사적 사건에 연루된 인간들의 신념과 편견, 영웅적 행위와 욕망, 실패, 어리석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긴 답사 여행의 경험은 8백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유럽과 중동과 겹쳐지면서 현실의 이야기처럼 다가왔다. 어떻게 보면 십자군에 얽힌 이야기는 오늘의 유럽이라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과 판박이처럼 느껴질 때도 많았다.

답사지를 고르다보니 우연히 요한 구호기사단의 흔적 위주로 따라다닌 셈이 되었다. 그렇지만 여행을 통한 역사 탐구라는 긴 계획에서 채우지 못한 퍼즐 조각은 아직 많다.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여행기를 고른 탓도 있을 것이다. 이 여정을 언제 다시 속개할 수 있을지, 과연 속개는 가능한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동이 차단된 2020년의 한 해를 보내면서, 평생을 좁은 땅에 갇혀 지내던 중세인이 굳이 신앙심이 아니라도 미지의 세계 동방을 꿈꾸며 모험에 나선 이유를 알 듯하기도 하다. 어쨌든 덕분에 미뤄두었던 사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도 읽고, 과거 기억을 정리할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는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

첫 만남, 그리스 로도스

그해 여름에는 그리스를 방문 중이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온갖 관광객성군상이 바글거리는 산토리니를 떠나 로도스로 가는 비행기에 홀로 몸을

실었다. 마치 초라한 시골 버스 터미널을 연상시키는 산토리니 공항을 뒤로 하고 비행기는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올랐다. 좌우로 좌석이 두 개씩 있는 조그만 프로펠러 비행기였다. 비행기가 제 궤도로 올라서자 웅웅거리는 나지막한 소음과 더불어 기분 좋은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기체는 동쪽을 향해 날았다. 작은 창밖으로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가는 짙은 푸른색이 펼쳐졌다. 1099년 1차 십자군이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1291년 아코가 마지막으로 함락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십자군과 순례자를 실은 배가 무수하게 다녔을 바로 그 바다다. 중세의 긴 시기 내내 사라센 해적과 베네치아의 해군이 격돌하면서 피를 뿌리던 살벌한 바다이기도 하다. 목숨을 걸고 몇 주나 몇 달씩 걸쳐서 가던 그 험한 바닷길을 이제는 한 시간 만에 날아서 간다.

로도스 공항은 구시가지에서 16킬로미터 떨어진 서쪽 해안가에 있다. 현지인과 뒤섞여 섬을 순회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자그마한 시내에 들어섰다. 좁은 해변가에는 사람들이 느긋하게 누워서 지중해의 태양을 즐기고 있었다. 오래전 미국 중서부 소도시에서 유학생 시절 강가에서 일광욕하는 풍습이 익숙하지 않은 어느 유학생 청년이 ‘무우 말랭이’ 같다고 실없는 소리를 하던 기억이 나서 잠시 쓴 웃음을 지었다. 호텔은 소박했다. 그냥 멋대加里 없는 콘크리트 사각 건물이었는데, 지중해의 햇살 아래에서는 그것조차 멋있어 보인다. 햇살에 어울리게 모든 건물은 밝고 화려한 색으로 칠했다. 그 아름다움은 모양과 장식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가 아우러지는 색채의 조화, 그리고 지중해 사람 특유의 여유에서 느껴지는 것 같다.

호텔에서 나와 시내를 가로질러 잠시 걷다보니 갑자기 세월의 흔적이 선명한 높은 성채가 눈앞에 나타난다. 해자와 아치형 성문, 방어탑까지 갖춘 중세형 성채다. 성문 주변에는 투석기에 사용하던 둥근 돌 포탄이 널려 있다. 바로 십자군 시절의 그 유명한 요한 구호기사단의 본부가 있던 곳이다. 요한 구호 기사단은 원래 1차 십자군이 1099년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기존의 병원과 구호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성지 수호와 순례자 보호를 표방하며 무장한 기사단으로 창설되었다. 칼을 든 수도사의 단체였던 셈이다. 가는 철사를 그물처럼 엮어 만든 사슬갑옷 위에 붉은 바탕에 하얀 십자가가 박힌 망토가 기사단의 상징이었다. 기사단 소속 기사는 일반 수도사처럼 청빈과 금욕, 봉사를 규율로 하면서도 유사시 적과 싸우는 군대 역할을 했다. 규모는 기껏해야 수백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일당백의 특수

부대와 같았다고 한다. 요한 구호기사단은 유럽 각국의 귀족 출신 기사로 구성되었고 교황청 직속의 조직으로 어떤 세속적 권력의 지배도 받지 않은 사실상 독립적 군사조직이었다. 성지를 이슬람 세력에게 하나둘 씩 빼앗기고 마지막 보루인 아코까지 함락되고 난 몇 년 후인 1310년 이곳 로도스 섬으로 거점을 옮겼다. 이 섬으로 거점을 옮긴 후에는 로도스 기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다. 나는 바로 그 시절의 성채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로도스 성채로 들어가는 입구 성안토니 문. 정면의 높은 건물은 기사단장 궁전이다.



성채는 북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다.

성채는 로도스섬 북쪽 해안가에 자리 잡은 만큼 주요 성문은 북쪽을 향하고 있다. 그중 북서쪽의 성 안토니 문으로 들어서니 왼쪽으로 기사단장의 ‘궁전’이 보인다. 길으로 보기에는 성채 안의 또 다른 거대한 요새였다. 물론 이곳에 자리 잡은 지 200여 년이 지난 1522년 로도스가 오스만에게 함락될 때 큰 손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폭발 사고로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되었지만 나

중에 복원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궁전을 복원한 사람은 무솔리니였다. 무솔리니와 엠마누엘 3세의 여름 궁전용으로 재건했기에, 외벽은 중세풍 그대로지만 인테리어는 화려한 이탈리아식으로 꾸몄다. 언뜻 보기에 700년 전 중세풍인 이곳 로도스 성 역시 그리스 도시국가와 로마, 오스만 시절, 20세기 현대사 등 역사의 흔적이 층층이 쌓인 곳이다. 획 스쳐지나가는 바람에 그것들을 일일이 식별하지 못하는 나의 무지가 아쉬울 뿐이다.

궁을 나오면 동쪽으로 (당시 기준으로는) '비교적' 넓은 돌로 포장된 도로가 이어진다. 길 양쪽에는 기사단의 숙소가 이어져 있다. 성채에서 중요 시설은 모두 북쪽 성벽 가까이 몰려 있는 셈이다. 이 '기사의 거리'는 프로방스, 오베르뉴, 프랑스, 아라곤, 이탈리아, 잉글랜드, 독일 등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템플 기사단이나 튜턴 기사단과 달리 요한 구호 기사단 자체가 유럽 각국의 귀족 출신으로 구성된 만큼 조직이 7개 언어군별로 구성된 탓이다. 물론 당시 유럽에서 그랬듯이 공식언어는 기사단의 프랑스어였다. 흥미롭게도 이 언어별 집단 구분에서 프랑스는 지역별로 세분화된 반면, 북유럽은 모두 '독일'이라는 무리에 다 들어가 있었다. 거리는 구역이 바뀔 때마다 지역별 개성에 따라 건물 양식이나 장식이 조금씩 달라졌다. 이 건물을 당시에는 '숙소'를 뜻하는 '오베르쥬'(auberge)라 불렀는데, 수도원처럼 공동생활을 한 흔적이 아닌가 하고 추측해본다.

기사의 거리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고색창연한 석조건물마다 은행이나 부티크 상점 같은 현대적 시설이 입주해 있었다. 7개 구역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건물이 프랑스인 숙소다. 불과 500미터도 채 되지 않을 짧은 거리가 끝나는 곳에 작은 광장이 나오고 주변에 박물관이 몇 개 모여 있다. 요한 구호기사단의 본업인 병원도 이 부근에 있다. 한쪽으로 눈을 돌리면 그리스 시절의 아프로디테 신전 유적도 보인다. 고대 그리스 전성기 시절 로도스에는 한때 유력한 도시 국가 세 곳이 자리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초석과 일부 기둥만 남은 이 공간은 그때의 흔적인 듯하다.

거리를 쏘다니다 보니 해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 허물어진 건물터가 저녁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었다. 벽이나 지붕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주춧돌이나 정문, 공간 배치에 고딕식 교회의 전형적인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지금은 아이들이 공을 치는 놀이터로 변했다. 폐허가 된 유적은 가끔 그 텅 비어있는 자리를 배회하던 사람들의 삶을 그려보면서 상상력으로 채울 기회를 준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특히 황혼은 홀로 여행자의 상상력에 불을 지피기도 한다.

인근 식당에서 그리스식으로 저녁을 했다. 그냥 샐러드와 홍합 요리인데 이름만 그리스식이라고 붙어 있다. 사실 수백 년 간 오스만 통치 하에서 하나의 나라로 살다보니 이름은 그리스식이지만 내겐 터키식과 거의 구별이 안 된다. 현지인이 들으면 팔쩍 뛰겠지만, 특히 아까 점심 때 먹은 기로스 피타는 터키의 케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바깥에는 저녁 어스름과 함께 하늘색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지중해의 노을은 쓸쓸하기는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다. 한낮의 햇살이 청년이라면 노년의 빛과 같은 것 같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몹시 피곤했다. 더위 탓일 수도, 그간 쌓인 피로 때문일 수도 있다. 따지고 보면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것은 지중해 라이프스타일도 아니다. 로마에서는 로마인처럼 행동하라고 했거늘, 아마 번역하면 늦게 일어나라는 뜻일 것 같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호텔을 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다.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만 성벽을 개방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운 좋게 성벽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거의 막차로 통과해 성벽안의 구도심과 성밖을 내려다보면서 천천히 걸었다. 성벽은 도심 전체를 감싸면서 이어졌고, 동북쪽은 항구로 통했다. 성벽 구간은 절반 정도만 방문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오래 전에는 항구 입구의 바다를 감싸는 외벽도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지고 현대식 페리만 들락거리고 있다.

기사단장 궁전에서 시작하는 기사 구역을 지나 남쪽으로 걸으면 바로 오라(Hora)라고 불리는 무슬림 구역이 나온다. 여느 중동의 고도시처럼 미나렛이라 불리는 첨탑을 갖춘 모스크도 있고, 오래된 아랍식 주택이 이어져 있다. 이 구역 다음엔 유대인 구역도 어깨를 맞대고 있다. 중세의 유산인 줄 알았던 그리스 섬은 기독교인 기사만의 공간이 아니라 아랍인과 유대인, 비잔틴 시절 근동 지역의 다양한 종족의 도시이기도 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방인의 편견인지는 모르나, 지중해의 뜨거운 햇살 아래 허물어진 집도, 낡은 주택도 곳곳에 핀 원색의 꽃과 함께 묘하게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냈다. 인근에는 비잔틴 시절 건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이곳이 1522년 마지막으로 함락될 때까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였다는 사실은 실감도 상상도 되지 않았다.

2년 후 겨울, 몰타

로도스의 기억은 잔상이 꽤 오래 갔다. 영화나 드라마가 미진하게 끝나면 그 후는 더욱 궁금한 법이다. 요한 구호기사단의 뒷이야기도 알고 싶었다. 1522년 6개월 간의 처절한 전투 끝에 요한 구호기사단은 로도스에서 추방되었다. 승자인 술탄 술레이만 대제는 살아남은 기사단에게 아량을 베풀어 명예로운 철수를 허락했다. 기사단은 8년을 정처없이 떠돌다가 마침내 몰타에 새 보급자리를 얻었다. 교황 클레멘트 7세가 스페인왕 카를로스 5세를 설득해 스페인령이던 몰타섬을 내주었다. 그 대신 상징적인 사용료로 스페인 왕에게 매년 몰타의 매 한 마리를 바치기로 했다고 한다.

로도스 방문 후 2년이나 지난 후 로마 방문 일정에 몰타를 끼워넣고 말았다. 이번에는 아내까지 동행했다. 심리적으로는 떠나면 땅이었으나 막상 로마에서 몰타로 가는 항공편은 1시간 반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몰타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상공에서 나라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올 정도였다. 명색이 한 나라의 대표적 국제공항인데, 마치 소도시 버스터미널처럼 아담한 규모였다. 하기가 몰타의 전 인구가 40만 정도니 무리는 아니었다. 공항에서 현지버스를 탔다. 도착한 도시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마치 현지인이 된 듯한 우쭐한 기분이 들어서 좋다. 요금은 2유로 남짓해 그리 비싸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현지인보다 두 배를 냈다. 명색은 유럽 국가이지만 변방으로 왔다는 것을 절감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요한 구호기사단은 몰타로 거점을 옮긴 후 바로 유럽의 이 변방이자 최전선을 오스만의 침략으로부터 지켜 유럽의 수호자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와 몰타처럼 고개가 가우뚱해지는 국가를 EU 회원국으로 그리 쉽게 받아들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리스가 문화적으로 유럽의 정신적 기원이라면 몰타는 유럽이라는 경계의 수호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유럽인들이 이심전심으로 아직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두 나라는 유럽이라는 정체성에서 핵심적인 일부인 셈이다.

성지의 마지막 발판도 잃고 수호해야 할 성지 순례자도 줄어든 후 기사단은 점점 존재의의를 찾기 어려워졌다. 전쟁을 벌일 대상이 없는 군대조직은 더더욱 그런 법이다. 그래서 요한 구호기사단은 로도스섬 시절부터 아랍의 배를 습격해 약탈하는 일에 열중해 오스만은 이들을 목에 걸린 가시처럼 여겼다. 몰타에 옮기고 나서도 마찬가지 사정이었다. 분노한 술탄 술레이만 대제는 기사단을 정벌하기로 작심하고 군대를 일으킨다. 침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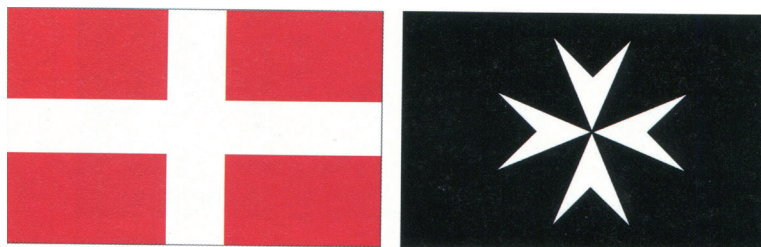
성공하면 몰타는 본격적인 유럽 침략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유럽과 기독교의 지도도 새로 그려졌을 것이다.

1565년 5월 4만 명에 달하는 대부대를 실은 선단이 몰타 해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맞서 기사단은 기사 500명을 포함해 6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전설적인 전쟁의 승패가 갈린 후 이 사건을 기억하는 방식은 각자 처한 위치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있는 법이다. 심지어 참전 군인의 숫자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수비군 숫자는 기록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다. 예상을 뒤엎고 몰타는 원군도 없이 사력을 다해 무려 4개월을 버텨낸다. 오스만의 자만과 판단착오에 불운도 따랐다. 마침내 오스만 군이 물러나자, 몰타는 유럽 기독교 세계에서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다.



발레타의 어퍼 바라카 가든에서 바라 본 성안젤로 요새(왼쪽)와 성마이클 요새

지금 몰타의 발레타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시가지가 바로 그 후 몰타가 받은 엄청난 환대의 살아 있는 증인이다. 지금 남아 있는 도시는 몰타 대전투의 '유적'이 아니라 승리의 여파로 전 유럽이 열광한 그 흔적이다. 몰타 전투 이후 기사단에는 주체 못할 정도로 돈과 물자 지원이 쏟아져 들어왔다. 교황청에서는 건축가까지 보내주었다. 종교개혁의 움직임과 아랍의 위협으로 전 유럽이 들끓고 있던 시점에 몰타는 유럽의 방패막이자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 구실을 톡톡히 해주었기 때문이다. 유럽 전역에서 들어온 이 자원으로 당시로서는 현대적이고 화려한 대건설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래서 발레타에서 당시의 치열한 전쟁의 흔적을 느껴보려 했던 계획이 틀어져 다소 실망스럽기도 했다.



왼쪽은 몰타 기사단의 전투용 깃발이고 오른쪽은 종교행사용이다. 검은 색은 로도스를 상실한 슬픔을 표현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서 본 몰타의 첫인상은 황량함 자체다. 이탈리아 남부와 아프리카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척박하고 메마른 땅임에는 틀림없었다. 사라센 해적의 본거지인 북아프리카를 코앞에 두고 있고 농사도 안 되고 돌투성이인 이 척박한 땅을 기사단에게 맡긴 스페인 왕의 의중은 보나마나 뻔했다. 이 작고 황량한 불모의 섬에 자리 잡은 기사들은 풍요롭고 온화한 로도스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몰타로 이주한 후 기사단은 몰타 기사단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종교행사용 깃발을 검은 색으로 해서 로도스를 잃은 슬픔을 가슴 깊이 기억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도심 순례에 나섰다. 발레타는 작은 반도 모양으로 바다 쪽으로 돌출된 지형 위에 건설되었다. 자그마하고 경사가 심한 반도 지형에 시가지를 건설했지만, 500년 전의 도시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자 모양으로 반듯하게 배치된 거리가 인상적이었다. 더구나 작은 시가지 인지라 어느 골목으로 들어가든 그 끝에는 바다가 보였다. 도심 대로인 공화국 거리를 가로질러 바다 쪽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성엘모 요새(Fort St. Elmo)가 있다. 오스만 침공 시 가장 치열한 전투의 장이자 끝까지 버텼던 그 요새다. 요새는 마침 공사 중이었다. 그렇지만 성벽 위에 서면 바로 눈앞에 시원한 지중해가 펼쳐진다. 요새나 성채는 왕궁을 제외하면 내부보다는 내려다보는 바깥 풍광이 일품이다. 오스만의 포위 공격 때 발레타 쪽에는 사실 성엘모 요새밖에 없었다. 기사단의 주 거주지는 바다 맞은편 비르구(Birgu)와 생글레아(Senglea) 쪽에 있었다. 그런데 승전 후 들어온 자금으로 이 바위투성이 땅에 화려한 시가지를 새로 건설한 것이다. 도시 이름은 당시 기사단을 승리로 이끈 프랑스인 단장 발레트의 이름을 땄다.

발레타는 도심도 작고 단순해 걸어 다녀도 된다. 내륙 쪽으로는 이중 성벽이 버티고 있고, 바닷가 쪽으로도 삼면이 요새화되어 있다. 공항에서 오는

버스를 타면 높은 성벽을 통과하게 된다. 버스에서 내리면 또 하나의 성벽이 눈앞을 가로막는다. 육지를 방어하는 외성과 내성을 지나온 셈이다. 내성을 들어서면 겨울 철 비수기를 맞아 여기저기서 보수,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내성으로 들어가는 성문 입구에서 내려다보면 물은 없지만 해자가 꽤 깊어 보인다.

동쪽 바닷가 쪽으로 나가면 바다를 향해 어퍼 바라카 가든(Upper Barrakka Garden)이라 불리는 성벽 위 테라스가 있다. 성벽에는 고색창연한 대포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맞은 편 육지 쪽에는 바다를 향해 비죽 튀어나온 두 요새가 보이는데, 바로 비르구의 성안젤로 요새와 생글레아의 성마이클 요새다. 발레타 쪽의 성엘모 요새와 더불어 오스만과의 전투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양쪽 육지 사이의 만으로 대형 선박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인다. 중세의 요새와 현대적인 대형 선박의 대비가 초현실주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어쨌든 자그마한 발레타 시내에서 이 전망대는 아마 가장 전망이 뛰어난 곳인 듯하다. 시내에서 머무는 며칠 동안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나가 하염없이 바다와 건너편 고풍스런 시가지를 쳐다보곤 했다. 지중해의 겨울 날씨는 온화하고 쾌적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닷바람의 감촉이 부드러웠다.

시내 탐방 '숙제'를 마치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발레타 시내 한복판을 관통하는 공화국대로 주변에 주요 볼거리가 몰려 있다. 그리고 이 골목 저 골목을 기웃거리는 게 답사 요령이다. 12월 초라 벌써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거리고 있다. 시내 한복판을 차지하는 랜드마크는 성요한 성당이다. 건물 외벽은 여느 유럽 도시 성당이나 다름없이 소박해 보이지만 바로크식 내부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인다. 성당 바닥은 빛나는 대리석으로 된 묘석에 기사의 문장이 화려하게 장식된 기사와 귀족의 무덤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마 이 성당에 묻힌 인물이 모두 성자나 영웅은 아니었을 것이다. 몰타 방어전 대승 이후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 몰타에 대한 열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유럽 각지에서 오는 지원금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럽인들의 종교에 대한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변화하는 세계에서 가톨릭 군사조직으로서 요한 기사단의 위상이나 존재의 역시 흔들리게 마련이었다. 더구나 성지도 사라지고 순례자 수호라는

원래의 목적도 사라진 상태에서 기사단의 기능도 방향을 잡기 어려웠다. 작고 황폐한 몰타섬의 토양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웠고 이미 화려해진 생활에 익숙해진 기사단의 비용을 충당하기도 버거워졌다. 처음에는 로도스에서 하던 것처럼 이슬람 해적 소탕과 기독교인 상선 보호 등에 치중했다. 하지만 점차 무슬림의 배를 무차별적으로 습격하거나 타국의 해군 용병으로 참여하는 등 기사단의 취지와 무관한 활동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개인적으로도 서약한 수도자의 삶과 거리가 먼 세속적 생활에 빠지는 등 기사단의 도덕적 타락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성당과 건물을 보면서 이런저런 상념에 빠졌다.

유적 중에는 보수나 행사를 이유로 입장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긴 여행의 끝물인지라 굳이 무리해서 일일이 들어가 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다. 특히 기사단과 직접 관련된 상당수의 유적은 입장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다. 기사단장 궁정은 몰타 의회의사당으로 바뀌었는데, 마침 국빈 행사용 홀은 회의 중이라 입장을 못 했다. 이 건물이 의사당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당시 기사단의 흔적인 카스티유 기사 오베르제는 수상 관저로, 이탈리아 기사 숙소는 미술관으로, 아라곤과 바라리아 숙소도 정부 부서 건물로, 프로방스 숙소는 고고학 박물관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프랑스인의 오베르제처럼 2차대전 때 공습으로 파괴된 곳도 있다.

바다 바로 건너편 비르구에도 가보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마침 무슨 축제 날인지 불꽃놀이가 한창이었다. 사람과 장사꾼이 거리를 메우고 일부도로는 차단되고 해서 온통 난장판이었다. 바닷가는 마리나인지라 정박된 요트로 넘쳐났다. 날도 어두워지고 해서 결국 요새는 포기하고 바다 건너 화려한 발레타의 야경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역사 탐방은 눈으로 보는 것 보다는 기억과 머리로 하는 경험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몰타 기사단의 대전투는 흔적보다는 기억으로 더 강하게 남아 있었다.

성지로 가는 마나먼 길

로도스와 몰타 외에도 십자군의 흔적은 유럽 곳곳에 남아 있다. 그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로도스 시절 요한 기사단의 육지 쪽 성채인 보드룸도, 멀리 폴란드 북부에서 튜턴 기사단의 본거지 역할을 한 말보르크도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요르단 여행 역시 성서와 십자군과 관련된 유적을 비껴날 수 없었다. 그런데 정작 당시 십자군 운동의 최종 목적지이던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일은 끝없이 미루어졌다. 애초에는 로도스 방문보다 먼저 계획한 일이지만 무려 네 차례가 취소되었다. 한번은 개인적인 사유로, 나머지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 때문이었다. 원래 계획보다 딱 8년이 지난 후 드디어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스라엘 입국장은 여행객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 보안검색과 심문은 범죄자 수사 수준이라며 온갖 괴담이 난무했다. 하지만 부부동반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너그러운 입국 관리 덕분인지 모르나 싱거울 정도로 쉽게 입국장을 통과했다. 이렇다 할 소지품 검색도 없었다. 이른 아침 시간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 있는 숙소에 도착했다. 작지만 깔끔한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창밖으로는 빵집과 바빠 오가는 행인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스라엘의 첫인상은 그냥 현대적인 유럽국가와 별 차이가 없었다. 낯선 나라에 가면 마치 천 년 전의 역사가 정지되어 있는 듯 이국적인 문화와 풍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서양인들만의 버릇은 아닌 모양이다.



예루살렘의 무덤교회. 오른쪽이 성요한 기사단의 병원과 본부가 있던 곳이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야파(Jaffa) 문이다. 십자군 원정 시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 항구 역할을 한 곳이 오늘날의 텔아비브인 야파였는데, 거기서 따온 것이다. 이 문은 십자군 전쟁 때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예루살렘에서는 나흘을 머물렀다. 가이드북에 나온

대로, 남들 가는대로 다녔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예수 무덤 교회, 십자가의 길, 통곡의 벽, 최후의 만찬 장소 등 지금은 거의 흔적도 없지만 성서의 기억이 남은 곳은 두루 다녔다. 무덤 성당은 십자군이 처음 발을 디딘 당시처럼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경한 무슬림 왕조나 술탄이라도 이 성지만은 그대로 둔 탓이다. 요한 구호기사단은 이 교회 바로 옆에 본부와 병원을 두고 종교와 얼굴색을 가리지 않고 병자를 돌보았다. 최근 고고학 발굴팀은 이 부근에서 당시의 병원 터를 발굴했는데, 무려 환자 2천 명 정도를 수용할 정도로 큰 규모였다. 환자는 종교와 민족을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성내를 다니면서 아마 가장 많이 만난 외국인이 한국인 성지 순례단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분명 처음 와본 곳인데, 과거에나 아니면 전생애라도 다녀온 것 같은 기시감이 드는 곳이었다. 길거리든 건물이든 이름과 거기에 얹힌 이야기는 낯설지가 않았다. 아마도 유럽을 통해 알게 된 간접 경험 탓이리라.

예루살렘은 상상하던 것과 다른 모습도 많이 갖고 있었다. 구도심 한복판 기독교인 지구는 십자군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순례자가 줄을 잇고 있지만, 성내 동쪽 무슬림 구역 언덕 위 유대인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이슬람 성지인 바위 모스크와 알 아크사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 성내 구역도 기독교인 구역, 유대인 구역, 아르메니아 구역, 무슬림 구역 등으로 이름이 붙어 있다. 사람들의 얼굴이나 옷차림, 음식까지 정말 다양한 곳이었다. 시내 유대인 지구에서 이스라엘 음식이라고 해서 보니 이전에 아랍 국가나 동유럽에서 먹던 낯익은 메뉴였다. 유대인 역시 동유럽과 러시아, 미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20세기에 들어 이주한 사람들이니 다양함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예루살렘, 아니 성지에 첫 발을 디딘 십자군 기사나 병사 역시 상상하던 것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과 문화에 당혹스러워 했을 것이다. 중세의 폐쇄적 교회에서 얻은 지식과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낯선 이교도들을 대했을지 지금도 궁금하다.

북쪽 다마스쿠스 문 부근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버스는 성곽 서쪽을 빙 둘러 남쪽으로 가는데, 중간중간에서 높은 콘트리트 장벽이 보였다. 유대인 거주지와 팔레스타인을 격리하기 위한 장벽이다. 예수 탄생지인 베들레헴은 예수 탄생교회(Church of Nativity) 등 성스러운 장소로 알려진 교회와 유적을 벗어나면 이방인에게는 그냥 팔레스타인이 사는 평범한 중동 마을로만 보였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버스를 탔다.

중간에 이스라엘 군인 초소를 통과하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섬주섬 내린다. 외국인인 우리만 그냥 버스에 남아 어색한 표정만 지을 뿐이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침묵이 흘렀다. 800년 전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이람 간의 전쟁의 축소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1099년 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에 진입한 날 성내에서는 무차별적인 이교도 학살이 진행되고 성은 공포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이교도에 가장 강경한 템플 기사단은 성전산의 이슬람 성지인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 아랍인을 내쫓고 주둔지 본부로 삼았다. 반면에 1229년 6차 십자군 원정군은 협상을 통해 무혈 입성한 후 다양한 인종, 종교 집단을 포용하는 자비를 베풀었다. 이슬람 쪽에서도 기독교인을 대하는 태도는 왕조마다 권력자마다 편차가 있었다. 예루살렘과 성지의 거주자는 민족이나 종교가 어느 쪽이든 정복자의 눈치를 보며 평화 시에도 늘 불안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양한 종교와 민족이 어울려 살면서도 늘 폭탄을 안고 사는 듯한 느낌은 21세기인 지금도 변함이 없는 듯하다.

예루살렘을 떠나 북으로 카이세리아, 하이파, 나사렛, 가나, 티베리우스, 갈릴리 호수가 등 다양한 곳을 방문했다. 차를 운전하며 다닌 탓이기도 했겠지만, 생각보다도 훨씬 작은 땅이었다. 성서와 십자군의 역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구석구석 수많은 역사와 기억이 얹히고 겹겹이 쌓인 곳이다.



아코의 바다쪽 성벽.
역사유적이자 현지인의 삶의 공간임을 느낄 수 있다.



기사의 홀. 과거 요한 구호기사단의 본부가 있던 곳이다.

인상적인 부분은 곳곳에 남아 있는 성채의 흔적이었다. 십자군 원정 시절 동서로는 해안 도시 지역부터 요르단강 서쪽에 이르기까지, 남북으로는 안티오크 이북에서 홍해 연변의 아카바에 이르기까지 요소요소에 쌓은 수많은 성채 중 140여 군데가 남아 있다고 한다. 주로 템플 기사단이나 요한 기사단이 성채 구축을 맡았다. 이전에 요르단을 방문했을 때 이중 일부는 가본 적이 있다. 요르단의 수도 암만에서 남쪽 명소인 페트라로 가는 길 가에도 수많은 성채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 성채 중 압권은 요한구호 기사단이 쌓은 카락 데 슈발리어 성이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성채들 중 상당수는 지금은 갈래야 갈수도 없는 시리아나 레바논 위험지구에 있다. 불과 10여 년 전에만 해도 배낭여행자들이 터키에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던 곳이었다. 아마 내 생애에 그런 날이 다시 올지 모르겠다.

‘십자군 순례’의 마지막 코스는 아코였다. 지금은 아크레라고 불리는 곳인데, 작은 만 건너 하이파와 마주보는 바닷가에 있다. 하이파 시내에서 기차에 몸을 실으면 몇 정거장 후 바로 도착하는 곳이다. 아코 역에서 내려 걷다 보면 갑자기 큰 성채가 눈앞에 나타난다. 1291년 십자군의 마지막 본거지이자 중동 땅에서 마지막 교두보로서 치열한 전쟁터였던 바로 그 아코다.

아코 성채는 남서쪽 바다를 향해 불쑥 튀어나온 듯한 지형에 자리잡고 있다. 육지 쪽으로는 이중으로 성벽이 감싸고 있고 바다 쪽으로도 성벽이 시가지를 에워싸고 있다. 예루살렘을 잃은 후 한동안 사실상 십자군 운동의 마지막 교두보이자, 예루살렘 왕국의 왕도, 템플, 튜턴, 요한 기사단의 본부가 있던 곳이기도 하다. 역에서 내려 신도심을 통과해 구기사 쪽으로 걷다 보면 성벽이 나오고, 성벽을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에 높은 요새 같은 곳이 보인다. 지금은 기사의 홀(Knight's Hall)이라 불리면서 아코에서는 뜨내기 관광객의 흥미를 자아내는 주요 관광지 구실을 하는 곳이다. 이곳은 800년 전 요한 구호기사단이 건축했고, 로도스로 옮겨가기 전까지 기사단 본부 역할을 했다.

원래 4층이었다고 하니 현재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을 것이다. 맘루크 왕조의 술탄 알아시라프 칼릴은 아코를 점령한 후 포로를 모두 참수하고 성 전체를 파괴했다. 그러나 400년 후 오스만 제국이 다시 성을 재건한 것이 현재 볼 수 있는 아코 성이다. 재건 당시 파괴된 성터의 잔해를 많이 재활용했기 때문에, 전성기 아코성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데는 충분하다.

서쪽 끝 바다와 접한 구역에는 가장 웅망했던 템플 기사단 본부가 있던 곳이다. 아코 함락 후 파괴되고 이후 방파제 만드는 데 자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웅장한 모습은 볼 수가 없다. 항구 쪽으로 보면 지금은 무너져 물속에 가라앉았지만 바다를 가로 막는 성벽의 흔적이 보인다. 최근 고고학 발굴작업이 진행되면서 기사단 시절에 건설한 지하도시의 모습이 드러났고, 1994년에는 바닷가에서 템플기사단 요새, 성 안을 잇는 비밀통로로 추정되는 지하터널이 발굴되었다. 지금은 300미터 정도가 남아 있어 방문자의 호기심을 자아낸다.

성채 도시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딱히 명소리는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기 보다는 성벽이나 골목을 걸으면서 그 시대의 느낌을 음미하는 것이 좋았다. 구역마다 골목마다 각 시대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도 작은 재미를 준다. 여기저기 방향 없이 걷다보면 현지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낡고 오랜 건물에 걸린 빨래, 아이들의 소란스런 소리, 부둣가 어부들의 거친 목소리, 골목 언저리에 줄고 있는 고양이 등의 모습에서 박제된 관광지 유적이라기보다는 평범하고 오래 된 팔레스타인 갯가 마을의 느낌을 더 생생하게 받는다.



아코 성채 안의 주거지

900여 년 전 십자군 원정에 처음 나선 ‘유럽인’들이 상상하고 꿈꾼 이 땅, 2천 년 가까이 추방되어 전 세계를 떠돌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꿈꾸던 이 땅, 아니면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생각한 땅은 어떻게 달랐을까? 유대인 중에서도 주류인 서유럽 출신의 계파가 꿈꾸고 설계한 유대인의 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주류의 유대인이 그린 세상과 어떻게 달랐을까? 아코의 골목을 걸으면서 그 다양한 차이가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을까 상상해본다. 지중해의 겨울은 온화하지만 해가 떨어지면 그래도 쌀쌀하다. 이런저런 상념 속에서 다시 하이파의 숙소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다.

이제는 집으로 가는 길만 남았다. 마지막 숙소인 하이파에서 서둘러 나와 가까운 역에서 텔아비브 공항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렸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작은 배낭에 소총까지 둘러메고 오가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그중에는 옛된 얼굴의 여성도 보인다. 이스라엘에서는 남녀 모두 징병대상이다. 오른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한 시간 반 정도만 달리면 공항이다. 집으로 오려면 홍콩까지 긴 항공편을 타고, 다시 부산으로 오는 연결 편으로 갈아타야 했다. 거리에 비해 운항시간이 좀 길다고 생각했는데 이륙 후 기내 모니터 운항정보를 보니 항로가 좀 특이했다. 텔아비브 공항에서 이륙한 후 서쪽 지중해로 가다가 키프로스 부근에서 북으로 방향을 꺾는다. 큰 U자 모양으로 중동 지역을 우회하면서 날아가고 있다. 지도를 보면서 홍콩까지 직선항로를 그려보았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하나 같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다. 집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먼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200년에 걸친 피비란내 나는 십자군 전쟁의 마지막 교두보 아코가 함락되고 유럽과 아랍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간 뒤 700년도 더 지났지만, 이 땅에는 평화의 조짐이 아직도 요원한 모양이다.

임영호 프로필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단장,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언론학회 부회장 등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 활동을 했다. 저서로는 『학문의 장, 지식의 제도화』, 『한국 예로 비디오의 사회사』(공저), 『SNS혁명의 신화와 실제』(공저), 『민주화 이후의 한국언론』(공저), 『전환기의 신문 산업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역서로는 『장르와 내러티브』,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 스텐트 홀 선집』, 『언론학의 기원』, 『대처리즘의 문화 정치』, 『디지털 시대의 저널리즘 윤리』 등이 있다. 국제 학회 활동을 위해 해외를 다니기 시작해 76개국을 여행했다.

부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배길남

소설가



부산의 성장과 부산 어촌설

소설가 길남 씨는 잡지『지역사회』에서 부산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해달라는 원고청탁을 받았다. 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부산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말 그대로 부산 작가로서 부산이야기 만큼은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편이란 이야기이다. 그런데 연재 첫 회란 말에 덜컥 사례가 걸리고 말았다. 첫 회니까 시작을 잘 부탁한다고, 심지어 원고지 30매 분량으로, 그것도 재미나게 써 달란 요청이었다.

처음엔 잠에서 덜 깨어 덜컥 요청을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한정할 수가 없다. 이놈의 부산이라는 도시가 워낙에 복잡다단한 도시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다. 그냥 맘 편하게 남구의 이 동네가 이렇고, 북구의 저 마을이 저렇고 하는 식으로 국소적으로 쓰자니 무려 첫 회! 아닌가? 이후에 수많은 작가들이 연재를 이어나갈 텐데 선불리 방향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부산의 역사를 통틀어 쓰자니 무슨 향토사학자도 아닌 마당에, 얹히고설킨 그 역사를 어떻게 다 다룬다는 말인가? 그것도 원고지 30매로….

한 달이 지나도록 골머리를 싸매던 소설가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한 잡지의 편집회의에 참석했었다. 코로나19가 설치든 말든, 하늘은 높고 낙엽은 우수수 떨어지던 본격적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부산 전문가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실력자들이 모인 회의는 ‘초량동’을 주제로 제법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길남 씨는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듯 딴생각에 잠겨 있다. 아직도 부산이야기 첫 회의 실마리도 잡지 못한 판에 마감일자가 턱 앞까지 다가온 미친 맛을 제대로 느끼는 중이다.

“와아, 이거 우짜지?”

길남 씨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머리를 뱅뱅 긁어댔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부산어촌설’이란 말이 회의 도중 튀어나오는데 길남 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A: 어, 그러니까 피란 수도, 피란 수도 하면서 한국전쟁 전에는 부산이 어촌이니 뭐니 떠드는 인간들이 있는데… 부산 역사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옛날 초량에 초가집 몇 개 적어놓은 걸 보고 ‘이

것 봐라. 이래 초라한 동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 초량이 왜 피란민 유입의 대표적 장소가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초량은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꽤 많은 인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도시로 발전할 발판이 이미 마련돼 있던 거죠.

B: 잠깐만요? 그래 뭉까가 비난하듯 말하면 안 되지요, 그때 부산이 지금 부산하고 같은교? 초량도 마찬가지로 옛날 초량하고 지금 초량은 다르단 말이야. 말 그대로 지금 초량은 부산진성이 있는 부산진 구역이었거든. 어촌이란 말은 어떤 지역만 국소적으로 봤을 때 어촌이었던 말이지. 눈을 키워서 전체를 보면 그건 오해고 오류였다, 이래 말해야 되는 거거든.

A: 아니지요, 그러니까 강하게 얘기해야지요, 초량에 왜관이 있었잖아요? 일본인만 쳐도 많을 때 천 명이 넘게 거주했거든. 또 거기에 연관된 조선 사람들이 무역과 상행위를 하면서 부락을 이뤘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보나 유동인구로 보나 작은 어촌에 불과하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지.

B: 아니이, 원래 초량하면 저기 부산역 넘어가서 중앙동하고 광복동, 남포동, 부평동 전체가 초량이란 말이지. 초량왜관은 용두산 공원 일대를 말하는 건데 무슨...? 그라고 도시는 이미 행정구역상 상위에 있던 동래부가 있었는데 뭘 자꾸 도시, 도시 거리고 있어.

A: 범위가 어떻게 따지기 전에 부산 지역 곳곳이 조선시대부터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는 말 아니요? 그게 뭐 잘못 됐어요?”

B: 아따, 답답하네. 누가 틀렸다 카나? 다만 행정구역이 달랐다 안하요? 일본 아아들이 강점하기 전만 해도 부산이 지금처럼 합치가 있는 기아니었다고. 동래부, 경상좌수영, 부산진, 다대진, 초량에는 왜관! 범위를 자꾸 무시하고 있어. 범위를!

A: 현재 부산 역사를 얘기하려면 옛날 행정구역이라도 묶어서 얘기해야 연관이 되지, 따로국밥처럼 따로 떼서 범위 따지면 무슨 말이 되냐고?

B: 하나를 이바구 해도 제대로 알고 하잔 말이지요, 그란데 거기 와 자꾸 반말하노?

A: 뭐? 반말은 니가 먼저...

“위위위 선배님들, 아이고 선배님들…” 하면서도 길남 씨는 눈앞의 난타전에 입이 슬슬 벌어진다. ‘부산 스토리텔링 첫 회’란 난제를 A, B 두 선배가 깔끔하게 정리해 줬기 때문이다. 그들이 치고 박고 싸운 계기인 ‘부산 어촌설’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길남 씨. 평소 같으면 코웃음치고 넘어갔을 ‘부산 어촌설’의 오류가 현재의 부산을 너무나도 잘 설명할 수 있는 열쇠가 되다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현재의 부산은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분명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서 그 명성은 확고하다. 하지만 시계를 거꾸로 돌려 부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도시의 실체는 점점 불투명해져 “뭐가 뭔지 모르겠어”가 되고 만다. 방금 선배들의 초량 논쟁은 그러한 ‘부산 역사의 불투명성’을 대표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사례였었다. 실제 방송이나 신문 등이 다루는 부산의 역사에 대한 인식(특히 중앙이라 일컫는 언론들의 인식)은 논쟁에서 언급된 ‘부산어촌설’과 다르지 않다.

“부산은 한국전쟁 이전에는 변방의 소도시였었다. 이후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며 대도시로 성장했다.”

길남 씨는 이 말이 어떻게든 수도권의 역사와 연결시키려는 편향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한국 역사의 큰 줄기와 맞닿은 역사 인식은 인정하나, 부산 자체의 성장과 각 구역의 연관성이 완전히 배제된 인식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 한양의 인구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 기록을 살펴보면 성곽으로 둘러싼 구역만 한양도성으로 쳤다고 하는데 당시 그 인구수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 시기 조선 전체 인구수는 약 800만. 일제 강점기 성벽을 허물고 경성부란 이름으로 확장을 시작해 해방 때나 되어서야 그 인구는 100만이 넘어선다. 그런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의 강남 지역 사진을 찍어놓고서는 “서울은 농촌이었다!”하며 고함지르는 것과 뭐가 다른가 말이다.

이제 부산을 살펴보자. 같은 시기보다 조금 앞선 영조 때 동래읍성의 인구는 2만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천 명 중 1명이 살아남을까 말까 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처참했던 동래의 인구는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살펴본다면 가장 큰 행정구역이었던 동래부와 각 지역의 남자들이 군역으로 모여들었던 경상좌수영, 그에 준하는 규모의 부산진성, 그리고 특별한 자치 구역이었던 초량왜관 등 몇몇 대표적 지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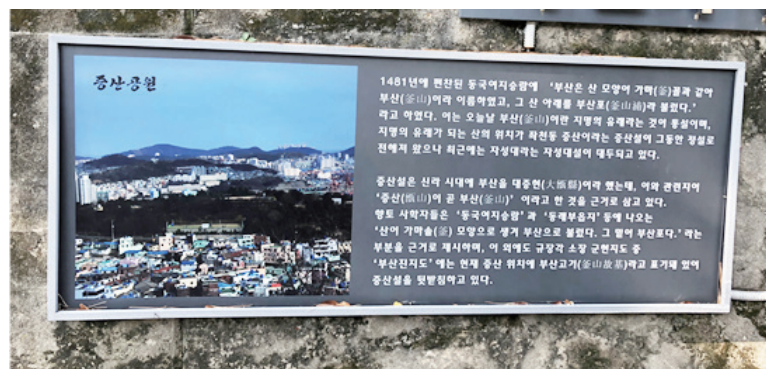
만 합치더라도 현재 부산의 범위로 따진다면 ‘어촌’이란 말은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다.

근대 이후 부산의 역사는 잘 알려진 대로 제국주의 일본 침략의 거점도시로 기록된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부산을 아예 자신들의 거점도시로 개발하려 한다. 경부선 종착역인 부산역과 해상 교통의 근원지인 중앙부두가 초량에 생겨난 것은 그런 이유였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인구 30만의 그 기획도시는 동래지역을 제외한 부산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부산의 폭발적 인구증가를 상징하는 그 유명한 산만디의 집들은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부산역과 중앙부두가 생겨나면서 초량 일대는 많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 거기에는 일본으로 취업하러 나가는 노동자들이 수숙을 기다리다 부산에 눌러앉은 일들이 빈발했고, 해방 이후 대다수의 귀환 동포들이 부산에 정착하면서 송도와 초량 일대의 풀언덕은 판잣집으로 가득 채워진 판자촌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변화들은 부산을 일거리가 존재하고 기후가 따뜻한 기회의 도시라는 인식을 심게 만들었다. 한국전쟁으로 밀려든 피란민들이 하나같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부산이 대도시로 성장했던 역사는 어쩌다 도망쳐 온 어촌으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인과관계 속 필연적 역사였던 것이다.

부산(釜山), 그 이름의 유래 그리고 정공단

독자 여러분은 소설가 길남 씨와 함께 부산이 대도시로 성장했던 역사를 초고속으로 한 번 살펴보셨다. 그렇다면 부산(釜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던 것일까?



부산 동구 좌천동 중산공원 '부산의 뿌리' 안내 표지판

길남 씨는 친구 김 팀장과 함께 그 답을 찾기 위해 역사의 흐름을 따라 걷기로 했다. 그는 부산진성이 있던 부산진시장과 조선방직(일제강점기 범일동 일대를 모조리 차지했었다는 초울트라급 방직공장, 지금도 이 일대를 조방 앞이라 부른다)이 있던 조방 앞 사이의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1-1번에 몸을 싣는다. 그 유명한 산복도로의 끝머리 안창마을로 이어지는 길가에서 하차한 길남 씨는 언덕 끝에 위치한 동구도서관으로 향한다. 끊임 없이 이어진 골목 계단을 험악대며 올라가던 그는 뒤를 돌아보며 이마의 땀을 씻어낸다. 어느새 확 트인 풍광은 부산항의 왼편과 서면 일대를 펼쳐 보이고 있다. 동구도서관에 도착하자 인근에 위치한 언덕에 작은 공원이 있다. 바로 이곳이 부산이란 명칭의 유래를 품고 있는 중산공원이다.

중산의 증자는 바로 시루 증(甞)이다. 부산(釜山)의 부자가 가마 부(釜)임을 생각할 때 두 글자는 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솔뚜껑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는 말인데, 현재 부산 이름의 유래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중산공원의 안내표지판에는 중산이 현재 자성대 공원이었다는 설도 같이 병기하고 있다. 부산 이름의 유래가 부산진왜성인 자성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의견인데, 어느 쪽이 사실이냐에 관계없이 시루 증(甞)이 가마 부(釜)에 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

사실 현재의 부산은 가장 큰 행정구역이었던 동래부와 경상좌수영, 그리고 부산진, 다대진을 모두 아우른다. 그렇기에 중산에서 비롯된 부산이라는 이름은 솔직하게 말하면 부산 동구와 중구, 부산진구 일대에 국한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 일제는 부산을 거점도시로서 개발했다. 그들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조선을 침략하며 제일 먼저 초량왜관 자리를 집어 삼키고는 그곳을 일본인 거류지로 삼는다. 그리고 이곳에 부산부청 등을 세우며 부산지역을 장악하는 행정구역으로 삼는다. 지금도 중앙동, 광복동이 있는 중구(中區)에 가운데 중(中)자가 붙는 이유이다. 부산이라는 이름은 원래부터 존재했었지만, 동래지역을 위시한 현재의 부산지역 전체를 아우르게 된 것은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 속에는 이러한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저어기 부두가 허치슨 부두라고 불리는 5부두야. 오른쪽이 부산항이고, 저기 차가 많이 다니는 대로가 중앙대로인데 원래는 저기서부터 부두까지가 다 바다였다.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저 일대 바다는 매축으로 메워지거든. 그래서 지금도 저기 저 동네를 매축지 마을이라고 부른다 아이가.”

설명하는 길남 씨의 숨이 가쁘다. 그의 몸은 중산공원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저 아래 정공단으로 가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부산이란 이름과 그 역사가 일본과 연관되었다 부정하기도 하고,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 그런 인식들은 우리 가까이 있으며, 매우 폭력적인 흑백논리로서 전횡을 일삼기도 한다. 문민정부 시절 식민지 잔재를 없앤다며 의도적으로 파괴했던 부산의 근대 역사 건축물들을 보라. 파괴된 그 자리엔 자본의 논리로 점철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섰으며, 지난날의 반성 없는 역사인식은 현재 부산의 재개발 난립으로 변모되어 곳곳을 활취고 있는 것이다.

길남 씨는 중산공원을 내려와 모교인 금성고등학교를 지나 일신기독병원 부근의 정공단(鄭公壇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473-474)에 들른다. 정공단은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가장 치열하게 벌어졌던 부산진성 남문 자리에 세워져 있다. 중앙 단 앞에는 ‘정공단’이라 쓰인 비가 세워져 있고, 서쪽에는 부산진첨사 정발과 그의 막료였던 이정헌(李庭憲)이, 동쪽에는 정발의 첩 열녀 애향(愛香)이, 남쪽에는 여러 군민이, 남쪽 층계 밑에는 충직한 노복 용월(龍月)의 단이 마련되어 있다.

이들은 왜군의 침략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 악귀와 같은 왜군들은 그들을 모조리 도륙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데도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한 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이었고, 그 터전의 이름은 부산진성...; 바로 부산(釜山)이었다.

길남 씨는 눈을 감고 그들을 위해 묵념을 올린다. 곁에 있던 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붉어진 눈가를 슬쩍 훔친다. 소설가도 먹먹한 가슴을 큰 한숨으로 달래어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473-474 정공단(鄭公壇)

다시 부산의 이야기 속으로

“자, 그럼 오늘 취재는 끝났나?”

정공단을 나와 이렇게 묻는 김 팀장을 향해 고개를 젓는 길남 씨.

“바로 요 밑으로 조금만 가면 예전에 동굴집이라고 동굴 안에서 막걸리 마시던 술집이 안 있었나? 지금은 좌천 동굴이라고 동굴 안에 기념관을 만들어 놔를 걸? 그리고 저쪽 부산일보 쪽으로 가면 아까 말했던 초량왜관 만들기 전에 72년을 운영했던 두모포 왜관이 있었다 아이가. 그래가 그 동네를 옛날 고(古)자 붙여서 고관이라 부른다. 전신만신에 고관이란 가게가 그득하다. 고관 함박스테크, 고관 해물탕, 고관약국, 고관 치과... 그리고 그 앞에 수정시장에 가면...”

길남 씨의 수다에 발동이 걸린다. 두 사람의 발걸음이 서서히 빨라진다. 부산의 이야기가 몇 발짝 가지 않아 무수하게 튀어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두모포왜관 터를 알리는 안내판

배길남 프로필

2011년 《부산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사라지는 것들』 당선돼 소설가로 등단했다. 소설집 『자살관리사』(2013년), 『잠뱅 끓이다 갈분 넣으면 사천짜장』(2018년)을 발간했고, 로컬에세이집 『하하하 부산』(2019년)을 펴냈다. 부산민족예술인상(2012년), 제14회 부산작가상(2014년)을 수상했고, 2019년 요산창작지원금 수혜 작가로 선정됐다.

추리문학관 운영하는 팔순 작가 김성중

“죽기 전에 열 살 때 겪은 한국전쟁 주제로 대하소설 쓰고파...”

이 정 임

소설가



2007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 등단. 소설집 『손잡고 허밍』, 산문집 『산타가 쉬는 집』, 부산소설문학상, 부산작가상 수상.



한국의 추리소설을 떠올리면 ‘김성중’을 빼놓을 수 없다. 196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경찰관』이 당선돼 등단했고, 1974년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소설공모에 ‘추리적 기법으로 파헤친 한국전쟁의 비극미’를 그린 『최후의 증인』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많은 매체들이 그에게 추리소설을 청탁했다. 그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원고 청탁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거기에 응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추리작가가 되어 있었다(작가와사회 45호 인터뷰)’고 했다. 문학을 잘 모른다는 이들도 평균 시청률 44.3%의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한 <여명의 눈동자>의 원작자라고 그를 소개하면 모두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는 ‘문인’이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골방에 틀어박혀 집필에만 골몰하는’ 이미지와 다르다. 평소 캐주얼한 야전점퍼와 중절모, 머플러를 하고 달맞이언덕의 카페나 예술전용극장을 자주 찾는다. 부산문인단체 홈페이지에 ‘젖은 낙엽’이라는 닉네임으로 단체 영화 관람이나 티타임 모임 ‘뽕개’를 공지하는데, 공지의 마지막 줄엔 ‘젖은 낙엽이 쏘겠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일 년에 수차례씩 해외 도보여행, 배낭여행을 떠나는 그는 <추리문학관 겨울추리여행>을 기획해서 짧으면 열흘, 길면 한 달 동안, 일본 홋카이도나 유럽의 문학공간을 돌아보는 자리도 만든다.

코로나19로 연일 시끄러운 초겨울, 그가 관장으로 지내고 있는 추리문학관을 찾았다. 문학관은 코로나로 인해 휴관 중이었다. 문학관 1층 카페, 그는 화목난로 앞에서 취재진을 반겼다.

—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일 시끄럽습니다.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김성종 작가(이하 김 작가) : 지금까지 일상을 참 무심하게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태양이 뜨고 밤에는 지는 이 일상을 당연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날이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하루하루 아끼면서 잘 보내야겠다, 고맙게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신문 보고 텔레비전 보고 낮에 산책해요. 여기(달맞이언덕)가 산책로가 잘 조성됐어요. 나이가 들어서 등산은 못 가겠고, 코로나 때문에 멀리ing 못 나가고, 가끔 산책 다닙니다. 낮에 이런 일들 다 하고 나서 틈나면 소설을 씁니다. 책도 보고요.

— 선생님만의 코로나를 건다는 방법이 있는지요?

김 작가 : 사람 만나지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외롭게 앉아서 독서와 창작을 즐기는 거지요. 이럴 때일수록 책을 친구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는 코로나 때문에 책 보는 시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이런 장점도 있더라고요. 내 직업에 도움이 되지요.

지금 생각하면 이 나이에 글쓰길 참 잘했다,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얼마나 좋은 직업을 가졌는가,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 나이에,

지금, 내가 뭐하고 앉았겠어(웃음). 혼자 있지만 많이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이야기를 구상하고, 그걸 글로 표현한다는 거, 직업으로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자유롭고, 창조적이고, 스스로 긍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신문 연재 이어져 집필 또 집필 50여 편 생산…

부산 정착도 그 인연

- 자료를 찾다보니 선생님 작품 수가 많아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오랜 시간 늘 지치지 않고 써오셨는지, 비법이나 요령이 있다면 배우고 싶습니다.



1974년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소설공모 당선작 『최후의 증인』 초고

김 작가: 작품 편수로는 50여 편, 권수로는 100권 정도 됩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쓰지는 않아요. 요즘은 놀지(웃음). 이렇게 작품 수가 많아진 건 내가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문 연재를 많이 해서 그래요. 연재를 맡았으면 매주 마감에 맞춰 의무적으로 써야 하잖아요. 때려죽여도 써야 되니까(웃음). 연재 전에 미리 구상을 해두긴 하지요. 구상한 것을 마감에 맞춰 써가면서 잔가지도 치고, 그러다 보면 완성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 신문 연재가 결국 나를 부산으로 오게 만든 건지도 몰라요.

실제 그는 많은 신문 매체에 소설을 연재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명의 눈동자』도 《일간스포츠》에 약 6년 동안 연재된 것이다. 연재 도중 같은 매체에 ‘추정’이라는 가명으로 『제5열』을 일 년 반 동안 동시 연재하기도 했다.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는 《국제신문》에 연재되던 소설이다. 2015년 발간된 『달맞이언덕의 안개』,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는 《부산일보》에 2014년부터 1년간 매주 단편을 발표해서 만들어진 책이다. 신문연재를 하면 쓸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매주 원고지 기준 50매의 완결된 이야기를 완성한다는 것은 체력이나 정신력 면에서 엄청나게 고된 일이다. 그것도 일흔이 넘는 나이에 1년간 지치지 않고 해냈다는 점에서 존경스러울 정도다. 대단하시다고 감탄을 해도 그는 그저 웃고 만다.



부산으로 내려올 즈음의 김성종 소설가가
표지사진으로 실린 『소설문학』

— 아무 연고도 없는데 부산에는 어떻게 오실 생각을 하셨나요?

김 작가: 1980년, 그 당시 부산일보에 연재를 내리 3개짜 하고 있었어요. 연재 때문에 부산을 자주 다녀갔지요. 그러다 보니 부산이 좋더라고요. 그때 광안리 바닷가에 남천삼익비치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그거 보자마자 아파트 계약하고 80년에 식구들 데리고 내려와 버렸어요. 지금도 그 아파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다들 서울로 가는데 나만 거꾸로 부산으로 내려온 거지요. (웃음)

— 1992년, 한국의 최초 문학관인 ‘추리문학관’을 달맞이 언덕에 세우고 그곳의 관장을 맡아 삼십 여년 가까이 지키고 계십니다.

김 작가: 우연히 여기(달맞이언덕)를 와봤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달맞이언덕을 시에서 주택지로 가꿔만 놔지, 주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이 자리에서 동해 바다만 확 펼쳐져서 보이는데 참 좋았어요. 180평을 사서 건평 500평의 건물을 지었죠. 그때가 92년이었어요. 그 당시 문학관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이 한국 최초의 문학관이지요. 해외에 여러 문학관이 있잖아요. 가까운 일본만 가도 규슈에 있는 마쓰모토 세이초 문학관이 좋았고, 추리 작가는 아니지만 『빙점』 쓴 미우라 아야코 문학관은 팬이 지었거든요. 만 오천 명이 돈을 모아서 그 문학관을 소박하게 잘 지었어요.

내가 추리소설을 쓰니까 그것 관련한 문학관을 짓고 싶었어요. 운영은 삼십 여년 계속 적자입니다.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 문학행사용 비용입니다. 사실 직원 운영비 등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곳 1, 2, 3층을 방문객이 이용합니다. 5천 원 입장료를 내고 차를 마시거나 책을 보면서 이용하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않아요. 4층은 제 집필실이고 5층은 집으로 쓰고 있어요.

해운대에 한국 최초 '추리문학관' 세워 30여 년 운영… '부산문학관' 건립해야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자리한 추리문학관 1층 카페

— 문학관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요즘 '부산문학관'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 언론이나 문학계에서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 작가: 부산문학관, 진작 있었어야 하는데 아직 없지요. 더 일찍 논의했어야 했는데 늦은 편이에요.

부산 작가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문학관이 있어야 해요. 미국에 존스타인 벡 문학관에 가 봤는데 국립이었어요. 문학관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일본에만 해도 지역 이름 붙은 문학관이 많습니다. 시영, 국영이죠.

부산에 작가가 참 많아요. 쓸데없이 아귀다툼 벌이지 않도록 전시 작가 선정을 잘하고 세부규정도 잘 짜서 좋은 장소에 전시장을 멋지게 설계를 잘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해요. 위치도 사람들 접근이 쉬운 곳, 그래서 자주 올 수 있는 곳에 지어야 하죠. 부산문학관 생기면 좋겠네요.

— 부산문학관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셨는데요. 부산시의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 작가: 부산이 제2도시인데 문화, 문학 쪽 지원은 전체적으로 좀 약한 거 같아요. 문화가 시민의식을 끌어올리고, 그런 바탕이 도시를 발전시키잖아요. 그게 부족해요. 문화적인 바람이 불려면, 부산시가 적극 나서서 문

화인들을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창작품을 생산하도록 부추기는 동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습관적으로 일 년 문화 쪽 예산 얼마 책정인가, 그것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예산을 많이 책정하는 것도 아니지요. 필요한 예산이 100이라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10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생색만 내는 것은 아닌가, 싫어요. 프랑스는 예술가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월급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월급을 달라는 말은 아니고요(웃음). 사실 지역출판사도 대개 전멸상태입니다. 말도 아니에요. 만약 시에서 작가의 책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가도 살고 지역출판사도 살고 지역민도 책에 대한 접근이 쉽고, 두루두루 살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이런 부분부터 확 뒤집어놓고 싫어요(웃음).

— 그렇다면 상상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시장 선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시장이 되신다면 문화, 특히 문학은 어떤 기획을 해볼 수 있을까요?



추리문학관

김 작가: 내가 만일 시장이라면 일단 부산을 대표하는 월간지, 안되면 계간지라도 만들겠어요. 부산에는 다들 내용이 참 많은데, 이렇다고요.

부산시는 예술문화계와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각계의 원로들이랄지, 자문할 사람을 좀 부르고 그룹을 만들어서, 일 년에 몇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 의견을 구하면 좋겠어요.

내가 추리문학관에 있는 지 30여년 됐는데 지역 국회의원, 구청장이 방문한 번 안했어요. 부산시 관광지도에는 추리문학관을 넣는데 말이지요(웃음). 해운대구 문화시설이 어떤 상태인지, 점검을 위해서라도 방문을 해서 실상을 봐야 공간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예산을 주거나 하잖아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행사도 자주 열면 좋겠어요. 야심차게 말해서 전국문학인대회, 전국작가대회, 이런 거 부산에서 열고 외국 작가도 초청해서 열면 어떨까요? 추리문학관에서 일본 추리작가 초청해서 강연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추리작가도 초청받아 일본에 가고, 교류를 했거든요. 서로에게 자극이 되니 좋더라고요. 예산 문제가 걸리기도 하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 행사 많이 열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10억 고료’ 장편소설 현상공모하면 수지도 맞을 텐데...”

김 작가: 그리고 부산시가 소설 현상공모를 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세계일보에서 세계문학상 1억 고료를 걸고 공모한 것처럼 말이지요, 내가 만일 시장이라면 장편소설을 ‘10억 고료’를 걸고 해보는 거지요. 금액이 엄청 세고 많은 것 같지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거든. 하지만 이런 공모가 뜨면, 대한민국에 글 꽤 쓴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응모할 거란 말입니다. 시작부터 화제가 되겠지요. 당선작이 나와서 책이 나오면 100만 권 팔리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요즘은 해외로도 나가고 영화로도 만들어지니까요, 수익을 따지면 상금 주고도 남는 장사란 말입니다. 그저 단순히 돈만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이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한국문학에 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학, 소설에 새 기운을 북돋고 무기력한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일 거란 말입니다. 너도나도 다 소설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 시장만 시켜주면 부산 문화를 확, 바꿀 거예요. 신나는 일 많이 할 거라고요. 근데 안 시켜줘(웃음).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고 활발하게 지내려면 여러 행사들을 기획해야겠지요. 지금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워요. 이틀테면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아요. 작가들이 전부 책 들고 나와서 할인해서 파는 거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접근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광복동에서 <밀다원시대> 행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큰 규모로 잘 키워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책 읽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휴대폰이 아니라 책 읽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요.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여전히 창작의 열정과 설렘을 지니고 있음이 느껴졌다. 창의적인 일을 늘 구상하는 모습을 통해 보고 듣는 사람에게도 자극과 활력을 준다. 그가 꺼내는 말들은 모두 끝없이 이어졌다. 장소를 옮겨 4층에 있는 작가의 집필공간에 올라갔다. 넓은 공간에는 책상과 여기저기 흩어진 책들이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통으로 된 창문 유리를 통해 한 눈에 들어오는 바다가 압권이었다. 사방에 바다를 두고 보다가 글을 쓰다 보면 오히려 바다가 없는 것 같다는 그. 날씨가 맑으면 바다 끝으로 대마도까지 보인다는 그의 공간에 서니 그가 이 세계를 얼마나 너른 시야에 담아 보는지 알 것 같았다.

- 선생님이 추리소설을 쓰기 시작하실 때만 해도 ‘장르소설’에 대한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께서는 선생님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하셨습니다. 요즘 소설은 웹 소설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되고 발전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예지에 발표되는 작품도 SF소설, 판타지 소설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이 실립니다. 추리소설 기법도 심심찮게 보이는데요, 젊은 층에서 이런 소설에 열광하기도 하고 직접 써보는 사람도 많이 늘어납니다. 추리소설을 쓰려는 청년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김 작가: 어떤 글이라도 진지하게 접근하고, 진지하게 써야 합니다. 장르소설, 추리소설이라고 해서 진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입견으로 추리소설을 ‘적당히 살인사건 나고, 그냥 적당히 해결하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하면 그 작품은 마냥 가벼워집니다.本格소설이나, 추리소설이나, 문학은 다 같은 문학입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환상문학, SF도 다 좋아요. 하지만 가볍게 접근하지 말고 진지하게, 자기 전력을 기울여서 쓰세요. 겉멋에 장난하듯 가볍게 쓰면 오히려 독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추리문학관 4층에 있는 김성종 작가 집필실

어떤 소설이든 진지하게 접근하고 전력을 기울여서 써야 독자들 호응

진지하게 써야 한다는 말은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을 터다. 글 앞에서 진지해야 하는 태도는 어디서 나온 것인지,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들어보기로 했다.

구레가 고향인 그의 아버지는 스물의 나이에 중국으로 향했다. 장개석 휘하의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가 독립운동을 할 생각이었지만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다. 평안북도 의주가 고향인 어머니가 어떻게 중국에서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는지 과정은 모른다. 그의 부모는 중국 제남에서 13년 동안 살면서 3형제를 낳았고, 해방이 되던 해에 고국으로 돌아와 서울에 등지를 틀고 아이 둘을 더 낳았다. 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 전쟁이 터졌다. 아버지는 제주도로 징용되어 떠났다. 1·4 후퇴 때 어머니 홀로 만삭의 몸으로 다섯 아이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부산과 진해를 거쳐 여수에 당도해 산비탈 초가집을 얻어 겨우 짐을 풀었지만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당시 서른여섯의 어머니는 영양실조에 걸려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간 것이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얼마 후 여섯째 아이를 낳고 열이틀 만에 돌아가셨다. 여섯째 아이도 백일 뒤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징용에서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아기를 껴잡아 한밤중에 산에 올랐다. 산주인 몰래 묻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의 가족은 아버지를 따라 구레로 이사를 갔다.

어머니 장례식 날 나는 구석에 앉아서 『툼소여의 모험』을 읽었는데, 그것을 본 이웃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독종이라고 쭈군거렸다. 그러나 사실 나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얼마 뒤 여섯 번째 아이도 어머니를 따라갔다. 진눈깨비가 몹시 내리던 그날 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아이를 사과 껍데기에 담아 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가 파묻었다.

진눈깨비를 맞으며 산길을 내려올 때 비로소 나는 내가 철학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도 아기도 없는 행한 방안에 앉아서 나는 이제부터 내 밥을 내가 차려 먹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고독과 비애를 어루만져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도 깨달았다. -김성중, 작가의 말, 『어느 창녀의 죽음』(문학예술, 1983), 351-352쪽.

구레에서 지내던 그는 읍내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다녔다. 학교까지 20리 길을 버스가 없어서 걸어 다녀야 했다. 이미 어린 시절 ‘철학자’가 되었으므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씩 걸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했다. 그 생각들은 그의 동경과 꿈을 영글게 했다. 특히 앙드레 말로의 작품을 읽으며 ‘말로 같은 작가가 되겠다.’ 맘먹기도 했다. 앙드레 말로가 그랬던 것처럼 정치를 하고 소설도 써야겠다는 생각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 들어갔다. 그의 삶 또한 소설 같았다. 장르소설을 펴내던 시대에도 스스로의 작품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아마 삶을 소설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일 터다.

— 등단 후 지금까지 쉽 없는 글쓰기를 하며 지내오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 작가: 한국전쟁에 관련된 대하소설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은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에 대한 소설들이 있지만 길고 자세하게 쓴 작품은 많지 않아요.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일입니까. 나라가 거덜이 나고, 사람 수백만이 죽었는데 그걸 장대하게 펼친 작품이 없어요. 중국은 한국전쟁을 두고 ‘항미원조’, 미국에 저항하고 조선을 원조한 전쟁이라고 미화하던데 내 보기에 그건 침략전쟁입니다.

1·4 후퇴 때 우리 가족들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결국 엄마가 돌아가시고 여섯째 아이도 죽었습니다. 그 비참함은 말도 못합니다. 내가 직접 겪었던 그 전쟁, 내가 죽기 전에 그걸 소설로 쓰고 싶어요. 현재 전쟁을 겪은 세대가 거의 다 죽고 없습니다. 내가 10살에 겪었으니 마지막 세대라고 부르겠지요, 내가 기억하는 것을 다 쓰고 싶어요. 10권이 될지, 20권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두 권으로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바다를 향해 앉아 집필하다 보면 오히려 바다가 없다고 느낀다는 그 이런 역설로 의미를 찾는다면 한밤중에 묻었다는 껍데기에 담긴 아기는 아직 그의 마음에 남아 살아있을 것이다. 많은 작품을 썼지만 아직 그에게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다. 그가 목표로 한 소설이 빨리 완성되길 바라며 인터뷰를 마쳤다.

김성종 소설가 프로필

196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경찰관』이 당선돼 등단했고 1974년 《한국일보》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소설공모에 『최후의 증인』이 당선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80년대를 풍미한 최고의 대중문학가이자 국내 최고의 추리소설가로 명성을 날렸다. 1980년 부산으로 이주했고, 1992년 해운대 달맞이언덕에 국내 최초의 문학관이자 유일한 전문 추리문학 도서관인 ‘추리문학관’을 세웠다. 약 50여 편의 소설, 100여 권의 책을 펴냈다. 장편소설에는 『최후의 증인』, 『어명의 눈동자』, 『제5열』, 『국제열차 살인사건』, 『봄은 오지 않을 것이다』, 『후쿠오카 살인』, 『늑대소년 다루』, 『달맞이언덕의 안개』, 『해운대, 그 태양과 모래』, 『계엄령의 밤』 등이 있다. 한국추리문학대상, 봉생문화상, 부산시문화상, 부산MBC문화대상 등을 수상했고,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장, 부산소설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

“코로나 시대 칩거…책 읽고 글 쓰며 세월 낚고 있습니다.”



늦깎이 소설가와 전 국립대 총장. 뭔가 어울리지 않을 듯싶은 조합이다. 그런데 이 둘을 멋들어지게 조화시킨 80대 노익장이 있다. 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 그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시인·수필가·문학평론가, 기자, 대학교수, 문화행정가를 두루 거쳐 80대 중반인 요즘엔 소설 집필에 공을 쏟고 있다. 가히 열정의 아이콘이다.

그는 일흔이 훌쩍 넘어 새내기 소설가로 정식 등단했다. 남들이 부러워할 경력을 쌓은 그가 세월을 벗삼아 여유롭게 지내도 좋을 노년에 의연히 소설 입문의 용기를 냈다. 계간문예지『문예연구』제61회 신인문학작품 공모전 소설 부문에 응모해 당선됐다. 수상작은 독거노인 문제를 다룬 단편소설 「풍장의 꿈」 이 작품을 비롯해 아홉 편의 단편소설을 엮어 2019년 9월 『따로 쓰게 된 망』을 출간했다. 이들 작품은 한국 사회가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는 노년 문제를 담담하고도 단단한 시선으로 파고든다. 본인이 노인 이기에 이러한 문제의식이 더 절절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온다.

그는 아이디어가 풍부했고 추진력도 강했다. 부경대 총장 시절 '2002년 한·일 월드컵(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조선통신사(朝鮮通信使) 행렬을 재현하자고 부산시에 제안했고,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성사시켰다. 조선통신사는 세종 때부터 조선에서 일본의 막부(幕府) 장군에게 파견되었던 공식적인 외교사절이다. 그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될 때 한국측 학술위원장으로 중심 역할을 했다.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그의 첫 장편소설 『유마도』(2017년 10월 출간)를 낳았다.

그는 젊어서 《부산MBC》와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했고, 1974년 『시문학』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한 후 10권의 시집과 4권의 평론집을 낸 문단의 원로이다. 1978년 불혹 즈음에는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도 모교 부경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2000~2004년 총장을 역임했다. 2009년 1월 부산문화재단의 초대 대표이사에 취임, 2년간 민간 주도 문화행정의 초석을 다졌다. 다양한 이력을 지녔고, 평생 간직했던 꿈이었던 소설을 쓰며 향기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는 그의 근황과 이야기를 듣기 위해 별 좋은 만찬에 바닷가 찻집에 모셨다.

—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계속 소설을 쓰고 계시는지요?

강남주 전 총장(이하 강 총장) : 코로나 시대 제 생존전략은 칩거입니다. 불가피한 모임을 빼고는 집에서 책 보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하루 세끼 집밥을 먹는 '삼식이' 생활을 하고 있지요. 요즘 조선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끌려간 도공이 깊은 산속에서 도자기를 만들며 고국을 그리워하는 이야기를 다듬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힘없는 백성의 비극적 삶이 모티브가 됐지요.

— 75세에 늦깎이 소설가로 등단하신 후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집을 출간하셨습니다. 평생 시인·수필가·평론가로, 교육자로, 문화행정부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일흔을 훌쩍 넘어 어떻게 소설가로 데뷔하게 되셨나요?

강 총장 : 고교 시절부터 시와 산문을 썼고, 백일장이 열리면 공부 제쳐놓고 달려갔습니다. 여러 번 입상도 했습니다. 시인으로 등단을 먼저 했지

만, 어릴 적부터 소설 쓰기를 갈망했습니다. 호롱불을 켜놓고 밤새워 톨스토이 작품을 비롯한 소설 책을 읽느라 코밀이 새까매지곤 했지요. 그러나 소설을 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직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그럴 틈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 정년퇴직한 이후에도 부산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일을 맡는 등 사회활동이 이어졌는데, 일흔이 넘어가니 한층 여유가 생겨 오래오래 가슴에 식여온 소설 쓰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굳이 소설가로 다시 등단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한국의 문단 풍토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인이나 소설가로 활동하려면 신문사 신춘문예나 문학잡지 등단 과정을 밟아야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칠십 이 세 때 신춘문예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는데, 칠십 오 세 때 문예잡지를 통해 소설가 명찰을 달게 됐습니다.

— 소설가 등단 작품 『풍장의 꿈』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 총장: 상처 후 독거노인이 된 주인공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는 소문이 돌자 객지에 사는 딸과 아들이 아버지를 노인요양시설에 입원시키려고 찾아오면서 주인공이 겪는 심리 변화를 그려보았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생의 회두로 마주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성찰과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상처 후 홀로 지내는 자신의 거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식들과의 긴장과 갈등을 통해 죽음에 대한 철학을 예비하는 모습이 절실하면서도 몽클했다”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지금처럼 혼자 살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남매는 일단 대책을 논의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대책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역시 최선은 혼자서도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게 뭐냐. 가장 손쉬운 것이 노인 요양시설 같은 데로 보내는 것이었다. ~~~

기왕이면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전에 요양시설로 옮기자. 마음을 다잡으니 갑자기 흥기분한 기분이 따스한 목욕물처럼 전신을 감쌌다. 삶이란 원래 그런 행로인 것을 뭐 구차하게 이 세상 나머지 삶에 매달리고, 억울해할 것인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것이 삶의 행로인 것을.”-『풍장의 꿈』中



2017년 10월 펴낸 강남주 장편소설
『유마도』



2019년 9월 펴낸 강남주 단편소설집
『따로 쓰게 된 방』

75세 때 『풍장의 꿈』으로 늦깎이 소설가 등단…

고독, 질병, 가족 갈등 등 노인의 삶과 죽음에 관심

— 첫 단편소설집 『따로 쓰게 된 방』에는 「풍장의 꿈」을 비롯해 모두 아홉 편의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일관되게 우리 사회의 노년 문제를 짚고 계시군요?

강 총장 : 나이가 들어 그런지 노인의 고독, 질병, 가족 간 갈등, 재산문제 등 노인의 삶과 죽음이란 주제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우리 세대는 말할 것도 없고, 서서히 노년 대열로 들어서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들도 노인 문제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의로기술 발달로 100세 인생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 베이비부머들은 우리 세대보다 더 긴 노후를 보내야 하겠지요. 한국보다 앞서 고령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은 『하류노인』, 『과로사회』, 『노후파산』 같은 책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만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나라도 외롭고,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노인들의 삶이 어둡고 우울할지라도, 소설의 소재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설은 현실의 거울이기 때문이지요.

요즘 젊은 세대는 스마트폰 세대이다 보니, ‘손편지 없는 사회’가 되고 독서량도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읽을거리가 줄어들고 글쓰기도 쇠퇴하는 현상이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읽고 싶고,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을 텐데… 노인들이 공감할 만한 노년의 빈곤, 고독, 질병, 가족 갈등, 죽음 같은 문제를 다룬 소설을 내가 한번 써보자는 생각들이 계기가 되어 한 편, 두 편 쓰다 보니 9편의 작품이 쌓였습니다.

표제작 『따로 쓰게 된 방』은 노년 부부가 따로 방을 쓰면서 시작되는 여러 갈등이 이야기의 주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노년 부부는 한동안 각방을 쓰다가 우연히 돌연사 뉴스를 본 후 다시 방을 함께 쓰기로 하는데, 삶의 대부분을 함께 한 부부의 합방 이유가 죽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오지요. 다른 작품들도 노인 문제와 ‘죽음’을 다룬 노인 이야기입니다.

- 앞서 말씀하신 ‘100세 시대’에는, 노후 준비를 잘하면 장수가 축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강 총장 : 100세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사회체제는 여전히 ‘80세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시스템도, 우리 개개인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100세 사회’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제가 장수 문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100세 시대에는 건강한 삶-안정적인 삶-풍요로운 삶-일하는 삶, 모두 고루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전 한 인터뷰에서 풍요로운 노후의 해법으로 3H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취미(Hobby)-인간관계(Human)-건강(Health)이 그것입니다. 물론 노후자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비(非)재무적인 3H만 잘 챙겨도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나이 들었다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같은 걱정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머리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과 취미를 살리고, 새로운 일을 목표로 뭔가를 부단히 시도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일흔 넘어 어릴 적 꿈이던 소설 쓰기에 도전한 것도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를 통한 취미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면 말벗도 생기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장수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가족 외에도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하겠지요.



강남주 전 총장은 어릴 적부터 운동을 좋아했다. 사진은 태권도복을 입은 고교생 강남주

건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좋아한 덕분에 건강은 별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중 2때 태권도에 입문해 공인 5단이 되었고 지난 62년에는 국제심판 자격까지 땀지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앉은 채 심호흡을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일종의 복식호흡이지요. 그런 다음 목과 어깨를 돌리고 손발도 비벼봅니다. 유튜브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 같은 걸 틀어놓고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20여 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 후에는 아내랑 손을 잡고 장산 대천공원 호수를 한 바퀴 돌고 오면 대략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파트 이웃들은 늙은 부부가 손잡고 가는 게 참 보기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든 넘은 부부인지라 혼자 걷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서로 손을 잡는 게 일종의 자구책이지요(하하). 그런 다음에는 책 보고 시를 쓰거나 소설을 씁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 좀 엉뚱한 질문입니다만,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하시면 소설에서 많이 다루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지요?

강 총장 : 어휴, 아닙니다. 가능한 한 건강하게 살다 가지는 거지, 늙으면 병들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건 숙명이지요. 유병기간을 줄이자는 거지, 죽음 자체를 누가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담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품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궁상스럽게, 어둡게 살지 말자는 것이지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노후생활 하면서까지 자식에게 돈 보태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 받고 사는 저보다 훨씬 잘사는 제자를 만나도 밥값은 제가 내지요.

— 첫 장편소설 『유마도』는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 집행위원장 활동을 하시면서 구상하신 걸로 압니다. 어떻게 조선통신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강 총장 : 『유마도』는 조선통신사 사행길의 기선장이 되어 대마도(쓰시마)로 향한 동래 화가 변박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가 일본의 호넨지에 남긴 그림 ‘유마도’의 비밀을 파헤치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선통신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4년 무렵입니다. 그때 일본에 남겨진 우리 문화를 연구하

기 위해 쓰시마에 갔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관심 밖이던 조선통신사 행렬을 일본인들이 재현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후쿠오카 대학에 외국인 연구원 자격으로 국제교류센터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쓰시마를 방문했지요. 그러면서 꾸준히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웠을 때 부산시에 기념 이벤트로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월드컵 대회는 역사상 최초로 두 나라의 공동 개최 형태로 치러졌지요. 그런 상황이 임진왜란 이후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조선과 일본 양국 선조들이 조선통신사를 통해 '성신교린(誠信交隣 : 서로 속이지 않고, 다투지 않으며, 진실로써 교류하는 것)'을 다진 정신과 통한다고 봤습니다. 부산 여론이 모여져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가 발족하면서 집행위원장을 맡았지요. 초기에는 행렬 재현에 치중하다 문화교류행사로 확대되었습니다. (강 총장은 한·일 문화교류 및 우호친선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09년 일본의 외국인 서훈인 욱일중수장을 받았다. 일본 정부가 400년 전 조선-일본 간 우호 협력을 이끈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되살린 그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 조선통신사 기록물이 201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에 등재될 때 한국측 학술위원장으로 중심 역할을 하셨지요?

강 총장 : 기록에 의하면, 조선통신사는 1404년(태종 4) 조선과 일본 사이에 교린관계가 성립되자, 조선국왕과 막부장군은 양국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외교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절을 각각 파견했습니다. 이때 조선국왕이 막부장군에게 파견하는 사절을 통신사, 막부장군이 조선국왕에게 파견하는 사절을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했습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조선이 임진왜란이 끝난 뒤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200여 년간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으로 일본에 12차례 파견한 외교사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당시 조선통신사는 300~500명으로 사절단을 편성했고, 한양에서 출발하여 부산에서부터는 대마도주의 안내를 받아 대마도에 갔고, 이어 시모노세키와 오사카, 교토, 나고야를 거쳐 도쿄까지 갔다고 합니다. 왕복에 6개월~1년이 걸리는 긴 여정에서 60여개 지역을 방문했고, 머무는 지역마다 일본 지식인들과 교류하며 서화·시문 등 많은 작품을 남

졌습니다. 이렇게 쌓인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은 한·일 양국의 외교 문서, 여정 기록, 문화 기록, 서화 작품 등 총 111건 333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측 자료가 63건 124점, 일본 측 자료는 48건 209점이지요.

일본 지식인들은 조선통신사 사절단과의 교류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활용하였고, 양국의 관계 개선은 물론 동아시아 정치 안정 및 평화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한국과 일본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했다는 점, 나아가 한·일의 중앙정부가 아니라 민간 단체들이 주도하여 성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니다.

한·일 관계 악화 걱정…조선통신사 ‘성신교린’으로 풀었으면

— 한·일관계가 해묵은 갈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조선통신사 사업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강 총장 : 현재 한·일관계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통신사가 오가던 시절보다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 간에 이익 상충이 빚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얼음장 밑으로도 물이 흐르듯이 외교 경색, 경제 경색 상황에서도 문화 교류는 이어져야 합니다. 조선통신사가 역사의 좋은 가르침이지요. 과거 역사는 현재의 문화로 거듭나야 하고, 국가 간에도 문화의 길은 늘 트여 있어야 합니다. 2017년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 달라고 공식 신청할 때 일본측 학자들과 공동작업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왼쪽부터)강남주 전 부경대 총장, 남송우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마츠바라 가즈유키 조선통신사 일본연구지협회 이사장, 학술위원장 나가오 히로시 전 교토예술대학 교수가 ‘쓰시마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부경대 제공)

또 한·일 갈등의 장기화를 민간 차원에서 막아보려고 2019년 10월 30일 '조선통신사 기록유산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2주년을 기념해 채택한 '쓰시마 선언(Tsushima Declaration)'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한국 측은 조선통신사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장 남송우 전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과 학술위원장이었던 제가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는 당시 추진위원장 마츠바라 가즈유키 조선통신사 일본연고지 협회 이사장과 학술위원장 나가오 히로시 전 교토예술대학 교수가 참석해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4명은 선언문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한국과 일본은 지난 수 세기 동안 국가주의에 빠져 갈등을 되풀이했다. 어떤 이유라도 두 나라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보장해 주는 것 이상의 가치는 갖지 않는다. 조선통신사 일본 상륙 최초의 땅 쓰시마에서 성신교린의 실천을 위하여 간단없이 노력해 줄 것을 두 나라 정부에 요청하며, 우리 스스로도 이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이나 부산·후쿠오카 포럼 개최 같은 문화 교류, 학문 교류가 지속되고 확산되면 경색된 한·일관계에도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00년대 들어 '부샤후 플랜(PuShaFu Plan)'을 주창하셨지요? 부산, 상하이, 후쿠오카 3개 도시가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 협력 방안인데, 지금도 그런 방식이 유효할까요?

강 총장 : 1998년 동북아문화학회를 결성했고, 2000년 부경대 총장이 되고서 '부샤후 플랜'을 주창했었지요. 동아시아 국가의 주요 항구, 세 도시를 잇는 동북아 학문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상하이 교통대의 고문교수로 위촉받기도 했습니다. 2002년에는 한·중 수교 10주년을 기념해 부경대-중국 인민대 학생들이 공동참여한 대학생 대장정 프로그램 '한라에서 장성까지'를 진행하며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때 인민대학 명예교수로도 위촉받았습니다.

최근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 관계가 여러 모로 삐걱거리는 모양새라 안타깝습니다. 한·일관계 해법도 그렇지만, 한·중·일 관계도 문화 부문과 학문 부문의 교류를 활성화하면 외교적 경색이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 부산에서 국립대학 총장으로 봉직하셨는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강 총장 : 대학의 위기, 참 답이 없어 보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저출산 문제가 저변에 깔린 고질병이라 해법이 쉽지 않지요. 시급히 되살려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대학의 자율성입니다. “대학의 공기는 자유롭다”는 명제는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을 장악하고 입맛대로 요리를 하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대학이 살아나려면 무엇보다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이 특성화를 통한 인재 육성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부실한 대학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 부산문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는데, 부산 문화에 대한 진단은 어떠합니까.

강 총장 :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밥은 사람에게 몸의 무게를 늘려주지만, 문화는 정신의 무게를 더해줍니다. 부산 문화 함양의 핵심 역할을 부산문화재단이 맡아야 합니다. 문화정책 수립부터 시민들의 다채로운 문화 향유 방법까지 부산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건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1973년 강남주(맨 오른쪽) 전 총장의 첫 시집 출판기념회 모습. 서 있는 분이 축하의 말씀을 하시는 요산 김정환 선생이며 중간에 앉아 계시는 분이 향파 이주홍 선생(강남주 전 총장 제공)

정치, 경제, 행정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중앙집권화가 심한데, 문화도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문화예술 부문 예산이 특히 그렇지요. 부산이 제2도시라지만 서울과 문화 격차가 상당합니다. 낙후된 지방 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합니다. 갈 길이 멀고 험하지만, '문화도시 부산'을 향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참, 부산국제영화제도 아시아 영화제 한계를 뛰어넘어 세계적 영화제로 도약하면 좋겠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 칸은 칸영화제가 없다면 누가 알기나 하겠습니까.

— 끝으로 젊은 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강 총장 : 자기 세계를 구축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공부를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영수(國英數)를 잘해서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 게 아니지요,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내재된 재능을 찾아 끊임없이 정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꼭 그들처럼 유명인이 아니라도, 저마다 지닌 재능을 잘 찾아서 피나는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력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부모들도 학교 공부만 하라고 부추기고 욕박지를 게 아니라 자녀들의 재능과 재질을 찾아 복돋워 줘야 부모와 자식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글 : 장지태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 소장

강남주 전 총장 프로필

부산수산대(現부경대)를 졸업하고 부산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부산MBC》와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부산수산대 교수, 부경대 총장을 역임했다.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과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 등재 한국 측 학술위원장을 맡았다. 1974년 『시문학』 추천이 완료되어 시인으로 활동했으며, 2013년 『문예연구』 신인 소설상에 당선되었다. 저서로는 『흔적 남기기』 등 시집 10권과 평론집 4권이 있다. 국민훈장 청조장과 부산시 문화상(문학부분), 봉생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地域社會(지역사회)』2호를 펴내며

반년 만에 『地域社會(지역사회)』 2호를 발간한다.

지난해 6월 창간호를 펴내고 맞은 여름방학 때부터 2호에 뭘 담아야 하나, 고민이 이어졌다.

창간호에서 전문성과 대중성 두 마리 토끼를 겨냥한다고 공언했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했다.

명색이 편집인이라 머리를 싸매며 2호 콘텐츠 초안을 만들었고, 9월부터 수차례 도시락 편집 회의를 했다.

잡지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커버 스토리」가 난항을 겪었다.

월간지도 아니고, 일 년에 두 번 내는 잡지인데, 뭔가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주제가 필요했다.

회의를 거듭한 끝에 '차기 부산시장의 역점 과제'라는 주제가 어렵사리 정해졌다.

취지는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차기 부산시장의 시정에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핵심 현안들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담자는 것이다.

열 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야가 다양하고 저명 필자를 찾다 보니, 필진 섭외에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커버 스토리」에 해당하는 <지역연구 특집 1>은 물론 <지역연구 특집 2>를 비롯한 다양한 기획의 여러 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전국적인 명성을 지닌 원로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웅숭깊은 애정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신 강병중 회장님, 강남주 총장님, 김성중 작가님께 특별한 존경을 표하고 건승을 기원드린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신문고, 나침반 역할을 하고

우리 지역이 정보 발신 기지로 되는 데 일조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신발 끈을 고쳐 매야겠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꽃을 피우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 그런 나라가 열리도록 부·울·경이 수도권과 쌍두마차 역할을 감당해 낼 수 있길 소망한다.

더불어, 얼음장 밑으로 물이 흐르듯, 코로나19 고난 속에서도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길 기도한다.

장지태 본지 편집인



학교 발전기금 안내

『지역사회』는 동서대 지역사회연구소가 연간 2회 발간하는 잡지로, 학술 및 연구자료로 활용됩니다.

동서대의 인재 양성을 격려하기 위해 학교 발전기금을 후원하시는 분께는 가정이나 지정하신 곳에서 발행과 동시에 신속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동서대 발전기금 계좌 농협 1275-01-004828

문의처 Tel. 051-320-1500



대학개념 선언

이런 대학 없습 니다

교육시스템이 새로워집니다

1. 혼합형 수업으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학습을 실현합니다
2.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곳에서 실험실습이 가능합니다
3. 체험형(AR/VR) 온라인 강의콘텐츠 개발과 가상현실 수업을 구현합니다
4.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으로 기본을 다지는 학습코칭이 이루어집니다
5. 해외현장까지 연결하는 온택트 체험교육이 실시됩니다
6. 세계적인 석학들을 캠퍼스에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교육콘텐츠가 달라집니다

7. 해외 명문대학강의 콘텐츠 및 우수교육콘텐츠를 수업에 활용합니다
8. Q College의 X-Class를 통해 세상에 없는 창의융합교육이 이루어집니다
9. 4차산업을 선도하는 전교생 AI 메이커·디자인교육을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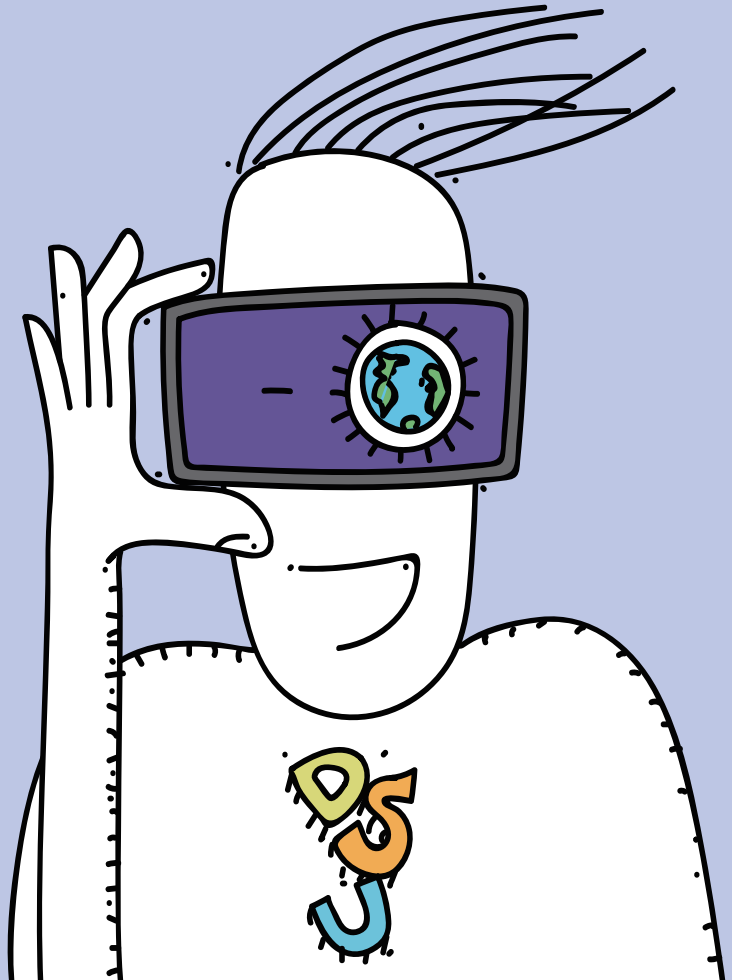


글로벌로 앞서갑니다

10. 해외10개 거점 도시에서 글로벌 현장체험 프로젝트가 펼쳐집니다
11.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현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2. 우수 교육과정 수출과 유학생 유치로 글로벌 캠퍼스가 됩니다



동서대학교가
앞서 실천하는 미래형 대학



동서대학교에서 내일의 나를 꿈꾼다

미래형대학을 선포한 동서대학교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실현합니다
혁신적인 강의 시스템으로 융복합 교육을 구현하고
각자의 가능성을 열어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T.H.E. Only O.N.E. 교육

개인의 역량에 따른 수준별 맞춤교육과
체험과 융합을 통한 다양한 경험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셀프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T

Talent
달린트 교육

H

Hybrid
융합 교육

E

Experiential
경험학습

Only

Only
브랜드
프로그램

O

Open
개방형
교육지원체계

N

Nurture
총체적
학생지원

E

Evaluation
데이터기반
평가관리